

五洲衍文長箋散稿

오주연문장전산고

만물편 / 총어류

萬物篇 / 蟲魚類



魚 [어]

이규경(李圭景) 지음



전병철(全炳哲)

이규필(李圭弼) 역주

주강현(朱剛玄) 해설

魚

권병철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이자 경상남도 봉산문화문화재단원,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대산 이상정 심리철학의 회통적 성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남명의 심학》과 번역서로 《두류견지》가 있다.

이규필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삼관권대학교 한문학과에서 <19세기 노론 낙죽의 고문대수 김예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국의 차문화 청년》 시리즈, 《두명자검(無名書集)》, 《향산검(無山集)》 등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출판 주상철
기획 이광희, 이경희
권행 권유리, 박승주
역자 권병철, 이규필
재세 주상철
교정 권유리, 박승주, 차승희

제작 및 디자인 스티크스튜디오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발행인 국립해양박물관 www.knmn.or.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대표전화 051-309-1900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19

ISBN 979-11-78805-29-4 93030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발행하거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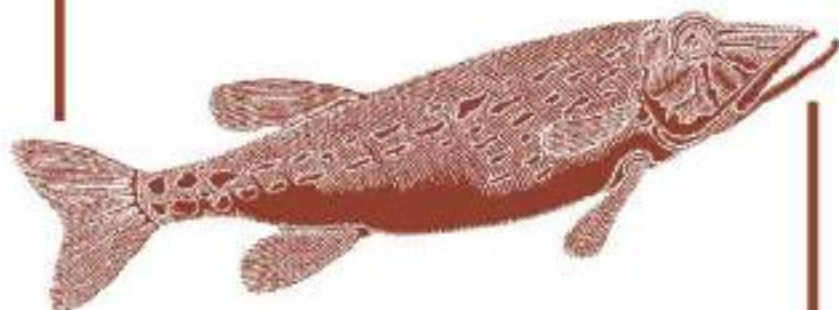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五洲衍文長箋散稿

오주연문장전산고

만물편 / 중어류

萬物篇 / 蟲魚類



魚 [어]

이규필(李圭弼) 지음



권병철(權炳徹) 역주
이규필(李圭弼) 역주
주상철(周相哲) 역제

《오주연문장전산고》(어류편)

국역 출간의

배경

이 책의 발간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를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문화재단'에서 해양문화 부문의 책임을 맡아 일하던 중 국역 작업을 선형적으로 시도한 일이 있었다. 현대인이 읽기 어려운 해양수산 고전을 번역하여 해양문화사의 역사적 지평을 넓히려는 뜻이었다. 그 과정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어류편)이 채택되었다. 《자산어보(茲山魚譜)》, 《우해어어보(牛海異魚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가 이미 국역된 마당에 아직 간행되지 않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가 채택된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일찍이 민족문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서 1967년부터 번역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역이 아닌 발췌 국역이었다. 민추위에서는 '어류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는지 누락하였다. 이에 국역료를 책정하여 1년에 걸쳐서 '어류편'을 원역하였다. 그러나 출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역 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

당시 재단 책임자의 몰이해 탓에 인쇄 발간비 확보가 무산되었다. 끝내 국역만 되었고 발간은 하지 못하였다. 역사 사료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다.

2018년 여름, 박물관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이 미간행 원고가 문득 떠올랐다. 소중한 국역이 사장되었음을 떠올린 것이다. 국역을 추진했던 해양문화재단은 해체되어 해양재단으로 통합된 상태였기에 국역 관련 권은 공중에 떠 있었다. 다행히 국역본 파일을 갖고 있었다. 진주로 가서 당시 초역을 맡았던 경상대학교의 전병철 교수를 만났다. 국역자 역시 10여 년이나 뒤늦은 '만시지탄' 밤간에 동의하였으며, 일부 누락본이 있음을 밝혔다. 추가 국역이 이루어졌다. 이에 마침내 출간에 이르렀다.

발간사 대신 국역 출간 과정의 복잡한 과정을 상세히 밝힘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고전 국역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알리자는 뜻도 있다. 짧게나마 해제를 붙여서 이 책의 국역 의의를 더해본다. 이규경의 학문적 핵심은 단연 박물학이다. 그는 기존의 성리학적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물을 탐구하고 이를 유서(類書)로 분류하여 방대하면서도 체계 있게 서술함으로써 '박물고증학'의 전범을 열었다. 그의 서술 방식은 박물관이 지향하는 박물관적 장기 지속성과 일맥 상통하는 면도 있다. 그의 글이 국립해양박물관의 국역 목록에 오른 것은 자축할 일이다.

를 간행한 적이 있다. 옛것을 혁신해서 바라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이어짐 없이는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소장 유물 등의 다양한 고전 해제와 국역 작업을 행하여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문화의 역사적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출간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역자 전병철 교수와 이규원 교수, 학술연구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국립해양박물관장 주장현

4 발간사에 대신하여

10 해제

1부 풀이

24 물고기 변증설(魚辨證說)

76 망어가 태화한다는 변증설(望魚胎化辨證說)

78 금어와 화어에 대한 변증설(金魚花魚辨證說)

84 비어(넙치) 변증설(飛魚辨證說)

88 좌어 변증설(坐魚辨證說)

100 신어(드렁허리) 변증설(鯽魚辨證說)

106 오명동(망둑어)과 수집어(붕어)에 대한 변증설(烏名洞水結魚辨證說)

110 경어와 악어에 대한 변증설(鯨魚辨證說)

122 예(鰐), 인어(人魚), 원등(原燈)에 대한 변증설(鰐人魚源燈辨證說)

128 용어(龍어) 변증설(龍魚辨證說)

134 온어(鰻어) 변증설(鰻魚辨證說)

138 북어 변증설(北魚辨證說)

142 후어(두구개) 변증설(黃魚辨證說)

148 건질(가다랑어포)과 주도(순도복)에 대한 변증설(鯨節酒盜辨證說)

152 가지, 강치, 해마, 용왕에 대한 변증설(嘉支強治海馬龍王辨證說)

156 용 변증설(龍辨證說)

186 용은 새끼를 아홉 마리 낳는다는 설에 대한 변증설(龍生九子辨證說)

190 용의 문무를 논한 변증설(論龍文武辨證說)

196 용은 난생이고 호랑이는 태생이라는 설에 대한
변증설(龍卵虎胎辨證說)

202 칙목(여의주) 변증설(尺木辨證說)

206 주주 변증설(珠珠辨證說)

216 거북 변증설(龜辨證說)

228 오총귀 변증설(五總龜辨證說)

232 해분모 변증설(海粉母辨證說)

236 계가 목숨을 구걸한 짐승에 대한 변증설(蟹乞救命辨證說)

240 해경 수모 변증설(海鏡水母辨證說)

246 자고 변증설(蟻結辨證說)

260 하돈(복어) 변증설(河豚辨證說)

266 염사와 상사사에 대한 변증설(蜃蛇相思蛇辨證說)

274 뱀의 피가 뼈대를 치료한다는 변증설(蛇血同骨辨證說)

280 해구(붕개) 변증설(海狗辨證說)

288 해산 변증설(海參辨證說)

296 계락(적구)조개 변증설(繼殼積殼蛤辨證說)

302 오만동 삼천족 변증설(五萬洞三千足辨證說)

306 부록

수산서의 공백을 채워줄
또 하나의
어류 연구 국역

1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이규경(李圭景)의 호 '오주(五洲)'와 겸손함을 담은 '거친 문장'이라는 뜻의 '연문(衍文)', 문장의 형태를 말하는 '장전(長箋)', 흩어진 원고라는 뜻의 '산고(散稿)'가 합쳐진 말로, 제목에서부터 백과사전임을 드러낸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 서문에서 오랜 기간 책에서 얻은 것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을 모아 제목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 저술은 총 60권 60책으로 구성되는데, 1416개에 달하는 모든 항목을 변증설(辨證說)로 처리하여 서밀한 문체까지도 고증학적 학문 태도로 일관한 것이 특징이다.¹

이규경의 본 책 서술은 《지봉유설(芝峯類說)》, 《유원총보(類苑叢寶)》, 《성호사설(星湖集說)》 등의 백과사전 편찬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 저술에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보려는 당대 지식인의 학문과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규경은 조부인 이덕무가 사

1 김재식,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저술 성향》, 《동아시아고대학》 26, 2011.

행을 다녀오고 규장각에서 일한 덕분에 다양한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명과 청을 통해 수입된 서책 정보와 이들 나라의 축적된 지식이 백과사전 저술에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국내의 백과사전 또한 이후 저술에 참고가 되었다. 《지봉유설》의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증적이고 박학한 경향은 《성호사설》이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 저술은 지봉을 확대, 개편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박학과 고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제도에 대한 항목을 다수 수록하여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혼용한 저술이라는 주장도 있다.² 이규경이 자신의 조부로서 박람강기한 이덕무의 《정장관전서(南莊館全書)》에서 배운 것이 많았음도 충분히 이해된다. 당대에 유행하던 명·청의 학문적 유산이 이규경의 저술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며, 실제로 본 책 어류편에도 중국의 지식이 흡수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해의 서적만을 참조한 것이 아니라 방대한 조선 서적도 참조하였으며, 학문 연구와 저술에서 매우 개방적 태도를 취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수입 지식'과 '주체적 지식'을 적절하게 융합한 학자로 여겨진다.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의 허훈 실장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근대적 문헌의 시원을 열었다'고 표현한다.³ 19세기 중엽에 저술됨으로써 실학 문헌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도 근대적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학

2 신병구, <조선 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오주연문장전산고>, 《진단학보》 121, 2014, 113쪽.
3 허훈,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문헌의 시원을 열어놓은 오주연문장전산고>, 《국제고려학회논문집》 6호, 2005.

문헌에서 진행해오던 유서(叢書)의 분류 형식을 총화하였다고 보았다. 그가 수행한 유서의 분류는 그 이전 문헌에서 미분화된 도식적 분류법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합리적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문헌사 발전에서 좀 더 높은 단계에 들어선 분류 방법이었다고 하였다.

2

이규경의 저술은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名物考證學) 혹은 명물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명물학은 18세기 학풍의 새로운 면모라는 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명물학은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송학(宋學)의 철학적 기반에서 시작하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만물 연구를 추구하는 박물학적(博物學的) 풍모도 띠게 된다.⁴ 평생에 걸쳐 이규경의 학문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박물학이다. 그의 박물학은 기존의 심성 내지 가치 중심의 성리학적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섭렵했던 점에 특징이 있다. 그는 성리학을 신뢰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박물학에서 성리학은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규경은 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였겠지만, 그의 박물학은 성리학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었다.⁵ 당대의 학인 사이에서 박학풍(博學風)에 매료된 인물로는 서유구, 정약전, 이규경 등을 꼽을 수 있

4 노상호, <조선 후기 공물에 대한 지식과 기록>, 《한국학연구》 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7쪽.
5 노대환, <오주 이규경(1785-1860)의 학문과 직성사적 위치>, 《진단학보》 121, 2014, 201쪽.

을 것이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서술하여 수산서 서술의 획을 그었고, 이규경도 백과전서 형식의 편찬이지만 '어류편'을 서술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다루는 영역은 대단히 넓을뿐더러 경험적 지식을 넘어 자신의 상상과 주관적 견해가 덧붙여진 부분이 많아 전문 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編)》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더 정확성과 전문성이 높고 당대에 실제 생활과 관련한 실용 서로서의 가치가 높았다는 주장이다.⁶ 그러나 《오주서종박물고변》은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총량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오주연문장전산고》 내에도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상대적 비교는 전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규경이 학술의 집대성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물의 이름과 시말을 밝히려는 학문 자세, 박학다식함을 열망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기목 정신, 실용과 위민(爲民)의 학문 방향, 지식에 대한 열망과 해외 학술의 넓은 수용, 자신의 견문을 통한 시대의 증인, 서술 양식으로 변증설을 선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규경의 변증설은 명물도수(名物度數)의 바탕에 고증학의 방법론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규경을 박물고증학자로,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박물고증서로 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규경은 다양한 서적에서 증거를 끌어와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

다. 국내의 서적에 관계없이 널리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청의 방대한 서적, 한역 서학서(西學書), 《화한삼재도회(和漢三材圖會)》 같은 일본 책까지 편견을 두지 않고 받아들여 활용하였다. 한편 이규경은 생애의 절반을 향촌에서 보내면서 스스로 얻은 견문과 최근 정보까지 수록하였으므로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통해 조선 후기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⁷ 본 국역 《오주연문장전산고(어류편)》 역시 당대의 어류 지식을 다양한 통로로 수집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수산학 발전은 19세기 초에 이르러야 본격화된다. 19세기 초에 등장한 《우해이어보》, 《자산어보》가 1801년(순조1) 일어난 신유교난(辛酉教難)이 계기가 되었다는 기구한 역사적 의미도 지닌다. 양저서의 저자 김여와 정약전은 모두 천주교 신자로서 신유교난으로 귀양살이를 할 때 이들 어보를 썼기 때문이다. 어보를 쓴 것은 귀양살이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였기도 하였겠지만, 실학자였던 그들의 억제할 수 없는 학구열이 없었던들 이들 어보는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 《난호어목지》는 우리나라의 3대 수산관계 고문헌이다.⁸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조재삼의 《송남지식(松南雜識)》,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유희익의 《물명고(物名攷)》 등이 수산동식물에 대해 다루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19세기 중엽 간행된 것으로, 앞 시대의 성과를 잇는다고 할 수 있다.

6 권보성, 《오주서종박물고변》 저술의 성격과 이규경의 박물관(博物觀), 《인문학논총》 4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125쪽.

7 김재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8 박구병,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 《희망과 문화》 5, 희망문화재단, 2001, 187쪽.

이규경은 본 책에서 '어(魚)'를 '인중(鱗蟲)'으로 보고 인중의 종을 360종, 인중의 으뜸으로 용을 포함하였다. 혹은 수족(水族)이라고도 하였으니, 오늘날 '수족관'이라는 말의 연원도 이와 연관된다. 어느 대목에서는 '대저 어류의 종류는 수억, 수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였다.

그가 다룬 어류는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를 망라한다. 조선 후기 수산물 소비는 민물고기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따라서 민물고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다. 바닷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깊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다. 그러한 면에서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그 역사적, 수산사적 의의가 깊다 한 것이다. 서술과 묘사에서 실사구시적 정밀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약전의 연구와 서술은 흑산도 바닷가의 제한된 공간에서 별 자료도 없이 현장 조사, 즉 창대라는 노련한 어부의 증언 구술에 다수 의존한 서술 방식을 취한다. 반면 이규경의 변증설은 당대의 문헌이 최대한 농원되었으며 박물고증학적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대로는 횡당하기도 하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서술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그 '비과학적'이라는 것조차 현대인의 생각일 뿐이다. 조선 후기 당대인의 어류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이규경은 자신의 학문 체계 내에서 충실히 소화하였기 때문이다. 용과 인어처럼 현대인도 여전히 관심을 갖는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의 학문 영역과 열정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청어(靑魚) 수컷은 기름덩이 같은 된 이리를 품고 있는데, 바로 정역이다. 매년 산란기를 맞아 수컷이 흰 경액을 활처럼 쏘면 암컷이 따라다니며 삼켜서 알을 부화한다'라고 하였다. 또 '갑(鰐, 카메기)은 대나무에 물고기를 꿰어 말린 것이다'라고 하

였다. 청어가 산란기에 물가에 나타나 알을 부화하는 풍경을 묘사하였으며, 카메기도 언급한 것이다. 이런 대목을 보면 당시 해안에서 자주 어획되던 청어에 대한 정확한 보고로 보인다. 《지봉유설》을 인용하면 서는 '세상에서는 가좌어(加佐魚)를 가지고 접어(鱸魚)라고 한다. 하지만 광어(廣魚)와 참어(活魚, 서대)까지도 모두 접어라고 한다. 살펴보면 대, 2종의 물고기 모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나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바다의 바닥에서 살아가는 저서생물에 대한 이해도도 보여준다. '고래가 죽으면 반드시 바다 위에 뜬다. 우리 조선은 해안 고을의 바다 기슭에 간혹 죽은 고래가 밀려오는 일이 있는데, 기름을 짜면 매우 많아서 아익이 적지 않다. (……) 고래 한 마리에서 얻는 기름 값이 거의 1000냥이나 되고 보면 이것은 바로 해상의 귀중한 보화(寶貨)다'라고 하여 고래기름 값을 높게 평가하였다. 때로는 환상과 실재가 혼효된 상태의 서술도 많이 보인다. 그러한 혼효를 잘 들여다보면 엄정한 고증학적 지식 체계에 기반하고 있을뿐더러 철저한 각주 인용으로 자신의 서술 근거를 제시하였다. 박물학적 실증의 진범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당대의 조선 서적뿐 아니라 일본의 《화한삼제도회》 같은 백과전서도 자주 인용한다. 수산서가 발달한 일본의 학문 성과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하는 대목이다. 조선에는 없는 어어에 대한 언급까지 보인다. 당대 청나라의 방대한 지식 체계를 두루 섭렵하였기에 이러한 정보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본 어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해체에서 논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국역본을 통하여 다양한 이론과 생각이 어종별로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간행된 《자산어보》와 《우래이어보》, 《난호어목지》와 더불어 본 책이 그 뒤를 이어 미진한 한

국 어보사의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淵十六志)》의 물고기 서술이 국역되어야
할 순서다.

어려운 용어의 난해한 국역을 기꺼이 맡아준 전병철, 이규필 두 분
학자에게 감사드린다.

국립해양박물관장 주강현

알려두기

- 본서는 조선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조선과 청나라의 여러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사권시의 책 《오주연문장판산고(五洲衍文長箋)》 중 〈민물면(南物典)〉-〈총어류(蟲魚類)〉에 실린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이다.
- 2000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문화재단'에 의해서 위 책의 국역이 이루어졌으며, 누락된 부분의 추가 국역과 재제를 거쳐 국립해양박물관 편역총서로 발간하였다.

魚辨證說

●어(魚): 이 글자에 대해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물에 사는 물고기다.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자(象形字)다. 물고기의 꼬리는 제비 꼬지와 닮았다. 모든 어류 따위의 글자에는 어(魚)를 넣는다. 인중(鱗蟲)이라고도 한다. 【지금 인중에는 360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용이 으뜸이다.】 혹은 수족(水族)이라고도 한다.” 【《씨유집(佩雅集)》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비금(飛禽, 새)은 곧 수안조(水安鳥)이고, 수족(水族, 물고기)은 곧 용지어(龍鱗魚)다.” 또 다른 책에도 보인다.】

1. 후한(後漢) 때의 문지학자 허신(許愼)이 편찬한 최초의 문지학 서적, 9355개의 글자가 수록되었고, 중문(重文, 古文·籀文의 異體字)이 1163자이며, 해설한 글자는 15만 3441자다. 최초로 부수배열법을 채택하여 한자의 형태와 편방(編旁) 구조에 따라 540개의 부수를 분류하였다. 글자마다 지사(地事), 상형(象形), 형성(形聲), 회의(會意), 전주(轉注), 기자(記號)의 6세(六書)에 따라 자형(字形)을 분석하고 자의(字義)를 해설했으며 독음을 표시하였다.

●《대대례(大戴禮)》²와 《역본명(易本命)》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조류와 어류는 모두 음(陰)에서 태어나 양(陽)에 소속된다. 그런 까닭에 조류와 어류는 모두 난생(卵生)인데, 어류는 물속에서 놓고 조류는 구름 속에서 노닌다. 물을 먹은 놈은 잘 달리고 성질이 차다. 대지 어류의 종류는 수역, 수반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물과 밀어지면 곧 죽는다.” 물리서(物理書)에는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물고기는 귀가 없어도 듣는다” 하였다.

●《한준지물(漢雋格物)》에 “물고기는 살이 욱구가 강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 하였다.

【물리서에 “환어(鰓魚)는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부인이 없는 흠아비로서 말뚱말뚱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를 환어(鰓魚)에 비유한다” 하였다.】

●물리서에 “피로 졸지아 다니는 이종의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였다.

【《물리소지(物理小識)》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물고기의 행렬은 양기(陽氣)를 따라다닌다. 봄과 여름에는 떠서 거슬러 오르고, 가을과 겨울에는 장수하여 물살을 따라 내려간다. 또 아침에는 동쪽으로

로 가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예기(禮記)》⁴ 《월령(月令)》 ‘정월’에 “물고기가 얼음을 등지고 뛰어오른다(魚勝魚氷)”라고 하였는데, 역시 양기를 따르느라 그런 것이다. 양자운(楊子雲)의 《태현경(太玄經)》은 궤의 기운이 중부괘(中孚卦)에서 일어난다. 이에 대해 송나라의 유현(劉暉)들은 “궤의 의미가 전혀 합당함이 없다” 하였다. 중부괘의 ‘돈어(鰓魚)’⁵에 대한 계유(謝康)의 해석에 “돼지는 미련하고 물고기는 명칭하여 본래 지각이 없는 동물이니, 마땅히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시키고 미답게 해야 한다” 하였고, 또 악어를 감격시킨 일을 가지고 증명하였다. 그런데 장황(張璠)이 여러 학자의 설을 두루 살펴보니, “정월에는 사어(鯨魚, 상어)와 유어(鰓魚, 송어)가 나오고, 2월에는 이어(鰓魚, 잉어)가 나오고, 3월에는 권어(鰓魚, 쏘가리)가 나오고, 4월에는 시어(鰓魚, 준치)가 나오고, 8월에는 황어(黃魚)와 고어(鯉魚)가 나오고, 9월에

2 중국 전한의 대대(戴德)가 공자의 제자 72명의 제언(諸說)을 모아 엮은 책. 《예기》 214편을 85편으로 정리한 것이다. 39편만이 전해진다.

3 명(明)나라 때의 고증학자 방이제(方以智)가 편찬한 책. 처음에 송문을 기술하고 다음에 15문(門)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진(晉)나라 때 장희(張衡)가 찬한 《박물지(博物志)》와 송(宋)나라 때 소식(蘇軾)이 찬한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를 바탕으로 물성(物性)의 원인을 연정한 저술이다.

4 예(禮)의 이론과 실례를 기술한 오경(五經)의 하나. 한나라 무제 때 하간(河間)의 천왕이 공자라고 후학이 지은 131편의 책을 모아 정리한 뒤에 선제 때 유창(劉向)이 214편으로 엮었다. 후에 대역이 85편으로 엮은 《대대례》와 선조 때 대성(戴聖)이 39편으로 줄인 《소대례(小戴禮)》가 있다.

5 원한 때의 정치학자 양응(楊應, 기원전 53~기원전 18), 그의 자가 자운이다.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 사람으로, 임군형(梁平君)에게 배웠다. 《주역》을 모방한 《태현경(太玄經)》과 《논어》를 모방한 《범언(范言)》 등을 저술했다.

6 《주역》(중부괘) ‘단사(漸卦)’에 나오는 ‘신뢰가 돈어에까지 미치지(豶豕孚魚)’라고 한 해석은 말이다. 송 대의 경학자는 이어 대해 대체로 돼지나 물고기는 동물 중에서도 지각이 없어 가장 감동시키기 어렵지만, 그 신뢰가 이동물에 제까지도 미친다는 뜻으로 풀었다.

7 1527~1608, 자는 본명(本情), 시시(詩詩)는 문덕(文德)으로, 강서성(江西) 남창(南昌) 사람이다. 만리(萬里) 때 경학자로, 천거에 따라 순천부(順天府) 유학훈도(儒學訓導)를 지냈다. 만사득(萬思德)과 함께 동호(東湖)에서 강학하였으며, 덕복동서원(德福洞書院)의 주장을 지냈다. 실학(實學)을 중주로 삼아 오이(吳興), 동원학(東元學), 동원경(東元經)과 더불어 ‘경우왕문사군자(江右王門四君子)’라 불렸다. 저술로 《주역상의(周易象義)》, 《서경원제(詩經原義)》, 《서경원시(書經原始)》, 《논어약언(論語約言)》 등이 있다.

는 계(蟹)가 나오고, 11월에는 돈어(鰵魚)가 나온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 기록을 보고야 비로소 시물은 제때가 되어야 나오며 11월에는 돈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중부과의 돈어상(鰵魚象)임을 알았다.]

● 청나라 학자 용촌(榕村) 이광지(李光地)⁸의 《주관필기(周官筆記)》에 시물의 현상을 논한 것이 가장 명철하다.

【《주관필기》의 내용은 이렇다. 산기슭에는 수풀이 우거졌다. 그런 까닭에 초식동물이 풀을 의지하여 풀을 먹고 사니, 그 터럭이 풀의 줄기와 닮았다. 구렁에는 나무가 자란다. 그런 까닭에 새가 나무에 둥지를 틀고 나무열매를 먹고 사니, 그 깃털이 나뭇잎을 닮았다. 개울과 못에는 물이 깊다. 그런 까닭에 어류가 물에서 살며 물을 먹으니, 비늘부터도 물살의 무늬다. 분연(鱗節)에는 돌이 쌓여 있다. 그런 까닭에 곤충이 돌 속에 숨어 돌을 빨아먹고 사니, 곤충은 자갈의 몸을 닮았다. 이렇게 보면 성질은 제가 부여받은 기운에 따라 달라지고 몸체는 의지해 사는 사물의 모양을 닮은 것이다. 고급을 딱 잘라 말해보자면 이렇다. 대저 물고기 가운데 물이 맑고 모래가 깨끗한 곳에서 태어난 놈은 비늘이 희고 정갈하며, 물이 탁하고 돌이 검은 지역에서 태어난 놈은 비늘이 검고 어둡다. 그것은 이치가 실로 그러한 것이다. 또 바닷물고기의 육질은 단단하고 두꺼우며 맛이 짜고, 강물고기의 육질은 연하고 쫄쫄하며 맛이 싱겁고, 냇물고기의 육질은 더욱 연하고 맛이 또 비리

⁸ 1642~1718, 자는 진경(晉卿), 호는 용촌(榕村).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목전성(福建省) 안계(安溪) 사람이다. 청나라 때 경학자로 황제의 칙명을 받아 《성리경의(性理精義)》, 《주자대전(朱子大全)》 등을 편수하였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주자학자다.

다. 그것은 물의 깊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 어류의 성질은 서북쪽을 좋아한다. 봄에는 양지를 향하고 여름에는 음지를 향하며, 땅 기운의 오르내림을 따라 역시 떠올랐다 잠수한다. 원숭이 털을 좋아하여 마치 사람이 비단을 보듯이 한다. 밤 불빛을 좋아한다.

【물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원숭이 털을 그물의 네 모서리에 달아놓으면 물고기가 나무어 물러들어 절로 걸려든다. 양의 분뇨에 반딧불을 담아 그물의 밤에 매달아놓으면 물고기가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든다. 그런 까닭에 한 그물에 모두 잡아 올릴 수 있다. 야광목(夜光木), 즉 나무뿌리가 썩어 밤에 빛이 나는 것으로 반딧불을 대신하여 물고기를 잡아도 또한 신통하다. 물고기는 제비 살 때운 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풀속에 놓고 그물질을 하면 쉽게 잡을 수 있고, 지렁이 기름과 보리밥도 좋아한다.】

● 또한 꺼리는 것도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⁹과 여러 종의 물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⁹ 명(明)나라 학자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지은 저술로, 모두 52권이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등의 중국 역대 의학서에서 내용을 취하여 편집하였으며, 만력(萬曆) 6년(1578)에 완성하였다. 모든 약에 대해 “대체 이름으로 강(綱)을 나타내고 개별 이름으로 목(目)을 붙였다”라고 하여 《본초강목》이라 이름을 지었다. 모두 16부(部) 160종목으로, 약 190만 자이며, 약물(藥物)은 1892종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374종은 이시진이 새로 증보한 것이다. 변의(辨疑), 정오(正誤)에서 약물 종류의 전위를 가리고 문헌 기재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기미(氣味), 주치(主治), 분명(發明)에서는 약물의 특성, 맛,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부방(附方)에서는 고대의 의사나 민간에서 전래오는 치료법 1만여 종을 수집해놓았다. 또 약물도(藥物圖) 1100여 폭을 첨부하였다. 16세기 이전 중국 약물학

실려 있다. 철분은 맛이 시고 눈을 해친다. 물고기와 용은 눈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물을 싫어하니, 어나 지금이나 언못에서 물을 담금질하던 물고기가 모두 미오른다. 또 감람나무의 껍질, 난초, 황백(黃柏)의 열매, 가래나무 껍질, 수유나무 열매의 껍질, 날감에서 채취한 풀은 즙, 모자를 태운 재, 마묘(馬蓼), 쇠, 분노, 식회, 파두(巴豆).¹⁰ 천초(川椒)¹¹를 싫어하니, 이것들은 모두 물고기를 죽인다. <어구변증설(魚具辨證說)>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더 부연하지 않는다.]

● 대저 물고기는 새로운 물을 좋아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구변증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물고기 가운데는 성질이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이 있다.

【운간(雲間) 이예형(李豫亨)¹²의 <추봉미어(推蓬霖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부릇 동식물 가운데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은 성질이 시원한 것이 많고, 물 가운데 사는 것은 뜨거운 것이 많고, 물 밑바닥에 사는 것은 따뜻한 것이 많다. 초목을 예로 들어보면 연실(蓮實)은 성질이 시원하고, 김실(茨實, 가시연)은 성질이 뜨겁고, 우(藕)¹³는 땅속에 있어서 성질이 따뜻하다. 어패류물 예로 들어보면 바닷개와 하적(河

鰕)¹⁴ 따위는 성질이 시원하고, 적리(赤鯿)와 허둔(河鯿, 민물복어) 따위는 성질이 뜨겁고, 붕어와 드렁허리 따위는 흙 속에 있어서 성질이 따뜻하다. 이는 사는 장소에 따라 성질이 변한 것이다. <본초장부>에 동식물의 성질과 맛을 따짐없이 논해놓았으니, 거기에 고찰할 만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많이 언급할 여유가 없어 다만 간요하고 절절한 것만 수습해놓았다.】

● 부릇 여러 어류의 비늘과 지느러미에 대한 이름과 모양을 또한 간략하게 변증하였다.

【여러 종의 물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잉어는 척추 위에 36개의 비늘이 있으니 음의 수이고, 용은 척추 위에 81개의 비늘이 있으니 양의 수다. 기(鱗)는 물고기 배 위에 갈기 모양으로 난 지느러미다. 엽(鰓)은 물고기와 용의 턱 옆에 작은 갈기 모양으로 난 지느러미다. 문(鰓)은 물고기 꼬리이고, 유(鰓)는 물고기 배의 아래쪽 살진 곳이다. 고(鰓)는 물고기 배 속에 있는 내강인데, 을(乙)이라고도 한다. 포(鰓)는 물고기 배 속에 있는 백포(白鰓, 생식기관)이고, 표(鰓)는 여러 물고기에 있는 흰 정액¹⁵이다. 이(鰓)와 의(鰓)와 미(鰓)는 물고기의 알이다.

세상에서는 ‘충청도 제천현(堤川縣) 의림지(義林池)에서 나는 붕어가 머리에 비리지 않고 맛도 쫄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라도 전주부(全州府) 삼례역(參禮驛)의 붕어집(鰕魚蒸)이 더욱 유명하다. 또 관서(關西) 지방 평양부(平壤府)의 붕어집 및 의주부(義州府)의 붕어 요리가

의 상자를 참대상하였고, 생물학, 화학, 동식물학 방면에도 영향을 주었다.

10 독성이 강한 연약제의 하나다. 파수(巴戟), 양안봉(雙煎龍), 노양자(老陽子), 강자(剛子) 등으로 불리며, 연을 내리고 담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11 산초나무의 열매나 나무껍질, 지역에 따라 지피, 조피, 계피 등으로도 불린다.

12 탕나라의 학자. 자는 원천(元善), 호는 중조(中叟)이고, 송강(松江) 화경(華亭) 사람이다.

13 연의 알줄, 땅 밑에서 자란다.

14 민물개 혹은 민물개새 등으로 짐작된다.

15 포(鰓)는 사진이 부레라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역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라고 한다. 관북(關北) 지방 경흥부(慶興府) 적지(赤池)¹⁶에서 나는 붕어는 붉은색을 띠는데다 눈동자 역시 붉은 것이 마치 용어(龍魚)의 아가미가 붉은빛을 띠는 것과 비슷하며, 월등히 큰 놈은 거의 몇 척이나 되고 맛 또한 엄청 좋다. 이는 모두 각자의 소견대로 칭찬한 것이다.

물리서를 보면 용어는 곧 바닷물고기인 칭어(靑魚)다. 수컷은 기름 덩이 같은 흰 이리를 품고 있는데, 바로 정액이다. 매년 산란기를 맞아 수컷이 흰 정액을 활처럼 쏘면 암컷이 따라다니며 삼켜서 알을 부화한다.

《동문유해(同文類解)》¹⁷와 《역어유해(譯語類解)》¹⁸에 ‘어양자(魚秧子)’는 물고기 새끼다. 어백어(魚白兒)는 물고기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진

정액덩어리로 일명 ‘일의(一依)’¹⁹라고도 한다’ 하였다.

어각새(魚鱗鱗)는 속칭 ‘어아금니(魚魚今尼)’라 하는 것인데, 《화한삼제도회(和漢三才圖會)》²⁰에 “간첩이 정어다”라고 하였다. 상(鱖)은 음이 ‘상(想)’이니, 말린 물고기다. 침(鰻)은 소금을 뿌리지 않고 말린 물고기다. 금(鰻, 바머기)은 대나무에 물고기를 꿰어 말린 것이다.

물리서에 “물고기의 쓸개는 봄여름에는 위쪽에 가깝게 붙어 있고, 가을겨울에는 아래쪽에 가깝게 붙어 있다” 하였다. 《화한삼제도회》에 “모든 동물의 쓸개는 모두 쓰다. 오직 예(鰻)라는 것은 곧 검은 잉어로서 속칭 가물치란 놈인데, 쓸개의 맛이 달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자라의 쓸개는 가장 매워 가장 빨리 구멍을 뚫 풀리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모른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잉어의 쓸개는 안약(眼藥)으로 쓴다’ 하였다. 그런데 물리서에서 종이 물고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지어유수술(紙魚游水術)에 “잉어 쓸개를 종이여 바른 다음 물고기를 새겨 물속에 넣으면 헤엄쳐 달려간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잉어 쓸개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늙은 잉어의 눈동자를 여의주(如意珠)라고 하여 방술가(方術家)가 배에 차고 다니는데, 이것을 차면 귀신이 두려워한다고 한다. 각일(角日), 두일(斗日), 규일(耑日), 정일(井日)²¹에 취한 것이어야 효험이 있

16 적지(赤池) 정동부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물리가 몇 리에 걸쳐, 북쪽으로 두만강에 연결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의 도조(道祖)가 검은 용을 쓴 곳이다.

17 만주어 학습서다. 청어역언(靑語譯言, 만주어 용어편)의 학습서로 쓰였다. 2권 2책으로 구성되고, 1748년(영조 24) 원문항(元文恒)이 편찬하였다. 이 책이 간행되기 전에 만주어 어휘집인 《문명(文命)》이 있었으나, 문명(文命)이 많아 만주어 학습자에게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 사역원 원장이었던 현문항이 중국의 《청문집(靑文集)》, 《대정전서(大清全書)》, 《동문성취(同文成취)》 등을 참고하여 6년 만에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항목별로 나누어 총 55부 4800개의 어휘를 실었다. 상권에는 진문(眞文)·시명(時命)·지리·인류·민물 등 26부 2448개의 어휘, 하권에는 천동(天動)·미곡(米穀)·채소·과물(菓物)·경명 등 29부 2352개의 어휘가 실려 있다. 어휘 항목마다 한자·우리말·만주어의 순서로 쓰였다.

18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서 신어형(新語形) 등이 엮은 중국어 어휘사전이다. 1682년 (숙종 8) 민상국(愼相國)이 중국어 역관인 신어형, 김경운(金敬運), 김지남(金指南) 등에게 편찬하게 한 뒤 중국인 및 명에게 수정을 받아 1690년 사역원의 강창주(姜昌周), 윤지훈(尹之勳), 조득현(趙得賢) 등에게 간행하게 하였다. 상·하 2권에 4800여 개의 어휘가 62개의 문항별로 배열되었다. 각 한자 아래 우리말로 표준 발음을 적고 훈을 새겼다.

19 우리말 ‘이리’를 음차한 것이다.

20 일본에서 만든 백과사전이다. 1713년에 일본의 한방 의사였던 테리시마 요안(德島孝友, 이름은 龜蘭)이 편찬한 105권의 방대한 용서(類書)를 펴내는데, 이는 1607년 명나라의 왕(王所)가 편찬한 《삼제도회》 106권의 체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시 편찬한 책이다. 특히 지방 동물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고 정밀한데, 그림 자료까지 있어 요즘의 동물 이분과 대조해보기에 편리하다.

21 네 방위마다 일곱 개의 별자리를 배치하였는데, 각수·두수·규수·정수는 각각 동방·북

지, 그렇지 않으면 영험함이 없다고 한다. 물리서에 “어주(魚珠)는 눈에 있다. 물고기에는 침급(塵及, 속눈썹)과 목합(目合, 눈꺼풀)이 있고, 또 가슴에 연주(漣珠)를 품고 있다” 하였다.

《비아(埤雅)》에 “사슴은 목을 이고 있어서 뿔이 알뜰달뜰하고, 물고기는 구슬을 품고 있어서 비늘이 자긋빛이다” 하였다.

원달(袁達)²²이 지은 《금중술(禽蟲述)》에서는 “시어(鮫魚, 준치)는 비늘이 다른 물고기와 다르다. 석회수에 죽 담근 다음 햇볕에 말리면 층층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인의 꽃비녀를 만든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늑어(魴魚)는 4월에 나온다. 모양은 준치와 흡사한데 머리 위에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다물어지면(습) 마치 학의 부리와 형태가 닮았다. 환위가 달릴 무렵 말린 늑어 뼈를 꽃받침에 꽂아두면 허룻밤 사이에 여물어버린다. 석수어(石首魚, 조기)의 말린 뼈 역시 그렇다” 하였다. 《정자통(正字通)》²³에서는 “음은 ‘늑(魴)’이다. 머리 위에 뼈가 있어 다물어지면 마치 학의 부리와 같다” 하였다. 《어아》에서는 “시어(준치)는 일명 ‘당호(當魴)’라고도 한다” 하였다. 또 내어(鮓魚)에 대해서는 《정자통》에서 “음은 ‘내(鮓)’이고, 시어의 변칭이다. 혹은 ‘이(鮓)’라고 표기된 문헌도 있다” 하였다.

《동문유해》나 《여어유해》 두 종의 책에는 시어를 ‘도어(刀魚, 간지)’

방 서남·남방의 각 인공 보자리 가운데 첫째 변지리다. 여기서 해당과는 날이 곧 각인, 두인, 규인, 장인이다.

22 명나라 복건성 만현(萬縣) 사람이다. 자는 덕수(德壽), 호는 재간자(載閑子)다. 원일이 지은 농물학 저서 《금중술》에 소개된 내용은 뒤에 《본초강목》에 많이 인용된다.

23 중국의 음운 자서(字書), 명나라의 장지현(張自烈)이 지은 것으로 청나라의 요문명(姚文美)이 《자휘(字彙)》의 형식을 따라 새로 편집 간행하였다. 모두 열두 권이다.

라고 하였다. 물리서에서는 “시어가 그물에 걸리려는 것은 자신의 비늘이 다칠까 봐 이적서다”라고 하였다.

꺾어(鰈魚, 조기)는 성질이 어리석어 사람을 보면 제 가슴지느러미를 세우고는 ‘사람들이 나를 겁내겠지’ 하고 생각한다. 그 성질이 또 추위를 두려워한다.

《화한상계도회》에 ‘만려어(鰻鱺魚, 뱀장어)는 언제나 양기가 있는 쪽을 향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동쪽을 향하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한다. 엄청 미끄러워 어부가 잡기 어려운데, 종이를 붙여 잡으면 빠져나가서 못한다고 하였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다. 우리 조선의 아녀자는 속칭 준치(鰻治)라고 하는 것의 머리뼈를 가지고 서로 붙여서 학의 형상을 만든다. 이 동백(李東璧, 이시진)²⁴이 “늑어는 곧 시어(준치)의 일종이다”라고 말하였다. 《동문유해》와 《여어유해》 두 종의 문헌에는 시어를 ‘늑어(魴魚)’라고 하였는데, ‘늑어(魴魚)’와 발음이 같다. 이렇게 보면 곧 늑어는 시어의 일종이다. 또 우리 동방에서 말하는 홍석수어(紅石首魚, 참조기)는 사전에 ‘면어(鰻)’이라고 되어 있다. 면어(鰻魚)는 대면어와 소면어 2종이 있는데, 대면어를 홍석수어라 부른다. 아이들이 그놈의 두개골을 가져다 또한 학의 형상을 만든다.

24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명 대의 뛰어난 의학학자이자 과학자다. 자(字)는 동백(東璧), 호(號)는 빈호(賓湖)이며, 호북성(湖北省)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이언문(李言聞)도 그곳에서 의술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과거를 포기하고 가학을 이어 27년간의 은둔 고생 끝에 《본초강목》을 완성하였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늑어는 우리 동방의 용석수어의 일종인 것으로 짐작된다. 석수어는 문헌에서 고찰해보건대 위소(韋昭)²⁵의 주에 “석수는 ‘읍(鰐)’이 된다” 하였는데, 여기서 읍은 청둥오리(鵞)다. 《오군지(吳地志)》의 기록에 또 “석수어는 가을이 되면 변화하여 머리에 벗이 달린 오리(鵞)가 된다” 하였다. 우리 동방의 석수어는 뇌에 두 개의 흰 돌처럼 생긴 뼈가 있어 육과 함께 두 개의 껍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름이 석수어(돌 머리 물고기)다.

어침(魚枕)은 흑어침(魚枕)이라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본초강목》에 “물고기의 머리뼈를 ‘침(枕)’이라 한다” 하였다. 《연수서(延壽書)》에서는 “고독(蠱毒)을 해독한다. 그곳을 만들어 음식을 담을 때 고독이 있는 음식을 만나면 즉시 부서진다” 하였다. 어침베(魚枕蓋)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예어(鰐魚, 가물치)는 일명 ‘흑리(검은 잉어)’라 한다. 또 ‘봉두어(鰐頭魚)’라고 하거나 ‘봉려어(鰐頭魚)’라 하기도 하고, ‘흑어(黑魚)’라 하기도 한다. 머리에 북두칠성 같은 점이 있는데 밤이면 마치 입금을 향해 예를 차려 공수(拱手)를 하듯 머리를 들어 북쪽으로 향한다. 산후 조리에 사용해 온갖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또 방술가는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쓴다고 한다. 민간의 전설에서는 복숭아나무 아래서 가물치회를 먹으면 고기가 모두 거꾸로 서서 목구멍이 막혀 죽는다고 한다. 또 한 점의 고기가 점점 늘어나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25 214~273. 자는 홍사(弘嗣)이며, 오군(吳郡) 온양(溫陽) 사람이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정치자로, 박사(博士)를 역임하였다. 《국어(國語)》를 중요하게 여겨 《국어주(國語注)》를 편찬하였다.

먹기를 꺼리게 되었다.

추어(鰐魚)는 곧 미꾸라지이니, 진흙 속에서 산다. 참고 문헌을 살펴 본 결과 《상후지(相感志)》에 “등잔 삼지로 미꾸라지를 달인다” 하였다. 《집간방(集簡方)》에서는 “양사(恙事)가 일어나지 않으면 미꾸라지를 달여 먹는다”라고 하였다.

점어(鮫魚, 메기) 중에는 크기가 몇 자에 달하는 것이 있다. 피부는 몹시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우면서도 비리다. 이사진이 말하기를 “무릇 큰 메기나 작은 메기를 막을 때는 먼저 배시느러미 아래를 잘라내어 대달면 끈끈한 액체가 모두 쏟아져 나와 더 이상 끈적거리거나 미끈거리지 않는다. 끈끈한 액체가 다 없어지면 비린 맛이 없어져 먹기 좋다” 하였다. 우리나라 호남 지방 부안현(扶安縣) 바다에서 물메기라는 놈이 나오는데, 고기에 우유 맛이 나서 어른을 봉양하기에 가장 좋다.

소양어(涇鰐魚)는 속칭 가범어(佳凡魚)라 부른다. 《본초강목》(진장기(陳藏器))에 “소양어의 꼬리뼈는 사람이 오줌 누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쏘아 사람으로 하여금 습중풍(陰腫痛)을 앓게 하니, 그것을 빼내야 낫는다. 바닷사람 가운데 그 독에 쏘인 이들은 어포죽(魚龍竹)이나 해달(海鹽) 가족으로 해독을 한다” 하였다.

오진방(吳進方)²⁶의 《영남잡기(嶺南雜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포어(鰐魚)는 곧 점어(鮫魚)다. 꼬리에 극심한 독이 있어 거기에 쏘이면 견딜 수 없이 아프다. 갈포(葛布)를 태운 재를 가지고 마유(麻油)에 타서 개어 바르면 낫는다. 물고기 모양이 마치 연꽃잎처럼 생겼는

26 청나라 절강성 사관 호는 만수(萬壽)이며, 지사에 《영남잡기》가 있다.

데, 7~8척이나 된다.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으며, 등은 푸르고 배는 흰데, 입이 배 아래쪽에 있다. 한장려(韓昌黎)²⁷가 “포어의 꼬리는 독사와 같아서, 입과 눈을 댈 수 없네(鰐魚尾如蛇 口眼不相觸)”라고 읊은 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다.

또 해요어(海鰐魚), 소양어(少鰐魚), 분어(鱗魚)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들 물고기의 꼬리에도 역시 강한 독이 있다. 사람들이 그 꼬리를 가져다 나무뿌리에 꽂아두면 말라 죽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한다. 《화보(花譜)》에 “석양이 질 무렵 나무 그늘에 꽂아두면 그 나무가 죽지 말라 죽는다” 하였다. 분(鱗)이란 글자에 대해서는 《정자봉》에 “음은 분이 다. 운서(韻書, 우편)에 ‘가어(鮫魚)’라고 하였다. 책에 따라 ‘포비어(鮫魚)’라 한 곳도 있다” 하였다.

《식물본초(食物本草)》에 ‘해요어’라는 물고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큰 육으로 된 날개가 있어 능히 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번답어(鱗鰐魚)다. 물리서와 《설부(說部)》에서는 “제어(鰐魚, 갈지)를 먹으면 고만 해지지 않고, 굴거(鰐鰓)²⁸를 먹으면 굶주리지 않고, 지어(鰐魚)²⁹를 먹으면 대번 미친다”라고 하였다.

선어(鱗魚)는 일명 선어(鱗魚)라고도 하는 물고기로, 속칭 용어라 한다. 혹은 ‘두렁후리(斗鄧候里, 드렁허리)’³⁰라고도 한다. 무논의 진흙 필 속에 사는데, 구멍 뚫기를 좋아해 농사에 해를 끼친다. 《본초강목》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모습은 마치 뱀장어나 가물치처럼 생겼고, 성질이 느긋하여 좀처럼 죽지 않는다. 드렁허리를 잡을 때 그놈을 사람의 왼쪽 다리 위에다 내리치면 바로 죽는다. 드렁허리의 배 속에는 뱀처럼 생긴 미세한 기생충이 몹시 많다. 혹자는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본초강목》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여더서적을 살펴본 결과, 《허공포구론(雷公炮炙論)》에 “육중용(肉能容)”에 드렁허리를 더하여 가무를 만들어 황정주원(黃精酒圓)과 함께 복용하면 힘이 열 배가 더 난다” 하였다.

물고기 가운데 다른 동물로 변화하는 것을 대략 언급해보겠다.

《영남잡기》에 “황어(黃魚)는 변화하여 영부새가 된다. 포어(鰐魚)³¹는 큰 놈은 한 말 크기인데 변화하여 호지(鰐猪)³²가 된다. 사이(鯊魚, 상어) 가운데 범의 머리를 한 놈은 변하여 호랑이가 되고,³³ 곰은 반점 큰 무늬가 많은 것은 사슴이 된다. 잉어는 변화하여 용이 된다” 하였다.

27 중국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韓愈 768~824)를 말한다. 자는 퇴지(退之)이고, 시호가 문공(文公)이므로 한문공(韓文公)이라고도 한다. 한유는 당시 유행하던 규칙적인 운율과 고상성어로 가득 찬 변려문(變麗文)을 배격하였고, 자유롭고 간결한 고문(古文)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그가 쓴 《원도(原道)》, 《원성(原性)》 등은 중국 문학의 백미이며, 그가 주장한 고문체 문장의 대표작이 되었다.

28 어떤 초류인지 알 수 없다. 이규경 역시 《도장잡설(道藏雜說)·역주연승원(歷遊勝覽)》에서 알 시피 모든 사경류의 책을 고원해봐도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설부》의 판본에 따라 ‘원거(鰐鰓)’라고 된 곳도 있는데, 원거는 큰 바닷새의 일종이다.

29 다랑어의 일종이다. 《설부》에는 ‘정어(鰐魚)’라고 되어 있다.

30 기존 민족문화추진회의 간행본에는 ‘두렁후리(斗鄧候里)’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황(雷)’을 ‘죽(鰐)’으로 잘못 달조한 것으로, 곧 드렁허리를 가리킨다. 드렁허리가 논두렁을 돌아돌아 빠져나가기 일부에서 옛날에 농부는 드렁허리를 싫어 하였다.

31 연약계의 일종으로, 기생식물의 하나다. 원기를 회복하고 불임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

32 은곰에 가시 같은 비늘이 있어 사람이 잡으려 하면 쓴다고 한다. 부녀자가 이 물고기의 뼈로 비녀를 만들면 두봉이 많아진다고 한다.

33 쥐목 호저류에 속하는 동물로, 온몸이 바늘 같은 털로 덮여 있다.

34 이것은 사실 범고래를 두고 말한 것이다.

《화환삼재도회》에 “늙은 송어(鱈魚)는 변하여 수달이 된다. 메기 역시 변하여 수달이 된다. 송어가 변하여 생겨난 수달은 입이 둥글고 메기가 변하여 생겨난 수달은 입이 넓적하다. 두꺼비는 변하여 하돈(河豚, 복어)이 된다. 마(鰻鱺)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으면 뱀장어가 된다” 하였다.

물리서에 “뱀이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 변하여 석겨(石蟹)³⁵가 되는데, 속칭 낙채(絡絲, 나지)라 한다. 송충이(松蟲)가 물에 들어가 변화하여 작은 물고기가 된다” 하였다.

《채란잡지(採蘭雜志)》에 “모기가 물속에 들어가 변하여 작은 물고기가 된다” 하였고, 노불원(盧不遠)이 말하기를 “비가 변하여 물고기가 된다” 하였다.

《광이기(廣異記)》에 “뱀이 변하여 자라가 된다. 처음 뱀이 껍질을 뜯어 한 묶음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스스로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이 수십 차례에 이르면 마치 하나의 면병(麵餅)³⁶처럼 되었다가 조금 뒤에 앞뒤 네 발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라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배 아래쪽에 아직 뱀 무늬가 남아 있으며,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죽는 수가 있다” 하였다.

물리서에 “달이 이지러지면 물고기의 뇌가 줄어들다. 소라는 눈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계는 짙은 안개구름을 두려워하니, 안개구름이 짙어지면 계가 말라 죽는다” 하였다.

35 《성호사설》(간찰문)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문어나 낙지를 두루 일컫는 뱀로 보인다.

36 달기부터 만든 떡의 일종으로, 편평이나 만두처럼 생겼다.

《양엽기(養葉記)》³⁷에 “곡우 전 사흘과 곡우 후 사흘에 모든 물고기가 서로 모여 예의 없이 물속의 바윗들에 부딪치며 쪼다. 물고기는 초여름에 교합을 하니 암수가 서로 물러다니며 입을 맞추어 교미를 한다” 하였다.

《영남잡기》에 “무릇 물고기는 모두 알에서 부화하여 태어나는데, 오직 범고래만은 태생이다. 포(鮑) 속에 든 상어 새끼가 많으면 10~20대요, 적은 것은 몇 대인데, 입으로 토해서 낳는다” 하였다.

《화환삼재도회》에 “철갑상어(鱧魚)는 태생이고, 입으로 낳는다” 하였다. 《설부》에 “동지느리미와 동의 비늘을 다쳐 피부가 드러난 물고기는 선박의 아래쪽 판자에서 배어나오는 송진에 몸을 비벼 붙인다” 하였다.

유취(類雀)와 자서(字書) 등에는 병일(丙日) 가언(嘉言)에 구멍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물리서에 “오징어(烏賊魚)는 소만(小滿)을 지나면 작아지고, 입으로 먹물을 뱉어 주위를 혼탁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채 모습을 볼 수 없게 한다. 흑수면 위에 채 몸을 세워두고 있다가 까마귀가 그 위에 앉으면 짹짹 남아채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름을 ‘오적(烏賊)’이라 하였으니, 까마귀의 천적이라는 의미다.

《거어록(居魚錄)》에 “묵어(墨魚)가 지나가면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 하였는데, 묵어가 바로 오징어다.

《본초강목》에 “배골(背骨)³⁸은 바다소라의 이름이다. 갯벌에 셋어 우물에 던지두면 독충이 모두 죽는다” 하였다.

37 저자 이규경의 조부인 이덕부의 저술이다.

38 등에 뼈가 있다는 뜻. 소라, 즉 바다골방이를 가리킨다.

《괴설(神說)》에 “송어(松魚)는 북권의 바다 속에서 난다. 매년 5~6월에 배를 지어 강으로 들어가다가 개울이나 계곡에 다다라 석벽을 만나면 뛰어오른다. 암석이나 소나무에 몸을 부딪치다가 배가 드러나야 떨어지는데, 몸에서 솔향기가 난다고 하여 송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과어(瓜魚, 은어)라는 놈이 있는데, 맛이 썩의 혹은 수박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하였다.

《한죽당잡필(寒竹堂雜筆)》³⁹에 “지리산 소나무 그늘 아래 계곡 석담(石潭)의 물속에는 소나무 그늘이 변화하여 물고기가 된 놈이 있는데, 암록달록한 무늬가 가사(袈裟)와 닮았다고 해서 가사어(袈裟魚)라고 한다” 하였다.⁴⁰

유서(類書)에 “송강의 농어는 아가미가 네 개다” 하였다. 풍시가(馮時可)⁴¹가 말한 면어(鰻魚)는 생김새가 농어(鱖)와 비슷하면서 육질은 거칠다. 아가미가 셋인 것은 면(鰻)이고 넷인 것은 모(鱖)다. 약칭(藥漬, 지명)에서 이르는 민어(鱖魚)라는 놈이 바로 이 면어인데, 일명 모반(茅斑)⁴²이라고도 한다.

《양엽기》를 살펴보니 “면어는 곧 민어(民魚)다. 면(鰻)과 민(民)은 발음이 흡사하고, 민(鱖)과 민(民)은 발음이 가장 흡사하다. 세상에서 속칭 민어라 부르는 것은 끈적끈적한 이리가 있어서 허한 지략에 원기를

보강하는 재료로 쓰이니, 다른 물고기의 이리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

《화한삼재도회》의 서어(鰻魚)의 주석에 “정자(正字)로 어떻게 쓰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물고기는 사어(鱖魚)⁴³와 닮았는데 머리가 둥글다. 꼬리가 작고 비늘이 가늘며 맛은 또한 반어(鰻魚)와 흡사하다. 큰 놈은 2~3척이나 되고 말려서 포를 만든다” 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속칭 민어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이 면어(鰻魚)라고 주석을 달아 석수어(石首魚), 황화어(黃花魚)라고 한 것을 보면 면어를 민어로 여긴 모양인데, 이 두 물고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항잡록(滬航雜錄)》에 “치어(鰻魚, 송어)는 잉어와 비슷한데, 몸체가 둥글고 입이 작으며, 껍은 연하고 살은 섬세하다. 치어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큰 것을 거수(鰻鱺)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속칭 수어(秀魚)라 하는 물고기로 발음이 수(鰻)와 매우 흡사하다. 수(鰻)에 대해서는 《정자봉》에 ‘음은 수(四)다. 짙은 송어로 일명 수어(鰻魚)라 한다’ 하였고, 《자회(字彙)》에 ‘일명 자어(鰻魚)라 한다’ 하였다.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다. 나주의 전포(錢浦)는 일명 석교(石橋)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수어(鰻魚)가 가끔 나온다. 한쪽 눈이 앓았던 놈이 나오면 나라에 큰 상란(喪亂)이 발생하여 창래(喪禮) 도구들 만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호남 지방 나주부의 전포는 수어(鰻魚)가 가장 유명했는데, 배 아래쪽 살이 동전처럼 생겼다. 큰 것은 육질이 단단하면 서도 연한 것이 양의 지략과 같은 권 육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희를 쳐

39 역시 저자 이규경의 조부인 이덕무의 저술이다.

40 이 내용은 《한죽당잡필》이 아니라 《이득구잡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모두 이규경의 조부인 이덕무의 글이므로 사소한 오류가 생긴 듯하다.

41 중국 명 대의 학자. 자는 민경(敏卿), 호는 여전(與全)이다. 호광포경사 참정(固廣府政使參政)을 지냈다. 의학부의 학문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저서는 중국에서도 중시되었다. 저서로는 《과세적(古世積)》, 《상지정기(上池證記)》, 《초연부집(趙然集)》 등이 있다.

42 《양엽기》에는 ‘모반(茅斑)’이라고 하였다.

43 명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농어라고 하는 설도 있다.

서 먹을 수 있고 비리지 않다. 이것을 수전(鮪鱈)이라 하는데, 맛이 담백하고 훌륭하기로 다른 물고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동문유해》와 《역어유해》에는 시어(鮫魚)라고 되어 있다. 중국의 속명은 비목어(比目魚)이니, 수어(鮪魚)의 우리나라 이름은 ‘가잠이(鰓鱈魚, 가자미)’다. 그놈의 눈이 한쪽으로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이다.

《정자통》에 ‘계(鮫)는 음이 계(咸)다’ 하였고, 《담운(唐韻)》에서는 ‘비목어다’ 하였다. 관(鮫)은 《자취》에 ‘음이 관이다’ 하였고, 《정자통》에 ‘비목어다’ 하였다. 구(鮫)는 《정자통》에 ‘음이 구(區)다. 비목어다’ 하였다. 가자미에 대해서는 《어아(爾雅)》에서 ‘잠이(鮫魚)다’ 하였고, 《오도부(吳都賦)》에서는 ‘계어(鮫魚)다’ 하였으며, 《상림부(上林賦)》에서는 ‘구어(鮫魚)다’ 하였고, 《북호록(北戶錄)》에서는 ‘잠어(鮫魚)다’ 하였으며, 《남월지(南越志)》에서는 ‘뽕어(鮫魚)라고도 하고 좌개(左介)라고도 한다. 모두 한 가지 물고기에 붙인 다른 이름이다’라 하였다. 집(鮫)은 《정자통》에서는 ‘음이 집(積)이다. 비목어다’ 하였고, 《어아》에서는 ‘동방에 비목어가 나는데 이름을 집(鮫)이라 한다’ 하였으며, 《어아》〈식지(釋地)〉에서는 ‘동방에 눈이 한쪽으로 붙어 나란한 물고기가 있는데, 동류와 무리 짓지 않으면 다니지 않는다’ 하였다.

《지봉유설(芝峯類說)》⁴⁴에 “세상에서는 가좌어(鮫佐魚)를 가지고 집

44 조선 중기의 학자 이수광(李時光, 1563~1628)이 편찬한 지리지 20권 10책이다. 반역에 따르면 총 3435항목으로, 내용은 고서의 지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인원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았다. 총 384가(家), 2265명의 저술을 인용했는데, 성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은 것도 있다. 모두 25부 182항목으로 분류되어 구성된다. 25부는 천문, 시명(詩書), 계야(災異), 지리, 제국(諸國), 군도(軍道), 행정(政政), 관직, 유도(遊道), 경서(經書), 문재, 문장, 언문, 상행(上行), 신형(地形), 어인(語言), 인사(人事), 감사(讞事), 기역(機變), 의도(義道), 궁실, 복용(服用), 식물, 화목(舟木), 금중(禽

어(鰓魚)라고 한다. 하지만 광어(廣魚)와 설어(舌魚, 시대)까지도 모두 집어라고 한다. 살펴보면, 2종의 물고기 모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나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리 동방을 접역(鰓域)⁴⁵이라 부르는 것은 혹 가자미가 동방에서 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한다” 하였다.

그러나 이백약(李百藥)⁴⁶의 《황리송(皇離頌)》에서 “거북과 용마가(龜書龍馬) / 하수와 낙수에서 장차 나오리니(河洛將游)⁴⁷ / 동방과 서역은(東隸西翻) / 우선 기다릴지어다(云亭載行)”라 하였고, 《지봉유설》에서는 《한서(漢書)》를 인용하여 “좌개(左介) 앞바다 바깥에 동제인(東隸人)이 있으니 20여 개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동제(東隸)는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두고 제잠(鮫蠻)이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세속에서는 접역을 제잠과 대칭하여 쓰고, 《동문유해》와 《역어유해》에서는 비목어를 경자어(鏡子魚)라고 한다.

鮫)이다.

45 가자미가 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를 고레로 이렇게 불렀다.

46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 활동했던 학자. 저서에 《북제서(北齊書)》, 《보금연(寶金鑑)》 등이 있다.

47 본문엔 ‘하도(河圖)’라고 되어 있으나 《정당서》를 참고하여 ‘하락(河洛)’으로 고쳤다. 문리에도 이것이 맞는다. 귀서(龜書)는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그려져 있던 낙서(洛書)를 말하는데, 이를 본떠 《서경》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고 한다. 용간(龍圖)은 낙수(洛水)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던 하도(河圖)를 말하는데, 이를 본떠 《주역》의 괘를 만들었다고 한다.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황리가 도를 내고, 낙수가 서를 내니, 실인이 이를 범으로 삼았다(河出圖 雉出書 聖人則之)”라는 말이 나온다.

48 본문엔 ‘30여 국(三十餘國)’으로 되어 있으나, 《한서》〈지리지〉를 참조하여 ‘20’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이물지(異物志)》⁴⁹에서 ‘약업어(藥業魚)는 속칭 해저어(鞋底魚)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였고, 《임해지(臨海志)》에서는 ‘비사어(婢羅魚)’라 하였고, 《풍토기(風土記)》⁵⁰에서는 ‘노교어(黎鰓魚)’라 하였다.

《향조필기(香祖筆記)》⁵¹에는 정강성(鄭康成)의 《상서중후주(尙書中候注)》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해놓았다. “비목어는 일명 동근(東鯪)이라고도 하니, 《감주집(紺珠集)》에 보인다. 일찍이 관청의 장부를 한 번 보니 집어(鰓魚)를 가지고 삼신어산(三神魚鹽)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사투리다. 장어(鰓魚)는 속칭 망어(網魚)라 부르는 데, 뱀이나 나무기와 교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세상에서는 혹 삼지(參治)라 부르기도 한다” 하였다.

《정기록(精騎錄)》에 “장어(鰓魚)는 다른 모든 물고기에게 교미를 당하고, 보조(鰓魚, 나세)는 다른 모든 새에게 교미를 당한다” 하였다. 《동문유해》와 《역어유해》에는 망어가 밧어(拔魚) 혹은 망어(芒魚)로 되어 있다.

《화한삼재도회》에 “살피보건대 하둔(河涇, 복이)은 동편 양편으로 붙은 핏빛 육질이 있다. 또 내장과 위의 뒤쪽 옆면에 붙어 있는 호랑나비

모양으로 생긴 큰 뼈가 있다. 색깔은 청백색인데, 물에 던지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뼈에 강한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하였다. 또 “일본 과포(鰓鰓) 지역의 어부는 대부분 어선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심지어 어항에 물을 갈아주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꺼내 죽힘으로 배 아랫부분을 찢으면 다시 팔딱거리는 놈도 많다. 또 살피보건대 먼 지방으로 잉어를 보낼 때는 오랫동안 그을린 짚으로 싸서 보내면 하루 종일 물이 없어도 죽지 않고, 이미 죽은 놈도 쉽사리 썩지 않는다. 혹은 아가미 사이에 찧음을 뿌려놓아도 썩는다” 하였다.

물리서와 《천공개물(天工開物)》⁵²에 ‘단국(丹麴)은 지금 홍국(紅麴)이라 부르는 것이다. 세상에 물고기와 육류는 가장 잘 썩어 문드러지는 음식 재료다. 그러나 그 위에 단국 가루를 얇게 발라두면 능히 그 육질을 견고하게 만들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열흘이나 한 달을 지나도 구더기나 파리가 감히 덤비지 못하고 색과 맛이 변하지 않으니 신기한 물건이다. 물고기와 육류에 한번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남회인(南懷仁)⁵³의 《근여외기(坤輿外紀)》⁵⁴에 “암액리아국(諸厄利亞

49 당나라의 유순(劉恂)이 지은 일종의 풍토기. 기이한 동물과 식물 등에 관한 정보와 관찰 등을 기록하였다.

50 지방의 풍속과 풍산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 중국의 책. 서진의 평서장군(平西將軍) 주치(周處)가 쓴 《주서풍토기(周處風土記)》로 시작해 노작(盧績)의 《기주풍토기(魏州風土記)》, 심명(沈明)의 《임해풍토기(臨海風土記)》, 육공지(陸恭之)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풍토기, 《후위풍토기(後魏風土記)》 등이 있다.

51 첩나라의 왕사정(王士禎)이 찬한 것으로 총 12권이다. 강희 42, 43년에 기록하였는데, 고금의 특성에 대해 변론하고, 명물(名物)의 원류를 밝혔으며, 시사(詩書)에 대해 각서(述書)하였고, 기이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52 중국 명 대의 과학기술 책. 저자는 송송성(宋應星, 1587~1664)으로, 강서성(江西) 봉신(奉新) 사람이다. 중국 고대의 농인, 공인, 산인, 교룡운수, 냇기 제조 등에 관한 생산 기술과 공예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해놓았다. 또 양식(糧食)·유료(油料)·당료(糖料)·약물의 지배 기술, 양잠·양봉, 금·은·동·철·주석·이런 등의 금속 제련, 석탄·유·제균, 방직·염색·지목(織物)·도자기·석회(石灰)·식염·모피·수레·선박·방기 제조 등에 관해 기록에 있다.

53 중국관속(Monascaceae)을 원래 명료시켜 만든 붉은 쌀, 홍국(紅麴)이라고도 하는데, 붉은 누룩이라는 뜻이다.

54 벨기에의 선교사 페르디난트(Ferdinand Verbiest, 1625~1688)의 중국 이름이다. 1641

國, 잉글랜드)에 호수가 있는데, 길이가 150리, 넓이가 50리다. 여기에 세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물고기 맛이 매우 좋는데 모두 지느러미가 없다는 것이다⁵⁷ 하였다. 이는 중국과 동국에서 관찰하던 바가 아니니, 또한 특이한 일이다.

《설문해자》에 낙랑번국(樂浪蕃國)⁵⁸의 물고기 이름을 인용한 것이 많은데, 그 모습은 그려내지 않고 사실 기록은 자못 소략하다. 그것은 고사를 번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용어(鰐魚)는 물고기 이름이다. 거죽이 무늬가 있고 낙랑 동이현(東曉縣)에서 난다. 신작(神鱗) 4년(기원전 58) 초에 이를 잡아서 고공(考工)으로 실어 보냈다. 선어(鮮魚)는 물고기 이름으로 맥국(貉國)에서 난다. 사어(鮫魚)는 물고기 이름으로 낙랑번국에서 난다. 노어(鱸魚)는 물고기 이름으로 낙랑번국에서 난다. 구어(鮪魚)는 물고기 이름으로 낙랑번국에서 난다. 역어(鰓魚)는 물고기 이름으로 낙랑번국에서 난다. 두 개의 꺾이 있다. 짙어(鮫魚)는 물고기 이름으로 낙랑번국에서 난다⁵⁹ 하였다. 우리 동방의 학자 양제(淩濟)

유득공(柳得恭)⁶⁰의 《사군고(四郡考)》⁶¹에 대략 의심이 풀릴 만한 곳이 있으니, 더 이상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물고기의 행동을 보고 날씨를 점치는 것 역시 《농정전서(農政全書)》,⁶² 《수시역법(授時曆法)》,⁶³ 《군방보(群芳譜)》⁶⁴ 등의 서적에 긴요한 몇 가지 조항을 소략하게나마 수록해놓았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 오르는 것을 칭수(鯁水)라고 한다. 칭수는 물의 범람을 주관하는데, 칭수가 많으면 범람이 많고 칭수가 적으면 범람이 적다. 깊은 잉어의 등

년 예수회에 들어갔고 1659년 마카오에 도착하여, 서안으로 가서 포교하였다. 서안의 역법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중국의 역법을 수정하였으며, 북경 관상대에 원용 관측 기계를 설치하고, 지리학, 지질학, 서지 지도 등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 《강희영년역법(康熙年曆法)》, 《근어전도(坤輿全圖)》, 《근어도상(坤輿圖說)》 등이 있다.

55 행권하는 페르비스트르의 《근어전도》를 말한다. 중국 중동(中東)에서 1856년 중간된 것을 바탕으로 1860년(철종 11) 우리나라에서 중간된 본본이다. 목판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이 지도는 동서 양단구를 그린 세계지도로서, 동 서단구가 각각 네 쪽에 그려진 8쪽짜리 지도다. 한 쪽의 크기는 세로 146.5센티미터, 가로 58.3센티미터다. 1612년 마테오 리치가 만든 《근어만국전도》에 비하여 오세아니아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한 지도 내용이 좀 더 정확해졌다. 《근어만국전도》와 함께 조선 후기 지식인이 서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지니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56 낙랑의 변방국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57 1749~? 조신 후기의 실학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문물을 수입하여 산업 진흥에 힘쓸 것을 주장한 북학파 실학자다. 또한 말해사를 한국사의 체계 안에서 파악, 연구하였다.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해보(海浦)·해공(海公), 호는 영재(滄齋)다. 이덕무(李德懋), 박지가(朴齊家), 서이수(徐致修) 등과 함께 4경서라고 불렸다. 첨지중추부사도 승진한 뒤 만년에 중추부사를 지냈다. 죽은 해는 명확하지 않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규장각 검서로 있었기 때문에 궁중에 비치된 국내외의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할 만한 저서를 남겼다. 《발해고(渤海志)》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 서술을 벗어나 고구려의 옛 땅인 요동(遼東)과 민주 일대를 민족사의 무대로 파악했으며, 고구려의 역사 권정을 강조하였다. 《이십일도회고서(二十一日圖說)》는 단군조선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세운 21개 도읍지의 건도(建都)와 민영을 읊은 43편의 회고서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민족의 주제 의식을 쇄새시키려는 역사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58 한사군의 실제와 역사적 존재 기간, 지리적 위치 등을 고증한 연구서다.

59 명나라 때 지어진 농업 관련 백과전서. 전 60권. 명 말의 학자 서광제(徐光啓)가 편찬한 것으로, 그가 죽은 뒤 1639년 진자룡(陳子龍)이 소주(蘇州)에서 간행하였다. 한(漢)대 이후 발달해온 농기(農器)의 여러 실용종류, 부류라고 사이사이에 저자의 견해를 덧붙여 편집한 것으로, 중국의 농학과 농서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농본(農本)·전제(田制)·농사(農事)·수리(水利)·농기(農器)·수예(農藝)·장삼(蠶桑) 등의 12개 문(門)으로 나뉘어 있으며, 특히 제27권 농제법(農器法), 제55권 목전(木田), 제64권 제왕소(蠶桑圖)는 참고할 만한 명저도 안되지 않다.

60 원(元)나라 때 편찬된 전문 역법서. 기상 관측이나 날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61 중국 청나라 때 만들어진 원예, 화훼 관련 종합 백과전서다.

지느러미가 길어서 꼬리에 닿으면 가뭄이 든다. 초여름에 붕어를 먹을 때 등딱가 굵은 것이 있으면 홍수가 진다. 물레방아 붓도랑 안으로 물고기가 역류하여 들어왔을 때 배기가 잡히면 납씨가 맑고 잉어가 잡히면 비가 내린다. 또 붕어는 비를 관장하고 동자개는 맑은 날을 관장한다. 어부가 그물질을 하여 죽은 쏘가리를 얻었을 때 입을 벌리고 죽어 있으면 비가 내리되 소낙비처럼 금방 지나가버리고, 입을 다물고 죽어 있으면 조짐이 늦고 홍수와 잠마가 일정치 않다. 물고기가 수면에 떠 있으면 비가 내린다. ‘취어반목(醉魚反目)’, ‘달어취어(鰱魚取魚)’, ‘주작소일(祝字消日)’ 등의 비법에서 본래 또한 언급하였다.

《화한삼재도회》에 “날감의 뭇은 즙을 흘려보낸다는 ‘유시질(流絲澁)’이란 게 있다. 곧 날감의 뭇은 즙을 냇물에 짜서 흘려보내면 피리와 붕어가 크게 취하여 떠오른다” 하였다. 물리서에 “모래를 불에 태운 채, 보리밥 및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불속에 던진다. 물고기가 이것을 먹으면 제 눈을 까뒤집으며 죽는다” 하였다.

《공동자(空雨子)》에 “감람나무로 노를 만들어 물속에 뒹지면 물고기가 물 위로 뜬다” 하였다.

물고기나 자라를 잡고 싶을 때, 《회남자(淮南子)》에는 “물의 정화(精化)를 말려 죽이는 것을 위(鰓)라고 한다. 위의 이름을 외치면서 물고기나 자라 따위를 잡으면 잘 잡을 수 있다” 하였다.

진미공(陳眉公)⁶²의 《암서유사(巖棲幽事)》에 “물고기나 새우를 잡을

때 해일(亥日)에 잡으면 많이 잡을 수 있다” 하였고, 진미공의 《진주선(珍珠船)》에 “다른 사람이 낚싯대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계체(鰓體) 주문을 일곱 번 외우되 니체(尼諦), 미체(彌諦), 미계(彌提), 나제(羅諦)라고 외우면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하였다.

물리서에 “물고기가 파초(芭蕉)를 먹으면 죽는다” 하였다.

누가 복어를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는가? 《오잡조(五雜俎)》⁶³에 “당나라 천보(天寶)⁶⁴ 연간에 안휘성(安徽省) 당도현(當塗縣)에 있는 배성이 커다란 배에 고기를 싣고 가고 있었다. 그때 어떤 큰 물고기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외었다. 잠시 뒤에 모든 물고기가 다 같이 아미타불을 외우자 그 소리가 땅을 진동시켰다” 하였다.

우리 조선 영조 말엽에 잉어를 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잉어는 길이가 5~6척이나 뽕 직한 놈이라 워낙 커서 들보에 산 채로 매달아 놓았다. 이웃 사람이 와서 구경하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큰 잉어를 누가 낚아서 팔았던가?” 하였다. 잉어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나악쇠(羅樂臺)”라고 외치니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부 가운데 성이 나요, 이름이 악쇠란 이가 그물로 잡아서 팔았던 것이다. 여러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입을 모으기를 “잉어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다 저를 잡은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 신령하고 기이하기가 이와 같다면 이놈은 필시 용이 될 놈이다. 즉시 놓아주어야 화를 면할

62 중국 명 대의 학자 진계유(陳繼儒, 1558~1639)를 말한다. 자는 중순(仲醇)이고 호는 비공(眉公)이다. 시(詩), 문(文), 서(書), 화(畫)에 모두 뛰어났다. 29세부터 풍류와 문필 생활에 전념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저서에 《미공전집》이 있다.

63 명 대의 학자 사조재(謝肇淛)가 저술한 수필집.

64 당 현종의 연호 742~755.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주인이 이에 잠은 감에 도로 망생하였다. 무릇 물고기 가운데 빙상한 놈이 있는 것은 우선 다 변증하지 않는다.】

● 옛사람은 양어(養魚)를 '종어(種魚)'라고 불렀으니, 물고기 농사로 생각하여 차이를 물고기 종묘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이 시와 노래에 들어간 것이 많은데, 가장 오래되고 문학성이 뛰어난 것을 꼽자면 범여(范蠡)의 《양어경(養魚經)》을 따라올 것이 없다.

【《양어경》은 주공(周公)⁶⁵이 지은 것으로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주공을 초빙하여 물었다. '돈자나 공이 오호(五湖)에 계시면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다지요? 제나라에 있을 땐 치이자피(池夷子皮)라 하고, 서융(西戎)에 있을 땐 적정자(赤精子)라 하고, 월(越)나라에 있을 땐 범여라 하였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공이 대답하였다. '네, 있습니다.' 제나라 위왕이 문기를 '그대가 수천, 수만의 집에 살며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니,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자, 주공이 대답하였다. '무릇 가산(家產)을 경영하는 데는 다섯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축(水畜)이 제일입니다. 수축이란 물고기입니다. 6묘(畝)의 땅을 연못으로 만든 다음, 연못 안에 아홉 개의 모래섬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몸길이가 3치쯤 되는 알을 낳은 잉어 약 20마리와 몸길이가 3치쯤 되는 수컷 네 마리를 구하여 2월 상순 정일(庚

日)에 연못 속에 풀어놓습니다. 이때 물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하면 물고기가 들림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4월이 되면 첫 번째 신수(新守)를 넣고, 6월이 되면 두 번째 신수를 넣고 8월이 되면 세 번째 신수를 넣습니다. 신수란 곧 자라(蠶)를 말합니다. 자라를 연못에 넣으면 물고기가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연못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⁶⁶ 그러면 잉어가 아홉 개의 모래섬 주위를 끊임없이 헤엄치고 노닐며 연못을 강호(江湖)로 여기고 살게 됩니다. 이듬해 2월이 되면 길이 한 척짜리 잉어 1만 5000마리, 세 척짜리 5000마리를 얻습니다. 두 척짜리 1만 마리는 값이 5000이니, 이것을 팔아 125만 전(錢)의 돈을 마련합니다. 또 그 이듬해가 되면 길이 한 척짜리 10만 마리, 두 척짜리 5만 마리, 세 척짜리 5만 마리와 네 척짜리 4만 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길이 두 척짜리 2000마리를 남겨 종자 물고기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510만 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듬해가 되기를 기다리면 재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왕은 이에 후원에 연못을 경영하여 1년 만에 3000만여 전의 돈을 얻었다. 연못 가운데는 아홉 개의 모래섬과 여덟 개의 골짜기를 만들고 골짜기 위에는 2척 높이의 입수(立水)를 만들며 골짜기 중간에는 6척 높이의 입수를 만든다. 그래야 잉어가 서로 잡아먹지 않게 되어 낭비 없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 문장이 아름답고도 조리가 있어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크고 의

65 범여의 다른 이름이다. 범여는 춘추 시대 월(越)나라 영남 구권(句踐)을 20여 년간 삼키면서 오호(五湖)나라를 변방시키고 회계(會稽)의 피육을 쫓았다. 그 후 구권을 계속 도시면화를 꾀할 수 없음을 알고 월나라를 떠나 초각비를 타고 강호(江湖)를 떠돌아다녔다. 제(齊)나라에서는 치이자피(池夷子皮)라는 이름으로 수천만금을 모았고, 다시 도(魯)지방에 가서는 주공(周公)으로 행세하며 특축임을 하여 거부가 되었다. - 《사기(史記)》 《화식전(貨殖傳)》, 《국어(國語)》 《월어하(越語下)》

66 《양어경》에는 이 일부분에 '대개 잉어가 번식하여 360마리가 되면 그중에 함께 사는 교룡(蛟龍)이 다 성장하여 다른 잉어를 데리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즉 자라를 넣지 않으면 잉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자라를 넣으면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연못 속에 안주하여 산다는 의미다.

미가 크면서도 간략하니, 진실로 물고기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 기이한 문장이다.】

● 무릇 양어란 천짓 재산 증식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호랑(濠梁)의 운치를 갖게 해주고 물고기에는 경호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⁶⁷ 언뜻 물을 피는 장식의 수고를 아끼지만 않는다면 물고기를 기르는 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으니 오자(五絃)⁶⁸ 가운데 제일이요, 구농(九農)⁶⁹ 외에 최고라 하겠다. 그러나 물고기를 기르는 데 방해꾼도 있고 약탈자도 있다. 첫째는 빈달(鱗鮒, 수달)이요, 둘째는 도둑이요, 셋째는 도깨비다. 이 세 가지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그 이로운은 말로 다할 수 없으나, 양봉(養蜂)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그러므로 대략 기르는 방법을 반증하였다.

【빈달은 수달인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도둑은 좁도둑 같은 어린애로, 사람이 없는 틈을 엿보아 그물을 던져 물래 잡아간다. 도깨비

67 호랑은 호수(濠水)에 놓인 다리를 말한다. 장자(莊子)와 그의 친구 혜자(惠子)가 인력이 호수의 다리 위에서 노닐었는데, 장자가 말하기를 “피라미가 나와서 조용히 노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인데” 하였다. 이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자, 장자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는 줄 어떻게 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는 데서 온 말이다. -《장자》〈추수(秋水)〉

68 재산을 증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섯 가족의 양것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노(魯)나라의 대부호인 채은(齊簡)은 어릴 적 매우 가난하였다. 그가 도해(陶) 지방의 주공(朱公)이 거부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자, 도 주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원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소, 밭, 재, 양, 당나라의 다섯 양것(五絃)을 길러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채은이 그대로 시행하여 그 역시 거부가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69 《주례(周禮)》에 소개된 이름 가지 곡식, 즉 매키장(麥), 환기장(稷), 차조(粱), 바(稻), 콩(豆), 콩(大豆), 말(小豆), 보리(大麥), 말(小麥)을 가리킨다. -《주례》〈천관(天官)〉

는 바로 독각귀(獨脚鬼)인데, 언뜻을 분담질 쳐서 물고기를 문당 쏘어가 버려 물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썩을 밀린다. 이 세 가지 방해 요소는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저 물고기를 기를 때는 먼저 물이 풍풍 솟아나는 곳을 찾아 땅을 파고 제방을 쌓은 뒤에야 물고기 종자를 넣어야 한다. 물이 솟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물을 낼 곳이 있다 하더라도 흠이 주석주석한 곳이라면 금방 새어 나가버리니 물을 저장할 수가 없고, 만약 차지고 치밀한 흠이라서 물을 저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흐름이나 운동이 없다면 고인 물이란 쉽게 썩어버리기 마련이니 물고기가 불림없이 죽고 말 것이다. 물고기를 기르는 자는 먼저 그 땅을 잘 살펴야 하니,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맡겨두어도 저절로 잘 되는 곳이어야 좋다.

물을 대는 것에도 법이 있다. 《오잡조》에 “심심산골 샘이 없는 곳을 만나 12장 깊이의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지 않는 상황에 다치면 솥을 끓여 연기를 피워 우물 속에 넣은 다음 그 위를 치밀하게 덮어 불꽃과 연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샘이 진 우물물의 맥이 은밀하게 통하는 곳을 찾아내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산의 수십 리 밖 우물까지도 모두 능히 끌어와 낼 수 있다” 하였다. 청(淸)나라 성조(聖朝, 강희제)의 《기여록(機絲錄)》에 “샘을 찾으려 산에 들어가서 자갈만 많이 쌓인 채 물이 없는 서덜을 만나면 한 섬(石)이 들어갈 만하게 구멍이를 판 다음 축축하게 젖은 썩대를 그 속에 깔아 매운다. 이어서 평평한 불로 태워서 연기가 서로 통하는 작은 굴 하나만을 남긴다. 사방을 둘러보며 살펴다가 연기가 나오는 곳을 발견하기만 하면 원근을 따지지 말고 가서 그곳을 파 샘물의 맥을 찾는다. 이때 돌산에서는

들 근처를 파고, 흙산에서는 초목 근처를 파고, 자갈들이 쌓인 곳에서는 높은 곳을 택하여 판다” 하였다. 이와 관련한 착정법(鑿井法)은 <은화흙진변증설(混火噴泉辨證說)>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

《괘설(構說)》에 “은천의 매우 양지바른 곳에 달걀처럼 생긴 돌이 있다. 이것을 돌전구에 쟁아 가루를 만들어 흙과 함께 섞어놓은 다음 물이 없는 곳을 판 때 그 바다에 매워두면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한양에서는 때때로 이 방법을 쓴다. 무릇 연못을 팔 때 물이 새어나가 잘 마르곤 하면 의당(義堂) 《태서수법(泰西水法)》에 소개된 수고법(水庫法)을 써야 하니, 그러면 물이 고여 마르지 않는다” 하였다. 《금광명경(金光明鏡)》⁷⁰에 “유수장자(流水長者)라는 사람은 자재선생(自在先生)의 아들이다. 유수장자가 연못에 물이 말라 물고기가 말라 죽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큰 코끼리 20마리의 등에 가죽부대를 싣고 이끌고 가서 겐지스강의 물을 담아서 돌아와 연못 가운데 쏟아 부었다. 그러자 물이 드디어 가득 차서 배를 타고 다니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였다” 하였으니, 이렇게 한다면 굳이 솥에 불을 붙여 솥을 찾을 것이 뭐 있겠는가?

물리서에서는 연못의 정복함은 의당 깊게 파야 하니, 물고기가 반드시 거기에 모인다고 하였다. 《소씨후록(邵氏後錄)》에 “송(宋)나라 휘종(徽宗) 숭녕(崇寧) 연간(1101년 무렵)에 서도(西都)의 대궐에서 후원 가운데 있는 연못의 물이 쉽게 말라버리는 것을 근심하였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쇠뿔을 연못 가운데 넣어두면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

기에 그리하였더니 과연 물이 마르지 않았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우물이나 샘 혹은 작은 연못 속에 물벌레나 개구리가 많이 생겨 해로운 일이 발생할 경우 말뚝을 그 가운데 넣어두면 이런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연못 속이 혼탁해지면 병에 인분(人糞)을 넣은 다음 푸른 댕이므로 싸서 패찰처럼 만들어 물속에 던져두면 물이 맑아진다. 물속에 오색찬란한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용이 있으니 선분리 침벌하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연못을 둘러싼 사면의 제방에 목책을 늘어세운 것처럼 버드나무를 둘러 심어놓고 가지가 종종히 뜰이나 길게 휘늘어지기를 기다려 그 가지를 서로 목책의 칸과 칸에 걸쳐놓는다면 연못 둘러가 무너질 염려가 없다” 하였다.

도통(屠隆)⁷¹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오자(五杼)를 기르는 법은 첫째는 물고기를 기르는 양어(養魚)이고, 둘째는 양을 기르는 양양(養羊)이고, 셋째는 돼지를 기르는 양저(養猪)이고, 넷째는 닭을 기르는 양계(養雞)이고, 다섯째는 거위와 오리갈 기르는 양아암(養鵞鴨)이다. 6묘(畝) 면적의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그 속에 아홉 개의 보래심을 만든다” 하였다.

《거기필용(居家必用)》⁷²에 “사망 1장(丈)쯤 흙을 파내고 구운 벽돌을 울퉁불퉁 두둑하게 쌓아 십 열 개를 만들어 십주(十洲)⁷³로 삼되, 수면

70 중국 북당(北唐)의 담주암(曇摩藏)이 번역한 대승불교의 경전, 석가모니의 영원성을 기리고 지신(地神)과 사천왕에 대하여 설한다. 경면하고 상세하여 경전 가운데 모범이 된다. 예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경전으로 존송되어왔다. 병성의 전통 역시 이 경전에서 비롯하였다.

71 용경(龍慶) 만려(萬曆) 연간에 사문(詩文)으로 널리 알려졌던 문사(文士)·자는 장경(長卿), 호는 동해인(東海人)이다. 원강(浙江) 사람으로, 권질이 비문에 뜻이 없고, 만년에 명사(名士)들과 산림에서 유유리락하였다. 저술에 《고만어사(考槃餘事)》 등이 있다.

72 원나라 초에 반간권(潘謙) 작자 미상의 가정생활 책에서, 이 책에는 약 390종의 요리법을 비롯하여 가축 기르는 법, 정원 가꾸는 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73 신선이 산다는 전천의 섬. 동방삭(東方朔)의 《십주기(十洲記)》에 십주는 조주(巨洲), 명주(溟洲), 현주(玄洲), 영주(靈洲), 강주(長洲), 원주(元洲), 유주(流洲), 생주(生洲), 불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물고기를 번식시키는 방법은 《양어경》과 동일하다. 못을 수축(修築)할 때는 모름지기 좋은 해와 날짜를 가려서 해야 하고, 물고기 종자를 풀어놓을 때도 생문(生門)에서 풀어놓아야 한다. 생문방(生門方)⁷⁴은 곧 집으로 들어가는 문(門)의 방향을 말한다. 예컨대 경신일(庚申日), 임자일(壬子日)에는 곧 곤방(坤方, 남서방)이 생문방이니 그 방향으로 물고기 종자를 풀어놓는다. 그 비결은 《하중결(下雜訣)》에 나오는데, '경신일과 임자일에는 곤방이 생문방이고, 임술일과 경자일에는 이향(離鄉, 남방)이, 갑인일과 병진일에는 산중위(巽宮位, 동남방)가, 계묘일과 신미일에는 간중장(坎中藏, 동북방)이, 을묘일과 신축일에는 다시 감위(坎位, 북방)가, 기미일과 정해일에는 대상당(兌上堂, 서방)이 생문방이라고 하였다. 다만 생문에서 물고기 종자를 풀어놓는 것만 논했으니, 그 방법을 취하는 데 법에 따라 배치하면 물고기가 죽을 일이 없다. 못을 만들 때는 10묘(畝) 면적의 땅을 취해 둘레 약 100보(步)의 웅덩이를 파되, 사면(四面)의 길이가 모두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한다. 그 안에 반드시 아홉 개의 돈대를 만들되, 여덟 개의 돈대에는 관괘(八卦)의 방위와 간격 하여 부적을 새긴 괘를 세운다. 중앙에 있는 돈대에는 팔각루정(八角樓亭)을 만들되 길한 날을 받아 세운다. 이날이 어느 별자리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 즉시 그 별자리 이름을 부적에 쓴 다음 괘를 세운다. 구궁(九宮)의 부적 괘는 모두 붉은 글씨로 돌에 새겨

주(圖解)라 하였다. 여기서는 물고기가 모여 노니는 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74 관문(門) 가운데 생명이 살 수 있는 길한 방향을 말한다. 술가(酒家)의 문에 따르면 관문에는 휴문(休門)·생문(生門)·상문(傷門)·두문(杜門)·사문(死門)·경문(驚門)·경문(驚門)·개문(開門)이 있는데, 개문·휴문·생문은 진문(吉門)이고 나머지 다섯 문은 흉문(凶門)이다.

넣는다. 위에는 흙으로 용왕(龍王) 소상(塑像)을 빚어 만들어놓고 공양을 하고, 날마다 달마다 제를 지낸다. 비명히 위와 같은 법(法)에 따라 조성한다면 반드시 용현이 있을 것이다.

만일 풍풍 솟아나는 활수(活水)가 있을 경우, 예컨대 못의 흙이 마르면 활수를 부어주고 못이 가득 차면 활수를 댈다. 부적은 곤방(坤方)·태방(兌方)·건방(乾方)·오방(午方)·이방(離方)·중앙(中央)·간방(坎方)·자방(子方)·손방(寅方)·진방(震方)·간방(艮方)에도 만들어 붙인다. 생문에서 물고기 종자를 풀어놓을 때는 휴문(休門)은 자방이고, 생문은 간방이고, 상문(傷門)은 진방이고, 두문(杜門)은 손방이며, 경문(驚門)은 오방이고, 곤방은 사문(死門)이며 중앙이고, 경문(驚門)은 태방이며, 개문(開門)은 건방이니 이에 따른다. 이것이 구부(九符)이니 바로 구궁에 세워 안정시키는 관괘의 방위다. 삼가 이 방식에 따라 전평(轉平)을 써서 각각의 축대나 돈대 위에 세워 길흉을 주재하게 하면 물고기가 밥맛으로 장생불사하게 된다.

큰 못 곁에 작은 못 몇 개를 만들어놓고 큰 못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면 이들을 건져 작은 못으로 옮겨 못의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주면 또한 물고기를 잡아서 사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다. 무릇 물고기가 필요로 하는 요소인 비옥한 진흙과 무성한 물풀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좋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짚을 지어놓고 살면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달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만 한다. 만약 큰 연못에 물고기를 키울 수 없다면 다만 작은 못에 물고기 새끼를 가져다놓고 푸른 풀로 먹이를 주면 사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연못이나 못의 둘레에 양 우리를 만들어놓고 매일 아침 양의 똥을 못 속에 쏘아 넣어 물고기의 사료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에게 주려고 풀을 베어 넣어줄 필요가 없다. 다만 물고기에게 약간의 채증(漚症)은 있을 수 있다.

홍삼밭(熊三拔)⁷⁵이 쓴 《태서수법(泰西水法)》(수고법(水庫法))의 주(注)에 “무릇 연못에 이미 잡다한 생물이 가득 들어차서 막혔을 때 금어(金魚) 및 마리를 기르면 이놈들이 물속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혹 붕어를 기르면 이놈들이 물때를 다 먹는다. 들원에 만든 못에 산간 계곡물을 끌어다 넣어 이렇게 온갖 물고기를 기르는 것도 좋다” 하였고, “물고기의 성질은 태양 소와 양과 서로 성장한다(魚之性 每與牛羊生相長)”라고 한 구절의 주에 “물고기가 소와 양과 서로 성장하는 것은, 잉어는 소와 양의 분뇨를 먹고 살찌고 연어는 잉어의 분뇨를 먹고 살찌기 때문이다” 하였다.

《산림경제(山林經濟)》⁷⁶에 “연못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부들로 환

받을 꽃이두어 물고기가 개울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밭의 살때가 너무 흥흥하면 물의 흐름이 막히고 너무 성글고 텅텅하면 어린 물고기가 빠져나간다. 큰 관자를 가지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여기저기 뚫어 살대를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였다.

《화환삼재도회》에는 “새로 연못을 팔 때 붕비의 물이 여름과 봄의 양기에 감화되면 붕어가 절로 자생한다. 잉어와 미꾸라지 역시 모두 이와 같다. 무릇 빈 연못에 붕어가 절로 생기게 하고 싶다면 봄철에 짐뿔을 넣어두면 절로 부화하여 붕어가 된다” 하였다. 《물리소지》와 《본초강목》은 반드시 읽어야 하니, “봄이 되면 붕어의 머리에 벌레가 생긴다. 이 물고기는 좁쌀에서 부화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배에 아직도 좁쌀 색이 남아 있다” 하였다.

또 《화환삼재도회》에는 연못을 파다 보면 결이 세로로 된 흙도 있고 가로로 된 흙도 있는데 이렇게 성질이 다른 흙이 있다고 하였다. 《미공비담(圃公秘笈)》과 《천록지역(天祿識錄)》에 “토맥(土脈)에 가로와 세로가 있다. 결이 세로로 된 수토(塿土)에는 벼를 심을 수 없으니,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이 가로로 된 횡토(橫土)라야 못을 팔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이치다.

제가 붕어의 맛을 보는 법과 붕어의 증상을 다는 법이 있다. 농서(農書) 와 김여지(蠶集志)⁷⁷에 “흙을 한 자 깊이로 파고 그 맛을 보았을 때 단 것은 상등이요, 짝지도 단지도 않은 것은 그다음이요, 짠 것은 하등이다. 각처의 흙 무게를 잴 때는 아주 바짝 말려서 처음에 단다. 이때 무거운

75 이발리아 출신 예수회 신부인 우르시스(Sabbathin De Ursis, 1575~1620)의 중국 이름, 자(字)는 유강(酉綱)이다. 1606년 중국 북경에 들어가 마테오 리치 신부에게 중국어와 한문을 배운 뒤 명 황실에서 천문역산사(天文歷算書)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0년 리치 신부가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판토키(J. de Pantoja)와 함께 편찬 책임자가 되었다. 1616년 남경(南京)에서 박해가 일어나 북경에까지 그 이과가 미치지 가까오로 피신해 1620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1612년 《태서수법》이 첫 권을 북경에서 완성하였다.

76 조선 후기의 학자 유암(遊巖)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이 지은 농서 4권 4책의 필사본이다. 이 책은 지은이의 만년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편찬되었다. 홍만선은 명조기에서 태어나 관운이 비교적 순탄하여 내직과 함께 외직으로 여러 곳의 지방관을 역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의의 경제생활 지침서로 책당하는 《산림경제》를 지었다. 1766년(영조 42) 유종림(柳宗琳)이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산림경제》의 구성은 주택과 건축, 삼경(蠶桑), 특용작물 재배법, 제조류·차조류·담배·약초류 재배법, 파수와 임목 육성, 화훼, 양잠, 양봉, 가축, 양어, 요리 및 식품 가공 저장법, 구구(九九), 구황(救荒) 등 16개조로 말한다. 이 책은 단순한 농업 기술서나 농민 경제서기 아니라 넓은 뜻의 향촌 경제서라고 할 수 있다.

77 풍수지리에 관한 서적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흙이 살등이요, 가벼운 것이 허등이다. 대개 단맛이 잡히는 흙이나 중량이 무거운 흙이 물고기에 맞기 때문이다” 하였다. 양어법은 이렇다. “물고기를 기르는 연못은 7묘 내지 9묘의 땅을 쓰면 된다. 그 안에 십주(十洲)와 삼도(三島)⁷⁸를 만들어 세우면 물고기가 밤낮으로 오방(五方)에서 노닌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법이니, 1장(丈) 남짓 깊이로 파낸 다음 벽돌을 두둑하고 숭푹푹하게 쌓아 십주를 만들되 수면 위로 솟지 않게 한다. 한낮에는 남쪽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법이니 섬이 솟는 곳까지 파낸 다음 다시 세 곳은 우물 모양처럼 더 깊게 웅덩이를 판다. 이것을 삼도라고 한다. 이렇게 십주와 삼도를 만들어 물고기로 하여금 추울 때와 더울 때 모여 살게 해준다. 오후에는 서쪽에서 노니는 법이니 그저 2척 내지 3척 깊이로 만들어놓고 부들과 피드나무 따위를 많이 심어 물고기로 하여금 꽃 그림자 속에서 유유히 헤엄칠 수 있게 해준다. 황혼 무렵에는 북쪽에서 노니는 법이니 7척 내지 8척 깊이로 만들어 마름 따위의 물줄을 많이 심어놓으면 물고기가 여기에 모여 쉰다. 한밤중에는 중앙에 걸쳐하니 4척 내지 5척 깊이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어 물고기로 하여금 북두성(北斗星)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연못 가운데 하나의 대(臺)를 건축하되 사방 2장쯤 되게 한다. 그곳에 봉수대(烽臺) 모양의 굴뚝을 세우고, 굴뚝 중간에는 개덜과 개뻬와 개똥을 마른 시초(柴草, 변감용 풀)와 함께 섞어 쌓아둔다. 굴뚝 바깥에는 한 줄기 도화선을 세워 안으로 늘어뜨려 놓아두었다가, 만약 폭풍우가 몰아지면 속히 한 줄기 도화선을 가지고 물을 댕겨 굴

78 동해 가운데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으로, 풍채(蓬萊), 방강(方丈), 영주(瀛州)를 말한다. 십주 삼도는 흔히 도가의 신선 세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물고기가 모여 노니는 소(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뚝 속에 있는 시초와 개덜, 개뻬, 개똥 등에 물을 붙인다. 그렇게 하여 연기가 용처럼 일어나면 다른 더러운 안개 따위가 다가와 범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양어를 기르는 법이다. 예전대 정어(鯖魚) 등은 굳이 굴뚝을 세울 필요가 없다.]

● 수달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물리소지》에는 “연못 주변에 목부용(木芙蓉)을 많이 심어놓으면 수달이 감히 접근할 수 없다. 목부용 잎이 능히 수달의 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수달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또 《화경(花鏡)》⁷⁹에 소개된 <제달법(能翻法)>을 보면, 장작(張蠶)⁸⁰이 “수달이 사는 소굴에 쉼의 공지를 쫓아놓으면 곧 수달이 감히 나오지 못한다” 하였다. 물리서에 “계수나무는 수달을 해친다. 수달은 술을 마시면 죽으니 그놈이 다니는 길에 술을 놓아두면 수달이 마시고 죽는다. 연못 독에 쉼의 난개깃이나 털을 많이 쫓아놓으면 수달이 감히 올 수 없다” 하였고, 또 “수달과 여우는 말고기를 먹으면 죽는다” 하였다. 《산림경제》에서는 “연못가에 파초를 심는 것은 이슬이 모여 물속으로 떨어지면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오행서(五行書)에서는 “거위 암수 한 쌍을 뜰에 풀어두어 때때로 쫓아 올게 하면 도둑도 물리치고 벌

79 진호자(陳胡子)가 지은 회해 관련 백과사전.

80 658-730, 당나라 때의 권력자, 문장에 뛰어났다. 자는 문성(文成), 자호는 부용계(浮休子)다. 십주(十洲) 육대(陸臺) 사관이다. 어리서 꿈에 자못빛 찬란한 근세가 마땅으로 보이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름을 자의 봉황(紫鳳)으로 지었다. 상원(上元) 2년(675) 진사가 되었고, 장안위(長安尉), 홍리승(鴻臚丞)을 지냈다. 문제가 화려하여 ‘정전 학사(青蓮學士)’로 불렸다. 성격이 방탕하여 개원(開元) 연간에 어시에게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도 물리치고 또 도깨비도 물리친다. 따라서 연못 등 근처에서 기르기가 좋으니 이것이 양어의 모한 기술이다. 물고기 기르는 것을 농사로 삼는 자는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 어린 물고기 새끼를 키우는 데 방법이 있다.

【범어의 《양어경》에 “살아 있는 붕어의 배를 대나무 칼로 갈라 수은을 조금 넣는다. 이때 수제(水津)⁸¹와 유제(油葉)를 갈아서 반죽하여 함께 넣는다. 그런 다음 채소로 싸서 공중에 49일 동안 매달아놓는다. 강물을 떠서 붕어 배 속에 든 알 한두 개를 채취하여 어항의 물속에 넣어두고 돌돌 감은 것으로 덮어둔다. 잠시 뒤에 보면 알 하나당 붕어 새끼 한 마리가 되어 어항 속을 헤엄쳐 다닌다. 다만 원래 종자에 따라야만 한다” 하였다. 또 《동파집(東坡集)》⁸²의 주(注)를 보니 “폐설서(神說書)에 잠잠 사이에 물고기 새끼 만드는 법을 설명해놓았다. 여름철 산물고기 새끼를 파는 상점에 가서 말라버린 물고기의 알을 가져다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티베리고 빈 달걀 껍데기 속에 넣은 다음 단단히 봉한다. 그런 다음 닭이 품게 하고, 병아리가 부화해 나올 때 함께 꺼내어 그늘에서 말린 다음 물속에 넣는다. 그러면 즉시 부화하여 물고기 새끼가 된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단옷날 잉어 알을 가져다 자리 위(席上)에 발라둔다. 60일 정도 그늘에 말렸다가 물속에 넣어두고 인분과

키로 덮어둔다. 남해의 여러 고을에서는 8-9월에 물고기 알을 가져다 풀에 깔아 부뚜막 그늘음이 나는 곳에다 매달아놓는다. 2월이 되어 우레가 칠 때 그 풀을 연못에 담가두면 얼룩 만에 옮겨이처럼 나온다. 이것을 ‘미의(鮒鮒)’라고 한다. 2월 상순 경일(庚日)에 잉어를 기르는 사람은 대개 취하여 기르기 쉽다” 하였다. 이것이 물고기 새끼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까닭에 상세히 변증한다】

● 또 물고기를 잡아두는 방법도 있고, 물고기를 치료하는 방법과 물리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 변증한다.

【《잡오행서(雜五行書)》에 “물고기를 잡아두는 방법은 이렇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버린 해진 옷을 가져다놓고, 네 개의 어항을 연못 네 모퉁이에 얹어서 묻는다. 그러면 물고기가 절로 멀리 가지 못한다” 하였다. 물고기의 병을 치료하는 법은 《산림경제》에 “만약 물고기가 독기를 만나 허영제 배를 뒤집고 물 위에 뜰 경우 급히 독이 퍼진 물을 빼내어 버리고 다른 새 물을 별도로 못에 끌어낸다. 그리고 파초 잎을 많이 따다가 찢어서 새 물이 들어오는 곳에 놓아두어 물고기가 마시게 하면 즉시 해독이 되어 깨어난다. 혹은 사람이 금방 눈 오줌(漚, 신은제(神隱志))에서는 ‘중훈’이라 하였다)을 연못 수면 위에 부어주어도 역시 해독이 된다. 무릇 물고기를 기르는 연못에 메기를 넣어두면 물고기가 모두 죽는데, 메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또 연못 속에는 절대로 삼(蠶)을 담그면 안 되는데, 물고기가 모두 똥똥 뜨기 때문이다. 그때 연못 옆에 자라는 파초 잎의 이슬이 연못에 떨어지면 해독이 될 수 있다” 하였다. 또 《산림경제》에 “물고기가 벼들 꽃(繡花)을 먹으면 병이 든다” 하였고, 물리서에는 “물고기가 콩을 먹으면 병이 든다. 물고

81 역제 상태의 광석 껍데기를 갈자기 석해서 얻은 흰 알갱이 모양의 재료를 말한다.
82 송나라의 대문호 소식(蘇軾, 1037-1101)의 문집. 저: 자침(子瞻), 호: 동파거사(東坡居士)다. 흔히 소동파(蘇東坡)라고 부른다. 지금의 사천성 미안현(眉山)에서 태어났다. 시(詩), 사(詞), 부(賦), 산문(散文) 등에 모두 능해 당송관대기의 한 명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요리는 물론이고 양어와 화훼에도 뛰어났다.

기가 가래나무 목피(木皮) 즙을 먹으면 죽는다. 물고기는 감람나무 쪼꺼기, 땅츠, 황벽나무 열매, 각유(各油), 석회, 과두(巴豆), 천초(川椒), 모과를 태운 재, 마운 여뀌를 쪼끼니, 이것들은 모두 물고기를 죽인다”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가 달걀이나 오리 알의 노른자를 먹으면 추위를 막아 알을 배지 못한다. 호마고병(胡麻古餅)은 곧 지마유(芝麻油, 참기름)의 쪼꺼기인데, 이것은 물고기를 살지게 할 수 있다. 이 역시 물고기를 기르는 이가 마땅히 유념해야 할 점이다” 하였다】

● 또 자라 새끼를 기르는 법도 있다.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에 “별주(龜推)를 가져다 바둑알 크기쯤 되게 만든다. 붉은 비품을 쪼어 그 즙을 섞어서 떠나 그렁에 두껍게 바른다. 이렇게 만들어둔 것을 5~6월 중에 연못 속에 던져둔다. 열흘이 지나면 꼬물꼬물 모두 자라가 되어 나온다” 하였다. 《천황부우득(天潢樓偶得)》에 “먼저 땅을 파서 큰 굴을 만든다. 새끼 뱀 이미 돼지 한 마리를 도살하여 그 안에 넣어둔다. 육별자(肉離子) 수천 개를 가져다 돼지고기 속에 찢러 넣어두고 고기가 썩을 때까지 기다리면 육별자가 곰실곰실 움직이며 곧 자라가 된다” 하였다. 나의 견해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진짜로 자라가 생겨난다면 별도의 연못에 자라를 길러 재산을 불리는 것은 물고기를 길러 재산을 불리는 것에 버금갈 것이다. 육별자 외에 목별자(木離子)도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목별자를 쓴다면 역시 자라 새끼가 태어난 것인가. 육별자에 대해서는 《본초강목》과 《정자통》 그리고 유서(類書)나 자서(字書) 등을 상세히 고찰하면 알 수 있다. 육별자 외에 또 미전목별(米田木離)도 있으니, 아울러 그 이름과 속성을 세밀히 고찰하여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 물고기 종자 외에 금어(金魚)라는 것도 있는데, 그 기르는 법을 이미 변증해놓았다. 그래서 금어 기르는 법은 언급하지 않으나, <금어와 회어에 대한 변증설(金魚花魚辨證說)>을 참고하라.

【《군방보》에 “어떤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어는 마땅히 어항에서 길러야 하니, 흙 기운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붉은빛이 선명해진다. 금어가 알을 까는 것은 대부분 폭우(靄雨) 뒤다. 만약 알을 깔 때가 광비를 만나면 빗물을 따라 알을 흘러보내고 큰비를 만나면 그다음 날 새벽에 알을 흘러보낸다. 폭우 뒤에 알을 깔 물고기를 풀과 함께 건져내어 새로 맑은 물을 채운 어항 안에 넣는다. 살펴보면 수컷 물고기는 어항을 따라 암컷 물고기 뒤를 쫓아가 교미를 한다. 때를 기다려 교미가 끝나면 물고기를 건져내어 도로 옛 항아리에 넣는다. 그리고 풀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보면 좁쌀 크기만 한 물고기 알이 붙어 있는데, 색이 마치 수정 같다. 바로 이 풀을 얇은 옹기 어항 안에 건져서 넣어놓고 손가락 서너 마디가량의 물을 부은 다음 열은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놓아두고 빛을 쬐어준다. 빛을 보지 못해도 부화하지 않고, 너무 강한 빛을 쬐어도 부화하지 않는다. 하루나 이틀 정도 두었다가 곧 꺼낸다. 알을 까고 난 뒤에 큰 물고기를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오래 놓아두면 스스로 재 알을 다 먹어버린다. 교미를 할 때는 굳이 풀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풀이 많으면 도리어 움직임에 방해가 된다. 금어는 기름 먹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니, 기름과 소금을 넣은 증병(蒸瓶, 락)은 먹이로 주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청명(淸明)이 지나서 먹이를 주어야 하니, 청명 전에는 먹이 주는 것을 꺼려야 한다. 겨울에는 어항을 땅속에 경사지게 묻고 밤에는 쪼로 덮어준다. 날이 흑심하게 추울 때 항상 손가락 한두 마디가량의 얇은 열음이 얼어 있게 해두면 물고기가 겨울을

나도록 질병이 없다. 벽돌을 쌓아 만든 연못 세 곳에 갑, 을, 병이라 이름을 붙이고, 갑지(甲池)에는 큰 금어 열 바리를 기르고 소금을 넣지 않고 만든 증병을 돌려서 천 다음 댕임을 얇게 저며 풀아서 별에 깔려 날마다 조금씩 떼어 먹이로 준다.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는 미리 젖은 풀을 말려서 연못 안에 흩뿌려준다. 물고기는 새 알을 풀 위에 절원하게 낳아 쌓아둔다. 알이 다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젖은 풀을 건져내어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렸다가 연못 안에 다시 뿌려 넣어주면 바치 가는 다란 바늘 같은 물고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란다. 가끔 대모(戴帽)⁸³도 있고 초어(草魚)를 닮은 것도 있는데, 시일이 오래되면 변하여 그대로 금어가 되니 봄에 부화한 물고기는 색깔이 여러 가지이고, 가을에 부화한 물고기는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끼가 손가락 굵기만큼 자라기를 기다려 문득 모두 떼내어 윤지(乙池)에 넣고 기른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염려가 없다. 이것은 《기가필용》에 소개된 방법이다” 하였다.

《열하일기(熱河日記)》⁸⁴에 “사료를 주어 물고기 색깔을 바꾸는 법이 있으니, 물고기를 기르는 자는 능히 물고기를 금색으로 바꿀 수 있다. 혹자는 ‘변화한 시장 풍 더러운 도랑에 사는 작고 붉은 벌레를 물고기

에게 먹이면 모든 물고기가 100일 정도 후에 모두 금색으로 변한다. 처음에는 은빛처럼 흰 물고기도 점차 누려지다가 오래되면 금빛이 된다” 하였다. 또 “심양(瀋陽)으로 가는 도중에 어항을 실은 수레를 보았다. 어항 속에는 붉은 벌레를 담아놓았는데,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것이 미세하여 마치 새우 알과 같았다. 이것이 물고기 새끼에게 주는 먹이일은 바브라도 안다” 하였다.

금어를 기르는 법은 강희명(姜希孟)⁸⁵의 《양화소록(養花小錄)》⁸⁶에 나온다. 내용은 이렇다. “(금어를 기르는 곳은) 정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 한다. 초당(草堂)의 후원(後苑) 장문 아래 연못을 만들어 놓아 키르면 흙 기운이 전로 물과 화합하여 부평초나 마름, 행채(芍藥)와 같은 물풀 따위가 저절로 무성해진다. 그래서 금어가 물과 흙의 본연의 성정(性情)을 얻어 유유히 부평초와 마름 사이를 헤엄쳐 다니고 때로 수면을 오르락내리락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볼 만한 광경이다. 못 가운데 데다 물 위로 솟아오르게 한두 개의 돌산을 만들면 그 돌산의 밑자락

83 열대지방에 사는 알록달록한 바다거북의 알중. 여기서도 색깔이 알록달록한 물고기를 기르키는 듯하다.

84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연행기(燕行記), 26권 10쪽이며, 《언암집(言巖集)》에 수록되어 있다. 44세 때인 1780년(정조 5) 삼중형 명원(鳴鵬)이 장나라 고종 건륭제의 원순 진사(進士)로 북경에 가게 되자 자제군관 자격으로 수행하면서 곳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남긴 기록이다. 당시 사회의 제도과 양반층의 모습을 신랄히 비판하는 내용을 특장적이고 사실적인 문체로 담았기 때문에 위경지의 배척을 받았다. 따라서 길사본으로만 전해오다가 1901년 김택영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다.

85 1424-1483, 뛰어난 문장가이며, 공정한 정치를 하여 세종에서 성종 대에 이르기까지 총애를 받으며 국성을 담당하였다. 본관은 진주, 자는 경은(景醇), 호는 사숙재(私塾齋) 무위자(無爲子),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이조참의를 거쳐 1468년 건원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82년 죽관성이 이르렀다, 부지런하고 치밀한 성격이며, 학학다식하다는 말을 들었고, 경사(經史)와 진고(眞古)에 통달한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민요와 실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농사 전반에 대한 저서로 《금양잡록(錦陽雜錄)》이 있고, 당시 골저경의 실격을 알 수 있는 《촌담해이(村談海夷)》를 남겼다. 그 밖의 서거정이 편찬한 유고집 《사숙재집》 17권이 있다.

86 강희명의 형 강희언(姜希顔, 1417-1464)이 지은 원예역과서. 이규경이 악각을 한 듯하다. 《전산세고(田山世稿)》 권4에 수록된 제목은 《양화소록》이지만, 《양화록》 또는 《정원양화소록》, 《양화요명》 등 여러 제목으로 사본이 전한다. 저술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화회 제례법과 주의 사항을 서술했는데, 중간중간 화초에 관한 일화나 화초의 특성 과 관련된 격언을 곁들였다. 우리나라 원예학의 효시가 되는 책이다. 일본에도 소개되어 에도 시대 일본 학자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고 한다.

에는 석창포를 심고 들산에는 전포(鐵繭)를 심을 수 있다. 그런 다음 또 그 위에 소나무·대나무·난초·매화 따위의 초목을 많이 심어놓으면 완전히 하나의 봉래섬(蓬萊島, 신선이 사는 섬)이 된다. 금어의 먹이로는 기름기나 소금기가 없는 증병을 주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창살을 두들기면서 준다. 때론 이렇게 하여 오래오래 창살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하면 그것이 금어의 몸이 된다. 그 후 마침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 금어가 스스로 뛰어올라 상쾌한 한때의 구경거리가 된다.”

《화경(花鏡)》에 “금어는 흙을 가까이하면 붉은색이 선명하지 않게 되니, 반드시 어항에서 길러야 한다. 어항은 마땅히 바다은 뾰족하고 아가리는 넓은 것이 좋다. 무릇 새 어항은 아직 물을 담기 전에 생토란으로 분질러준다. 그러면 어항에 물을 담은 뒤 곧 이끼가 끼고 물이 선하다. 금어 입이 부화하여 새끼가 나온 뒤에는 즉시 삶은 달걀이나 삶은 오리 알의 노른자를 부드럽게 비벼 먹이로 준다. 열흘 후에는 하천이나 개울의 더러운 물속에 사는 작고 붉은 벌레를 잡아다 먹이로 준다. 다만 붉은 벌레를 반드시 맑은 물에 담가 행구어야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100여 일이 지나면 검은 놈이 점차 화백색(花白色)이 되었다가 차츰 순백색으로 변한다. 초반에 담황색으로 변한 놈은 차츰 순홍색이 되는데, 그중에 화색(花色)을 띠는 놈은 새 색깔이 변하는 대로 그냥 놓아둔다. 물고기가 비늘기 동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처럼 물 위로 떠오른다. 그럴 때는 뒷간의 똥을 가지고 해독한다. 비늘 꽃을 잘못 먹어도 병이 드는데, 역시 똥으로 해독을 한다” 하였다.

《고금비원(古今秘苑)》과 《화경》에 “물고기가 비늘 마르고 흰 반점이 생기는 증상을 ‘이가 생겼다(鰓)’라고 한다. 이럴 때는 단풍나무 껍데기

를 물속에 던져주면 낫는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금어는 백양나무 껍데기를 먹으면 이가 생기지 않는다. 금어는 감람나무 껍데기를 먹으면 살지고 집어져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다” 하였다. 《고금비원》에 “금어를 기르다가 이가 생기면 새로 구운 벽돌을 뚱물 속에 넣어 하루 동안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말린 다음 어항 속에 넣는다” 하였다.

《화한상재도회》에 “살펴보건대, 곧 산칠(山漆)⁸⁷은 이렇다. 금어를 기르다가 곧 죽을 것 같은 때를 만나면 산칠나무의 잎을 비벼서 물고기의 입 속에 그 즙을 흘려 넣어주면 즉시 살아난다. 그런 까닭에 물고기를 기르는 언뜻 옆에 심어둔다” 하였다. 물리서에 “물고기를 보고 낚새를 짐작할 수 있다. 금어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 어항 바닥이 뜨겁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비가 온 징조다” 하였다. 나머지는 다른 서적에 보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덕무(李德懋)⁸⁸의 《입연기(入燕記)》⁸⁹에는 “하늘에 저사 지내는 원구(圓丘)의 동쪽에 금어를 기르는 금어지(金魚池)가 있다. 그곳에 한 자가 낚는 붉은 고기 수백 마리가 있는데, 정수리가 모두 단사(丹砂)처럼 붉다. 사람들이 언뜻 가운데로 띄움 던져주면 썩먹이며 먹이를 다루어 먹는 모습이 생기말란 하여 볼 만하였다. 정양문(正陽門)으로 들어왔다” 하였다.】

87 산중에서 자생하는 울나무의 일종이다.

88 원문은 ‘왕고(王者)’라고 되어 있다. 조부라는 뜻이다. 이규경의 조부는 이덕무인데,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분치하여 번역하였다.

89 1778년(정조 2)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津州使) 서장관(謝狀官) 심업조(沈念祖)의 군면(軍便)으로 연경(燕京)에 들어간 이덕무가 기운(記均)·이조원(李朝元)·이정원(李鼎元)·육비(陸鰓)·임성(蔭誠)·만정관(萬正官) 등 청나라의 의학에 고수하는 한편, 그곳의 산천·도리(道里)·궁실(宮室)·수대(樓臺)·조목·중어(蟲魚)·조수(鳥獸) 등을 살펴보고 자세히 기록한 연행록(旅行錄)이다. 이때 이덕무는 청나라의 고종학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는 조선 후기 북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대체로 금어를 기를 때 창살을 두드려 사람에게 물려들게 하는 것은 곧 먹이로 길들인 것이다. 탐정승(譚景昇)의 《화서(化書)》에 “정씨(溱氏)가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대나무를 얹어 난간을 만들었으니 저기에 오르면 ‘책책(策策)’ 하는 소리가 났다. 신씨(辛氏)가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나무를 얹어 난간을 만들었으니 저기에 오르면 ‘당당(堂堂)’ 하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 모두 연못에 물고기를 길렀는데, 매양 난간에 올라 먹이를 던져줄 때면 물고기가 어김없이 물 위로 뛰어올랐다. 나중에는 그냥 ‘책책’ 하는 소리와 ‘당당’ 하는 소리만 들리면 먹이를 던져주지 않아도 물 위로 뛰어올랐다. 이것이 정씨의 물고기를 ‘책책’이라 부르고 신씨의 물고기를 ‘당당’이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이니, 먹이로 길들인 것이다. 나는 금어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름과 모습을 훌륭히 비유하여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하니, 자산(子產)이 물고기를 살려주라고 명하자 교인(敎人)이 ‘어릿어릿하다가 양양히 있습니다(淵淵洋洋)’ 하고 대답한 고사에 적할 만하지 않은가. 이것이 이른바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속일 수 있다(君子可欺以其方)’라는 것인가?”⁹⁰ 하였다.

【물고기 떼가 대거 상류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민정(民情)의 향배를

90 자산은 춘추시대 정(鄭)나라의 명제상이다. 교인은 목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선사하자 자신이 교인을 시켜 연못에 놓아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인은 그 물고기를 살아 먹고 돌아와 “놓아주니까 처음엔 어릿어릿 하더니 잠시 뒤에 양양하게 헤엄쳐 가더라(始畜之淵淵者少淵洋洋者故然爾)” 하였다. 이 말을 두고 명제가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속일 수 있거나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속일 수는 없다(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 하고 평하였다. - 《명자》(만장상(萬章上))

점칠 수 있다. 예전대 고정림(顧亭林) 염무(炎武)⁹¹의 《일지록(日知錄)》⁹²에 “나라는 물과 같고, 백성은 물고기와 같다. 유왕(紂王)의 시에 ‘고기는 연못에 살면서 즐겁지 못하다. 물속에 깊이 숨어 있으나 역시 관히 다 보이는걸, 근심스러운 마음이 참담하니 나라의 학정을 염려하노라(魚在于淵 亦非樂樂 潛蟻伏矣 亦孔之昭 憂心慘慘 念國之爲虐)’ 하였다. 진시황 8년 황하의 물고기가 대거 상류로 올라왔다. 이 현상을 두고 《오행지(五行志)》에서는 ‘물고기는 음(陰)의 동물이니 백성의 상(象)과 유사하다.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온 것은 백성이 군주의 명을 따르지 않고 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본디 군주에게 사물을 많이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물속의 물고기가 혼란해지고 하늘의 새가 혼란해지니, 민심의 동정을 반드시 수습할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 하였다. 고정림의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전대 영대(靈臺)와 영소(靈沼)⁹³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이 영유에 계시니, 사슴이 편안히

91 자산은 춘추시대 정(鄭)나라의 명제상이다. 교인은 목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선사하자 자신이 교인을 시켜 연못에 놓아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인은 그 물고기를 살아 먹고 돌아와 “놓아주니까 처음엔 어릿어릿 하더니 잠시 뒤에 양양하게 헤엄쳐 가더라(始畜之淵淵者少淵洋洋者故然爾)” 하였다. 이 말을 두고 명제가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속일 수 있거나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속일 수는 없다(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 하고 평하였다. - 《명자》(만장상(萬章上))

92 고정림(顧炎武, 1613~1682), 강소성(江蘇省) 곤산(崑山)에서 태어나 성서정(歐西亭) 화음(華隱)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명말청초의 대학자요, 자는 영인(寧人), 호는 정림(亭林)이다. 명나라 말기의 양명학이 공자공맹에 치우치자 경제치용의 실학에 뜻을 두어 실용적 학풍의 기초를 닦았다. 청(淸) 대의 새로운 학풍을 개척하였다. 황종희(黃宗羲, 1610~1695), 왕부지(王夫之, 1619~1692)와 함께 청초의 3대사(大儒)로 꼽힌다.

93 영대는 문왕이 소유한 누대, 영소는 연못이다. 문왕의 덕정에 감화를 받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정원이 영유(靈囿)인데, 영유에 영피와 영소가 있었다.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모두 이곳을 즐겁게 누릴 수 있었다. 이 시는 《서경》

엿드려 놀도다, 사슴은 반들반들 살지고 백조는 새하얗도다. 왕이 영소에 계시니, 아! 연못에 가득한 고기가 튀어는다(王在靈囿 麋鹿放伏 麋鹿濯濯 白鳥翾翾 王在靈沼 於物魚躍)⁷⁴ 하였으니, 이 시는 흥이 나서 영대와 영소의 장면을 묘사하여 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곰곰이 그 뜻을 짚어보면 백성은 문왕의 교화 속에 평화롭게 살고 미혹도 문왕의 교화를 입어 모두 생동하는 기상이 있다. 그런 까닭에 병자가 양혜왕(梁惠王)에게 “어진 임금의 되어야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 어진 임금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였던 것이다.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에서 군주의 덕과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

● 마침 고정림의 책은 보다가 이 부분은 보고서 느낌이 있어 아울러 함께 번증하였다.

辨證說 望魚胎化

망어가
태화한다는
변증설

● 탐라 물산의 어류 중에 망어(望魚)가 있는데, 태생(胎生)이다.

살펴보전대, 《탐라지(耽羅志)》¹에는 어류 중에 망어(望魚)가 있는데 다른 물고기와 달리 태화(胎化)하여 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혹시 망어(望魚)를 말음만 취하여 망어(望魚)라고 한 것인가? 《탐라지》의 주석이 매우 모호하여 안타깝다. 물고기 중에서 태생하는 것은 전어(鰻魚, 천갑상어)와 시어(鰻魚, 설어)가 있다. 이 물고기도 그러한 것인가?

1 1653년(효종 4)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의 발의에 따라 당시 제주의 권각(權各) 고종진(高宗鎭)의 감교(監校)로 원상된 제주도의 지리지. 당시 제주도에 있던 제주목·경의현·대정현의 세 군현 읍지가 수록되었다. 17세기 중엽 제주도의 사경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여 당시 제주도의 지역 사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풍속(風俗)', '도산(土產)', '명호소(明湖所)', '수전소(水觀所)', '곡원(庫園)', '복양(牧養)' 등의 항목에서는 제주도의 독특한 환경과 그에 맞추어 형성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辨證說 金魚花魚

금어와
화어에 대한
변증설

●《조박자(趙朴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단수(丹水)에 【단수는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 죽산(竹山)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가 내향(內鄉)에 와서 절수(浙水)와 합류하는 강】 단어(丹魚)가 있다. 하지가 되기 10일 전 밤에 가만히 관찰해보면 모두 물 위에 떠 있는데, 물빛처럼 붉은빛을 발한다. 그들로 잡아 파를 내어 밭에 마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예전에 이 내용을 보고서 키이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평상시에 흔히 있는 물고기가 아니니 누가 볼 수 있겠는가? 지금 널리 있는 금어(金魚)나 화어(花魚)만 못하다고 하겠다.

모든 사물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화초도 자연스레 색깔이 바뀌게 되며, 동물 또한 그러하니 사례를 이루 다

1 동전(東晉)의 관중(關中)이 지은 책으로, 내편 2권과 외편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편은 도가(道家), 외편은 유가(儒家)에 관한 내용으로 그 실적을 달리한다. 관중은 강소성(江蘇省) 단양(丹陽) 사람이며, 만년에 나무산(蘭澤山)에 들어가서 신선술을 추구하고 있다. 서명은 그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다른 저서도 《산선전(神仙傳)》이 있다.

쓸 수 없을 만큼 많다. 근래에 연경(燕京)에서 들어온 금어와 화려한
늪을 부기한 집에서 많이 기른다. 양식하여 기르려고 연못에 풀어둔
것이 장마에 물이 불어 넘치는 바람에 수도의 개천으로 흘러들어갔
다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송나라 때부터 비로소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데 이는 잘못된 설이며, 한나라 때 벌써 길렀다. 상여(相如)【사마상여
(司馬相如)】가 읍은 〈자허부(子虛賦)〉의 “그물로 대모(玳瑁),² 자패(紫
貝),³ 어조(魚鱗)⁴를 잡아 오색 무늬의 물고기와 함께 놓아두네(兼取
鱗貝及魚鱗 同置五色文魚)”라는 구절로 증거를 대본다면, 한나라 때 이
미 길렀던 것이다.

다만 색깔이 각각 다른데, 금어는 송칭이다. 내가 금어를 석죽화
(石竹花)에 비유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게 바뀌어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 종류에는 이(鯉), 죽(鰒), 추(鰕), 벌(蟹)⁵이 있다. 이 가운
데 추와 벌은 더욱 화려하여 짐처럼 얻을 수 없다.

기르는 방법은 《경군방보(廣群芳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물
고기를 기르는 사람은 물고기를 춘자(春子)와 추자(秋子)⁷로 나눈다.

2 중국 건한(建漢)의 문인. 자는 장장(長卿)으로 성도(成都) 출신이다. 문학과 공학을 좋아하였으며, 특히 부(賦)에 뛰어났다. 그가 지은 〈자허부(子虛賦)〉가 한 무제(武帝)의 눈에 들어 곧장 발탁되었다. 그 후 궁정 문인으로 활약하였다.

3 바다저북쪽에 속하는 자복의 일종. 황갈색의 등딱지에 검은 반점이 있고 광택이 난다. 장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인다.

4 북쪽강(靉北澗)의 조개다. 원명 문저(文貝)라고도 한다. 등에는 자색 바탕에 원목무늬가 있다.

5 물물(水物)을 말한다.

6 이는 비단양어, 죽은 금명어, 추는 금바꾸리지, 벌은 금지리로 보인다.

7 춘자는 봄에 부화한 것이고, 추자는 가을에 부화한 것이다.

춘자는 색깔이 일복달복 섞인 것이고, 추자는 섞이지 않은 것이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검은색을 띠다가, 오래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한
다. 간혹 흰색을 띠는 것은 은어(銀魚)라 하고, 붉은색·흰색·검은색
이 무늬를 이루며 섞여 있는 것은 대모어(玳瑁魚)라고 한다.

금린이(金鱗魚)와 은관어(銀管魚)는 꼬리지느러미가 세 개나 다섯
개가 있으며, 심지어 일곱 개인 것도 있다. 우아하게 꼬리지느러미를
흔들며 마음껏 헤엄치지만 끝내 천연의 문치가 없고, 게다가 인공적
인 기술로 도랑에서 기른다.

홍혈혈(紅子子)【홍혈혈의 속명은 홍충(紅蟲)이다. 연경의 시장에 파
는 가게가 있다】은 100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은빛처럼 새하얗다가
점점 황색으로 바뀌고 오래되면 금빛이 된다. 또 어항 속에서 걸러
흠 기운은 가까이하지 않으면 붉은빛이 더욱 선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다. 중국인
이 좋아한 것은 처음에는 순홍색과 순백색이었다. 그다음으로 금희
(金龜), 금인(金鯽), 금피(金鯪) 및 인백홍(印白紅), 두리홍(頭興紅), 연
시홍(蓮鯉紅), 수미홍(首尾紅), 학정홍(鶴頂紅), 약팔레(若八赤), 약무색
(若無色)이었다. 또 그다음으로는 흑안(黑眼), 설안(雪眼), 주안(珠眼),
자안(紫眼), 마노안(瑪瑙眼), 호박안(琥珀眼)이었다. 사홍(四紅)을 비롯
하여 십이홍(十二紅), 이육홍(二六紅)에 이르고, 심지어 십이백(十二
白)과 퇴금채옥(堆金砌玉), 낙화유수(落花流水), 격단홍진(隔斷紅塵),
연대팔관(蓮花八瓣) 등 다양한 종이 있어 뜻에 따라 이름을 붙였으니,
본래 정해진 형태가 없다.

화어(花魚)는 새속에서 본디 문둥어(盲)라고 한다. 그러나 신기한
관상어의 종류가 모두 이 물고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장

래에 발생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붉은 머리의 종류는 곧 용관(龍觀)이라고 하여, 다만 눈이 붉고 득 뛰어나온 것을 귀하게 친다. 하지만 만약 이것에만 구애된다면 완전한 물고기는 없다. 붉은 물고기는 황색을 꺼리며, 흰 물고기는 별람 빛을 꺼리니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남어(藍魚)나 수정어(水晶魚)나 하는 것은 본래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이니 물고기를 아는 사람은 거론하지 않는 종이다. 물고기를 품양하는 것은 이뿐이다.

또 금어를 기르면 날씨의 흐림과 맑음을 잘 알 수 있다. 금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틀림없이 비가 오니, 이는 어항의 바닥이 뜨겁기 때문이다. 즉 바로 비가 올 징조로 물고기가 수면으로 뜨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연경에서 유리 어항에 금어를 담아와 더운 여름날 자리맡에 두고 물고기를 보며 피서를 한다.】

우리나라에는 붕어 가운데 약간 금빛을 띤 놈을 금붕어(金鯉)라 부른다. 다만 세속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이 또한 무슨 상관이었는가? 근래 연경에 다녀온 자들이 간혹 그런 풍속에 물들어 입이 마르도록 말하지만, 실제로는 금어와 화어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변증하여 물리오는 낫짐이나 물리친다.

辨證說 飛魚

비어(날치)
변증설

● 비어(飛魚)는 《산해경(山海經)》¹⁾, 《요산당외기(嶽山堂外記)》²⁾, 《근여외기》에 보이는데, 어느 책의 것이 진짜 비어인지는 알 수 없다.

자서(字書)에 “요어(鰓魚)는 ‘문요(文鰓)’라고 이름 하는데, 물고기의 몸체에 새의 날개가 있어 ‘비어’라고도 일컫는다. 무리 지어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큰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였다.

시암인 남희인이 쓴 《근여외기》에는 “시암에 비어가 있는데, 길이는 겨우 한 자쯤 되며 수면에 붙어서 날 수 있다”라고 나온다.

1. 거의 소설에 가까운 지리지, 총 30권 가운데 18권이 현존한다. 원도(原圖)는 고려전에 산양되었고, 금도(金圖)는 뒷사람이 보충하여 그린 것이다. 《산경》은 대략 전국사의 이전에 만들어졌고 《해경》 8권은 진(秦)과 한(漢)의 지명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전한 말초에 쓰인 것으로 보이며, 때로 《수경(水經)》에 준임피어 있는 5편은 위진인(魏晉人)이 더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경산경(五藏山經), 해외경(海外經), 해내경(海內經), 대황경(大荒經)으로 구성된다. 산과 강의 지리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상고시대부터 주(周)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민족·종교·신화·물산·의학·무속 등을 두루 포괄하였다.
2. 명나라의 장원규(張一元)가 지은 아사 종류의 저술. 상고시대부터 명 대에 이르기까지의 전기(傳記) 중에서 기록한 일을 뽑아 엮은 것이다.

《담라지(耽羅志)》에서는 “영무라(靈霧羅)는 제주부(濟州府)의 우도(牛島)와 대정현(大靜縣)¹의 개파도(蓋波島) 등지에서 나오는데, 문요처럼 물 위로 4~5장(丈)이나 날아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부가 쉽게 잡지 못한다. 간혹 스스로 죽어서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비로소 얻게 된다” 하였다.

《산해경》에는 ‘비어가 그것을 지니고 있으니 우레도 두렵지 않다’는 문장이 있다. 《요산당외기》에는 ‘임봉자(胤封子)⁴가 잠시 천년 동안 죽은 적이 있었는데 비어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다.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니, 용(龍)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살펴보건대 청나라 때 상서(尙書)를 지낸 주황(周煌)⁵의 《유구국지략(琉球國志略)》 〈물산조(物産條)〉에는 “요어는 흰 새처럼 한 걸 남짓 날 수 있으며, 물에 들어가면 연어(燕魚)와 같다”라고 하였다. 명나라 때 서보광(徐葆光)⁶은 ‘문요의 가슴저느러미는 새의 것과 같다’ 하였다. 문요는 우리나라에서 ‘홍어(洪魚)’라고 일컫는 것과 비슷하다.

- 1 지금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본래 제주서도인데, 조선 태종 16년(1436) 문은 경의 현(政廳)을 세는 대정현으로 하고 현감을 두었다.
- 4 전설상 황제(黃帝) 때의 신선. 후대 문인의 유선시(遊仙詩)에 자주 인용되었다.
- 5 7~1784, 사천성(四川省) 부주(府州) 사람으로, 자는 경원(景元), 호는 해산(海山)이다. 1757년 진사가 되어 편수(編修)에 제수되었으며, 사강(使綱)으로서 유구부사(琉球副使)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상적방총사부(上書房總譯官), 적도이사(左都御史) 등을 역임하였다. 저술로 《해산존고(海山存稿)》, 《유구국지략(琉球國志略)》 등이 있다.
- 6 ?~1723, 강소성(江蘇省) 장주(長洲) 사람으로, 자는 양력(亮潔)이다. 1712년 진사가 되어 편수(編修)에 제수되었으며, 유구부사(琉球副使)에 임명되었다. 저술로 《중앙전신록(中山傳信錄)》이 있는데, 유구국의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그 외에 《이우재문집(二友齋文集)》, 《해파집(海槎集)》 등이 있다.

坐魚 辨證說

● 예전에 《한창려문공집(韓昌黎文集)》에 실린 <유주자사로 파천된 유종원이 개구리 요리를 먹고 쓴 시를 보내왔기에 답으로 보내다(答柳柳州食蝦蟆詩)>라는 시를 읽어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다.

대담 전갈냄비 앞에 서자(昂然當鼎味)

처음엔 삼키지도 못하였다오(起初不下嚙)

근래에는 조금씩 입에 넣어보지만(近亦能稍嚼)

야만스러운 등숙에 물들까 두렵다오(常懼染腥炙)

그런데 그대는 또 어떻게(而君復何爲)

산해전미처럼 즐기단 말이오(甘食比饔飧)

《한창려문공집》의 주석에서는 환표(饔飧)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른다고 해설하였다. 그러나 《어씨춘추(呂氏春秋)》에 '곰의 발바닥과 표

1 이기서는 양서류 개구리목 동물, 즉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등을 총칭한다.

범의 태반이 진미'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고 보면, 완표라는 것은 혹은 이런 것에 근거한 표현일 것이다.】

이 시를 보면 유충완²과 한유(韓愈)³ 두 사람도 개구리 요리를 먹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언경 사람이 먹는 식단을 보니 그들은 좌어탕을 진귀한 음식에 올려놓았다.

【중국 언경에서는 잔치를 열 때 반드시 먼저 각종 요리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초대된 손님에게 돌려 보인다. 그러면 손님은 그 가운데 먹고 싶은 음식 이름에 점을 찍는다. 이것을 식단(食單)이라고 한다.】

좌어(坐魚)란 개구리다. '와(蛙)'라고도 하며, 닭고기와 맛이 흡사하다 하여 '전개(田雞)'라고도 하고, 조개와 맛이 흡사하다 하여 '합어(蛤魚)'라고도 한다. 《이아(爾雅)》에서는 "물에 사는 개구리를 '와(蛙)'라 한다" 하여 모두 어류에 포함해놓았다.

《사기(史記)》〈동방식전(東方朔傳)〉에는 "장안 일대의 강과 연못에는 좌어(蛙魚, 개구리)가 많아 집집마다, 사람마다 넉넉히 잡아먹을 수 있다" 하였다. 여기서 좌어란 개구리다. 옛날 북쪽 관중(關中) 지방에

서도 이미 꿩고기를 먹듯 늘 개구리를 먹었다는 말이니, 꼭 남쪽 지방 사람만 먹은 것은 아니다.

도홍경(陶弘景)⁴은 "집은색을 띠는 한 종류는 남방 사람이 합자(蛤子)라고 부르는 개구리인데, 먹으면 맛이 지극히 좋다" 하였다.

소송(蘇頌)은 "지금 곳곳에 개구리가 있다. 두꺼비와 닮았는데 등이 청록색이다. 뾰족한 입과 세밀한 배를 가지고 있다" 하였다. 아눔은 속칭 청개구리다. 이밖에 또 등에 누란 줄이 난 놈이 있는데, 아눔은 금선와(金線蛙, 금개구리)라고 한다. 도홍경이 오리고기 맛이 난다고 토암(土鰻)이라고 한 것은 《이아》에서 '와(蛙)'라고 한 것으로, 속칭 석암(石鰻)이라고 한다. 합자는 곧 수계(水龜)라고 하는 놈으로 민중(閩中), 촉(蜀), 절동(浙東) 지역에서 훌륭한 요리로 친다.

동북 이식질이 만든 '산계(山龜)', '수계(水龜)', '토암(土鰻)'은 형상과 이름이 비록 다르지만 용도는 같다.⁵ 4월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어 기운과 맛이 달다. 날씨가 차면 독성이 없어지고 허해진 기운을 보양할 수 있으니 입산부에게 좋다.

【개구리와 동물의 뼈는 때에 열이 나게 하므로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며 배꼽 아래가 시큰거리는 풍증이 있다. 이때는 오직 절경어를

2 773~819, 중국 당나라의 문인. 자는 자후(子厚), 호는 하동(河東)이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고문(古文) 부흥 운동을 한유(韓愈)와 더불어 제창하였다. 진원사에 뛰어난 왕유, 맹호연, 위용훈과 나란히 칭송된다. 《봉건론(封建論)》, 《영주팔기(永州八記)》 등으로 유명하며, 시문집《유하동집(柳河東集)》이 있다.

3 773~819, 중국 당나라의 문인. 자는 자후(子厚), 호는 하동(河東)이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고문(古文) 부흥 운동을 한유(韓愈)와 더불어 제창하였다. 진원사에 뛰어난 왕유, 맹호연, 위용훈과 나란히 칭송된다. 《봉건론(封建論)》, 《영주팔기(永州八記)》 등으로 유명하며, 시문집《유하동집(柳河東集)》이 있다.

4 452~536, 중국 남조(南朝) 때 양주(梁州)나라의 은사. 자는 봉명(鳳鳴), 호는 회양은거(淮陽隱居)이다. 도교뿐 아니라 불교와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문인이었다. 제왕시독(帝王時讀) 비슷한 것있으며, 알나라 두제의 정서본 도와 '산중제상(山中製香)'으로 불렸다. 저서에 《진고(眞誥)》, 《동진은경(東眞隱賦)》 등이 있다. 또 격원한 식사법과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주요 의학서 가운데 하나인 《신농본초경권주(神農本草經經集注)》를 저술하였다.

5 개구리목 동물 가운데는 산에 서식하는 것, 물에 서식하는 것, 밑에 주로 살며 오리고기 맛이 나는 것 등이 있는데, 생김새와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식용으로 좋다는 의미다.

같이된 액으로 해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연경에 들어가 개구리를 맛있게 먹다가 조 선으로 돌아와 밥상에 일상적인 반찬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괴이하게 여긴다. 이는 옛날 사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조선의 한지학사(函齋學士) 심염조(沈念詔)⁶와 정유(貞裕) 박계가(朴齊家)⁷는 모두 개구리 요리를 즐겼다.】

《구례(句禮)》에 나오는 “개미 알로 짓을 담은 지혜(地蟹)를 가지고 꿈을 대신한다”라는 구절을 생각해보면, 개구리 요리가 한결 낯지 않은가. 사조제(謝朝濟)⁸의 《오잡조》에 “중국의 명남 지방에서는 개미 알과 뱀 요리가 모두 산해진미에 들어간다. 연경 사람과 산동성 사람은 전갈과 매뚜기, 계수나무 기생충, 벌의 애벌레 등을 약해지도 않고 즐겨 먹는다. 굽빵이나 구더기도 예사로 먹는다” 하였으니, 개구리 따위 먹는 것쯤이야 무어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6 1734~1783, 본관은 청송(�淸松), 자는 백수(伯修), 호는 힘계(審齋)다. 1776년(영조 52) 별시문과에 을사과 급제하였다. 1777년(경조 1) 관서감행어사를 거쳐 사은결관주사(謝恩閣僉守) 제제공(祭酒公)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서장문견록(書狀文見錄)》을 지어 정조에게 바쳤다. 1783년 황해도관찰사로 있다가 임지에서 죽었다.

7 1750~1805,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밀양, 자는 자수(子修)·재선(在先), 호는 수기(修其), 호는 조경(朝景)·정유(貞裕)·위향도인(魏香道人)이다. 중국의 선진 풍물을 선입견 없이 파악하게 수완하였다. 학문과 문장, 글씨에 모두 뛰어났으며,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와 함께 ‘4기’로 인연이 깊다. 1778년 사은사 제제공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이조권(李調元), 만성균(萬成均) 등의 청나라 학자와 교류하였다. 조선에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북학의(北學議)》 내외편을 저술하였는데, 내편에서는 광화도구의 개천을, 외편에서는 정치·사회제도의 모순점과 그 개혁 방안을 다루었다.

8 명나라의 고증학 및 소설학자. 《오잡조》는 그가 지은 잡기를 저술이다.

【계수나무에 서식하는 곤충인 계두(桂蠹)에 대해서는 진장기(陳藏器)가 《본초습유(本草拾遺)》에서 “계수나무에 기생하는 계두의 매운맛이 일품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한서(漢書)》 〈육가전(陸賈傳)〉에는 “남월국(南越國)의 왕 위타(尉陀)가 계두 두 그릇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대업승유록(大業拾遺錄)》에는 “수나라 때 시안(始安) 태수(太守)가 문에 지운 계두 네 병을 바쳤다. 보라색에 매운 향이 나며 맛이 좋았다. 이것을 먹으면 천식을 낮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한나라와 수나라 이래로 계두가 진미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선에서는 선조조에 최사가 이 음식을 바친 적이 있다고 한다. 밀죽(蜜蠹)은 건강식품 전문가에게는 보배다. 해주(海州)에 사는 요족(獐族) 사람은 금방 태어나 털이 채 나지 않은 쥐 새끼를 잡아 꿀에다 재워놓았다가 흰칙이나 귀한 손님이 오면 진미로 올린다. 깃가락으로 집어먹으면 소리가 ‘짹짹’ 나기 때문에 ‘밀죽’이라 한다.

나락매뚜기인 쫘(蝮)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다. 명(明)나라의 현호(顯浩) 서광계(徐光啓)⁹가 나락매뚜기를 박멸하기 위해 올린 상소인 《제황소(除蝗疏)》에서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알이 변하여 생긴 곤충이라고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새우가 변하여 생긴 곤충이라

9 당나라의 의화자이자 양명가 《본초습유(本草拾遺)》를 지었다. 《본초습유》는 30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의 본초학 서적에서 다루지 않은 약물을 보충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나중에 이시진의 《본초강목》으로 계승된다.

10 1562~1633, 자는 재선(在善), 호는 현호(顯浩)다. 중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예수회 선교사 리메오 디즈(1582-1610)와 함께 연구하여 유럽의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중국인이다. 수학·수리학·지리학에 대한 유럽의 서적을 번역하였는데, 가장 유망한 것은 수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유헤르트의 《기하학》을 번역한 《기하원본(幾何原本)》이다. 이외에도 《농경전서(農政全書)》 등 실용적 학문과 관련한 주요 저술을 남겼다.

생각됩니다. 메뚜기의 몸통과 머리와 무늬와 고기의 맛은 물론이고 알의 형태와 맛까지 새우와 다른 점이러곤 하나도 없습니다” 하였고,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는 “풍년에는 메뚜기가 변하여 새우가 되니, 새우가 역시 메뚜기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였다. 또 진용경(陳龍正)¹¹은 “메뚜기는 채소와 함께 볶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였고, 범중엄(范仲淹)¹²의 상소에도 “말리면 새우나 식량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굼벵이의 일종인 토옹(土蠃)은 우유처럼 보양한다고 하여 일명 유충(乳蟲)이라고도 한다. 이시진이 말하기를 “토옹은 고찰해본 결과 수달의 흰 곰수와 닮았다고 해서 ‘백담수(白蠃髓)’라고 부른다. 광중(廣中) 소양(韶陽) 지방에 딸린 속읍의 여러 마을에 유전(乳田, 유충을 기르는 밭)이란 것이 있다. 벼와 싸라기를 깊숙한 구덩이에 넣고 풀로 덮은 다음 그 위를 뚫으로 두른다. 비가 오고 나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여 증기가

올라오는데, 이때 벼와 싸라기가 모두 변하여 굼벵이가 된다. 그래서 ‘토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놈을 쌀과 섞어 찌서 먹으면 맛이 아주 달고 훌륭하다” 하였다.

구더기의 일종인 육저(肉蛆)에 대해서는, 몽골이나 여진 등의 여러 부족은 육고기를 오랜 기간 저장하다가 구더기가 발생하면 그것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였다. 맛이 인퐁이고 건강 보양에 좋다고 한다.】

신우숙명(鮮于叔明)은 빈대의 일종인 쉬충(臭蟲)을 즐겨 먹었고, 유준(劉俊)은 지렁이를 맛있게 즐겼다. 만약 자신의 입맛에만 맞다면 끝 다른 사람이 매추나 곰발바닥 요리 또는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 요리 먹은 것을 괴상하게 여기는데, 이는 북방 민족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개 먹는 것을 보고 경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11 송 대에 만들어진 백과사전의 일종. 총 1000권으로 구성되어, 완성까지 걸린 기간만 6년 9개월이었다. 《주역》(계사전)의 편찬 방식에 기초하여 전체를 천(天), 시(詩經), 지(地), 황왕(皇王), 권제(權制), 주군(州郡) 등의 55문(門)으로 분류하여 자연과 인문의 모든 경보를 집대성하였다. 각 문은 나아가유(類)로 나뉘는데, 총 4558류이고, 인용서는 1660종에 달한다. 현재 약 70~80의 선본이 실전되었다. 자료의 모고(博考)로서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적이다. 이외에도 《태평생기(太平廣記)》, 《문원영화(文苑英華)》, 《적부원기(積府元龜)》가 편찬되었는데, 이것들을 합하여 ‘송사대서(宋四大書)’라고 한다.

12 절강(浙江)의 가선(嘉善) 사람이다. 자는 의봉(義鳳), 호는 가양(嘉禾)이다.

13 989~1052, 북송 때의 권요 학자. 자는 의문(希文),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빈한한 가문에서 자랐으며, 출세한 뒤에도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지나 지나 벼슬만을 생각하였다고 전한다. 송 대의 진미 기풍을 형성시킨 사람이요, 육경과 역경에 통달하였다. 당시 사회는 위략 부패하여 비록 범중엄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후에 송 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가로 불리는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이 그의 개혁을 이어받아 송나라 최고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 개구리나 매추라기나 벌판 다름 개 없다는 한 가지 증거가 또 있다.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¹⁴의 《만필술(萬畢術)》에 “개구릿과 동물이 변해서 매추라기가 된다. 그러므로 매추라기는 개구릿과 동물의 후신(後身)이고 개구릿과 동물은 매추라기의 전신(前身)이다” 하였다. 그런데 지금 매추라기를 보면 구워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다가도 개구리를 보면 구토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14 한나라 때 회남왕에 봉해진 인물로, 학문과 신비를 좋아하였다. 그는 방생술과 건강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만필술(萬畢術)》 등을 지었는데, 부부와 같은 요리도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한 것이다.

【장우석(章禹錫)¹⁵은 “메추라기는 개구리가 변해서 된 새다” 하였고, 양억(楊億)¹⁶은 《담원(談苑)》이라는 의학 저술에서 “송나라 태종 지도(至道) 2년(1112)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즈음에 변읍(汧邑) 사람이 메추라기로 끓인 죽을 수레에 실어 천으로 싸서 두었는데, 이것은 모두 개구리가 변하여 된 것이다. 아직 미처 완전히 변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하였다. 《열자(列子)》에서 말한 “개구리 소리가 메추라기가 된다”라는 말도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이다. 이시진은 “메추라기는 크기가 병아리만 하다. 머리는 작고 꼬리는 없다. 뒷에 일곱 알록한 반점이 있고 무척 동동하다. 수컷은 다리가 길고 암컷은 다리가 짧다. 성질은 추위를 두려워한다. 들원에 있다가 밤이 되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고, 낮이 되면 풀숲에 엎드려 숨는다. 사람이 능히 소리를 내어 부를 수 있으니, 집에서 기르면서 싸움을 붙일 수 있다” 하였다. 《교주기(交州記)》에서는 “남해에 누린 황어(黃魚)가 있다. 이놈이 9월이면 변하여 메추라기가 된다. 소금을 쳐서 구워 먹으면 부척 기금지고 맛있다. 대개 메추라기는 처음에는 황어가 변하여 되었지만, 결국 안을 낳아서 세대를 이어간다. 그런 까닭에 사시사철 항상 있다” 하였다.

메추라기고기는 태열 작용을 하기도 하므로 어린이의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메추라기는 개구리가 변하여 된 놈이기 때문에 개구

리와 기미나 성질이 똑같다. 개구리나 맹꽁이 등도 모두 열을 내려 감기를 치료할 수 있고 이뇨 작용을 하는가 하면, 종기를 낮게 하니 배탈을 낮게 하는 메추라기와 대개 효능이 같다 하겠다.

나는 예전에 지방에서 시골 사람이 개구리를 요리해 먹는 것을 보았다. 사투리로 ‘찰마고리(蟾麻古里, 찰머구리)’라고 하였다. 생김새는 맹꽁이와 닮았는데, 등의 무늬가 담갈색으로 길이 난 것이 마치 메추라기의 등과 흡사하였다.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아서 잘 뛰는데, 팔 짝 펼 때는 뒷다리만 사용한다. 아이들이 구워서 먹는데 맛이 연한 닭고기 맛이 나는데다 감기를 낮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개구리가 변하여 메추라기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까닭에 메추라기의 모습이 개구리와 닮았고 개구리의 생김새가 메추라기를 닮은 것이다. 이것이 그 둘이 서로 변한 것임을 상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그렇다면 중국 연경 사람이 개구리 요리를 먹는 것이나 우리 조선 사람이 메추라기 요리를 먹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메추라기는 소를 두려워하여 소만 보면 언제나 쏜살같이 땅에 내려와 숨는다. 사람들이 소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소리만 들어도 역시 납작 엎드려 꼼짝하지 않는다. 항상 사는 곳에 터를 잡기 때문에 가을부터 비로소 잡아서 먹는데, 겨울까지 잡는다.

정석린(程石麟)의 《암손보(鵝鵝譜)》와 《예기》(월령)에는 “늦봄인 음력 3월이 되면 들쥐가 변하여 ‘여(鵝)’가 된다” 하었는데, 이때 ‘여’가 바로 메추라기다. 한겨울이 되면 개구리는 흙을 머금고 겨울잠을 자니 성질이 흙을 좋아하는 것이다. 목(木)의 기운이 왕성한 봄이 오면, 나무가 흙의 기운을 죽여 살아가기 시작하므로 흙 속에서 계속하여 기운을

15 송나라 인종(仁宗) 때 인성(寧城) 출신의 박물학자이자 의원, 자는 당정(唐敬)이다. 《가우모구본초(嘉祐補註本草)》라는 의학서를 저술하였다.

16 973~1020, 송나라 때의 포성(涪城) 출신 학자, 자는 대년(大年)이다. 어려서부터 문재주가 있었는데, 11세 때 태종(太宗)이 담원서(談苑說)로 불려 ‘신동’이라 칭찬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시랑(侍郎) 등을 역임하였다. 불교에 심취하였고, 박물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펴고 살아갈 수 없으므로 흙 밖으로 나온다. 음력 3월 늦봄이 되면 흙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 토(土)와 목의 기운이 서로 어울려 화(火)의 기운을 일으킨다. 이때가 되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으므로 다시 날개가 돋아 메추라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간다. 그러므로 메추라기의 성질은 화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메추라기는 성질이 불같아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여름이 되면 북쪽을 향하며, 겨울이 되면 남쪽을 향한다.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다.】

●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 견문에 얽매어 그런 것이다. 예컨대 개구리와 동물도 조류와 다름없는 동물이고, 가물치나 드렁허리 따위도 구렁어와 같은 동물일 뿐이다.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여겨 즐기며 더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음식 문화에 익숙하여 항상 요리해 먹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희귀한 것을 즐겨 먹는 음식 문화에 익숙해진 상태라면 아무리 비천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진수성찬보다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辨證說 鱒鱒

선어(드렁허리)

변증설

대가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다. '선(鱒)'은 선어(鱒魚)다. 《본초강목》에 '선(鱒)'을 '선(鱒)'이라 한 곳도 있으나 우리 조선에서는 '드렁허리'라고 부른다. 《본초강목》에 또한 '선(鱒)'이라고도 하였고, 자서(字書)에도 어류(魚類)에 실어놓았으니 식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용이 매우 많으니, 이 때문에 취하여 변증한다.

살펴보건대 《본초강목》에 '선어(鱒魚)'를 '선어(鱒魚)'라고도 하였으니, 반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자서에 '어(魚)' 변에 '선(鱒)'을 붙여 글자를 만든 것은 독성이 없는 물고기로서 식용 가능하기 때문에 물고기 가운데 훌륭한 것이라는 의미다. 성질은 크게 따뜻하며, 맛은 달고, 독성이 없다. 습비(濕氣)를 주로 치료하고 허손(虛損)을 보충하며 변순(溼滯)을 고치고 부인이 해산 뒤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혈기가 고르지 않아 수척해지는 것을 고친다. 이 물고기는 뱀장어와 비슷하나 가늘고 길다. 청색과 황색 두 가지가 있으며, 늘지의 언덕 굴속에 산다. 사는 곳마다 모두 직사(赤蛇)의 종류가 있다. 선어의 피는 종기와 끓은 것을 고치고, 머리뼈는 설사를 그

치게 하고 당뇨를 치료한다. 단못날에 선어를 잡아 구워 먹는다. 그 껍질은 부인들이 젓이 굳어 아픈 것을 치료하니, 구워서 술에 타서 2전(錢)을 마신다.

또 살려보전대 선어의 속명을 용어(龍魚)라 하기도 한다. 논이나 움푹한 늪지대에서 생장하여 물을 잘 통기 때문에 논둑의 물을 새겨 하여 농사에 해를 끼친다. 생김새는 뱀장어와 흡사하다. 이 물고기는 죽이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잡는 즉시 사람의 왼쪽 허벅지 위에 치면 곧 죽는다. 선어의 배 속에는 기생충처럼 생긴 가느다란 벌레가 매우 많다. 선어의 피는 눈병이나 다래거름 고치는 데 효과가 있고, 선어 고기는 악성 종기와 고름으로 구더기가 생긴 곳에 붙이면 구더기가 고기 냄새를 맡고 나온다. 혹은 물고기에는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다고도 하므로 농부는 잡는 축축 버린다. 어떤 이는 '잘못 먹으면 사람 잡는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전에 선어의 기름을 달여 설사를 하여 탈진한 어린아이에게 먹여보니 크게 보양이 되어 즉시 차도가 있고, 부인의 산후병에 써보니 크게 효험이 있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잘못 전한 것이다'라고도 하였다.

또 살려보전대 선어 가운데 엄청 큰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관서 지방 삼천의 들산을 기록한 <삼천부지(咸川府志)>에 용력이 배어나고 뱀포를 신하게 부리는 게여강(桂液江)이라는 자가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게여강을 해치려고 강변 벼랑에 술자리를 마련해두고 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이 지나해지자 벼랑 아래로 밀어 게여강이 강바닥으로 밀어지자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을 축하하였다. 잡지 뒤 게여강이 손에 한 길이 넘는 커다란 선어를 손에 쥐고서 태연하게 물 밖으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연실색하였으니, 그때

게여강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었다.

<동문유해(同文類解)>와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모두 '선(鱣)'자 아래 '황선(黃鱣)'이라고 풀이하였다. 만려어(鱣魚)는 속칭 뱀장어라 하는 것이다. 또 선어를 어류에 포함했으나, 선어는 북어처럼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아니다. 또 <본초강목>에 성질과 맛을 소개하여 '독성이 없고 영양을 보충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호서지방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독성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본초강목>에 인용된 뇌효(雷效)의 <포구본(鮑魚論)>의 내용 가운데 '힘을 열 배로 키우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홍매(洪邁)가 다시 <용새수필(宮燕雜筆)> 속에 재록하였으니, 이는 강한 근육과 튼튼한 뼈로 스스로 기력을 얻는 신묘한 묘방이다. 이 때문에 지금 또 재록하여 한번 시험해볼 자료로 삼는다. 무릇 사람이 육구(六極)¹ 가운데 태어나 그 가운데 하나를 병약하게 겪으면서 가난과 병이 계속 잇달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으로 이를 극복할 방법만 있다면 무슨 일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하게 스스로 변증한 것이다.

뇌효는 환(丸)을 이용하는 방법에 주력하면서 "육종용(肉龍用)을 취하여 선어와 함께 가루를 내어 황정주(黃精酒)도 반죽하여 둥글게 환을 만들어 복용하면 힘을 열 배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열 사람의 힘을 낼 수 있다면 그 힘이 두 배의 힘을 가진 자와 비겨 과연 어떠한가. 황정주와 반죽하여 환으로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1 남조의 의원이자 본초학자, 뇌효의 저서 <포구본>은 풍양 최고의 경문 약학서다.
2 허포(虛勞)가 극도에 이른 여섯 가지 증상 <동의보감>에서는 육구(肉極), 골극(骨極), 혈극(血極), 육극(肉極), 정극(精極), 기극(氣極)으로 나눈다고 하였다.

《황정변증설(黃精辨證說)》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선어는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살을 취하여 깨끗하게 밀러거나 혹은 불에 쪄어 가루를 내어 사용한다. 또 기력이 허해졌을 때 선어를 달여 마시면 마땅히 탁월하게 보낼 수 있다. 대개 선어는 모양이 뱀과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를 꺼려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지어내고는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성질과 맛에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독이 있어 사람을 죽는다'라고 하여 감히 입에 넣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호서지방의 백성은 짙은 죽죽 버티던 것이다. 그러나 후 여러 질병에 켜보아 효험이 있었으니, 또한 완벽하게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말만 믿을 수는 없다. 식자에게 널리 돌아야 옳다. 자서에 "선어는 뱀과 흡사하다. 누런 바탕에 흑색 문양이니, 사신(蛇鱗)이다" 하였다. 또 '추(鱖)' 자의 주에 "알은 진흙에 사니, 선어와 흡사하다"라고 하였다.

【《농문유해》와 《역어유해》에는 황선(黃鱸)을 만려어라고 풀이하였다. 민간에서는 추어 가운데 큰 것을 선어(鱸魚)라고 한다. 《본초강목》에는 "추(鱖)는 일명 추(鱸)라고도 한다. 남근이 받기되지 않으면 진흙에 사는 추어를 달여 먹는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어, 추어, 만려어 세 물고기는 기운과 성질이 서로 가까워 사람의 기력을 돕는다. 이 중 선어가 가장 훌륭하다. 자서에 "만려에는 비늘이 없다. 등은 청색이고 배는 흰색이다. 암컷만 있고 수컷이 없어 그림자로 예(鱸, 가물치)를 유혹하여 새끼를 낳으므로 만(鱸)이라고 한다" 하였다.】

辨證說 水鮎魚 烏望銅

오망동(망둑어)과 수점어(물메기)에 대한 변증설

● 우리나라 동해 해안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생물이 많다. 만약 옛 문헌 기록을 자세히 고찰하여 연구한다면 반드시 이름을 알아낼 방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호사가의 일에 가까워 이 때문에 학문이 끊겼으니, 명목학이 침체된 것이 한탄스럽다. 마침 오망동(烏望銅, 망둑어)과 수점어(水鮎魚, 물메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이처럼 못 가는 대로 기록하여두니 고칠 수 없는 기록책이 스스로 우습다.

살펴보건대 해안의 포구나 갯벌에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물고기가 아닌 것이 있다. 머리는 크고 입은 납작하며, 눈은 푹 튀어나오고 몸은 길으며, 바늘은 없다. 길이 3~4치가량 되는 지느러미가 있어 이 지느러미로 갯벌 바늘을 뛰어다닌다. 갯벌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살며, 혹 얕은 물속에 튀어 들어가 해엄을 치기도 한다. 일명 오망동이라고도 하고 혹은 수망동(水望銅) 혹은 그냥 망동(望銅)이라고도 부른다. 바닷가 사람은 먹지 않는데, 서로 전하길 강장제(强壯劑)로 삼는다고 한다.

아마 도마뱀 등속으로서 따로 한 종을 이룬 녀임 뜻하다. 해서지

망 해주의 머리 섬과 장연의 머리 섬에 망둥어가 난다. 크기는 4~5척을 넘지 않고, 머리는 크고 꼬리는 가늘며 배는 조금 동동하다. 비늘은 가늘어 마치 없는 듯하고, 회백색을 띠며, 비린 기운이 있다. 팔려서 꼬치에 꿰어두면 진창(鯽醬)이 된 자가 자신의 지인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선물하며 망둥중(望洞中)이라 부른다. 이것이 오망둥과 같은 종류인데, 식용 가능한 물고기인 듯하다. 오망둥은 호서와 호남, 해남 등지에 많이 있다고 한다.

수집어(물메기)는 그 형상이 집어(鮒魚, 메기)와 닮았다. 큰 것은 한 자가 넘고, 몸체는 몹시 연하다. 포구 해안에 서식하는데, 호남의 부안현 해상에서 많이 잡힌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대바구니에 담아 썬서 젓가락으로 집어넣어야 겨우 들이마실 수 있다. 막어보면 마치 타락죽이나 기름과 같이 이가 없는 사람이 먹기에 제일 좋으니 오래 씹지 않아도 맛이 담백하고 달다. 나의 아우 중진(仲進)이 부안 포구에서 첨사(僉使)로 있다가 와서 이와 같이 전하니, 또한 서울 사람은 모른다.

鯨鯨 辨證說

경어와 악어에
대한
변증설

● 경어(鯨魚)와 악어(鱷魚)는 모두 바다 속의 큰 어류다. 옛날 사람이 기록한 내용 중에 간혹 먹죽이 있어 무턱대고 밀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다.

《사원(事苑)》에 “경어는 늘 5월이면 해안으로 와서 수만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8월이면 새끼를 데리고 바다로 돌아간다. 돌아갈 때 물결을 쳐서 우레 같은 소리를 만들고 물을 뿜어 비처럼 뿌린다. 그런 까닭에 크게 싸우는 전투 소리를 ‘경파(鯨波)’라고 한다” 하였다. 《이담(耳談)》¹⁾에 “바다에 배를 띄워 유구국(流球國, 오키나와)까지 가다 보면 밤에 산이 솟아 구름을 찌르고 두 개의 태양이 나란히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름을 찌르는 산은 경어의 지느러미이고 두 개의 태양은 두 눈이다” 하였다.

- 1 경어는 고래를 말한다. 고래는 포유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어류로 생각하였다.
- 2 중국의 왕동제(王同軌)가 지은 책.

【《목현해부(木玄海賦)》에 “큰 비늘이 구름을 찢르고, 큰 수염이 하늘에 닿는다(巨鱗刺雲 洪鬚拂天)”라고 노래한 것이 바로 경어를 말한다.】

●이것으로 볼 때 중국 사람의 사실 기록은 한결같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는 경어가 무슨 동물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다. 일본인은 경어를 잘 잡는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완전하니 실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 조선의 신정철(申正澈) 유한(維翰)³은 제술관(製述官)으로 일본에 들어가 《해유록(海遊錄)》을 지었다.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다.

“내가 동사(通事)에게 ‘큰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평생토록 부유하게 살 수 있디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니, 동사가 ‘평생 동안 부유하게 살 뿐이겠습니까, 대대로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후의 높은 벼슬을 지내는 사람의 가문은 고래회와 고래식해를 제일 명품으로 치니 【《화한삼제도회》에 “생선 식해는 남국 지방 사람이 담그는 방법이다. 식초와 술을 일대일 비율로 섞어 한 번 끓인 다음 약간의 태운 소금을 넣고 전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생선의 살을 얇게 펴서 그 속에 넣는다. 이렇게 하룻밤을 채우고 나면 맛이 더할 수 없이 좋다. 그 위에 차례로 다른 것을 넣어도 좋다.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닷새나 이레 동안 상하지 않으니 회를 대신할 아주 좋은 방법이다. 고래회와 고

3 1681-175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영해(淸海), 자는 주백(周伯)이고, 경천(景泉)은 호다. 1713년 중경문과에 급제하였다. 1719년 일본어 통번역의 원인으로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지었다. 그때 그의 시를 보기 위해 일본의 문사가 모여들었으며, 대단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해유록》은 문장이 유려하고 섬세한 관찰이 돋보이는 기행문으로, 박지원의 중국 기행문인 《열하일기》와 비교되곤 한다. 그 밖에 시문집으로 《형천집》을 남겼다.

래식해를 즐길 때는 반드시 이 방법을 쓴다” 하였다】 구하는 사람이 돈을 아끼워하지 않는다고 등불을 밝힐 때도 모두 고래기름을 쓰는데, 주먹 크기만 한 고래고기 한 덩이면 고래기름 한 사발만 얻을 수 있으니 고래기름을 판 이득만으로도 반금을 모을 수 있소. 게다가 이 쌀, 배, 수염, 지느러미 따위가 모두 기름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 그 이득이 또한 엄청나다오. 이런 사정으로 바닷가에 사는 어민 가운데 고래잡이하는 자들이 있어 그물을 치고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오” 하였다.”

《화한삼제도회》에 “경어는 크기가 대략 16장(丈)이고 종류는 6종이다. 색깔은 다음과 같다. 겹쭈은 색에 비늘이 없다. 가느다란 눈이 입을 근처까지 바깥 붙어 있다. 코 위에 뿔다랑개 튀어나온 뼈가 있고, 정수리에는 물을 뿜는 구멍이 있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던가고(段柯古)의 《해수경(海水經)》에 ‘물고기 뇌에 있는 구멍으로 나오는 물은 담수(淡水)’다” 하였고 《범석호집(范石湖集)》에 ‘큰 바다 속에 사는 큰 물고기는 뇌에 구멍이 있는데, 바닷물을 마신 다음 잠깐 만에 뿜으면 곧 담수가 된다’ 하였다. 고래 정수리의 물을 뿜는 구멍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길이 16장(丈)인 늪이 대경(大鯨, 큰고래)이다. 꼬리 위의 등갈고 두 동한 곳을 ‘미경(尾鯨)’이라 한다. 【그 맛이 비할 데 없이 좋다.】 음경(陰鯨)은 큰 것이 1칭이다. 암고래는 음호(陰戶, 암컷의 생식기)와 음방(陰房)

4 당나라의 학자 단성식(段成式)을 말한다. 《유양잡기(酉陽雜俎)》 등을 지었다.

을 모두 갖추고 있다. 큰 배와 작은 배는 길이가 5장 내지 10장이다.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도 있다. 【사람들은 고래의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를 가리켜 고래수염이라 하는데, 역시 오류다. 그것은 바로 고래의 뺨 속에 있는 지느러미로, 속칭 조오울음(兆五乙音)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래 배로는 절구를 만든다. 그러나 두석(蠟石)의 구멍 같은 자갈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어떤 이는 글씨 쓰는 판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필통 등 문방구를 만들기도 한다.】

고래의 배설물은 두창(痘瘡, 천연두)의 치료제로 쓰인다. 검붉은 두창의 흉터에 이것을 태워 그 연기를 쐬면 효험이 있다.

【바다를 오가는 배가 만약 고래의 꼬리나 지느러미에 부딪히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겨울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봄엔 다시 북쪽에서 북쪽으로 간다. 무릇 고래는 13살(壽)에서 16장쯤 된다. 온몸에서 기름을 짜면 200곡(斛)을 얻는다. 대개 고래의 모든 신체 부위는 먹을 수 있고 기름을 짤 수 있으며, 치아와 뼈와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는 모두 기름을 만들 수 있으니, 일본 앞바다의 보배다. 식성은 악어(鱷魚, 이와시를 좋아하는데, 악어는 일본 서적에 나오는 '멸어자(鰐魚字)'⁵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온어(鰐魚)라고 하는 어종으로, 속칭 멸어(鰐魚)라고 하는 것이다. 온어는 삼치와 흡사한데,⁶ 조금 작아서 겨우 세 치에서 네 치쯤 된다. 회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으며 건어로 만들 수도 있고, 삶진 놈을 모아가

5 정어리, 멸치, 붕눈멸 등의 총칭.

6 원문은 '사마이고소(似馬而較小)'인데,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정령국지(淸寧國志)〉를 참조하여 '사마고이소(似馬較而小)'로 바로잡았다.

를 짤 수도 있다. 한 번 그물을 치면 산더미처럼 많아서, 혹 썩어서 밭에 거름으로 주기도 한다. 일본 사람은 고래와 악어를 바다의 거대한 보배로 친다.】

어호(魚虎)⁷라는 물고기가 있다. 그놈의 아빨과 지느러미는 칼날과 칼끝 같다. 수십 마리가 번번이 고래 입 옆에 있다가 뺨과 아가미를 찌르면, 한참 있다가 고래가 괴로워 정신을 잃고 입을 벌린다. 그때 어호가 고래 입 속으로 들어가 혀뿌리를 물어뜯으면 고래가 곧 죽는다.

【《화한삼제도회》에 "어호는 서남해의 바다 가운데 산다. 큰놈은 6~7척이고,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칼날처럼 예리하다. 배 아래쪽에 배지느러미가 있고, 몸은 검붉은 색이다. 아빨이 있어 여러 물고기를 먹는다" 하였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고래가 악어와 작은 물고기만 잡아먹고 큰 물고기는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어호가 늘 고래의 입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만약 고래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대뜸 입 속으로 들어가 고래의 혀뿌리를 물어뜯는다. 그래서 고래가 두려워한다. 다른 물고기도 모두 두려워하는데, 오직 전어(鰓魚, 칠갑상어)와 심어(鯽魚, 칠갑상어의 인종)만이 어호를 겁업할 수 있다" 하였다. 전어는 태생으로 입에서 알을 토하는 물고기다. 살펴보니 동북해 바다 속에 물고기가 사는데 속칭 '장소피(長蘇披)'라 불리는 놈으로, 길이가 겨우 1촌(寸) 남짓이다. 온 바다를 뒤덮어 헤엄치다가 고래를 만나면 사면에서

7 어호는 속칭 '사치'라고 하는 고래의 일종으로, 범고래붙이의 종고래다. 작은 몸집에 비해 성질이 난폭하여 '바다의 이리'로 불린다. 이들은 큰고래를 집단으로 사냥하는데, 큰고래의 혀를 공격하여 적다줄일로 죽게 한다.

포위하여 살을 뜯고 뜯어먹으니 고래가 이내 죽는다. 어호 외에 이놀 역시 고래를 죽이는 물고기다. 이원옥(李源玉) 씨의 말에 따르면 "내가 일찍이 관동 지방의 통진군(通津郡)에 산 적이 있다. 그때 바다 어류 가운데 '장수피(長壽皮)'란 놈이 있었다. 모양은 가지와 흡사하고 흑색이다. 수백 마리의 바다를 뒤덮어 때를 지어 다니다가 고래를 보면 사방에서 포위하여 물어뜯는다. 고래가 기어오르면 이것을 식량으로 삼는다" 하였으니, 장수피라는 물고기 이름과 또 같지 않은가.】

● 고래가 죽으면 반드시 바다 위에 뜬다.

【우리 조선은 해안 고을의 바다 기슭에 간혹 죽은 고래가 밀려오는 일이 있는데, 기름을 짜면 매우 많아서 이익이 적지 않다. 그러나 관아에서 그 이익을 독차지하여 도리어 민폐를 끼치니, 그런 까닭에 많은 백성이 혹 고래 시체를 떠밀어 바다 가운데로 보내어 다른 고을로 밀려가게 한다. 그러나 고래 한 마리에서 얻는 기름 값이 거의 1000냥이나 되고 보면 이것은 바로 해상(海上)의 귀중한 보화(寶貨)다. 《고려사》 원종(元宗) 14년 계유년 12월 계유일에 "원나라 다무가지가 중서성의 공문서를 관동 지방과 경상도에 보내어 신루지(麝香脂)를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신루지는 곧 고래기름이다. 민간의 말에 '윤년에는 고래가 자살을 많이 한다' 하였고, 물리서에서는 '고래가 죽으면 뱀부리가 진다' 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자살한 고래는 반드시 눈 하나 없다' 하였고, 또 '고래의 눈동자는 곧 명월주(明月珠)다. 백씨의 《광주기(廣州記)》를 살펴보니 "고래의 눈동자는 곧 명월주(明月珠)다. 그런 까닭에 죽은 고래에게는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다.】

● 일본인과 서양인은 고래잡이로 생업을 삼는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인 가운데 고래를 잡는 자는 큰 배에 큰 서까래 굵기만 한 단단한 닻줄 수백 장을 싣고 그것을 도르레 장치 위에 묶는다. 닻줄의 한쪽 끝에다 큰 갈고리를 매달고 그 갈고리 위에 거꾸로 된 갈고리를 장착하여 거기에 돼지를 꿰어 미끼로 만들어서 바닷물 속으로 던진다. 그러면 고래가 돼지를 집어삼킨 채 달아난다. 달아나는 고래를 따라 닻줄을 풀며 따라가면 마침내 고래가 큰 갈고리에 목이 막혀 죽는다. 이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도르레를 돌리면 고래가 닻줄을 따라 끌려 나온다. 그러면 바다에 떠온 채 끌고 와서 바닷가 포구에 패를 정박한다. 또 일본에서는 고래잡이 작살을 삼(森)이라 한다.

근세 우리나라 동북 바다와 서남 바다 가운데 황당선(荒唐船, 이양선)이 봄과 여름이면 어김없이 와서 배회하며 가지 않기에 사람들이 많이 궁핍해하였다. 민정을 탐문할 때 바닷가 사람에게 그 정적(情迹)을 물으면 고래를 잡으러 와서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들 고래잡이는 기름을 채취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네의 해로움이 커서 본래부터 특별한 분일이 없으면 항상 해상(海上)에서 망원경과 천리경을 가지고 바다 가운데를 관찰하여 고래가 놀고 사냥하는 장소를 찾는다. 만약 고래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천리 배리를 멀다 앓고 반드시 가서 낚시를 던져 잡아 올린다. 그 낚싯바늘이 몹시 커서 돼지나 양으로 미끼를 만들어 던지면 고래가 틀림없이 집어삼켜 배 속으로 넣어 내장에 걸린다. 도르레 장치에 묶인 낚싯줄은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길이는 몇만 뼘쯤인지 알 수 없는데, 지극히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낚싯바늘은 곡식 이삭 머뭇처럼 주렁주렁 달아놓고 열고 닫는 장치를 만들어 미끼를 꿰

어 고래가 먹이를 찾는 곳에 던진다, 고래가 미끼를 먹으면 물살을 따라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미끼가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낚시의 바늘 매듭이 마치 우산을 펼치듯이 사방으로 펼쳐져 걸리고 낚싯바늘이 창자를 꿰어당긴다. 고래가 고통을 견디며 곧장 달아나면 서양 네가 형세대로 따라가다가 고래가 죽으면 도르래를 돌려 낚싯줄을 거두어들인다. 이렇게 하면 고래가 물 위에 떠서 팔려 나온다.

또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것도 있다. 이양현이 이원현(利原縣) 앞바다 남쪽 솔밭에 정착하였다. 선원은 열아홉 명으로 머리에 홍모(紅帽) 비슷한 것을 썼다. 모직으로 만들었는데, 색깔은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다. 서양 비단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 소나무를 마구 베다가 이원현의 관원에게 채포되었다. 그들의 팔소리는 오랑캐와 닮았으면서도 딱하고 어눌하였다. 그중에 또 중국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 “왜 항상 연안 앞바다를 뱀돌면서 가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 “고래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배에는 고래 뼈가 많이 쌓여 있었다. 뼈를 태워 땀감으로 쓰고, 감저병(甘藷餅, 감자떡)을 아침저녁 끼니로 먹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할상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고래를 잡는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듯하다】

●악어(鱷魚)는 우리 조선엔 없는 동물인 까닭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 모습을 모른다. 지금 여러 시적에서 대략 채집하여 기록한다.

【허신(許愼)⁸은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물고기다. 일생 동안 100개의 일을 낳는데,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르면 뱀이 되는 농도 있고 거북이 되는 농도 있고 교룡이 되는 농도 있다’ 하였다.

왕기(王圻)의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악어는 네 발이 있으니 도마뱀과 비슷하다. 길이는 2장(丈)이고, 긴 꼬리에 이빨이 날카롭다. 호랑이나 용이 물을 건널 때 악어가 꼬리로 치면 모두 두 동강이 난다. 사람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혼곤히 취해 잠든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있다” 하였다. 자전(字典)에 “악어는 용의 이빨에 호랑이의 발톱을 하고, 개의 눈에 도마뱀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 꼬리는 길이 수척이나 되고, 물속에 잠수하여 사람을 잡아먹고는 다시 물 위에 떠오른다” 하였다.

《몽계원담(蒙溪叢談)》⁹에 “악어는 모습이 도마뱀과 흡사하다. 다만 몸집이에 비급가는 긴 주둥이가 있고, 이빨은 톱니처럼 생겼다. 누런 악어, 푸른 악어, 흰 악어가 있다. 꼬리에는 세 개의 갈고리가 있어 사슴이나 멧돼지를 만나면 즉시 꼬리로 쥘러서 잡아먹는다. 알을 매우 많이 낳는데, 어떤 놈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놈은 자라 또는 도마뱀이 되어 악어가 되는 것은 한둘이 지나지 않는다. 개나 돼지의 몸에 갈고리

8 중국 후한(後漢)의 학자. 자는 숙중(叔重)으로, 이남(汝南) 소릉(召陵) 사람이다. 한나라 명제(明帝)부터 화제(和帝) 때까지 관직에 있었다. 박학했으며, 경학(經學)을 연구하고 6서(六書)의 의미를 구명하였다.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논술한《설문해지》는 중국 문자학의 선구로 꼽힌다. 그 밖에 오경의 해석을 기술한《오경의의(五經異義)》가 있다.

9 복숭의 학자였던 심관(沈潜, 1031-1095)이 평생 동안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기술한 수필 형식의 저작물. 대략 1086년에서 1093년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진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몽계(夢溪)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몽계원담》은 총 26권으로 구성된다. 고사(故事), 연공(艱難), 악률(樂律), 수학, 정치, 문학, 서화, 기문(奇聞), 고종, 감기, 지리, 지전, 물리, 생물, 의학, 약학, 군사학 등에 관해 손이 가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를 달아 팻목에 태워 띄워 보내면 악어가 잡아먹는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악어가 황랍(黃蠟)을 싫어하여, 구슬을 켜는 자는 황랍을 몸에 바르고 채취한다” 하였다.

《설부(設部)》에 “해남의 어떤 어류는 만약 그놈이 죽어 머리를 잘라 말린 다음 이빨을 부수어버리면 다시 살아난다. 이 또한 악어의 종류다” 하였다. 《홍무정운(洪武正韻)》¹⁰에 “악어(鱷魚)는 도마뱀과 흡사한 동물이다. 큰 강과 깊은 계곡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즉시 물 위로 뜬다” 하였다. 《홍무정운》에는 악어(鱷魚)가 별도로 나오는데, 그 주석에 “바닷속 어류로 이름이 악(鱷)이다. 곧 악어다” 하였다.】

내 생각엔 고래를 잡는 시랑인이 자라를 잡는 거인¹¹만 못하고, 갈고리를 단다, 황랍을 바른다 하는 잔꾀는 창려(창황)의 재문¹²에 못 미친다고 독자에게 우스갯소리를 한 번 해본다.

10 명나라 초기 홍무(洪武) 연간에 만든 사전이다.

11 옛날 날개 동쪽에 신선이 사는 다섯 개의 산이 조봉에 밀려 표류하자 옥황상제가 큰 자라 열다섯 마리를 보내 그 산들을 머리로 이고 있으라 하였다. 그런데 동박국(東伯國)의 거인이 낚시질을 하여 이것 마리를 잡아가는 바람에 지금은 아홉 마리가 세 개의 선산(仙山)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한다.

12 창려는 한나라의 대문호 한유(韓愈)를 말한다. 그가 조주자사(潮州刺史)로 부임해보니 그곳 악제(惡澤)에 악어가 살고 있어 가족과 농산물을 해쳐 걱정이 심 수가 없었다. 이에 한유가 악어를 물리친다는 의미의 (제악어문(祭鱷魚文))을 지어 악제에 던졌다. 그 날 저녁부터 악제에 복병이 없고 잔당이 지더니, 수일 후에는 그곳의 물이 더 맑아서 악어가 사라졌다.

鯢人魚漆燈

辨證說

예(鯢), 인어(人魚),
칠등(漆燈)에 대한
변증설

●예(鯢)는 《정자통(正字通)》에 “음은 예(鯢)다. 고래의 일종이다. 암컷으로, 암컷이 예(鯢)다”라고 하였다. 【《화한삼재도회》에 “암컷 고래는 음호(陰戶)와 유방이 모두 있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예는 산골짜기 계곡에 있으니 일명 왕유(王鮪)라고 한다.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 예의 기름을 짜서 등축을 밝히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진시황의 무덤 속에 이것을 써서 등을 밝혔다”라고 하였다.

살피보전대 《성경통지(盛京通志)》에 “심황(鯢鮪)은 《이어(爾雅)》에 왕유(王鮪)라고 하였다. 심어(鯢魚)는 일명 위어(鮪魚)라고도 하고, 흑신어(神魚)라고도 한다. 낙랑위(樂浪尉)가 바다에 빠지죽어 화신한 물고기다”라고 하였다.

【《화한삼재도회》에 “유(鮪)는 또한 전(鮪) 등축으로 심(鯢)의 일종이다. 《본초강목》에는 심과 유를 동일한 생물로 보았으니, 경민하지 않다. 심은 청백색이다. 코가 길어 몸과 나란하다. 유는 머리가 조금 크다. 코가 길기는 하지만 그다지 크지 않고, 입은 턱 아래에 있다. 양아가미

가 마치 부구처럼 생겼고, 등과 배에는 지느러미만 있고 비늘은 없다. 청흑색이다. 배는 희고, 꼬리가 길라졌다. 위는 크고 가운데는 둥글고 아래는 작다. 큰 놈은 1장이 넘고, 작은 놈도 6~7척이 된다. 고기는 기름지고 담적색이다. 등에 흑혈육(黑血肉) 두 줄기가 있어 제거할 수 있다. 따뜻할 때 나타난다” 하였다. 전(鱓)은 태생(胎生) 동물로 입으로 출산한다. 심과 유는 우리나라의 인어(鱷魚)¹인 듯하니, 곧 장어(鱷魚)다. 자서(字書)를 살펴보면 유는 전과 흡사한데 청흑색이다. 머리는 작고 뾰족하며 마치 철 부구와 같다. 입은 턱 아래에 있다. 갑은 곧 마강(摩薑)이다. 여어(鮫魚)는 점어(鮫魚)와 흡사한데, 네 다리가 있다. 앞다리는 원숭이와 흡사하고, 뒷다리는 개 다리와 비슷하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 한편 수컷은 경(鯨)이라 하고, 암컷은 여(鮫)라고 한다. 《오잡초(五雜俎)》에 “오늘날 영남에 여어(鮫魚)라는 수중동물이 있는데, 네 발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오른다” 하였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에 “국(鱷)은 낙랑의 반국(潘國)에서 난다. 두 개의 유방이 있다” 하였다. 남희인(南希仁)의 《곤어외기》에 “인어 가운데 사람 비슷한 것이다. 지금 민간에서 인어라고 부르니, 서남해의 바다에 있다. 대화하며 능히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일 수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아가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말한 국(鱷)일 것이다. 탕야방의 《지방외기(職方外紀)》에 “바다 가운데 해녀가 있다. 상체는 여인과 같고 하체는 물고기 형상이다. 그 뼈로 영주를 만드니 물고기의 뼈 가운데 상등품이라 각국에서 귀하게 여긴다” 하였다. 【《곤어외기》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다.】

유서(鱷書)나 자서(字書)에 또 고인(鮫人)이라는 것이 있으니 또한 인어의 종류다. 여산에 있는 전시황의 무덤에 인어의 기름으로 등잔을 밝힌다는 설은 흑어(鮫)의 기름을 쓰거나 해녀의 기름을 쓴다는 것인가. 여(鮫)는 본디 압고래의 이름이니, 《본초강목》의 왕유(王鮫)에 해당한다. 그런데 왕유는 인어가 아니다. 혹 그 소리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다고 해서 여(鮫)라고 이름 붙인 것 때문에 외전되어 인어라고 한 것인가. 정어(鮫鮫)의 기름 또한 등잔 기름으로 쓸 수 있다. 신쿠지(神庫子)라고 하는 것은 전시황의 무덤 속에 있는 등잔 기름이니, 정어의 기름을 잘못하여 왕유의 어라고 한 것인가. 고대 무덤 속에 철(鐵)을 태워 영원히 불을 밝힌다는 기록이 종종 옛 문헌에 보이니 충분히 고찰하여 증거도 삼을 수 있으며, 송나라 약가(岳峴)의 《정사(程史)》에도 고찰할 만한 기록이 있다.

내가 일찍이 철을 태워 불에 빛이 어둡고 희미하였으니, 혹 땅속에서 불을 붙일 수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밝다는 것은 아니다. 대저 고대 제왕이나 귀인의 무덤 가운데 반드시 등축을 밝혀 후세에 발굴할 때까지 여전히 꺼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비단 전시황의 무덤 등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사(程史)》에 “내가 부산(釜山)에 살 때 분성(汾城) 안에 있었다. 정원(慶元) 원년(1195), 큰비에 꼭대기가 무너져 옛 무덤이 나오고 여러 벽돌이 휩쓸려 내려왔다. 벽돌에 새겨진 글자에 ‘진(晉)나라 영녕(永寧) 원년(301) 5월에 조성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무덤을 조성한 장인 장모(張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금자를 박아놓은 듯한 문양의 기와와 주발 10여 점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등축이 걸려 있었는데 여전히 불타고 있다가 취하자 곧 꺼졌다. 고약(膏藥)과 같은 기름이

있었는데, 바깥 공기를 췌자 옹고되었다. 내가 《진서(晉書)》를 살펴보니 영녕은 대개 서진(西晉) 혜제(惠帝)의 연호이니, 지금부터 900여 년 전 시대다. 글자를 박아 넣는 양식은 세상에서 모두 당나라 위칙(魏徵)의 오타운(五台山)²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으니, 진나라 시대에 이미 이러한 양식이 있었던 줄은 몰랐다. 내 실로 사이비가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또 나의 기억력만 고수할 수는 없다. 무릇 사물은 모두 부패하기를 고종의 등축은 아적도 받으니, 여산 진시황의 무덤에 인어의 기름으로 등축을 밝혔다는 설이 실로 혹 그럴 수 있겠다.】

2 위칙은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명필로 순공(順公)에 봉해졌다. 그는 한 오색구름의 형상을 장이에 담은 오채전(五采箋)에 서환을 썼다. 서환을 쓸 때에도 본문의 내용은 시현(侍宴)에게 쓰도록 모두 맡겨버리고 자신은 서명만 하고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쓴 책(冊) 자는 오타운(五台山)과 같다”라고 하였다. - 《古今事文類聚》(類聚) 권25

辨證說 鱸魚

용어(청어)

변증설

대어(帶魚)를 부독함

청어(靑魚)는 어류 가운데 지극히 많은 놈이다. 명나라 말엽에 갑자기 요동 등의 바다에서 나와 신어(新魚)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약 100년 전에 매우 많이 잡혔다. 큰 것은 거의 작은 송어만 하다. 중간에 사라졌다가 정조 무오년(1798)과 기미년(1799) 사이에 다시 나와 흔해졌으나 훌쩍하여 참조기만큼 작았다. 【소면(小鱸)은 석수어(石首魚, 조기)를 말한다.】 청어는 북로(北路)에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강원도의 동해변을 따라 내려와서 11월에 비로소 영남 울산과 장기 등의 앞바다에서 잡힌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작아진다. 어상(魚商)이 멀리 서울로 수송하는데, 반드시 동지 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연창(鹽倉)에서 훈제해야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때 문에 연관목(鹽貫目)이라고 부르며 【관목(貫目)은 말린 청어의 속칭】 비싼 값을 받는다.

대개 연해에서 나는 해산물은 모두 계절이 있다. 그러나 청어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사철 내내 나오며, 초여름에 해주에 이르러 그친다. 여름과 가을에는 점점 드물어져 해변 고을의 어민이 공물을 바

치지 못하니, 이 때문에 흑 산지의 이름을 바꾸어 해당 지역에 판매한다. 대저 이렇게 해서 해주에서 생산되는 청어가 온 나라에 퍼졌다. 기미년 이후 20마리를 뛰어 1급(級)을 만들어 동전 2~3문과 바꾸었다. 순조(純祖) 정인년과 신묘년 사이에는 청어 값이 1급에 4~50 문씩 나가 점점 가격이 치솟다가 헌종 율미년 이후 다시 조금씩 낮아졌다. 그러나 끝내 기미년 이후처럼 싸지지는 않았으니, 생선 값의 성쇠는 또한 알 수 없다. 속담에 “가난한 백성에게 청어가 없다면 어떻게 나물 반찬 신세를 면하랴” 하였으니 참으로 명언이다.

청어는 오직 청어로만 불린다. 청(靑, 고등어)이라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니, 곧 용어(龍魚)다. 왕기(王圻)의 《삼재도회》에 “제(鱈)는 준치와 비슷한데 작고 청색이다. 민간에서는 청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왜도회(倭圖會)》에 제(鱈), 용(龍), 추(鱈)를 끌어와 모두 청어라고 풀이하였다. 《청삼통(淸三通)》에 “해청어(海靑魚)는 영해주(淸海州)에서 난다. 청어 떼가 바다에 오면 바닷물에서 소리가 나고, 청어 떼가 갈 때에는 물살이 화살처럼 부딪힌다” 하였으니, 곧 지금의 청어다.

살려보전대 승원(宋旻)의 《안야당집(安雅堂集)》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배에서 무료하게 지내다가 문득 고향에서 먹던 해산물의 맛이 기억나 그 형상을 풀이하여 장난삼아 배운제(背運鱈)로 짓는다. 청어는 길이가 한 자도 채 되지 않는다. 등은 암청색이고 배는 붉으며, 입흔이 지난 뒤에 나온다. 살은 향긋하면서 연하고 결(筋)을 따라 찢어지며, 가시는 고슴도치의 털처럼 뾰뾰하나 연하여 입안을 찌르지 않는다. 암늬는 배 속에 알이

있어 길이와 너비가 서로 같은 곱체인데, 이늬를 씹어 먹으면 소리가 난다. 수늬는 허얀 것이 가장 맛이 좋다.

살려보전대 청어 알은 좁쌀처럼 생겼다. 이 때문에 씹어 먹으면 소리가 난다. 수늬의 흰 것은 곧 백포(白膠)인데, 속칭 어백아(魚白兒)라고 부르고 조선의 민간에서는 이리라고 부른다. 어부들에게 들으니 수컷 청어가 물속에서 백포를 화살처럼 점점이 방사하면 암컷 청어가 그 뒤를 따라 삼켜 잉태하여 알을 만든다고 한다. 해조류의 잎줄기에 구슬 같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하여 용어가 태어난다고 한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 바닷가 사람들이 해조류를 채취하여 말리면서 청어 알도 함께 말려 시장에 내다팔아 반찬을 만들면 또한 먹을 만하다고 한다. 청어의 먹이주머니 아래 흰 실처럼 생긴 물건이 있어 서로 영저 작은 덩이들이 이주는데, 이 돌고기 배 속에 기생하는 실뱀 같은 기생충인 듯하니 의당 제거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

저자에 막 나오면 값이 제법 비싸도 잠깐 사이에 다 팔린다. 하지만 사실 10전(錢)도 채 되지 않아 바닷가 사람들이 이것으로 밤을 대신하니 청어 죽(靑魚粥)이라 한다.

그리고 뒤에 이런 시가 붙어 있다.

침살의 잉부새가 새벽 알려올 제 (枕上春鷓向曉鳴)

고향의 풍물이 가장 생각나누나 (故園風物最關情)

청어의 이리는 서시의 것¹보다 낮가늘 (靑魚白膠更難乳)

1 북어는 독성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활나라 비인 서시의 것으로 비유되었다. 서사로 인해 오나라가 멸망하였다.

우스워라 복어가 명상 독차지였네 (蘇水河豚漁者名)

이는 우리 조선의 청어가 아닌가. 민중(閩中) 지방에서 우리나라 해주민쯤이나 청어가 많이 난다니 참으로 특이한 일이다.

또 대어(帶魚, 갈치)에 대해 읊은 시도 있다.

장주리에 담긴 찬란한 은화요 (銀花罐慢煮珍魚)

가장 맛있는 비단 비의 흰 칼날 (錦帶似錦帶魚鱗)

천고에 유희의 풍골 독차지해 (千載專諸留佳骨)

오늘까지 수저에 서리가 치네 (至今匕箸尚飛霜)

【소疏에 “대어(帶魚, 갈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다. 생김새는 마치 띠와 같고 길이는 여섯 자 남짓 된다. 색깔은 은처럼 빛나며 회고 번쩍번쩍 광채가 있어 마치 대장간 담금질 봉에서 막 끼낸 칼날 같다. 이 때문에 은도(銀刀)라 한다. 미리에서 꼬리까지 하나의 뼈이고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위 몇 치가 가장 맛있다. 교서(膠西) 사람들은 쌀겨에 찐 이는데 이렇게 하면 천리를 가도록 부패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물고기는 우리 조선에도 있다.】

이른바 대어는 우리나라 민간에서 갈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서(字書)를 고찰하니, 곧 《역어유해》에 군대어(裙帶魚)라고 소개한 것이다. 이 물고기는 좁고 납작하며 길이가 4-5자 되는데다 칼처럼 하얗기 때문에 갈치라고 한 것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대어가 바로 이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갈치는 맛이 매우 좋고 사계절 내내 호서와 남해 연안 고을의 저자에 풍성하게 나온다. 회로 먹거나

쳐서 먹기도 하며, 소금에 절여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다. 이 때문에 속담에 “맛 좋고 값싼 갈치지만【지반은 조선의 민간에서 생선을 소금에 절인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라고 하지만 배꼽 부위의 살이 더욱 맛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산골짜기에 숨어 살며 거의 고기와 생선을 먹지 못하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 그러므로 책에서 이 내용을 읽을 때 마치 오후정(五柳精, 진수성잠)을 맛본 듯하여 부질없이 기뻐한다.

辨證說 鱧魚

온어(멸치)
변증설

조선의 동북쪽 바다에 사는 어류 가운데 미꾸라지만 한 작은 물고기가 있어 멸어(鰓魚, 멸치)라고 하거나 혹 멸어(鰓魚)라고 한다. 멸(鰓)자는 조선에서 만든 글자로, 그 음이 기(鰓)자와 초성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차용한다. 한 번 그물을 건져올리면 배에 그득하여 바닷가 어부들이 곧바로 팔리지 않으면 썩어버리는데, 그러면 거름으로나 사용한다. 산 것은 탕을 끓인다. 기름을 짜낸 것은 먹을 수 없다. 말린 것은 일상의 밑반찬으로 삼는다. 그러나 온 나라에 만연한 북어만은 못하다.

색상에서는 이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민서(閔書)》를 살펴보면, “온어(鰓魚)는 마고(馬鮫, 삼치)와 흡사하면서도 작고 비늘이 있다. 큰 것은 거의 서너 치나 된다” 하였다. 《화환삼제도회》에는 “온어는 민간에서 약(鰓, 이와시)이라 부르

1 《화환삼제도회》에서 말하는 이와시는 멸치가 아니라 경어라다. 이규경이 조금 착각을 한 듯하다.

는데, 기름을 짜서 등죽을 뽑힌다` 하였다.

무릇 경(鯨, 수영고래)과 약(鰐, 멸치)은 조선 바다의 보물이니, 그 이용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경이 약을 먹는다고 한다. 내가 예전에 바닷가 어부에게 들으니 멸치 떼가 노는 곳에 수영고래가 다가 큰 입을 벌리고 멸치 떼를 흡입하면 멸치는 파도가 빨리 치는 줄로 착각하고 떼를 지어 수영고래 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고래는 배를 채우고 난 뒤 어굽니를 물고 턱을 벌려 물을 내뿜는데, 이때 사람들이 물을 걸러내듯 고래도 물만 쏟아내고 멸치는 가두어둔다고 한다. 지금 <웨도회>에 고래가 멸치를 잡아먹는 모양을 기록한 문장을 고찰해보건대 이것과 딱 맞아떨어진다. 또 우리나라 민간에서 온어를 멸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도 또한 멸어라고 부른다. 뒤에 비서랑【이종덕(李種德)의】<포해록(溟海錄)>을 살펴보니 왜인이 날마다 멸치 서너 개를 주워 반찬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기록 때문에 직접 이종덕을 찾아가 물어보니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 멸치와 같은 어종인데 다만 크기가 청어만 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는 것은 몹시 큰 것인가 보다. 【몇 년 전 강원도 울진에 표류해온 일본 어선을 보니 우리나라의 말린 조기와 비슷한 상어(鰲魚)가 배에 가득하였는데, 생김새가 청어와 흡사하면서도 청어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것이 곧 마른 멸치다】

이에 이것을 써서 박물학을 하는 동지들에게 알린다.

辨證說 北魚

북어
변증설

●우리 조선의 동북 바다 가운데 물고기 한 종류가 살고 있다. 몸통은 날렵하고 길이는 한 자 남짓이며, 큰 입에 비늘은 가느다랗다. 색은 담홍색에 검은빛이 돈다. 뇌에는 호박씨 같은 타원형의 뼈가 있다. 배에는 알이 있는데 크기가 작아서 좁쌀 같다. 또 양젓이나 돼지기름처럼 하얀 것이 있는데, '고지미(膏脂美)'라고 한다. 그 물고기 이름은 바로 북어, 속칭 명태(明太)다. 봄에 잡은 것을 춘태(春太), 겨울에 잡은 것을 동태(冬太), 동짓달에 시장에 나오는 것을 동명태(凍明太)라고 한다. 북어 알로 담근 것을 명란(明卵)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놈은 육질이 고슬고슬하고 맛이 담백하다. 말려서 건어물로 만든 것은 이 알대 지방에 두루 공급되는데, 한 머리에 값이 몇 문이나 한다. 가격은 어느 지방이나 다 같고 일상적으로 사랑받는 반찬으로 쓰이며, 여항의 평민은 이것을 가지고 조를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고 빈한한 가계의 유

1. 지금은 명태가 대표 이름이고 북어는 명태를 일컫는 것, 동해와 동명태는 연린 것, 생태는 말리거나 얼리지 않은 젊은 그대로의 명태를 말한다.

생도 또한 채물로 물릴 수 있으니, 흔한 것이면서 귀하게 쓰인다. 다만 먹으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격물론(格物論)〉에 달법합어(達法哈魚)라는 물고기가 나온다. 이 물고기를 조사하다 보니 '달법합어는 8월이면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온다. 때 지어 오는 수가 워낙 많아 혹은 물고기 등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다. 영고탑(寧古塔)이나 흑룡강(黑龍江) 일대에 사는 토착민은 이 물고기를 잡아 굽거나 말려 향아두고는 식량으로 쓴다' 하였다.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의 북어가 어닌가. 또 북해(北海) 지방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중추절 무렵부터 이 물고기가 대거 몰려와서 그물질 한 번에 배가 그득 차 산더미처럼 쌓인다' 하니, 이 물고기가 바로 〈격물론〉의 달법합어임에 더더욱 틀림없다. 혹 중국의 주변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였다면 옛 학자가 이미 '○○물고기'라고 이름을 지어놓았을 터인데, 이 물고기는 거의 이름을 찾을 수 없으니 이것이 의문이다. 빈약 우리 조선의 북쪽 바다에서만 나는 어종이라면 허숙중(許愼)이 《실문해자》(實文海字) 〈어부(魚部)〉에서 "웅어(鰓魚)는 낙랑의 동쪽 바다에서 난다. 맥국(墨國)에서 나는 생선으로는 사어(沙魚), 노어(鱸魚), 구어(鯽魚), 역어(鰻魚), 국어(鰱魚), 침어(鱖魚) 등이 있다. 모두 낙랑의 주변 나라에서 나기 때문에 물고기 이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이 안타깝다" 하였듯이 사실 이들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은 없는 셈이다. 뒤에 일본의 양안상순(良安尙順)이 지은 《화한삼제도회》에서도 "아라어(阿羅魚)는 세상에서 '어어(鰓魚)'라 하는데,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 살펴본 결과 《화한삼제도회》에 "생김새와 색깔이 살어(鰓魚)와 대다 비슷하면서 크고, 입은 노어와 닮았다. 3월에 북쪽 바다에서 잡는다. 말린 것은 가늘게 가루를 내어 산후의 부녀자가 칼에 베었을 때 약으로 쓰면 지혈 효과가 있다" 하였다. 이것이 어찌 북어가 아니겠는가. 실어는 일본에서 쓰는 지방어이니, 곧 우리가 대구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오어(鰓魚)라 부르는 물고기다. 역어는 곧 일본에서 지은 북어의 정식 표준어이니, 달법합어나 아라어, 북어, 명태라는 비공식적 이름과 전주어본다면 이 물고기에게 큰 다행이라 하겠다.

【북어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바닷가 사람은 그 내장을 위해 동전 기름으로 쓴다. 가죽은 단어서 접착제로 만들어 사용한다. 북어 대가리는 고아서 소화제로 만들어 마신다. 몸뚱이는 진하게 고아 고약처럼 만들면 허한 기운을 보양할 수 있고 산후의 복통에도 쓸 수 있다. 말린 북어를 번속에 많이 먹으면 피와 설사가 멎는다. 북어를 달일 때 그 김을 피면 두통에 효과가 있다. 일본의 양안상순이 "산후의 부녀자가 칼에 베었을 때 약으로 쓴다" 한 말도 거짓이 아니다.】

辨證說 鱖魚

후어(투구게)

변증설

투구게에는 큰 종류와 작은 종류가 있다. 여러 문헌을 참고해보니 투구게는 속어로 홍(缸)이라고도 한다.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에서 "투구게의 형상은 마치 해문관(海文冠) 및 위두(鬚斗, 다리키)의 모양과 비슷하다. 너비는 한 자 남짓이고, 등딱지는 맑고 매끄럽다. 청흑색이며, 지라 등 모양에 비로 된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은 등 위에, 입은 배 아래에 있다. 머리는 말뚝구리를 닮았고, 다리는 열두 개인데, 게와 흡사하게 배의 양쪽에 붙어 있다. 다리 길이는 5-6척이고, 꼬리 길이는 12척이다. 종려나무 잎처럼 세 모서리가 있다. 등에는 뿔 같은 뼈가 있는데, 높이가 7-8촌이고 산호처럼 생겼다. 예전 바다를 지날 때 서로 엮드려 등을 보이면서 바람을 타고 헤엄치니, 민간에서는 후범(鰲)이라고도 하고 또 후래(鰲)라고도 한다. 피는 푸른색이고, 배에는 좁쌀알 같은 알을 배고 있어 젓감을 담글 수 있다. 꼬리에는 구슬 모양의 좁쌀 같은 것이 있다. 암컷이 늘 수컷을 업고 다니므로 암컷을 잃은 수컷은 움직일 수 없어 어부들은 번번이 쌍으로 잡는다. 수컷은 작고 암컷은 크다. 물속에 두면 암컷이 수컷을 업

고 가라앉기 때문에 민중(閩中) 지방 사람들은 혼례에 사용한다. 꼬리발에 숨어 있다가 스스로 튀어오른다. 등껍데기는 밥식 단단하여 관으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구부러 국자로 만들 수도 있다. 항 속에 넣어두면 능히 향기를 발산한다. 꼬리는 작은 여의(如魚 효자손)를 만들 수 있다. 기름을 태우면 쥐를 불러 모은다. 두구게의 성질은 모기를 두려워하니 모기에게 쏘이면 곧바로 죽는다. 또 벌을 쫓기 싫어하니 벌을 쫓어도 역시 죽는다. 그러나 종종 한낮에 벌을 쫓어도 아무 달이 없다. 남방 사람들은 두구게고기로 찻갈을 담근다. 두구게의 종류 가운데 작은 것은 귀후(鬼虜)라고 하여 먹으면 해롭다” 하였다.

살려보전대 양안(良安)의 《화환삼제도회》에서는 “호사자가 전사한 용사의 이름을 들어다 물어놓고 그의 혼령이 변한 것이라고 하였다. 원홍(元弘, 겐코)의 난에 진무문(秦武文, 하타노 다케분)이 십주(攝州, 셋슈, 현재의 오사카) 병고(兵庫, 요코)의 바다에서 죽었다. 이 때문에 병고 및 과주(播州) 명석포(明石浦, 아카시)의 귀후(鬼虜)를 무문해(武文蟹, 다케분가니)라고 한다. 크기는 한 자쯤 되고, 집게발은 붉은색에 흰 문양이 있다. 항록(享祿, 고로쿠) 4년, 세천(瀬川, 호소카와) 고국(高國)이 삼호(三好, 미요시)와 섬양(福陽, 세쓰요)에서 집전하였을 때, 세천의 가신 도촌(島村, 시마무라) 아무개가 적병 두 사람을 끼고 이기(肥前, 아바자사키)의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 때문에 이기포의 작은 두구게를 민간에서는 도촌해(島村蟹, 시마무라가니)라고 한다. 크기는 1~2촌이고 등껍다. 배의 문양이 귀면(鬼面)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조부(정장관 이덕무)가 베껴놓은 《잡초(雜抄)》에서는 “내가 살려보전대 등의 문양이 귀면이다. 《필담》에서 말한바 ‘관중 지방 사람이 그 형상을 괴기스럽게 여겨 때문에 길어놓고 학질을 물리치는 게

라는 것이 곧 이 귀후(鬼虜)다” 하였다.

《화환삼제도회》를 보면 귀후의 다리는 꼬우에 각각 네 개씩이다. 큰 것이 작은 것 사이사이에 하나씩 있어 큰 다리가 넷이고 작은 다리가 넷이다. 두 개의 집게발은 퇴화해 매우 작다. 이익의 《성호사설》(蟹類)에서는 “발도자(發蹄子)라는 놈이 있어 뒷발이 뚫쳐 뒹 널고 양락하여 물을 밟고 떠다니는데 민간에서 꽃게라고 한다. 등껍데기 양쪽에 꼬챙이처럼 생긴 뿔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것이 귀후라는 놈인 듯하다. 이것의 등에도 또한 귀면(鬼面)이 있다. 우리 조선에서도 귀후 가운데 작은 것을 진무문(秦武文)이라고 한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하고 머리와 등껍데기 위에도 깨비 얼굴과 같은 눈썹, 눈, 입, 코가 있다. 양쪽에는 집과 같은 뿔이 있다. 바다에 사는 큰 꽃게의 등껍데기에도 인면(人面)이 있으니 귀후라 부를 만하다. 《분초강목》에 소개된 후어(鰍魚)와 비교하면 이름과 실제 생김새가 부합하지는 않지만, 《화환삼제도회》에 소개된 큰 귀후 및 작은 귀후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유사하니 괴이하다.

영재(涇齋)【유득공(柳得恭)】가 일찍이 〈귀후가(鬼虜蟹)〉를 지어 우리 조부에게 주었으니 다음과 같다.

일본 장사 진무문이 (日本壯士秦武文)

십주 바다에서 전사하여 (歸死攝州濱海濱)

바다에 귀신 형상 게가 많이 나니 (海中多在鬼面蟹)

그 지방 사람들이 진 장군이라 한다네 (土人云是秦將軍)

1 문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영재집》의 원문을 참고로 교정하여 번역하였다.

갈을 안고 크게 적노한 얼굴을 한 건 장군이며, 이제 들렸구나 (宗將軍
顧大將軍已矣)

비뿔하게 울부짖고 자갈개 비슷한 문양이 중형으로 있네 (宗將治則
龍構紋)

당시 전장에서 한 말 술을 마셨으니 (當時一斗酒醉歸)

지금까지 두 팔에 은은히 흥조가 있다네 (至今雙袖微醺醉)

청장도인이 어 거를 얻어 (青莊道人得之喜)

꼭에게 산기할 이야기를 신명 나게 말하네 (對客神靈誇美話)

동쪽 이웃 유영재가 보고 탄식하며 (東隣柳子見之歎)

갈을 뽑고 일어나 당실당실 춤을 추네 (拔劍起舞凌唐筵)

그대는 보지 못했다 (君不見)

은봉의 전투에서 아기반도 죽이고 (峯峯之戰射殺兒拔都)

동공이 화살 한 대로 큰공로 자둔 것을 (修公一箭收奇勳)

또 듣지 못했다 (又不聞)

영남의 의사가 밤중에 초저행장 펼쳤고 (南州義士夜刺小西州)

평양의 성 밖에서 적을 고당했고 (平壤城外逐賊氛)

진주성 옥석무에서 (晉州城上轟石樓)

최오리바람 불어 붉은 치마 날라이 (崔御史穿石樓紅)

성루 아래 천고보루논개 비 선 짓을 (樓下千年論介(義妓名)碑) 【논개는 의
기의 이름】

세상의 남아들 한갓 분주하기만 할 뿐 (世上男兒徒紛紛)

아, 남아에 뜻 있으면 오랏줄 정할지니 (嗚呼男兒有志去清纜)

아들바등 명물에 주석만 달아 무엇할까보나 (安用兒郎長抱龜魚磔)

영재의 시에서 옛 신현의 배어난 영물(龜物)의 숨색을 볼 수 있다.
진사한 진무분의 뉘이 귀후로 변환 것은 낙랑위(樂浪尉)가 익사하여
신어(神魚)가 된 것과 같다.

《시초목중어소(詩草木蟲魚疏)》²⁾에는 “중명(仲明) 낙랑위가 바다에
익사하여 그 뉘이 심어(鯢魚)로 변했다. 이 때문에 등주와 내주 사람
은 심어를 위어(尉魚)라고 한다” 하였다. 《성경통지(成京通志)》 설황
(鯢鮪)의 주에 “《어아》에는 ‘왕유(王鮪)’로 되어 있다” 하였다. 살펴보
건대 심어는 일명 위어이고, 혹은 산어라고 하는 것이니 낙랑위가 바다
에 익사하여 변환 것이다.

투구개를 홍(虹 무지개)이라 하는 것은 양신(楊愔)의 《단연총록(丹
鉛總錄)》에 “동쪽 바다에 투구개가 나오면 날씨가 맑고, 서쪽 바다
에 투구개가 나오면 비가 온다”라고 하였으니, 《시경》에서 말한 “아
침에 서쪽에서 무지개가 뜨니, 아침에만 비가 내리겠네”라는 의미와
동한다. 또 왕상진(王象晉)의 《군방보(群芳譜)》를 보니 《농상요람(農
桑要覽)》에 실린 말을 인용한 것이다.

2) 삼국시대 오나라의 육기(陸機)가 지은 《모시초목조수중어소(毛詩草木蟲獸魚疏)》를 말한다.

辨證說 鯉節酒盜

견질(가타랑어포)과
주도(술도둑)에 대한
변증설

일본인이 섬 오랑캐라고는 하지만 여타 야만족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의 문자를 좋아하여 경사자집(經史子集) 외에 기이한 문장과 화려한 문헌을 구해하여 비치해두지 않는 일이 없고 이어서 판각까지 하여 읽는 책이 없다. 또 일본에서 쓰는 문자가 있는데, 이로하 가타카나(以呂波片假)라는 것이 있어 다른 오랑캐와는 현격히 다르니 어찌 편자(番字, 몽골문자), 양시(洋書), 범시(梵書)에 비기겠는가. 【중국과 조선에서 펴낸 서적의 행 옆에 마치 구두를 표시하듯이 가타카나를 새긴다.】 반드시 중국 글자를 가지고 변을 떼어내어 글자를 만들어 마치 우리나라 언해서처럼 동속문을 짓는다.

또 중국과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속 한자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토속 한자가 있다. 지(口)는 문어, 설(鯨)은 대구, 약(鯨)은 은어【조선에서는 멸지라고 한다】, 조(鰐)는 빙어, 조(鰐)는 도미, 짐(鰐)은 고내어(古乃魚, 은어), 해(鯢)는 연어, 사(鯢)는 방어, 갈(口)은

1 《화환삼재도회》에 실린 그림을 보면 그렇다.

오징어, 여(鱈)는 북어다. 그리고 전(鱈)은 고도어(高刀魚, 고등어)의 별자다.²

살펴보전대 《화헌삼제도회》에 “민간에서 ‘전어(鱈魚)’ 두 글자를 합쳐 전(鱈)으로 만들었다. 동어(鰩魚) 가운데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물고기는 말리면 지극히 단단하므로 절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어(鱈魚)라고 한다. 일본(和)에서 부르는 이름은 【화(和)는 예(倭)를 말하니, 옛날에 대화국(大和國)으로 일컬었기 때문이다.】 가두호(加豆乎)³다. 살펴보전대 유(鰩, 다랑어)의 한 종류다. 전(鱈)은 머리가 크고 주둥이가 뾰족하며, 비늘이 없고 청흑색이다. 광택이 나고 기름지다. 배는 운모니(雲母泥)처럼 희고, 등에는 꼬리 끝까지 단단한 지느러미 두 개가 푹날처럼 붙어 있다. 꼬리는 갈라져 있다. 고기는 진홍색이며, 맛은 달고 떄뜻하다. 등 위에 두 줄기 살 가운데 한 줄기 흑혈색 살이 있다. 낚시에 미끼를 사용하지 않으며 쇠 물이나 고래 어금니를 가지고 한순간 수백 마리를 낚아 올린다”라고 하였다. 《화헌삼제도회》에서 설명한 물고기의 모습이 지극히 정밀하다. 또 “전절(鱈節)은 곧 가다랑어고기를 말려 포를 만든 것이다. 어부가 만드는데, 전어(鱈魚) 상태에서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어 두 조각으로 나눈 다음 가운데 있는 뼈를 발라낸다. 다시 두 조각으로 잘라 새 줄기를 만들어 찌서 익힌 다음 꺼내어別に 말리면 단단해지고 소나무 마디처럼 색이 붉어진다. 이 때문에 견절이라고 한다. 우리 일본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좋은 반찬으로 오미(五味)의

개성을 잘 조화시켜주니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주도(酒造, 술도둑)는 가다랑어 내장을 가지고 젓질을 담가 만든 반찬이다. 이것을 안주로 삼으면 술이 더욱 잘 들어가므로 술도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鱈)은 일본에서 만든 토속 글자이기에 일반 자서에는 실리지 않았다. 우리 조선에서 고등어(高登魚)라고 하는 것이니, 《역어유해》에서는 고도어(古道魚)라고 하였다. 견절은 조선에서 건고도어(乾古道魚)라고 하는데 모습이 쇠뿔과 같다. 대마도 추장이 올린 예조(禮曹)의 물단(物單)에 견절이 있으니,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듯하다. 가다랑어포를 썰면 해대(海帶, 미역)와 같으니, 【민간에서 감곽(甘藷)이라 부르는 것】 국을 끓이면 출산한 부인을 보양할 수 있다. 혹은 고음(膏飮, 곰국)에 넣기도 한다. 【우리 조선에서 잠고기로 곰국을 만든 것이다.】 우리 조선 사람은 혹 견절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손 가는 대로 기록하여 범중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견절이라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건고도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마도 고상하지 않겠는가.

2 전(鱈)은 가쓰오, 즉 가다랑어다. 가다랑어가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고 고등어의 생김새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3 원문에는 가두어(加鰩魚)로 되어 있으나 《화헌삼제도회》에 의거하여 교정하였다.

嘉支強治 海馬鱧鱚 辨證說

가지, 강치,
해마, 용궁에 대한
변증설

해양에는 해우(海牛), 해마(海馬), 해양(海牛), 해돈(海豚, 물개지), 해구(海狗, 물개), 해달(海獺), 해호(海虎, 물범), 해묘(海貓), 해위(海鱈, 성게), 해서(海魚, 해삼) 등 다양한 동물이 있다. 혹 그 모양이 육지의 동물과 흡사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상을 살펴보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대지 육지의 동물과 비교해보면 기괴한 형상을 가진 것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바다에도 또한 기괴한 해양 생물이 많다. 《문헌비고》에 서는 “바다 속에 해양 동물이 있다. 소의 형상에 눈은 붉고 뿔은 없는 동물이 매를 지어 해안에 누워 있다. 홀로 가는 사람을 보면 해코지를 하고, 무리 지어 가는 사람을 보면 물속으로 뛰어난다. 이름이 ‘가지(可之)’다” 하였다.

【상한상(張漢相)이 윤진현 바다에 있는 울릉도를 시찰하고 올린 변단에 “가지어(嘉支魚)가 있어 바위서덤에 숨어 삽니다. 비늘은 없고 꼬리만 있습니다. 물고기 몸에 네 다리가 달려 있는데, 뒷다리가 매우 짧아 물에서는 잘 다닐 수가 없지만 물에서는 손살같이 헤엄칩니다. 울

음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고, 기름은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북관(北關) 육진(六鎭) 지역의 경원(慶源)과 경흥(慶興) 앞바다에 해양 동물 한 종이 있는데 그 형상이 소나 말과 닮았다. 꼬리와 갈기가 있으며, 털은 짧고 흑갈색이며 물에 젖지 않는다. 이름이 강치(强治)다. 혹 해마(海馬)라고도 한다. 경원과 경흥 두 바다 포구가 있는 어촌에서는 해변에서 어민들이 탄환을 쏘아 잡는데 가죽이 매우 두껍다. 머리 크기는 소만 하다. 머리와 꼬리의 안은 매우 연하고 물렁물렁하다. 바다소의 껍질을 덮이면 맛이 매우 비리고 기름도 역시 많이 채워할 수 있다. 가죽으로 안장이나 전동, 가죽신이나 피지(皮紙) 등을 만들 수 있다. 이 동물이 곧 울릉도에서 나는 가지(嘉支)이고, 또 북해 사람들이 강치나 해마라고 부르는 놈이다. 가지(可之)라고도 하고, 가지(嘉支)라고도 하는 것은 배짜 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이다.】

살피보건대 《전문해자》에 “웅(熊)은 가죽에 무늬가 있다. 낙랑의 동이현(東隴縣)에서 난다. 한나라 신작(神爵) 4년(기원전 58) 초 집아서 공조(工曹)에 올렸다”라고 하였고, 《초사(楚辭)》〈대초(大招)〉의 “웅용단호(熊羆短狐)”라는 구절에 대한 주와 웅용단호투(熊羆短狐類)의 보주(補注)에 “모양은 짐은 얼룩소와 같다. 지금 민간에서 물소라고 한다. 가죽에 무늬가 있어 신발 장식이나 안장을 만들 수 있다” 하였다. 이 동물이 어찌면 우리나라 동해와 북해에서 나는 가지(嘉支)라는 놈이 아니겠으며, 낙랑의 동이현은 오늘날의 강릉 일대가 아니겠는가. 【역사서를 살펴보건대 동이현은 한나라 낙랑군의 속현 35개 고을 가운데 하나이니, 지금의 관동 강릉부다.】 동해와 북해가 서로 붙어 있으니 동해의 ‘가지’는 북해의 ‘강치’로서 곧 옛날에 말한 웅용(熊羆)이다. 물소는 별개의 종으로 안남(安南)에서 난다. 모습은 멧돼지와 비

슷하고 색깔은 청록색이다. 인가에서 사육하며 경작에 쓰거나 잡아 먹는다. 해가 떠서 날이 다운 낮에는 물에 들어갔다가 해가 지면 비로소 나온다. 물소는 뿔이 몹시 크니 곧 오늘날의 흑각(黑角)이다. 일본 사람이 수입해 와서 우리 조선에도 전파되었다. 가죽 역시 나오는데 오늘날 물소가죽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가지나 해구 등의 가죽과 뒤섞여 물소가죽이라 한다.

해마는 또 별개의 종이다. 새우만큼 작은 놈인데 머리가 말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마라고 부른다. 약재로 쓰인다.

【해마는 《승유방(拾遺方)》에 실려 있으니, 일명 수마(水馬)다. 도홍경(陶弘景)이 “해마는 새우의 종류다. 모습이 말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마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진장기(陳藏器)가 “해마는 남해에서 난다. 모습이 말과 같다. 5-6촌이며, 새우의 한 종류다”라고 하였다. 《남주이물지(南州異物志)》에서는 “크기가 도마뱀만 하다. 색깔은 황갈색이다. 부인이 해산할 때 난산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나올 경우 이 동물을 손에 쥐어주면 곧 양처럼 쉽게 낳는다” 하였다. 구종식(龜宗實)은 “머리는 말처럼 생겼고 몸은 새우처럼 생겼다. 등은 굽었으며 대나무마디와 같은 무늬가 있다. 길이가 3촌이다” 하였고, 소송(蘇頌)은 “이것을 뵈에 말될 때 암수를 서로 짝지어놓는다” 하였다.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는 “해마의 수컷은 황색이고 암컷은 청색이다” 하였고, 이시진은 “해마는 암수가 짝을 이루며 성격이 온순하여 교감의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난산이나 양기가 허약한 방중술에 합계(蛤蚧)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군지의 공이다” 하였다. 대개 신장(腎臟)을 따뜻하게 하고 정력을 강성하게 하는 동물이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또한 많이 난다.】

辨龍證說

● 용은 어류의 왕이요, 사령(四靈)¹의 우두머리다. 이름과 모습이 여러 서적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지금 하릴 번증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혼치 않은 독특하고 기이한 내용만을 채록하여 초학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용은 동에 81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 곧 9×9의 양수다. 잉어는 동에 36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 곧 6×6의 음수다. 어떤 이는 잉어가 변해서 용이 된다 하고, 어떤 이는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 한다. 용은 종류에 따라 금룡(金龍), 목룡(木龍), 토룡(土龍), 수룡(水龍), 화룡(火龍) 5종이 있다. 금룡은 백색, 목룡은 청색, 토룡은 황색, 수룡은 흑색, 화룡은 적색이므로 색깔로도 구별된다. 그중 화룡이 가장 사납다. 뿔이 하나인 것을 응룡(應龍) 또는 규룡(蛟龍)이라 한다. 또 용과 비슷한 것으

1. 성인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출현한다는 네 가지 신령한 동물. 어류의 왕인 용, 포유류의 왕인 기린, 파충류의 왕인 거북, 조류의 왕인 봉황이다.

로 교(蛟)³와 신(鱗)³이 있다.

《한준격물(漢綱格物)》에 “용은 귀가 없다” 하였다. 물리서에는 “용은 뿔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 곳도 있고 “코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 곳도 있다. 그런 까닭에 용이(龍耳)⁴란 용이 귀로 듣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따온 말로, 장식품이다.

《박물지(博物志)》에 “용은 들을 보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들을 뜰고 다니는 데 거침이 없다. 용의 여의주는 턱에 있다. 용의 턱 밑에 있는 비늘은 모두 거꾸로 나 있다. 용의 모습은 아홉 가지 동물과 닮은 점이 있다. 뿔은 사슴과 닮았고, 머리는 고라니와 닮았고, 눈은 귀신과 닮았고, 목은 뱀과 닮았고, 배는 이무기와 닮았고, 비늘은 물고기와 닮았고, 발톱은 새와 닮았고, 발바닥은 호랑이와 닮았고, 귀는 소와 닮았다. 일설에는 머리는 소와 닮았고, 주둥이는 노새와 닮았고, 눈은 두꺼비와 닮았고, 뿔은 사슴과 닮았고, 귀는 코끼리와 닮았고, 비늘은 물고기와 닮았고, 수염은 사람과 닮았고, 배는 뱀과 닮았고, 발은 봉황과 닮았고 한다” 하였다.

용도 암수가 있다. 《승이기(乘異記)》에 “유동미(劉涓子)에게 하루는 어떤 부부가 문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용에는 수용과 암용이 있어 모습이 다릅니다. 수용은 뿔이 심하게 울퉁불퉁 솟아있으며, 눈은 움푹 꺼지고 코는 뺨 뚫렸습니다. 길기는 뾰족뾰족하고 비늘은 촘촘한

데, 위쪽은 큼직큼직하고 내려오면서 작아지며 붉은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암용은 뿔이 부드럽고 평평하며, 눈은 넓고 코는 반듯합니다. 길기는 둥그스름하고 비늘은 얇은데, 꼬리 부분이 배보다 큼직큼직합니다’ 하였다. 유동미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우리가 바로 용입니다” 하고 대답하더니 두 마리의 용으로 변하여 날아갔다” 하였다.

《마케팔림(莫氏八林)》에 “용과 코끼리는 60년이 되면 때가 온전해지고, 그 뒤에 온몸의 때를 바꾼다” 하였다. 《모정객화(溍亭客話)》에 “용에게는 다섯 차례의 괴로움이 있다. 태어날 때의 괴로움과 잠잘 때의 괴로움과 교접할 때의 괴로움과 화낼 때의 괴로움과 환공탄태할 때의 괴로움이다” 하였다. 《진주선》과 《사분율(四分律)》⁵에 “모든 용은 처음 태어날 때, 잠잘 때, 화낼 때, 교접할 때 모습을 바꿀 수 없다” 하였다. 《들리소지》에 “용은 교접할 때 두 마리의 작은 뱀으로 변화한다” 하였다. 이 말은 분디불가사에 나온다.

유서에 “용은 교접할 때 상풍(上風)과 하풍(下風)에서 교접한다” 하였다. 《오잡조》에 “용은 천성이 매우 음란하니 소와 교접하여 기린을 낳고, 돼지와 교접하여 코끼리를 낳고, 말과 교접하여 용마(龍馬)를 낳는다. 영남 사담 가운데 비를 잘 부르는 자가 있다. 공중에 어린 여자를 천막으로 싸놓고 용을 몰아 일어나 날게 하면, 용이 소녀를 보고 즉시 몸을 물어 교합하려 한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슬뻐므로 교접을 금하

3 뿔이 없는 용의 일종으로 이무기라고도 한다. 비늘을 난지 못하여 물속에만 있고, 성질이 포악하다 한다.

4 이무기라고 하는 선과 큰 대왕조기라는 선이 있다. 일설로는 오색안개를 뿜는데, 그 속에는 온갖 형상이 다 있다. 거대한 건물과 변화한 시상이 화려하게 펼쳐지기도 한다. 신기부(靈氣樞)라는 말도 여기서 온 것이다.

4 옛날 술 위에 귀 모양으로 만들어 붙인 장식품.

5 경(經)의 이름, 사율(四律)의 하나이며, 총 60권인데, 오부(五部) 중 범무리부(嚴無禮部)의 율장(律藏)인, 본서(本書)에 대한 주석과 본서에 관한 저술은 《사분율소(四分律疏)》 6권 (도부(道部)의 잔(殘))과 《사분율소》 4권 (회광(慧光)의 잔)과 《사분율소》 20권 (당(唐) 법리(法議)의 잔) 등이 있다.

여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태로 조금 있으면 비가 이미 촉촉이 내린다” 하였다. 《괴서잡지(怪西雜志)》에 “교점을 좋아하는 음란한 성품의 용이 있다. 그런 까닭에 혹 비바람이 몰아쳐 서상이 캄캄할 때 사람과 교점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남너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교점을 한다. 다만 용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유서에 “용은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사포(思抱)⁶를 하고 난 뒤, 수컷은 상풍에 울고 암컷은 하풍에 운다” 하였다. 《오잡조》에 “용은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포위(蒲葦), 수우(四牛), 치문(蚩吻), 조풍(嘲風), 예차(魃), 현희(眞犀), 제안(狻猊), 산예(狻猊), 례하(露下)다” 하였다. 《북봉채언(北夢瑣言)》에 “용은 두 개의 알을 낳는데, 일명 길표(吉了)라고 한다” 하였다. 《거이록》에 “옛날에 말하기를 ‘용과 뱀의 알에는 검은 얼룩점이 있다. 뱀의 알은 원형이고 용의 알은 길다.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다’ 하기에 시험해보니 실로 그렇다” 하였다. <용은 난생이고 호랑이는 태생이라는 설에 대한 변증설(龍胎虎胎辨證說)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오잡조》에 “봉황은 용의 뇌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용이 두려워한다. 길이 1척이 되는 지대는 능히 날 수 있다. 그래서 용이 두려워하여 벼락을 만들어 내려친다. 혹은 용이 지대의 구슬을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라 한다” 하였다.

유서에 “용은 천성적으로 밀랍을 싫어하고, 대나무와 푸른 하늘을 사랑한다. 구운 제비고기를 잘 먹는다” 하였고, 또 “쇠와 밀구슬나무의

6 용의 부화를 가리키는 말. 용은 알을 풀어 부화시킬 때 마음속으로 ‘이러이러한 새끼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및과 오색(五色)의 선(鱗)을 싫어하고, 옥을 좋아한다. 용은 비상(龍鱗)을 먹고 실진다” 하였다. 《신제해(新濟海)》에 “용의 발톱은 절이 동서(通犀)⁷와 같다. 냄새는 용연향(龍涎香)⁸과 흡사하여 100보 밖까지도 향이 퍼져 모기나 파리 따위가 접근할 수 없다. 용의 불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 물에서 각단(角燄)⁹을 낳는다” 하였다.

유서¹⁰에 “용이 벗어놓은 태의 이빨 하나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변신할 때 자연스럽게 온갖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하였다. 처주(雷珠)는 《본초강목》에서 이시진이 “처진(雷珍)은 바로 신훈(神龜)이 물고 있다가 뱀어뜨린 구슬이다. 밤에도 빛이 온 방에 그득하다” 한 것을 말한다. <처주변증설 하(雷珠辨證說下)에 보인다. 용연(龍涎)에 대해서는 이시진이 《본초강목》에서 “서남 해양에서 난다고 한다. 이것은 분칠 여러 용이 도해놓은 침의 분비물인데, 능히 용뇌향(龍腦香)¹¹과 사향(麝香)¹²의 향기를 수습하여 수십 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초나라의 위연(雲煙)에서 피어오른다” 운운 하였다. <용연변증설 중

7 비석(白石)에 열을 가하여 승화시켜 만든 결정체. 한약재로 쓰이나 실은 비소 성분의 독극물이다.
8 서역에서 산출된다는 물소(犀牛)의 뿔. 뿔이 물소의 머리 양쪽을 관통하므로 이렇게 부른다. 뿔 속에 특이한 향기가 있고 하얀 결이 실날처럼 되어 있어 진귀하게 여겼다.
9 옛날 명향(名香)의 이름. 위에 뱀을 잃은 고래의 분비물이 결석이 된 것이라고 한다.
10 하루에 1만8000리를 갈 수 있고 사(四)의 발을 짚는다는 짐승으로, 실인이 재워 올르면 나타난다고 한다. 또는 기린의 다른 이름이다.
11 원문은 ‘용극(龍麝)인데, 만로 과정의 오류로 보아 ‘용서(龍香)’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2 용뇌향나무의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을 추출해서 만든 향.
13 사슴귀에 속하는 사향노부 수컷의 배꼽부와 음경 사이에 있는 달걀 모양의 분비물을 건조하여 얻는 향료.

(龍宮雜說中))에 상세히 실려 있다. 자소화(紫柏花)는 곧 용의 점액이다. <길여지변증 하(吉予雜辨證下))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척목(尺木)은 곧 여의주다. <척목변증 하(尺木辨證下))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용화(龍火)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왕부(王符)¹⁴의 말에 “용은 또 능히 불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였고, 육전(陸佃)¹⁵은 또 “용이 뱀은 불은 습기를 만나면 타오르고 물을 만나면 멧떨해진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하는 불을 가지다 쫓으면 곧 꺼진다” 하였다. 이시진은 “용은 천성이 예초(莠草)를 두려워한다. 용에게 비를 기원할 때는 구운 제비고기를 쓰고 돌난리를 막을 때는 쇠를 쓴다. 용을 감격시킬 때는 난초를 쓴다” 하였다.

용 다스리기는 이렇다. <물리소지>에 “강과 바닷가에 도화랑(蓼花浪)이 물이날 때 검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용이 일어난다는 증거다. 이때 게 집데기 등 각종 강한 냄새를 내는 사물을 태워 물리친다. 혹은 청반(靑鱗)¹⁷을 뿌리거나, 뽕죽한 파도가 일어나면 개의 피를 뿌린다” 하였다. 유천숙(劉龜叔)이 말하기를 “바다의 뱀사공은 용이 올라오

는 곳을 아는데, 다만 정을 올릴 뿐이다” 하였다. 홍주(洪祖)¹⁸의 <괴양기(怪洋記)>에서도 또한 정을 치고 뿔을 쏘며 함성을 질러서 용을 물리친 일을 말한다.

쇠는 신맛이 나는 물건으로 눈을 손상하기 때문에 붙고기와 용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 쇠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쇠기둥을 가마솥에 꿰어 불의 근원을 막으면 이윽고 평평한 육지가 된다. 쇠가죽을 쇠워 만든 북을 배에서 사용하는데, 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북을 울리면 용이 다가오지 못한다. 용이 사는 연못 가운데다 쇠를 던지면 즉시 비가 내린다. 지네와 제비와 개구리와 고혈(膏血)과 망초(蔞草)를 연못 가운데 던지면 불림없이 크게 풍우가 몰아쳐 연못물이 넘친 뒤에야 그친다. 또 호랑이 뼈를 던지기도 한다. 용이 나오는 일이 많은 경우 유황이나 닭털을 태우면 용이 접근하지 못한다.

<향조필기>에 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이 태를 벗을 때는 머리부터 한다. 일찍이 조씨(趙氏)가 쌓아놓은 약재를 보니 그는 용의 온전한 머리를 얻어 창문 아래 놓아두었다. 높이는 두 자쯤 되었다. 땅속에서 얻었다 하기도 하고 바위 속에서 얻었다 하기도 하는데, 온전한 몸체를 얻은 이도 있다 한다” 하였다.

용의 몸체는 다음과 같다. <요사(遼史)>를 보면 “요(遼)나라 군주가 용을 쏘아 잡았다. 뿔과 꼬리는 길고 다리는 짧았다. 몸길이는 5척(尺), 허 길이는 2척 5촌(寸)이다” 하였다. <서영(書影)>에는 장복거(張某居)의 말이 나오는데, “연경의 시장에는 용의 몸체가 있다. 비늘은 네모나고 밧줄은 갈고리 같으며, 길이는 6척쯤 된다. 머리와 뿔이 모두 있다”

14 후한(後漢)의 학자로, 자(字)는 심신(審信)이다. 정사의 득실을 논한 <삼부론(三才論)> 30여 권을 지었다.

15 송나라 산옹(山陰) 사람으로, 자는 농사(農師), 호는 도산(陶山)이다. 일찍이 왕안석을 사사(師事)하였으나, 그의 신법(新法)을 옹기 어가지는 않았다. 휘종(徽宗) 때 상서우승(尙書右丞)을 역임하였다. <바이(埤雅)>, <순우후전(春秋後傳)>, <세상(世象)> 등 200여 권을 저술하였다.

16 북사꽃이 팔 부럼 고원 지대의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강의 하류와 바다에 큰물이 몰려오는 현상 또는 그로 인해 생긴 물결을 말한다.

17 푸른색의 뱀반, 녹반(綠鱗)이라고도 한다. 구리를 정제하여 만든다.

18 북송의 학자로, 향(香) 전문가. 기이한 일을 많이 저술했다.

하였다. 《군당우편(筠廊偶筆)》¹⁹에는 ‘순치(肅治) 2년(1645) 장안에 잠시 살았다. 그때 대궐에서 소장하던 보물을 보았는데, 한 상자 속에 용이 되리를 들고 앉아 있었다. 뿔은 하나이고 발톱은 다섯 개이며, 마치 철 갑옷 같은 비늘이 1장 남짓이나 되어 엄연히 소용(所翁)²⁰이 그런 그림 인 듯하였다.’ 하였다. <이담(耳談)>에서는 ‘무창현(武昌縣)에 강물이 크게 불어났다. 그때 물고기 바늘을 담은 물건 하나가 논밭에 떠내려 왔는데, 크기가 방석만 하였다. 후자는 ‘용의 비늘이다’ 하니 또한 특이한 이야기다. 이것은 모두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오잡조》에 ‘민간에는 ‘입하(立夏) 무렵 용이 분야(分野)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개 용이 이 시기쯤 비로소 경계를 나누어 비를 뿌리되, 저마다 담당 구역이 있어 서로 침범하지는 않는다. 그런 까닭에 한 자 거리를 두고 한쪽엔 소나기가 내리고 한쪽엔 햇볕이 쬐는 경우 있으니, 용이 한 것이다’ 하였다. 《군방보》에는 “민간의 말은 이렇다. 4월 14일과 20일은 소분룡(小分龍)이다. 우창(雨晴)²¹이 나날 때 게으른 용이 주관하면 가뭄이 들고 부지런한 용이 주관하면 홍수가 난

다. 동남풍이 나날 때 흑룡이 주관하면 가뭄고 정남풍이 나날 때 적룡이 주관하면 크게 가뭄다. 서북풍이 나날 때 백룡이 주관하면 큰 홍수가 나고 북동풍이 나날 때 청룡이 주관하면 작은 홍수가 나며 서남풍이 나날 때 황룡이 주관하면 크게 덥다.’ 또 사계절의 기후를 점치는 비결을 기록한 《사시점후(四時占候)》에서는 5월 20일이 대분룡(大分龍)이라 하였다. 점치는 방법은 소분룡과 같다. 초나라 지역의 풍속에 따르면 29일과 30일은 분룡절(分龍節)인데, 이날 비가 오면 그해에 비가 많이 내린다. 민중(閩中) 지방의 풍속에서는 하지 뒤를 용분(龍分)이라 하는데, 허진군(許眞君)이 신룡(龍神)을 타고 바람을 움직이는 날이다. 정월 초사흘과 8일, 11일, 25일, 30일은 용신(龍神)이 모이는 날이다. 2월 초사흘과 9일, 13일, 20일은 용신이 옥황상제에게 조회하러 가는 날이다. 3월 초사흘과 7일, 27일은 용신이 별의 신에게 조회하러 가는 날이다. 사월 초파일과 10일, 27일은 용신이 태백(太白)에 모이는 날이다. 8월 5일, 15일, 27일은 용신이 크게 모이는 날이다. 《오잡조》에 ‘5월 13일은 용의 생일이다’ 하였다.】

● 세상은 용이 사는 곳을 ‘수부(水府)’라 하기도 하고, ‘용궁(龍宮)’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궁(水滸宮)’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체 믿을 수 없다. 다만 예외로 위에게(魏齊介)²²의 《용궁취목기(龍宮取木記)》가 있다. 위에게는 순수하고 근실한 학자이니 이찌 허무맹랑한 말을 지어내어 뒷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겠는가? 또 《오잡조》에 기록된 내

19 청나라 때의 송락(宋瑤, 1634~1713)이 지은 책. 송락의 자는 목중(牧中)이고 호는 만당(漫堂) 또는 서파(西坡)다.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 사람이다. 관직은 이부상서에 이르렀으며 정력하고 곧은 절개로 유명하였다. 많은 방면에 박학다식하였으며, 항상 덕질을 좋아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명 전적(名籍)과 전대(前代)의 전장제도(典章制度)에 높은 식견을 보였다. 이 책은 기이한 이야기를 수록한 것으로 뒤서 문집 권 43~46에 수록되었다.

20 송(宋)나라 진용(陳容)의 호. 진용은 복주(福州) 장덕(長樂) 사람으로, 자는 공계(公幾)다. 단평(端平) 연간의 진사(進士)로, 지평양현(知平陽縣) 등을 거쳐 조산대부(調散大夫)에 이르렀다. 그는 시(詩)와 문(文)에 모두 능하였고, 특히 용(龍)을 잘 그렸다.

21 우(雨)는 비가 오는 날씨를 말하고, 창(晴)은 맑은 날씨를 말한다.

22 1616~1686, 청(淸)나라 백양(柏楊) 사람. 내외정부(內外政務)를 담당해서 처리한 일이 모두 알맞았고 많은 저서를 남겼다.

용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하여 증거로 삼는다면 혹 그런 일이 있을 듯도 하니, 말이 허황하지 않을 것이다.

【위예개의 《용궁취목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용이 비록 바다로 집을 삼지만 거처하는 집은 인간 세계에 있는 나무로 만든다. 매양 여름 소만(小滿) 후가 되면 장맛비가 계속된다. 그때가 바로 용이 공인(工人)을 모아서 재물을 준비하는 때다. 천진(天津) 고북구(古北口)는 북해 연안의 지방이다. 영평(永平)과 준화(遵化) 등 여러 변경 지방의 입구와 경계가 맞닿아 있으며, 북편에는 난하(瀾河)가 흐른다. 원(元)나라 사람이 곡식을 운반해서 상도(上都) 용창(龍昌)으로 보내면 곳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용이 용궁으로 목재를 운송하는 봉로다’라고 한다. 3년마다 한 차례씩 변경 입구 밖에서 나무를 켜다. 벌목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나온 사람으로, 모습이 늙은 노인 같고 배옷에 털모자 차림이었다. 깊숙한 골짜기 안에 쟁쟁 나무 찍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갑자기 우뢰가 퍼르릉거리고 번개가 치면서 비바람에 잠잠해지고 골짜기에 물이 넘치면, 나무가 모두 우뚝 일어나서 관문(關門) 앞까지 곧장 다가온다. 관문을 지키는 자는 그것이 떠내려가는 것인 줄 익히 알아 관문을 열어서 물로 들어가도록 놓아준다. 나무는 물고기를 썬 것처럼 줄을 치어서 간다. 난하를 지나 동남쪽으로 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넘어져서 떠가는 것이 없다. 난하 주변에 사는 사람은 모두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또 남의 누각을 옮겨간 것도 있다. 한 밤중에 바라보면 등불이 반짝반짝하다가 새벽이 되면 꺼진다. 바닷가에서는 뿔감이 모자라 3년마다 한 차례씩 용궁을 불태운다. 진방(震方, 동쪽)에서 태풍이 슬슬 일어날 때 바닷가에서 보면 크고 작은 서까래와 대들보, 등자기둥, 기둥 따위가 모두 반쯤 붉거나 짙게 타버린 채 해안

으로 밀려와 모여든다.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위가 밭 짓는 뿔감으로 두어 달 동안은 쓴다. 사람들은 이것이 용화(龍火)에 저절로 탄 것이라 한다” 하였다.

《오잡조》에 “소주(蘇州)에서 5~6일 동안 동쪽의 바다로 들어가면 작은 섬이 나온다. 사방 100리 정도다. 사변의 바닷물이 모두 탁한데, 유독 이곳의 물만 맑다. 바람이 없는데도 파랑의 높이는 5장이고, 늘 물 위에 태양 같은 붉은빛이 보이므로 뱃사공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이곳이 바로 용궁이라 한다” 하였다.】

살펴보니 어떤 서적에는 “용의 주둥이에는 항상 불꽃이 이글이글 하다” 하였다. 《오잡조》에서는 “서쪽쪽 변경 나뭇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분시에 수천 명의 사람이 나무를 켜고 나무를 끌어내는 소리가 들린다. 날이 밝은 다음 벌러 내다보면 나무가 사라져 온 산이 텅 비어 있다. 바다의 용왕이 궁(宮)을 짓는다고 한다” 하였다.

● 청(淸)나라 우동(吳洞)의 《외국죽지사(外國竹枝詞)》의 주석에 “애산(艾山)에는 신선이 먹는 죽이 자란다. 중춘(仲春)에 흰 꽃이 비가 온 뒤 수면에 꽃잎이 떨어지는데, 머리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면 대부분 용이 된다” 하였다. 《농축어문(龍窟語文)》에 “진지(涸池)²³의 대리(大麗)²⁴는 대부분 용이다” 하였다.

23 운남성(雲南省) 밖에 있는 곳으로, 사방 500리에 달한다. 한 무제(漢武帝)가 진(滇)나라를 정벌하고자 곤명지(昆明池)를 만들어 수진(水鏡)을 익혔던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여기서 수국(水國)을 뜻한다.

24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관직. 조선시대의 의금부와 같다.

【그 용은 과연 신룡(神龍)인가, 유룡(游龍)인가.】

● 용도 병에 걸리지만 본디 자신의 신이함으로 고친다. 혹 사람의 도움으로 고치기도 한다.

【괘설(牌說)에 “용정(龍井)은 창덕부(彰德府) 탕음현(湯陰縣) 서쪽 진인사(震人社)에 있다. 전설에 진(晉)나라 손등(孫登)이 일찍이 진인사에 살 때 불병이 기승을 부려 농부가 용동(龍洞)에 뱉어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때 손등이 ‘이는 병은 용이 내린 비다. 어찌 곡식을 소생시킬 수 있겠는가?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냄새를 맡아보라’ 하였다. 농부가 냄새를 맡아보니 과연 물에서 비린내가 났다. 용이 당시 등에 큰 종기가 나 앓고 있다가 손등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의 늙은이로 변하여 치료해 달라고 청하며 ‘병이 원치되면 용당 보답이 있을 것이오’ 하였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과연 큰비가 내렸다. 그리고 큰 들의 가운데가 갈라지며 우물 하나가 생겼는데, 물이 맑았다. 대개 용이 이 우물을 파서 보답해준 것이다’ 하였다. 《속사시(續事始)》에 “황제(黃帝) 시대에 마사황(馬師皇)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잘 고쳤다. 이 사람이 말 의사의 시작이다. 《열전》에 ‘일찍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용이 있었는데, 늙어진 귀에 기다란 입을 가지고 있었다. 마사황이 이 용은 병이 들었는데, 능히 치료할 수 있다며 용의 입술에 침을 놓고 감초탕(甘草湯)을 먹여 낫게 하였다’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력(萬曆) 무술년(1598) 여름에 강남(江南) 구룡산(句龍山)에서 두 마리의 용이 뒤엉켜 싸웠다. 그중 한 마리가 힘이 달려 땅에 떨어져 눈밭에서 몸부림을 쳤다. 사람들이 수백 리를 다투어 달려와 구경하였다. 그 후 사흘이 지나 스스로 병을 고친 용이 바람과 천둥을 타고 올라갔다’ 하였다.】

● 후(虯)와 방(蚌, 대합조개)²⁵이 서로 싸우면 독 땅에 떨어져 목살을 부러기도 하고, 혹 못 쓰는 우물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 사람의 손들 밑에 숨기도 하는 등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술이기(述異記)》에 “동해에 사는 풀짐승 이름이 후다” 하였다. 살피보니 《집승(集韻)》에 이런 기록이 있다. “음은 후다. 짐승의 이름이다. 개와 흡사한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능히 용의 뇌를 먹는다. 강희(康熙) 25년 여름, 평양현(平陽縣), 후가 바다 속에서 나와 용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사흘 동안 고향 세 마리와 용 두 마리가 연합하여 싸웠는데, 후 한 마리가 용 한 마리와 고향 두 마리를 죽이고 후 자신도 따라서 죽었다. 모두 산골짜기에 떨어졌는데, 그중 하나는 길이가 12장에 모습이 말과 닮았고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것이 있었으며, 불빛이 1장 남짓 타올랐으니, 대개 후다.”

유수(劉琚)가 지은 《고승(蛟龍)》 《도화수(吐火獸)》에 “상우(上虞)²⁶의 고씨(顧氏) 종족은 서화촌(西華村)에 모여 사는데, 바다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 강희 29년(1690) 8월 고씨의 아들이 멀리 가게 갯 하늘을 보니 푸른색의 용이 있고 그 뒤를 추격하는 괴물 짐승이 있었다. 그 짐승은 납작한 몸에 순홍색으로 크기가 커다란 개만 하였다. 청룡이 앞에서 내놓거릴 때 이 짐승이 불을 토하며 맞서 싸우자 청룡은 실화(雷火)를 뿜으며 저항하였다. 한참을 뒤엉켜 싸우다가 둘이 함께 바다로 들어갔다” 하였다.

25 대합조개 또는 쉼조개. 전설 속의 거대한 조개로, 신묘를극한 명물이다.

26 양주(揚州) 회계군(會稽縣)에 속한 지역 이름.

우리 조선 선조 38년(을사, 1605) 경기도 죽산부(竹山府)에 백룡(白龍)이 강에서 나와 어느 촌가에 이르렀다. 갑자기 바람과 우레가 바구 물아치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촌가에 사는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달려 올라가 혹은 몇 리 바깥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명나라 의종 16년(계미, 1643) 6월 13일 밤, 봉선전(奉先殿)에 벼락이 쳤다. 뒤에 보니 사당의 문과 쇠 빗장이 모두 용의 발톱에 녹아버렸고, 사당 앞에서 있던 돌 위에는 용이 누웠던 흔적이 있었다.

조선 숙종 12년(갑자, 1686) 6월, 인화(仁和) 고정산(阜亭山) 가운데서 갑자기 소낙비가 오고 큰바람이 불더니 용과 후가 싸웠다. 용은 우박을 토하고 후는 불을 토하였으니, 검은 구름 속에 있었지만 분명히 분간할 수 있었다. 후는 사자(獅子)와 흡사하게 생겼으며, 후가 지나간 마을은 모두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다.

《속창소기(竹窓小記)》에 “작은 짐승의 이름 가운데 후(虺)라는 것이 있다. 생김새는 토끼와 닮아 양쪽 귀가 쫓긋한데 길다. 사자가 위협을 부릴 때 후를 끌어와 보이면, 사자는 무서워서 남쪽 엎드린 채 감히 꿈쩍달짝하지 못한다. 그리고 후는 눈이나 오줌이 몸에 닿으면 살이 곧 썩어 문드러진다. 후는 또 수컷 기러기(雉)를 무서워하여 기러기가 목을 길게 늘이고 크게 울면서 날아가면 곧 두려워하며 설설 간다” 한다.

이렇게 보면 ‘후(虺)’는 ‘후(虺)’가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한다. 후(虺)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철(强鐵)²⁷이다. 강철은 인간의 이야기에

따르면 용이 되지 못한 못된 짐승인데, 한발(旱魃)과 같다. 온몸이 불덩이이고 생김새는 땅이지와 닮았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이다.

《거이록》에 ‘가정(嘉靖) 2년(1523) 소주(蘇州)의 태호(太湖) 가운데서 용과 방이 혈투를 벌였다. 용은 구름 속에서 곧장 내려왔는데, 발톱의 길이가 수십 장이나 되었다. 방은 수면 위에서 바람처럼 뻗더니 하늘로 침을 뱉었는데, 역시 수십 장이나 되었다. 사나흘 동안이나 싸운 뒤에야 그쳤다. 뒤에 어부가 죽은 방의 갑질을 건져내보니 곡식 네 다섯 섬을 담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명나라 무종(武宗) 정덕(正德) 13년(1516) 5월 소주 상수현(常熟縣)에 백룡 한 마리와 흑룡 두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입에서는 불꽃을 토하고 우레와 번개와 폭풍과 비가 몰아쳤다. 근처 민가 300여 가구를 날려버리고 배 수십 척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한다.

그 영향이 우리 조선어까지 미쳐 경상 각지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가 하면, 태묘(太廟)의 기왓장이 날려 떨어지고 대궐 담장이 무너졌다. 소주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과 같은 날 재앙이 일어났으니, 우리 조선의 중종 13년(무인, 1518) 5월 보름의 일이다.²⁸ 조선 숙종 3년(정사, 1677) 5월 관서 함이현(咸以縣)에서는 신룡(神龍)이 배워진 우물에서 솟아나오고 우박이 마구 쏟아져 배와 곡식의 피해를 입었다.

²⁸ 《중종실록》 5월 15일 거 기사를 보면 “유시(酉時)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상난 우레 소리처럼 커서 사람과 짐승이 모두 대피하였다. 담장과 성벽(城壁)이 무너져 내리니, 도성 안 사람이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밤새 킁으로 울어 가지 못하였다. 노인들은 모두 별년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관도(九道)가 다 마찬가지였다” 하였다. 또 이 지진의 여파로 황해도 배천에서는 땅이 갈라져 물이 솟아나는 현상도 있었다.

《섬서통지(陝西通志)》에 “성화(成化)²⁹ 연간, 함양(含陽)에 사는 백성 왕홍(王興)에게 손톱에 실타래가 감긴 듯한 붉은 무늬가 나타났다. 왕홍은 우레가 치고 비가 올 때면 으레 조금씩 아파 도려내려고 하였다. 그 뒤 꿈에 어떤 몹시 특이한 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용이오, 벌을 받아 귀양 와서 잠시 그대에게 의탁해 있는 처지인데, 3개월 뒤엔 마땅히 갈 것이오, 부디 이상하게 생각지 말어주소.’ 그런데 정말 3개월이 지나자 우레가 치고 비가 크게 오더니 용이 창문으로 빠져 나갔다. 그리고 왕홍의 손톱에는 용이 찢고 날아간 흉터가 생겼다” 하였다.

이시진의 《보초강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한림원총기(翰林院叢記)》에 이정언(李定言)과 석장용(石藏用)은 근세의 훌륭한 의사다. 어떤 사람이 치마의 낙숫물을 받아 손을 씻던 중 무엇인가 손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실오라기 같다가 며칠 지나자 심전처럼 되더니 손가락을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용이 숨은 것임을 알았다. 이에 석장용을 찾아가 치료해달라고 하였다. 그리자 석장용이 의학 서적에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의지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말뚝구리를 가루로 만들어 손가락에 바르면 거의 뼈대를 뚫아 죽는 일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석장용의 말대로 말뚝구리³⁰ 가루를 손가락에 바르고 있었다. 뒤에 번갯불이 온몸을 두르고 있을 때 급히 바늘로 꺼내보니 과연 무엇

인가 튀어나와 재앙을 면하였다”라고 하였다. 《의설(醫說)》에도 역시 이 일이 실려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승룡(乘龍)³¹이 한 것이다.

《북몽재어(北夢瑣語)》에 “승룡은 비 내려주는 것을 귀찮아하여 숨어 있다가 우레의 신에게 잡히는 일이 많다. 혹은 고목이나 대들보 속에 숨기도 하고, 혹은 왕홍의 경우처럼 손톱 속에 숨는다. 빈호(愼浩) 이시진이 《보초강목》에서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치마의 낙숫물을 받아 손을 씻는데 무엇인가 손톱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곧 승룡이 한 것이다. 강랑(螳螂)은 곧 당랑(螳螂, 말뚝구리)이니 말뚝을 반죽하는 벌레다. 말뚝구리가 혹 번개를 막아주는 힘이 있어 능히 벼락의 재앙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하였다.

《오잡조》에 “오(吳)나라의 진호(陳湖) 옆에 거대한 못이 있다. 그 못에서 늙은 대합조개가 생산되는데, 크기가 천박만큼이나 되었다. 하루는 대합조개가 여울 기슭에서 입을 벌리고 있노라니, 어떤 빨래하는 아낙이 와서 물에 감긴 배인 줄 알고 올라타려 하였다. 대합조개가 입을 닫고 물속으로 들어가니 아낙이 놀라 자빠졌다. 예전에 어떤 용이 와서 대합조개의 구슬을 가져가려고 하여 사흘 밤낮을 들이 싸웠다.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용이 발톱으로 대합조개를 움켜쥐고 구름 속 몇 장 높이로 올라가 다시 떨어뜨려도 끝내 아무명치도 없었다. 경태(景泰) 7년(1456) 겨울, 호수가 풍풍 얼어붙자 대합조개가 진호 서남쪽으로 나오니 얼음이 모두 깨져 양쪽 기슭³²에 쌓였는데, 마치 눈이 쌓인 듯하였다. 그 후로는 드디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29 명나라 현종(顯宗) 대의 연호.

30 눈에 이물감이 들어갔을 때 말뚝구리를 집어서 그눈의 물을 눈에 대고 비비면 금세 낫는다는 내용이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런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실제로 말뚝구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은 듯하다.

31 다른 시문 속에 의탁하여 저 모습을 숨기고 사는 용을 말한다.

32 원문에는 ‘우안(浦岸)’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과정의 오류로 보아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하였다.】

● 대저 천지간에 변화할 수 있는 신령한 동물로는 오직 용이 있으니, 끝 불의 정령이다.

【방중리(方中履)³³의 《고금식의(古今釋疑)》에서는 《몽필록(夢筆錄)》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역》에서는 하늘은 가리켜 용이라 하니, 용은 불의 정령이다. 오행(五行)의 정령 가운데 오직 용신(龍神)만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화룡(火龍), 토룡(土龍), 금룡(金龍), 수룡(水龍), 목룡(木龍)으로 나뉜다. 감괘(坎卦)가 자궁(子宮)³⁴에 있는 것이 이른바 '천(天)의 일(一)이 수(水)를 생성한다'³⁵는 것이다. 음을 양보다 앞세우니 감괘의 가운데 자리한 1획이 진양(眞陽)이 되어 천지의 근원이 되고 화(火)의 종통(宗統)이 됨을 오히려 알 수 있다.³⁶ 양이 음 가운데 있음은 끝 용궁이 바다 속에 있는 격이요, 용신이 깊은 연못 속에 있는 형상이고³⁷ 이른바 '양이 아래에 있으면 쓰지 마라'³⁸ 하는 것은 《주역》에서

33 청나라 때 동양(東洋) 사람 방이치(1611~1671)의 아들, 자는 소백(素伯)이다. 아버지 방이치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저서에 《고금식의》가 있다.
34 궁(宮)은 태양의 황도에서의 위치를 30도씩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모두 12궁이며, 자궁은 그 가운데 하나다.
35 생수(生數)는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수로, 하늘의 1은 북쪽에서 수(水)를 낳고 땅의 2는 남쪽에서 화(火)를 낳으며, 하늘의 3은 동쪽에서 목(木)을 낳고 땅의 4는 서쪽에서 금(金)을 낳으며, 하늘의 5는 가운데에서 토(土)를 낳는다.
36 감괘(坎卦)의 모습이 상리의 음효(陰爻) 둘과 가운데 양효(陽爻)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37 끝은 음이고 용은 양이므로 양이 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38 《주역》〈전괘(乾卦)〉에 “물속에 숨은 용은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潛龍勿用 陽在下也)”라고 한 말을 변용한 표현이다.

말한 ‘적연부동(寂然不動)³⁹의 종지(宗旨)’이니, 용신의 성격은 바로 분이다’ 하였다.

삼피보건대, 용은 춘분에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에 내려온다. 불리서에 “용은 꿈틀꿈틀 다닌다” 하였다. 그렇게 다니던 용이 바닷가나 깊은 연못에 나타나면 구름과 안개가 짙게 끼고 비락과 천둥이 마구 치며 동이로 붓듯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 돌을 날린다. 그런 가운데 용은 불속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는 검은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고 다만 꼬리만 흔들거리며 늘어서 있으니 역시 가까이 가야만 그 모습을 분변할 수 있다. 속담에 임신부가 손으로 가리키면 떨어진다고 한다. 날개 없이 능히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이한 변화다. 나머지 고금의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 서적에 실려 있다. 생략한다.】

● 용의 종류는 몹시 많다. 그 때문에 또한 병증한다.

【유서에 “용의 모습은 뱀과 흡사한데 네 개의 발이 있고 목이 가늘다. 목에는 흰 피가 있다. 알로 태어나며 깊은 호수나 바다에 사는 늙은 독각룡(獨角龍)이다. 고미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이름이 교룡(蛟龍)이다. 능히 구름과 안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신(鱗)⁴⁰은 교룡의 종류다. 생김새는 역시 뱀과 닮은

39 《주역》〈제사전 상(漸卦漸上)〉에 나오는 “의의 정제는 샅된 생각이나 인위적인 조각이 없다. 그리하여 적당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마도 감응을 하게 되면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통한다(易 无思也 无为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라고 한 말을 가리킨 것이다.
40 큰 대합조개의 일종이라 하기도 하고, 이무기라 하기도 한다. 입에서 오색구름을 뿜는데, 그 속에 온갖 찬란한 공전과 보배의 형상이 이몽담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을 신기루(靈氣樓)라고 한다.

테다 불이 있어 용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한다. 붉은 갈기에, 허리 아래로 난 비늘은 모두 거꾸로 서 있으며, 제비 새끼를 잡아먹는다. 능히 입을 내뿜어 누대와 성곽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비가 오려 할 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신무(蜃樓, 신기루)라고도 하고 해시(海市)라고도 한다. 신(蜃)의 기름으로는 등불을 켤 수 있고, 향을 만들면 100보 밖까지 향기가 퍼져 나간다. 향 연기 속에도 누대의 모습이 보이므로 그 기름을 신무지(蜃樓脂)라고 한다” 하였다.

《예기》〈월령〉의 “쟁이 큰물에 들어가 신(蜃)이 된다”라고 한 구절을 주석하면서 ‘대합을 신이라 한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주석으로는 ‘교룡의 종류다’ 하여, 두 주장이 서로 다르다. 육전(陸佃)의 학설을 가지고 고찰해보건대, “정월에 쟁이 쟁과 교접하여 낳은 알이 지진을 만나 즉시 몇 길의 흙 속으로 들어가면 뱀 모양이 된다. 200-300년이 지나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만약 그 알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쟁이 된다” 하니 비록 쟁이 변하여 신(蜃)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필시 신이라는 이무기다.

《물리소지》에 “쟁이 뱀과 교접하여 그 알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이무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근거가 있다. 민중(閩中) 지방 사람이 ‘교순(蛟筋)’이란 끈 채 다 자라지 않아 땅속에 있는 이무기인데, 땅 기운을 보던 알 수 있으니 땅을 파서 잡아먹는다” 하였으니, 낙주(洛州) 지방 사람이 땅을 파서 뇌자(龍子)를 잡아먹는 것과 같다. 뇌자도 교순과 비슷한 종류인데, 머리는 까마귀 무리를 닮았고 불과 흙의 기운을 받아먹고 산다” 하였다.

《월령》에서는 “이무기를 잡는다. 이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맹독이 걱정거리이므로 잡아서 죽인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용성록(龍城錄)》을 인용하여 “황해나무를 준비한 다음 태운 술로 적신다. 송강(松江) 일대에서는 이 약을 칼로 썰어 강에 던지면 물고기가 먹고 죽는다 한다. 오강(吳江) 일대에 괴물 이무기가 나타났을 때 선백(宣伯)이 이 약을 못에 던지자 이튿날 늙은 이무기가 죽었다고 한다. 죽은 이무기를 함조왕천사(閻阜王天師)에게 주면 바다를 건너는 자가 또한 필요로 한다. 일찍이 어떤 척 하나를 보니 ‘이무기는 곧 깊은 산중의 수백, 수천 년 묵은 지렁이가 변한 것이다. 그 모양은 소와 닮았으며, 괴이한 술수를 부리면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민가에 큰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주례〉에 고기를 잡고 이무기를 죽인다는 글귀가 나오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하였다.”

이무기 기름은 이렇 데 쓴다. 동방삭(東方朔)⁴²이 “이무기의 꿀수를 얼굴에 바르면 안색이 좋아진다” 하였다. 또 여성이 좌초(坐草)⁴³에 쓰면 출산이 쉬워진다. 이런 내용은 《미공비담》 가운데 보인다.】

● 또 심존중(沈存中)⁴⁴이 기록한 쟁더소룡(彭蠡小龍)이란 놈이 있는

42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 자는 단원(丹元)이다. 기이한 이야기와 특이한 행동으로 한 무리의 충애를 받아 수십 년간 측근으로 있으면서 태중대부금사중(中中大夫給事中)까지 올랐다. 지산은 모두 마녀들에게 당전했으며, 광인으로 불렸다. 《신이경(神異記)》과 《삼주기(三州記)》 등의 도가서가 모두 그의 저서라고 하지만, 사실 진(晉)나라 이후의 위작이다. 서왕모(西王母)의 권도복송아이를 훔쳐 먹어 삼천간지를 삼았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43 아이를 낳으려고 몇절을 관해 갖는 것을 말한다. 경에는 이것을 낳을 때 임신부가 몇절을 깔고 그 위에서 해산하였다.

44 1031-1085, 송나라 항주(杭州) 전단(錢塘) 출신의 학자 심괄(沈括). 그의 자가 끈중이

데, 사연이 몹시 괴이하다.

【심존종의 쟁려소동은 특이함이 지극히 많다. 그 가운데 사람마다 언급하는 가장 유명한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희령(熙寧) 연간(1068~1077)에 남방을 정벌하려고 무장한 왕의 군대가 천선(漣船) 수십 척에 나눠 타고 양자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진주(眞州)에서 떠날 당시 작은 뱀 한 마리가 배에 올라왔는데, 선원이 알아보고 “이것은 쟁려소동이다. 이놈이 왔으니 우리 군대를 지켜줄 것이다” 하였다. 쟁려소동을 보호하는 담당자가 정갈한 그릇에 옮겨 놓아주니 뱀은 그 속에 가만히 었드렸다. 그 뒤로 배가 날마다 수백 리를 가도 곡숯이 불고 기센 물결이 조금도 일지 않아 순식간에 동정호에 도착하였다. 그 후 뱀은 남강(南康)으로 돌아가는 장사꾼의 상선으로 가버렸다. 세상에 전하는 소문에 따르면 송(宋)나라 산종(神宗) 때 국경이 동정호에 그쳐 동정호 남쪽으로는 더 뻗어나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서기관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조서를 내려 쟁려소동의 신을 순제왕(順濟王)에 봉하고 예관(禮官) 임희(林希) 자중(子中)⁴⁵을 보내 조서를 전달하였다.

예관이 사당에 이르러 함을 띄우자 공중에서 홀연히 뱀 한 마리가 죽관(祝官)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이에 죽관이 “용왕이 남시었습니다”

다. 서화, 금석학, 문학, 음악 등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온갖 전설과 기괴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몽저원담(夢澤園談)》을 남겼는데, 과학에도 것이 심취하여 나뭇잎을 만든기도 하였다. 천문지리학은 물론이고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당시 많은 병상의 병을 치료해주었으며, 《소심양방(蘇沈良方)》을 저술하였다.

45 목송 때의 문신(文臣). 그의 자가 자중(子中)이다. 복주(福州) 목청(鶴塘) 사람으로, 호는 성고(醒菴)다. 《신종실록(神宗實錄)》을 완성하였고,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에 올랐다. 시호는 문경(文景)이고, 저서에 《양조보훈(兩朝寶訓)》이 있다.

하였다. 하도 무거워 한쪽 어깨만으로는 지탱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뱀이 천천히 제안(几案)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머리는 거북처럼 쟁려뱀의 머리와는 닮지 않았다. 자중이 조서의 뜻을 전달하며 “사자가 여기에 왔습니다. 사흘 동안 제계를 올린 뒤 제향을 드리노니, 용왕께서는 천자의 명을 받으신 뒤 반드시 제계를 올려야 합니다” 하였다. 뱀은 순제왕에 봉하는 천자의 명을 받은 뒤 바로 온으로 만든 향기로운 귀짝에 들어가 꼬리를 든 채 사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향을 올리는 날 술잔에 술을 올리자, 뱀이 귀짝 속에서 머리를 내 밀어 술을 마셨다. 조금 뒤에 나와서 안상(案床)⁴⁶을 따라가는데, 색깔이 마치 축축한 연지처럼 찬연히 빛났다. 종이를 오려 만든 꽃 한 송이를 뚫고 지나갈 때 꼬리는 그때까지도 붉은색인데 앞의 몸뚱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꼭 자황색(雌黃色) 같았다. 이어서 다음 꽃을 지나갈 때는 다시 푸르게 변하여 서로 돈는 풀썩처럼 연녹색이 되었다. 조금 뒤에는 지붕 위로 올라가 종이를 타고 가며 다리를 움직이는데, 기리가 털인 듯 가벼웠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정막안으로 들어가더니 드디어 사라졌다.

이튿날 돌아올 때 뱀이 배 뒤편에서 송변해주더니, 쟁려(彭蠡)⁴⁷를 넘어서 돌아갔다. 이 용은 항상 배 위에서 노닐기 때문에 보통 뱀과 구분할 수 없다. 다만 일반 뱀은 갈 때 반드시 구불구불 가는데, 이 용은 똑바로 간다. 강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이 모습을 보고 구분한다. 여러 서적을 살펴본 결과 내 생각은 이렇다. 이 뱀을 가지고 용이라 한다면, 용은 하늘을 날고 깊은 연못에 사는 동물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46 교령문을 올려놓는 탁자를 말한다.

47 오늘날 강서성(江西省)의 피양호(贛陽湖)를 말한다. 쟁려(彭蠡)이라고도 한다.

● 우리나라 말로는 용을 미리(無離)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사성통해(四聲通解)》⁴⁸와 《훈몽자회(訓蒙字會)》⁴⁹ 등의 사전에는 '용' 자 아래 모두 우리말로 '미리'라고 해놓았으니, 끝 예부터 내려오는 순우리말이다.

【서역의 불경(佛經)에는 용을 '나가(那伽)', 못된 용을 '나가갈수나(那伽曷樹那)', 이무기를 '금비라(金毗羅)'라고 한다. 우리말과 똑같이 모두 표음문자라서 한자에 특별한 뜻은 없다】

● 김초가(金草家)【김백련(金百鍊)⁵⁰이다. 북지(北齊) 김류(金瑒)⁵¹의 종손이다. 벼슬은 군수까지 지냈고, 별호는 오출자(五黜子)다】는 성품이 괴벽하여 영험하고 괴이한 것을 말하면 잘 맞추었으니, 조금 황당한 듯하지만, 사실이 또한 그리하다. 그가 용에 대해 특이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김백련의 말에 우리나라 용의 성질과 문부(文武)를 논한 것이 있

48 1547년 최세진이(崔世珍, 1473~1542)이 편찬한 중국어 운서(韻書), 2권 2책. 세종 때 신숙주가 왕명에 따라 한자를 사성(四聲)에 따라 구별하고 그 음을 바보송야(四難通夜)를 기술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주정음역운(東洲正韻譯韻)》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책이 바로 《사성통해》다. 한글로 중국 음을 표기한 운서이기 때문에 중국어, 특히 근대 북방음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또 한글로 된 자식은 국어사의 연구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49 1527년 최세진이 지은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다.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이 책은 우리말과 한자의 우리 말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50 자는 경위(景偉),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오목 외에 초가(草家), 환해고성(寰海高生)이라는 호도 있다. 참술에 뛰어났고 지리에 밝았다.

51 1571~164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 자는 관옥(觀玉), 호는 북지(北齊)다. 아버지는 중영의정 어룡(汝龍)이다. 병자호란 당시 국내외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북지집》이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으니, 《용능문장변증설(龍能文章辨證說)》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또 용의 종류를 논한 이야기여 용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사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또한 몹시 괴상하다. 우선 기록해두니, 예컨대 《유양잡조(酉陽雜俎)》나 《수신기(搜神記)》에서 괴이한 이야기를 기록해둔 것과 같다 하겠다. “공(公)은 용의 종류에 속하는 동물로, 성품이 몹시 인자하다. 별자리를 주관하고, 혹 신룡을 대신하여 비를 뿌려준다. 김백련은 스스로 제 눈썹과 눈을 ‘총(鵠)의 눈에 공의 눈썹’이라 하었다고 하니, 그의 이야기가 정말 괴상하다. 해(蟹) 또한 용의 종류에 속하는 동물이다. 이 용의 선조는 승평(昇平)인데, 해의 눈썹이 기(鵠)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해는 눈썹이 위에서 일자로 붙어 있는데, 눈썹 턱은 아래까지 덮여 있다. 습(鼯)은 북방에 사는 용이다. 성질이 포악하여 다른 용이 싸울 때 뒤에서 습격하기 때문에 ‘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푸룻 만들은 눈으로 피야 식욕이 도는 데 반해 유독 호랑이는 귀로 들어야 식욕이 논다고 한다. 그 까닭에 장수가 될 사람 가운데 귀가 호랑이를 닮은 이가 있으면 몹시 살인을 즐긴다고 한다. 임경업(林慶業)⁵² 장군은 습룡의 눈썹에 호랑이의 귀에 농(龍)⁵³의 수염을 가졌다고 한다. 일자 눈썹이 바로 습룡의 눈썹이다. 원(阮) 또한 용의 종류에 속하는 동물로, 성질이 몹시 포악하다.”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총(鵠)은 봉황새의 일종으로, 산에 사

52 1571~164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 자는 관옥(觀玉), 호는 북지(北齊)다. 아버지는 중영의정 어룡(汝龍)이다. 병자호란 당시 국내외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북지집》이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53 용의 일종이다.

는 조류(山鳥)⁵⁴의 왕이다. 김백련은 스스로 게 눈을 '중(鰲)의 눈에 승평의 눈썹'이라 하였다고 한다. 박(鰐) 또한 봉황의 종류에 속하는 새다. 제갈량(諸葛亮)과 소강절(高康節) 선생이 태어날 때 박이 마당에 날아와서 울었다고 한다.⁵⁵ 판(鴝)의 음은 판(桓)이다. 부상(扶桑)나무 아래 해가 뜨는 곳에서 사는 이 새는 몹시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으며 집박하고 정직하다. 관우가 태어날 때 환이 와서 울었다고 한다. 채홍(蔡鴻)은 옛날 원앙이 변해서 된 새다. 곧 조선에서 순우리말로 소쩍새라고 하는 작은 새다.”

김백련이 들려준 말은 언제나 이렇다. 당시 효묘제(孝廟) 김용겸(金用謙)⁵⁶ 선생 및 순암(順菴) 안경복(安鼎福)⁵⁷ 선생과 절친하게 지낸 분이므로 그사람됨을 또한 알 수 있으나 소름하게 여길 수 없다.】

54 원문은 '도(鰲)'로 되어 있다. 이는 섬을 뜻하는 '도(島)'와 같은 글자다. 문리로 보아 판조 과정의 오류가 분명하므로 '산조(山鳥)'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55 원문은 '自鰐跡巨鰐鰐之類 自鰐跡巨鰐鰐'인데, 문리로 보아 판조 과정에서 생긴 연문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56 1702-1789. 조선 후기 숙종의 영조 대에 걸쳐 활동한 학자. 본관은 안동, 자는 제대(濟大), 호는 효묘재(孝廟齋)이다. 아버지는 김창집(金昌翊)이고, 조부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다. 농암 김장현, 삼연 김장흥의 학문과 문장을 계승하였다. 낙권적인 성격이 워낙 많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57 1712-1791.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환산명(喚山鳴)·우이재(虞夷子)·상헌(橡軒)이다. 김호(金湖) 이익(李穡)의 학문을 계승하여 상호학파의 여러 학자와 어울려 토론하고 학문의 교류를 하면서 실학의 사상의 영역을 넓혀 나갔으며, 경제치용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사상의 경향을 시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 《순암선생문집(順菴先生文集)》, 《관동산이(關東山異)》,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이 있다.

● 옛 기록에 환요(喚鰐)⁵⁸와 초해(초鰐)⁵⁹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다. 우선 짐작이 가는 대로 기록해둔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노나라 소공(昭公) 29년 강(絳) 지방의 교외에 용이 나타났다. 위(魏)나라의 현자(獻子)가 채국(蔡墨)에게 용이 어떠한 동물인지 물으니 채국이 대답하였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용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환룡씨(喚龍氏)와 어룡씨(御龍氏) 같은 용을 다루는 전문가 집안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그 두 집안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도 들은 적이 있소 대체 어찌 된 사연이오?” 하고 물었다. 채국이 대답하였다. “옛날 요(魏)나라에 안숙(叔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득한 후손 가운데 동보(董父)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용을 몹시도 좋아하여 용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구해 끼니마다 먹였고, 그런 연유로 많은 용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동보는 이에 용을 길들여 기르면서 순(舜) 임금을 섬겼고, 순임금은 동보에게 동(董)이라는 성을 하사하였지요. 그래서 동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보를 환룡씨(喚龍氏)에 봉했지요. 환룡씨 가문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옛날 순임금 시대로부터 대대로 용을 기르는 전문이 있다가, 하(夏)나라 공갑(公甲) 왕 대에 이르러 또 임금을 기르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공갑은 자신이 타던 용을 하사하였고, 환룡씨 집안의 후예는 이 용을 황하(黃河)와 한수(漢水)에 각 두 마리씩 각각 암수 짝을 맞추어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공갑은 용 기르는 방법도 몰랐고 환룡씨 사람

58 환씨(喚氏)가 용을 길렀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59 용을 가지고 쫓을 달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들을 찾지도 않았습다. 요임금이 세운 왕실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다. 그러다가 유부(劉累)라는 사람이 환공씨의 후예를 찾아와 용 기르는 법을 배워서 공감을 섬겨 능히 용이 좋아하는 음식을 구해 먹였습니다. 공감이 가삼히 여겨 유부에게 어룡씨(黎龍氏)라는 성을 하사하고 시위씨(師韋氏)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당시 네 마리의 용 가운데 알 것 한 마리가 죽자 어룡씨는 이 용으로 젓갈을 담가 공감에게 바쳤습니다. 공감이 이 젓갈의 맛을 보더니 이후 자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밀럭 집이 난 어룡씨는 노현(魯縣) 지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지금 노나라의 변씨(范氏)가 바로 어룡씨의 후손입니다' 하였다.

《춘추좌씨전》에 실린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시대를 한참 내려와 진(晉)나라 때 장화(張華)⁶⁰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떤 물고기로 담근 젓갈을 먹더니 "이것은 용고기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귀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장화는 "용고기로 담근 젓갈은 식초에 닿으면 찬란한 무늬가 생기는 법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말대로 식초에 찍어보니 정말로 찬란한 무늬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화가 먹은 물고기 젓갈은 장작더미 속에 있던 백어(白魚)로 담근 것이지, 여초에 용으로 담근 것이 아니다.]

60 진(晉)나라의 박물학자. 자는 무진(茂先)이고, 범양(范陽) 평성(平城) 사람이다. 세상의 온갖 사물과 기괴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학문과 문학에 모두 뛰어났다. 제제(惠帝) 때 태자소부(太子少傅)에 임명되었다가, 뒤에 관왕(八王)의 난 때 조왕후(趙王后)에게 살해되었다. 저서로는 《마물지(博物志)》 10권이 전한다.

辨證說 龍生九子

용은 새끼를

아홉마리 낳는다는 설에 대한

변증설

● 사조제(謝肇淛)의 《오잡조》에 “용은 성질이 가장 음란하다. 소와 고집하면 기린을 낳고, 돼지와 고집하면 코끼리를 낳고, 말과 고집하면 용마를 낳는다” 하였다. 호시승(胡侍承)의 《진주선(眞珠船)》¹에 “용은 새끼를 아홉 마리 낳는다. 포외(蒲外)【종이나 집에 새겨진 용】는 울기를 좋아하고, 수우(水牛)【악기에 새겨진 용】는 음악을 좋아하고, 치문(齒門)【궁궐 용마루에 새겨진 용】은 삼키기를 좋아하고, 조풍(朝風)【궁궐 처마의 모서리에 새겨진 용】은 위험함을 좋아하고, 애자(嬰子)【칼끝에 새겨진 용】는 죽이기를 좋아하고, 화비(火比)【비석 옆에 새겨진 용】는 문장을 좋아하고, 폐안(狴狴)【감옥 안에 새겨진 용】은 송사를 좋아하고, 산애(巖狔)【불좌(佛座)에 새겨진 용】는 앉기를 좋아하고, 폐하(罰下)【비석 받침대에 새겨진 용】는 등에 지기를 좋아한다.

- 1 명 대의 학자인 호시(胡侍, 1492~1553)를 가리킨다. 자는 봉지(鳳之) 또는 승지(承之)다. 호는 형제(康誼)다.
- 2 《진주선(眞珠船)》은 호시의 저술이다. 권계유(權桂維)의 《진주선(眞珠船)》과 서명이 비슷하여 이규경이 ‘진(眞)’을 ‘진(珍)’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명나라 효종(孝宗) 홍치(弘治) 연간에 태평령중관(泰陵令中官)이 용이 낳은 새끼의 이름을 소사(少師) 이동양(李東陽)에게 붙였는데, 이동양이 다 알지 못해 이부원외(吏部員外) 유적(劉績)에게 자문을 구하고서야 옛 서적에 기록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출전을 알아서 전거를 바탕으로 대답하지는 못하였다. 내 기억에 내가 일한두 살 무렵 일찍이 《대류총기(大類總集)》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오잡조》와 《박물지》에는 이 9종의 용 외에 또 귀수를 좋아하는 현상(顯章), 물을 좋아하는 도찰(道察), 비린 것을 좋아하는 실척(釋錫), 비바람을 좋아하는 만전(滿田)【어떤 곳에는 만전(滿田)으로 표기되어 있다】 문채를 좋아하는 이호(異虎), 연기를 좋아하는 금예(金我), 문 잠그기를 좋아하는 초도(趙道), 모험을 좋아하는 도선(趙仙), 불을 좋아하는 오어(鰲魚), 짐을 지지 않는 금오(金吾) 등도 역시 용의 종류로 소개되어 있다.

양산(楊嶽)의 《단연총록(丹鉛總錄)》에 “용은 새끼를 아홉 마리 낳는데, 용이 되지 못하고 각각 좋아하는 것이 있다. 초도는 생김새가 소라고둥처럼 생겼고 실척은 단기를 좋아한다. 그런 까닭에 문 위에 세워둔다” 하였다. 사곡(詞曲)에 이 초도를 두고 노래하기를 “문에서 서 말이 끄는 수레를 맞이하니, 대문마다 〈말초도〉를 세워둔다네(門迎駟馬車, 戶列八鞍圖)” 하였다. 각각 여덟 그릴 이름은 《속원잡기(續源雜記)》에 보인다.

내가 왕사정(王士禛)³의 《거이록(居易錄)》을 보니, “용은 두 개의

알을 낳는데, 일명 길료(吉丁)라고 한다” 하였고, 《북몽색어(北夢雜語)》와 《진주선》의 〈도화록(圖化錄)〉을 보니 “수우는 음악을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거문고 머리 위에다 새겨놓은 용이고, 애자는 죽이기를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칼 손잡이 부분의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고, 조룡은 모험을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궁궐 처마의 모서리에 새겨진 용이고, 포리는 물기를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종의 꼭대기에 새겨진 용이고, 삼예는 앉기를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불피에 새겨진 사자이고, 폐하는 등에 시기를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비석 받침대에 있는 용이고, 세안은 승사를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감옥 문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이고, 희비는 문장을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비석 양쪽에 새겨진 용이고, 치문은 삼키기를 좋아하는 놈으로 지금 궁궐 용마루의 머리에 있는 용이다” 하였다.

용에 관한 이 설이 무척 상세하기 때문에 군더더기 같다는 지적에 개의치 않고 내 생각을 보태본다. 정말 이렇다면 용이 아무리 새끼가 많다 하더라도 어찌 그러도 어미와 영란 다르단 말인가? 《설문해자》에 “악어는 일생 동안 100개의 알을 낳는데, 처음 생김새가 자리를 잡으면 뱀도 되고 거북도 되고 이무기도 된다” 하여 본래 형제와 닮지 않게 된다. 필경에는 용의 새끼가 제 어미를 닮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3. 1634~1711, 중국 청나라의 문학가. 본명은 진(進)이다. 자는 이상(瞻上), 호는 완경(阮亭)·어양산인(漁洋山人) 등을 쓴다. 당송의 시풍을 받아 신운(神韻)을 중시하였다. 작품에 사문집 《정화록(稔華錄)》을 비롯하여 《대경당집(唐經堂集)》과 《당원간마집(唐賢三

昧集) 등이 있다.

辨證說 論龍文武

● 동물 가운데 능히 시를 짓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옛사람이 간혹 남긴 기록이 있다.

예컨대 《논어소(論語疏)》에서 공야장(公冶長)이 참새의 말을 이해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새가 집 주위를 돌며 지저귀며 말하기를 “공야장아! 남산의 호랑이가 양을 잡아간다. 너는 그 고기를 얻고 나는 그 내장을 얻자” 하였다. 또 “뿅뿅뿅! 허얏게 핀 연꽃 옆에, 곡식 쏘은 수레 있네. 수레 다리는 진흙에 빠지고, 소는 뿔이 부러졌다. 다 수습하지 못할 테니 함께 가서 쏘아 먹자”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알아보니 정말로 그러하였다고 한다. 양(羊)나라 산화점(山花店)에서 기르는 앵무새가 몹시 총명하였다. 동쪽 관문 입구에서는 요가(猯)를 길렀는데, 이놈 역시 말을 잘하였다. 두 곳의 상점에서 두 마리의 새를 가져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비교해보았다. 앵무새

1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새의 이름이다.

가 시 한 수를 노래하면 요가가 화답을 했는데, 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은 목소리가 아름다워 누가 낮고 누가 못하다 할 수 없었다. 요가가 다시 목청을 돋우어 함께 말을 했는데, 앵무새가 한 글자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쇠꼬리가 “저 요가의 목소리는 나보다 못하지만 악삭빠르기가 나보다 뛰어나 입만 열면 표절을 당합니다” 하였다. 감영의 관원 가운데 자식을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장난감으로 사주려 하니, 상인이 새 조롱에 담아 바쳤다. 이에 앵무새가 제 신세를 슬퍼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본디 산화점에 살던 새 (我本山貨店中鳥)

존귀한 관청 생활 아예 모른다오 (不識嚴司衙內事)

그중에 정말로 슬픈 건 뭇 주인 그리워 (最是傷心懷舊主)

새 주인에게 고운 노래 불러줄 수 없는 일 (難將巧語傳新惠)

요망스러운 쥐가 시를 지은 일도 있다. 명나라 성화(成化) 2년(1466), 장락(長樂)의 선비 진풍(陳豐)이 흉포 신중의 시재에 앉아 있었다. 그대 들보 위에서 두 마리의 쥐가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떨어지더니 손바닥 크기만 한 두 명의 늙은이로 변하였다. 진풍이 그들과 마주 앉아 취하도록 술을 실컷 마셨는데, 목소리가 어란이 같았다. 잠시 뒤에 어떤 여인이 춤추고 노래하며 술을 권하였다.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목구멍만큼 작은 천지에 (天地小如喉)

해는 뜨고 저 새월 올랐네 (紅輪自冉冉)

수많은 저 세상 사람들 (多少世間人)

모두들 속절없이 늙어버렸지 (都說紅顏瘦)

또 이렇게 노래하였다.

가려네 가려네 나는 가려네 (去去去)

여기는 내가 살 세상 못 되나니 (此間不足留儂處)

나는야 하늘 너머 저 너머 가서 살아야지 (願往三十三天外天)

유왕상제가 나를 위해 땅을 키우고 있는 곳 (玉皇成德養兒女)

노래가 끝나자 곧 셋이 합쳐져 한 마리의 큰 쥐가 되더니 진풍을 향하여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떠나갔다. 비록 미물이지만 이러한 짐승에게도 총명한 지각이 있어 능히 문자를 알고 시를 지을 수 있으니, 더구나 용이나 봉황이나 거북이나 기린처럼 신성한 동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 오출자 김백련은 북저 김류의 종손이다. 성품이 괴벽하여 영합하고 괴이한 고사가 많다. 일찍이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영평현(永平縣) 화저연(花渚淵)과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에 사는 용은 모두 용맹하고 또 지리에 밝다. 한강과 강화도에 사는 용은 모두 유약하다. 화저연에는 용 세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알뜰달 록한 반룡이고, 한 마리는 흑룡이고, 한 마리는 청룡이다. 양주(楊州) 북한강에 사는 용은 용맹하고, 충주 달천(澗川)에 사는 용은 욕심이 많다. 동해 해금강 아래에도 용이 있는데, 그 용은 문학을 숭상한다.

신라시대에 그 용의 아들이 김생(金生)²에게 와서 서법(書法)을 배웠으므로 김생의 필적이 이 용이 살던 곳에 많이 남아 있다. 낙동강에 사는 용은 문장에 뛰어난데, 그 용이 지은 문장은 매우 둔후하고 시원하다. 대동강에 사는 용 역시 문장에 뛰어난데, 그 용의 문장은 화려하다.”

오늘자가 한 이런 말은 무척 황당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를 잘 하었는데, 일이 대부분 딱 들어맞았으며, 성품이 강직하여 정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면 그의 단점을 정확히 지적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꺼리어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내용이 후 허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청나라의 위에게는 순수하고 성실한 학자다. 그가 《용궁취복기》를 지었고【《용궁취복기》는 본 저술과 조부의 저술인 《양업기(養業記)》 가운데 보인다】 사조제의 《오잡조》 가운데도 역시 바다의 용이 용궁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아주 황당하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고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거품을 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 711~791. 신라시대의 서예가로, 대동서당(海東書堂)으로 불린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서예에 정진해 예서, 행서, 초서에 따른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황회지의 손씨에 비유한다는 평을 받았다.

辨證說 龍卵虎胎

용은 난생이고

호랑이는 태생이라는 설에 대한

변증설

● 나는 기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만약 기괴하거나 신기할 일을 보면 반드시 기록하여 보관해둔다. 그런 까닭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혹 나를 두고 기괴한 것을 좋아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기괴한 것을 좋아하던 옛사람의 문자를 주위 장차 뒷날 신기한 것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줄 자료로 삼는 것일 뿐이다.

《오잡초》에는 “용은 새끼를 아홉 마리 낳는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아홉 새끼 외에 또 두 개의 알을 낳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유서(遺書)에 “용은 알로 새끼를 낳는데 원하는 모습대로 태어난다”라고 하였다.】《물리소지》에 “호랑이는 두 번 교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일찍이 여섯 번 임태한다¹는 내용을 본 적이 있으니, 곧 옛 서적에서 전하는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당(東塘) 공상임(孔尙任)² 연성공(衍聖公)이 공자의 먼 후손으로서 일찍이 《용란

1 원문은 ‘호계교(虎舞交)’이나, 《물리소지》의 원문에 의거하여 ‘불(不)’자를 넣어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 1648~1718. 청나라의 문학가. 자는 명지(鳴之)·계중(季重), 호는 동당(東塘)·안암(岸巖)

시(龜前詩)를 지었고 보면, 용의 난생설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일찍이 《호태설(虎胎說)》을 지었는데, 병태(癩胎, 쌍둥이)에 관한 견해를 분명하게 기록해놓았으니, 이 어찌 한번 변증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청나라 왕사정의 《거이록》에 공상임이 지은 연구시(蟠蛇詩)³ 〈용탄(龍卵)〉이 소개되어 있다. 시의 내용은 대략 “연경의 시장에서 어떤 알 하나를 샀다. 돌처럼 단단하고 둥글며, 크기는 1척 3촌이다. 모양은 거위 알처럼 생겼고 색깔은 짙은 상아색이다. 그리고 알 전체에 일복달룩한 검은 반점이 마치 교룡이 떠리를 든 모양으로 박혀 있다. 옛말에 ‘용과 뱀의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으며, 뱀의 알은 둥글고 용의 알은 타원형이다. 용의 알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다’ 하였는데, 시험해보니 실제로 그렇다” 하는 것이다.

《원사채담(燕館叢談)》에는 고소(姑蘇)⁴에 사는 유창(劉昌)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명나라 성화 5년(1469) 6월 5일, 홍수로 황하가 범람하자 영화영(杏花營)에 제방까지 물이 찼다. 이른날 삼사(三司)에서 죄생을 잡아 계사를 올렸다. 계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알 하나가 황하의 물결에 떠내려 왔는데, 크기가 사람의 머리만 하였다. 아래는 뾰족하고 위는 둥글며, 청백색 바탕에 회미하게 오색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 검은 반점이 많았다. 어부가 주웠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이 배 40

말이며, 스스로 운장산인(雲莊山人)이라 불렀다. 공자의 64대손으로, 청 성조(聖祖)가 남쪽 지방을 순시하고 곡부에 이르렀을 때 부름을 받아 경전을 강의한 것을 계기로 국자감박사가 되었다.

3. 연구시는 한 부제 때의 백양사(柏楊寺)에서 시작되었는데 사람마다 각각 한 구씩 지어 그것을 모아 시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이다.
4. 지금의 소주(蘇州)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의 옛 이름.

편을 주고 바꾸었다. 그러고는 이 사실을 관아에 급히 보고하였다. 처음 그것을 볼 때는 몹시 두려웠다. 손으로 더듬어보니 그 속에서 ‘뿔뿔 뿔뿔’ 하는 울소리가 났다. 또 엄청 무거웠으며, 기운은 따뜻하고, 윤기가 있어 반들반들하였다. 무슨 조짐인지 알 수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용의 알이라 하기도 하였다. 나는 용은 새끼로 태어난다고 들었을 뿐 알로 태어난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뱀 역시 알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실로 그런 종류일 것이다’ 하였다. 사흘이 지난 뒤, 나는 고을 다리 서쪽에서 화집헌(和食憲)을 만나 그 알의 모습을 벽 위에 그렸다. 또 그 위에 《현주점법(玄珠占法)》에 강호에 용의 알이 나타나면 큰 홍수가 난다 하였다라고 썼다. 또 들으니 하루 전에 그 알을 개봉부(開封府)로 보냈으나 모두 두려워 감히 수습하지 못해 수령과 관관이 서로 밀치던 중 땅에 떨어져 알이 깨졌는데, 그 속에는 물밖에 없었다고 한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다. 《목봉쇠어》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의 숙담에 ‘용은 반드시 두 개의 알을 낳는데, 하나는 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흉한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조(洎)’ 자는 《거이록》에 ‘료(了)’ 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는 길한 것이다’라는 의미다” 하였다.

남회인의 《곤여외기》에 ‘백로국(白羅國, 키르키스)에는 액마(巨馬, orlich, 타코)라는 새가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다. 긴 목에 긴 다리가 있고 날개는 없으며 털빛은 화려하다. 날 수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데, 발이 마치 소의 발굽을 닮았다. 빨리 달릴 때는 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다. 앞껍데기로는 검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이번에 배 위에서 열린 시장에 ‘용의 알’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동물의 알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동당 공상임이 샀다는 용 알이나 유창이 보았다는 용

알이 혹 비로 타조의 알인데, 용의 알로 잘못 안 것은 아닐까?

호랑이 같은 동물은 세상에 있는 동물이기에 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 비록 살아 있는 호랑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세상에 널리 있어 언제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가 잉태하는 모습은 백에 하나도 보기 어렵다. 내가 젊은 시절 선천을 보시고 안삭군(安朔郡, 작녕) 관아에 살 때 사냥꾼이 큰 호랑이를 잡아 바친 적이 있었다. 그때 내장을 해부해보니 새끼를 뱀 상태였다. 크기는 쥐 정도 되었고 형체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큰 알 속에 있는 가부라⁵처럼 이미 대부분 자리를 잡은 머리 부분이 사람을 절로 두렵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이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다 말려두고 박물가(博物家)의 연구를 기다린 지 벌써 오래되었다.

살펴보니 《여씨춘추》에서 이윤(伊尹)이 “고기 가운데 맛이 좋은 것은 성성이의 입술이다”, “주왕(紂王)은 상아 첫가락을 만들어 쓴 뒤로 반드시 옥 접시를 사용하였는데, 옥 접시에는 늘 금 발바닥과 표범의 태로 만든 요리를 담았다” 하였다. 그렇다면 표범의 태가 최고급 요리라는 뜻이니 호랑이의 태반 역시 최고급 요리인가?】

지금 머리 실을 채집하고 전거를 찾아 번증하였다.

5. 문법 서체를 수호하는 전설 속의 쥐 이름. ‘가봉인카’ 또는 ‘가부라’라고도 한다. 알 속에 있을 때부터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몹시 아름답다고 한다.

辨證說 尺木

● 세상의 전설에 용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니, 여의주가 없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한다.

【도가(道家)의 서적에 “왕성한 눈빛의 기운이 높은 영어의 눈동자에 서 나와 하늘에 올라 보배 구슬로 변한다. 그래서 이름을 여의주라고 한다” 하였다. 또 방복산(方宓山) 선생은 “보배로운 여의주는 곧 용과 기의 눈동자다” 하였다.】

그렇다면 비늘 달린 동물의 왕이 용이라 한다면 용 또한 어룡이므로 그 눈동자가 여의주가 된다. 여의주를 별칭으로 척목이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는 전해 내려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다.

살펴보니 이러한 내용이다. 《유양잡조》에 “용의 머리 위에는 어떤

1 《물리소지》의 저자 명이지. 자는 목지(牧止), 호는 만공(萬公) 또는 녹기(龍起)다. 또 산우자(山應者)라는 호를 쓰기도 하였다. 안휘성 동성(桐城) 사람으로, 명말청초의 대학자다. 서양의 학술을 받아들여 과학과 의학에 모두 밝았다.

물건이 하나 있다. 모양은 박산(博山)² 형태를 닮았으며 이름은 칙목이라 한다. 용에게 이 칙목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다" 하였다. 손책(孫策)³은 "용이 하늘을 날고 싶으면 먼저 칙목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하였다. 이것을 볼 때 칙목에 관한 이야기는 한(漢)나라 때부터 벌써 있었다. 이것이 혹 지금 세상에서 여의주라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혹 물고기 눈동자의 정기가 맺힌 것이 여의주인가?

유사에 "근현(新縣)의 조공만(趙公萬)이 천정산(天井山)에 있는 용정(龍井)에 가서 바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마침 용이 나타난 일이 있다" 하였다. 또 좌장(左藏)⁴·정량선(程良選)이 지은 가문에 "잠시 뒤에 물결 사이에서 마치 햇불 뭍을 같은 광채가 나오더니 다시 붉은 불꽃이 마구 일렁였다. 그 아래로 나타난 용의 머리는 무척 컸는데,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이어서 온몸이 나타났는데, 비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오랫동안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니 응산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데, 보는 이들이 혼비백산 정신을 잃었다" 하였다. 왕가수(王嘉謨)는 "용이 처음 물 위에 나타날 때는 먼저 연꽃 모양 무늬가 있는 물건이 나타나고, 그 뒤에 물이 용 솟을치면서 괴이한 물건이 출현하는데, 두 눈의 눈빛이 구리 쟁반 같았다" 하였다. 《물리소기》에서는 "용이 처음 일어날 때 먼저 도화당(桃花浪)⁵이 발생한다" 하였다.

이상에 인용한 여러 기록에 '물결 사이에서 마치 햇불 뭍을 같은 광채가 나온다'거나 '연꽃 모양 무늬가 있는 물건이 나타난다'거나 '먼저 도화당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등의 언급이 곧 칙목에 관한 묘사다. 변화불측한 용의 조화는 오로지 여기서 나온다. 세상 사람이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보배'라는 의미를 붙여 여의주라고 한 것은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이라 하겠다.

2 중국 산둥성(山東省) 박산현(博山縣)에 있는 산.

3 후한 말의 학자이자 장군. 자는 덕부(德符). 20세 때 강동(江東) 지방을 정벌하고 소제왕(小霸王)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손권(孫權)의 형이다.

4 국고 재정의 출납을 담당할 관직 이름.

5 복사꽃 길 무렵 발생하는 홍수. 여기서는 웅솟음치는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辨證說 珠淚

● 노지강(魯至剛)이 지은 《준령기요(俊靈機要)》에 〈주루전신(珠淚傳身)〉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내용은 이렇다.

주루 섞어 만든 맥이 살아 있는 그림 그려내니 (珠淚雜酒(醴)中)
하늘이 내린 영물이라 신묘한 능력 있음이지 (天生靈物有奇功)
지식에게야 응당 어려운 법이 되겠지만 (經教志士應難法)
세상 사랍은 집선의 필적이라 한다네 (世人擇選(出)難難)

노지강은 이 시에 스스로 이렇게 주루를 털었다. “주루는 바로 바다 너머 여러 산과 연못 가운데 사는 노인방(老人蚌, 대합조개의 일종)이다. 이 조개는 맛이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채취하여 먹는다. 지금 민중(閩中) 지방 남쪽에 이런 조개가 많이 나는데, 다 자란

1. 조개 안에 든 물건으로 권주원처럼 생긴 것 그러나 단단하지 않고 뒹굴뒹굴하여 터뜨리면 액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말을 붙여 주루(珠淚)라고 하였다. 오늘날 주루의 사전적 의미는 ‘구슬처럼 맺어지는 눈물’이다.

것은 시장에 대다 툐다. 연못에 사는 큰 대합조개 가운데 아주 오래 살 늙을 따면 제 볼속에 구슬을 품고 있거나 철알 같은 구슬을 뱉고 있다. 그것을 즉시 취하여 먹물과 함께 섞어 길아둔다. 그러고는 인간세상에서 정신까지 살아 있는 훌륭한 그림을 그릴 경우 이 먹물을 사용하는데, 한낮에 그리면 밤에는 모습이 없어지니 몹시 기이하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 <목양도(牧羊圖)>를 그렸는데, 한낮에는 여러 양이 단간 밖에서 풀을 뜯다가 밤에 보면 단간 안에서 자고 있었다. 세상 사람은 이 그림을 두고 신선의 그림이라고 하니, 그림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려 명성을 날렸다. 주루는 가장 얻기 어려운 물건이므로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인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 밝히둔다.”

●여러 서적을 고찰해본 결과 <본초강목>에 나오는 방(蚌)과 합(蛤)은 종류는 같지만 생김새가 다른 조개다. 긴 것을 통틀어 방이라 하고, 둥근 것을 통틀어 합이라 한다. 그러므로 방이 충(虫)에 봉(奉) 자를 붙이고 합이 충(虫)에 합(合) 자를 쓴 것은 모두 조개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후세에 이 둘을 모두 방이라 섞어 부르지만, 이는 잘못이다. 도홍경이 말하기를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 신(身)이 된다” 하였는데, 이때의 신이 곧 방이다.

육전(陸田)은 방과 합은 암수가 없다. 모듬지기 물속에 들어가 참새가 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진주를 생산할 수 있고, 오직 유정(遺精)에 전일(專一)한 것이다” 하였다.

【《여기》 <월령>에서는 9월에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 합이 되고, 10

월에 뽕이 큰물에 들어가 신이 된다” 하였다.】

동백 이사진이 “무릇 방은 우레 소리를 들으면 움츠러든다. 방이 진주를 품은 모양이 마치 임신한 것과 같기 때문에 주태(珠胎)라고 한다. 충추(中秋) 무렵에 달이 없으면 방이 진주를 품지 않으니, <좌사부(左思賦)>에서 ‘방합이 진주를 품는 것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함께하네(蚌蛤珠胎 與月盈虧)’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노래한 것이다” 하였다.

《고급비원》에 “진주를 합 속에 심는 신묘한 방법이 있다” 하였다. 주진양(朱進襄)의 <문창잡록(文昌雜錄)>에 “진주를 합 속에 심는 방법이 있으니, 방과 함께 나란히 기르는 것이다. 물 항아리에 약품을 넣은 후 한밤중에 달빛 아래 놓아두면 방합이 달의 정기를 받아 진주를 만든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방합은 우레 소리를 들으면 움츠러 들고, 달빛을 보면 토한다. 서시설(西施舌),² 합리(蛤蜊),³ 강요주(江瑤柱, 산조개)의 입술에 호분(胡粉)⁴을 발라서 달빛 아래 놓아두면 살이 쪼든다” 하였다.

●우리나라 바다에도 역시 진주를 품은 조개가 많다. 복합(復蛤, 전복)은 구공합(九孔蛤) 또는 석결명(石決明)이라고 하는데, 진주를 품는다. 대합도 진주를 품는다. 담계(淡菜)는 속칭 홍합인데, 역시 진주를 품는다. 대합 가운데 혹 콩알만 한 밀렁밀렁한 작은 알을 품고 있는

2. 중국의 대표적 미녀인 ‘서시의 옛바다’이라는 뜻으로, 가리비를 가리킨다는 설도 있고, 홍합 또는 새조개라고 하는 설도 있다.
3. 배지마, 대합조개나 백합조개 또는 참조개라고 하는 설도 있다.
4. 조개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가루. 화장품이나 건축용 도장제로 쓰인다.

놈이 있는데, 이 알을 부수면 물이 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대합의 알이라고 생각한다. 또 조개 속에 작은 게가 사는 경우도 있다. 크기는 콩알만 하고 색깔은 홍색이며 꾸물꾸물하며 힘이 없다. 《전한서(前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갈기정(蛤持亭)”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안사고(鮑師古)가 주석을 달았는데, “갈(蛤)은 음이 같으니 조개의 한 종류다. 길이가 1촌이고 너비가 2푼이며, 그 배 속에 작은 게가 살고 있다” 하였다.

이동벽이 “해경(海鏡)은 알명 경어(鏡魚)라 부르기도 하고, 해(蟹)라 부르기도 하며, 고약만(膏藥鱸)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해에서 생산된다. 두 개의 조개껍데기가 서로 함함으로써 모양을 이룬다. 조개껍데기는 마치 거울처럼 둥글고 가운데가 몹시 반짝거리며 매끄럽다. 햇빛에 비추어보면 운모(雲母)와 같다. 해경의 몸속에 기생하는 생물이 있는데, 크기는 콩알만 하고 모양은 게를 닮았다” 하였다.

《월절서(越絕書)》에서는 ‘홍해자(紅蟹子)’라고 하였다. “홍해자는 콩알만 한데, 게의 발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해경이 배가 고르면 홍해자가 나와서 먹이를 먹는다. 그리고 난 뒤 들어가면 해경 역시 배가 부른다. 작박이 부(腹)를 지어 ‘해의 배 속에 사는 게는 운모 색깔에 새우 눈이라네(鰓腹蟹 水母目蝦)’라고 노래하였는데, 바로 이 게다. 혹은 불을 갖다 대면 게가 튀쳐나온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곧장 죽어버

린다. 혹은 살아 있는 해경을 가르면 그 안에 살아 있는 게가 있는데, 어붙어붙하다가 역시 죽어버린다” 하였다. 《본초강목》에는 기거충(寄居蟲 기생생물) 조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주석에서 “기생생물은 소라 껍데기 사이에 있다. 그곳에 기생하는 바다 생물이 많다” 하였다.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개가 진주를 품는 것은 병의 일종이고, 게를 품고 사는 것 또한 병의 일종이다. 진주알쟁이는 혹은 게를 품은 것으로 밀미암아 생성된 것은 아닐까? 노지강이 말한 주루는 곧 방루(蚌腹)다. 아직 진주처럼 채 단단해지지 않고 물이 많아 팽팽할 때를 주루라 부르는 것이리라. 방루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방저수(方諸水)라고도 한다. 진장기(陳藏器)⁵는 이에 대해 “방저는 대합조개다. 뜨겁게 문질러 달군 다음 달을 향해서 휘하면 2~3푼의 물을 얻을 수 있다. 역시 아침이슬과 흡사하다” 하였다. 《주례》에 “맑고 깨끗한 물(明水)을 달에서 취하여 음식을 진설할 때 현주(玄酒, 제사에 쓸 때 실 쓰는 관문)로 삼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회남자》에 “방저는 달을 보면 곧 축축하게 물이 된다” 하였다. 이 구절을 해석한 여러 주석가는 방저를 돌이라고도 혹은 대합조개라고도 하며, 혹은 다섯 종류의 돌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이라 하기도 하였다.

송(宋)나라의 이석(李石)⁶이 편찬한 《수바물지(水滸物志)》와 《선문해자》에 “방저라는 말은 구슬이라는 뜻의 ‘저’와 돌이라는 뜻의 ‘방’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하였다. 일설에 “방저는 구공라(九孔螺, 진북)

5 581~645, 당 초기의 경학자(經學者)로, 시호는 제(子), 이름은 주(周)다. 심서성(陝西) 서안(西安) 사람이다. 《안씨가론(顏氏家訓)》을 지은 안지수(顏之推)의 손자이며 훈고학에 뛰어났던 안사오(鮑思聰)의 아들로, 가학을 전수받았다. 공영단(功業壇) 등과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찬정(撰定)하고 《한서(漢書)》에 상세한 주석을 달아 역사서를 연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6 당나라의 의학과 겸 생물학자. 《본초습유(本草拾遺)》를 지었다.

7 11(8)~? 송 대의 학자로, 자는 지기(海巖), 호는 방주(方舟)다. 원문에는 진(鎭)나라의 인물로 표시했는데, 오류라고 판단해 송나라로 수정하였다.

의 껍데기라고 한다. 또 일설에 '방저는 본디 대합의 껍데기'라고 한다. 진저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고종(高宗) 인덕(仁德) 연간에는 봉선(封鮮)의식에서 명수(明水)를 쓸 때 이정진(李敬眞)이 8~9월에 1척 3촌짜리 조개를 주워 법에 따라 시험해보아 한밤중에 다섯 되의 물을 얻었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방저가 대합조개의 껍데기임이 거의 분명하다.

다만 방저에서 얻은 물을 방부라고 착각한다면 오류다. 《최한삼제도회》에는 일본의 관가에서 여러 종류의 조개껍데기를 모아보니 모두 650종이더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주무를 품은 조개를 노인방(老人蚌)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종류의 조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승엄성(勝嚴經)》에 '여러 태환사(太幻師, 도사)가 태음(太陰)의 정기를 구하여 환약(幻藥)과 섞으려 하였다. 이때 그들이 손으로 방저를 잡고 달빛 속에서 물을 받았다' 하였다. 《주례》의 주석에서는 "경(鏡, 해경)은 방저다" 하였다. 왕안석(王安石)은 시를 지어 "방저에서 물을 받아 환약을 제조하여 그림을 그리니, 시원한 비단 폭 속의 정기가 계절에 따라 변하네(方諸承水調幻藥 麗蒸生綺變寒暑)"라고 읊었다.

주무는 곧 방부다. 주무로 그림을 그리면 낮에는 분명하게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다. 증거가 될 만한 것으로 장진(張進)의 《해외이

8 1021~1086, 중국 북송의 문인, 학자이자 정치가. 자는 기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이다. 부국강명을 위한 신법(新法)을 제정하여 실사하였다. 우아하고 길이 있는 문로 달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윌리한 시문. 특히 선종(禪宗)의 문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 단년의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저서에 《주관선의(涑言集)》, 《임천집(臨川集)》 등이 있다.

물기(海外異物記)가 있다. 강남질도사 서지악(徐知勣)⁹이 소를 그린 죽자 한 폭을 얻었다. 그림 속의 소는 낮에는 난간 밖에서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난간 안에 들어와 잔다. 서지악이 이 그림을 후주의 옥(昱)에게 바치려고 궁으로 가지고 갔다. 태종이 후원에서 이 그림을 펼쳐 여러 신하에게 보여주니 아무도 그 이치를 아는 자가 없었다. 승득(僧德)으로 있던 승려 천영(賈寧)¹⁰이 "남쪽 왜국에 바닷물이 폭 줄어들면 모래들이 살짝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왜인은 방저를 주워 조개 속에 있는 남은 물 몇 방울을 물감과 섞어 물건에 칠하는데, 그러면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옥초산(沃州山)¹¹에 배메로 흙 바람이 심하게 휘돌아쳐 해안에 돌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돌을 주워서 물에 적신 다음 물감과 섞어 갈아서 물건을 염색하면 낮에는 분명하게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¹² 하였다. 이런 사실에 대해 여러 학사(學士)가 아무런 전고

9 북송 대에 강남질도사를 지낸 인물. 50만 냥의 거금을 들여 산기현 그림을 사서 태종에게 바쳤다고 한다.
 10 919~1002, 북송 때의 학승(學僧). 속성은 고(高), 호는 동해(東海)다.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 덕항(德興)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반해 사람이었다고 한다. 천태산(天台山)에서 구족계를 받고 경(經)·술(律)·논(論) 삼장(三藏)을 널리 공부했는데, 특히 남산술(南山律)에 정통하였다. 유교나 노장(老莊) 사상 등에도 해박하고 담론에도 뛰어나 왕후나 귀족, 지식인의 존경을 받았다. 만년에 직명으로 《송고승전(宋高僧傳)》, 《대승승사략(大乘僧事略)》을 지었다.
 11 전설 속에 나오는 산. 동해의 남쪽에 있다고 하는 큰 등산으로, 둘레가 4만 리, 두께(厚)가 4만 리라고 한다.
 12 소의 그림을 두 가지 물감으로 그렸다는 말. 즉 낮에 물을 묻은 소의 모습은 옥초산 돌가루를 섞은 물감으로 그리고, 밤에 수위 지는 소의 모습은 방부를 섞은 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옥초산 돌가루의 효능으로 인해 물을 묻은 모습은 낮에 분명하게 보이고 밤이 되면 사라지게 되고, 방부의 효능으로 인해 소가 지는 모습은 밤이면 분명하게 보이다가 낮이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마치 소가 낮에는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典故)를 밝히지 못하자, 친영이 “장건의 《해외이물기》에서 보았습니다” 하였다. 뒤에 두호(杜誥)¹³가 삼관(三館)¹⁴에 소장된 서적 목록을 조사해보니 과연 육조(六朝) 시대의 옛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또 어떤 본을 살펴보니 이것과 약간 다른 내용이 마관가지도 《해외기(海外記)》에 실려 있었다. “태종조에 이왕(李王)이 양을 그린 그림을 바쳤다. 그림 속의 양이 낮이면 난간 바깥에서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난간 안에 들어와 자는데, 아무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하였다. 승려 친영이 ‘이것은 환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남쪽 왜국에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 속의 물을 물감에 섞어 다른 물건에 바르면 낮에는 분명하게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옥초산의 돌을 물감과 함께 갈아서 물건을 염색하면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였다. 이 두 가지 대동소이한 이야기는 기록자의 잘못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나온 것이다.】

방부가 만약 왜국에서 난다면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채인의 기질로 볼 때 왜 어대 알지 못했겠는가. 송나라의 강예지(康輿之)가 《작몽록(杻夢錄)》¹⁵에서 “고려의 동쪽에 맹렬한 화력을 내는 기름”이 난다. 한여름에 태양열이 돌을 극도로 뜨겁게 달구면 돌에서 액체가 흘러

나오는데, 이 액체는 다른 물건에 닿으면 불이 붙는다. 이 액체는 오직 질짜 유리병에만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신기한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또 《본초강목》에도 나온다.

【《본초강목》에 “물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맹렬한 불꽃이 확 일어난다. 남은 화력을 물에 넣으면 물고기가 모두 죽는다. 《어동(魚冬)》과 《작몽록》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다” 하였다.】

우리 조선에 맹렬한 화력을 내는 기름이 어디 있던 말인가. 옛사담이 길거리에 나도는 낭설을 근거 없이 믿어 기록한 것이다. 사람의 눈과 귀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늘 이렇게 만들어진다.

들어와 자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13 송나라 덕종(德宗) 때의 학자. 박학다식하여 전고에 밝았고, 식학사(食學士)를 지냈다.

14 실관관(史館),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을 말한다.

15 송나라의 강예지가 찬한 것으로, 1권이다. 북송의 원사(源事)를 기술하였다.

16 석유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辨證說 龜

● 거북은 접데기가 있는 과충류의 왕으로, 사령(四靈) 가운데 하나다. 이름은 채(蓑)다. 낙수(洛水)에서 거북이 서(書)를 바친¹ 이래로 유명해졌다. 경전과 역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거북점은 복희(伏羲) 시대에 시작되었으니 예부터 있어온 것이다. <주관(周官)>에 따르면 '귀인(龜人)'²이라는 관직을 만들었고, <홍범(洪範)>에 따르면 '계(稽)'³라는 조목을 만들었으며, 사마천은 <귀첩전(龜策傳)>을 저술하였으니, 그 이치를 감출 수가 없다. 짐을 치는 직책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자 세상에 드디어 거북점 치는 방법을 정말하게 아는 자가 없어져 <홍범>에서 말한 '우

1. 하나라의 우임금이 황하의 지류인 낙수(洛水)를 경비할 때 그곳에서 신령한 거북이 나왔다. 그 거북의 등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 모양을 본떠 우임금이 '홍범구구(洪範九疇, 정치 도덕의 아홉 원칙)'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흔히 낙서(洛書)라고 한다.
2. 거북점을 치는 주(周)나라의 관직 명칭.
3. 거북점 칠 사람을 뽑아 그 사람으로 하야금 앞날의 조짐을 점치게 하는 것.

『雨』⁴니, 『계(蟹)』⁵니, 『몽(蒙)』⁶이니, 『역(歷)』⁷이니, 『극(克)』⁸이니 하는 거북껍질의 이름은 있어도 먹을 먹는지, 먹을 먹지 않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마천이 사계절을 나누고 길흉을 정하여 횡(橫, 가로로 갈라지는 형상), 정(正, 반듯하게 갈라지는 형상), 안(安, 균형을 잃지 않는 형상), 절(絶, 마디처럼 갈라지는 형상)의 형상을 가지고 거북의 몸통을 살피고, 금(金, 오드런 형상), 개(開, 열린 형상), 부(阜, 구부린 형상), 태(太, 활짝 퍼진 형상)의 형상을 가지고 거북의 머리와 발을 살피었으나, '우'나 '몽'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 후 위인 직책은 또 오향(五嚮)의 동징과 수족(首足)의 모양을 정하는 데 불확하게 되었다.

도종의(陶宗儀)⁹의 《설부(說部)》¹⁰에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귀

4 수기(水氣)의 조짐을 점치는 것.

5 화기(火氣)의 조짐을 점치는 것.

6 목기(木氣)의 조짐을 점치는 것.

7 금기(金氣)의 조짐을 점치는 것.

8 토기(土氣)의 조짐을 점치는 것.

9 1521~1407, 자는 구성(九成), 호는 남촌(南村)이며, 진강(鎭江) 대주(臺州) 황암(黃巖) 사람이다. 도연명(陶隱明)의 후손이다. 영리(靈利)를 닮아서 알아 참변하게 살았으며, 오직 직 쓰는 일로 즐거움을 삼았다. 그의 명실 저서는 10여 부(部), 수백 권(卷)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청경록(靑鏡錄)》과 《서사희요(書史彙要)》, 《설부(說部)》, 《남촌시집(南村詩集)》 등이 있다.

10 원말 명초에 살았던 도종의가 편찬한 총서(叢書)의 이름. 도합 100권의 저술이며, 이에 수록된 조목(條目)은 수만을 헤아린다. 진한(秦漢)대 이후 송원(宋元)대에 이르기까지 제가(諸家)의 작품을 수록했으나, 그 외란 범위는 제자백가, 각종 팔기(八記), 시화(詩話), 문론(文論) 등을 망라한다. 내용은 경사전기(經史傳記), 각종 암서(叢書), 고고박물(考古博物), 산천풍토(山川風土), 증어초목(蟲魚草木), 사사명론(詩詞評論), 고문기자(古文奇字), 기문괴사(奇聞怪事), 문목성상(文木成象) 등이다. 양승(揚聲)이 "전지는 만물의 성격이요, 오경은 모든 논설의 성격이다(天地萬物類也 五經衆說也)"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서(龜書) 한 편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이름만 남았고 내용은 알 수 없다. 이화(李華)의 《복론(卜論)》에서는 "거북은 다른 사물을 해치지 않는다. 우주의 원기를 호흡하여 파충류의 왕으로서 장수한다. 옛날 성인은 거북을 잡아 도려낸 다음 불에 태워 등이 찢어지는 획의 모양을 보아 길흉을 정하였다. 곡숨을 끊고 수명을 끊으니, 곧 신령한 파충류를 잔인하게 죽여 신령함을 맞이하는 것인데, 어찌 그 단서가 맞겠는가? 머는 껍데기에 의지하여 미래를 결정하니, 어찌 그 길흉이 맞겠는가?" 하였다. 이 책의 주장은 거북점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설원(說苑)》¹¹에 "거북은 천년을 살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였고, 《객중환집(客中閑集)》에서도 "거북은 천년을 살고 사람 말을 할 줄 안다" 하였다. 《안필석주방진(安必石朱方進)》에서는 "신령한 거북이 강남 가림현(嘉林縣)에 살았다. 이 거북은 천년을 살았는데 크기가 동전처럼 작았다. 연일 위에서 노닐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북의 수명은 3600세다" 하였다.

《포박자(抱朴子)》¹²에 "신령한 거북은 오색 빛깔이 마치 옥빛 같다.

11 한(漢)나라의 유헤(劉向)이 고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고사와 격언을 말라려 편찬한 서적. 임금과 신하의 도리, 격언, 국가의 근본을 본분하게 하는 방법, 번주, 군사 등 다양한 방면의 내용이 실려 있다.

12 동진(東晉)의 관용(葛洪)이 지었다는 도가 정전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뉜다. 내편 20권에서는 수련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황벽(黃白), 금단(金丹), 복기(服氣)의 신선술과 신약을 먹는 수련 방법을 소개하고, 완전한 체계를 갖춘 도교 원학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진(晉)나라 이전 도교사의 중요한 저작이다. 황벽술과 금단술에 기록된 화학 기술 방법을 보면 중국 고대의 연단술(鍊丹術)이 현대 화학의 선구였음을 알 수 있다. 외편에서는 군주가 현명한 사람을 예우하고 유능한 사람을 등을

음기를 등지고 양기를 대하며, 위가 불룩한 것은 하늘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의 형상을 본받은 것으로, 용의 운신은 사계절에 조응한다. 뱀의 머리에 용의 목을 하고 있으며, 왼쪽 눈동자는 태양을 상징하고 오른쪽 눈동자는 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길흉과 존망의 변화를 인다” 하였다. 또 “거북은 천년을 살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하였다.

《예문유취(藝文類聚)》¹⁴에 “저보(積寶) 산생이라 이름 붙은 거북에게는 재물이 물러드니, 그 거북이 있는 집은 들림없이 크게 부유해진다. 첫째는 북두귀(北斗龜)요, 둘째는 남진귀(南辰龜)요, 셋째는 오성귀(五星龜)요, 넷째는 팔풍귀(八風龜)요, 다섯째는 이십팔수귀(二十八宿龜)요, 여섯째는 월귀(月龜)요, 일곱째는 왕귀(王龜)요, 여덟째는 구주귀(九州龜)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산에 사는 큰 거북은 사람이 등 위에 올라타도 업고 다닐 수 있다” 하였다.

안계(安溪) 이광지(李光地)가 말하기를 “〈오오도(五五圖)〉란 옛날 거북점을 치던 수를 그려놓은 도판이다. 오행의 산법에서 기원한 것이다. 《홍범》에서 말한 ‘우’니, ‘제’니, ‘몽’이니, ‘역’이니, ‘극’이니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5와 5를 곱하면 25가 되고, 여기에 다시 5를 곱하면 125가 된다. 오늘날엔 비록 그 방법이 전하지 않지만, 《홍범》

14 이 책 권림(卷林)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유가의 이란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경전은 내도의음(內道外儀), 즉 도교와 유학이 결합된 관공의 사상의 특성을 한 보여주는 책이다.

15 당나라의 구양순이 편찬해 625년 간행된 유서(類書), 고대(古東)의 고사(故事)를 천(天), 세사(歲時), 지(地), 주(州), 군(郡), 산(山), 천(田) 따위의 48부로 나누어 사신을 기록한 다음, 이어 관제되는 시문(詩文)을 실었다.

과 《주례》의 주석을 보면 그나마 고찰할 수 있다” 하였다.

“거북의 턱에 토끼의 뿔(龜毛兔角)”¹⁵이라는 말이 《능엄경(楞嚴經)》에 나온다. 그러나 《술이기(述異記)》에도 역시 “은나라 말엽 폭군 주(紂)임금이 정치할 때 큰 거북의 등에 달이 나고 토끼의 머리에 뿔이 돋았다. 이것은 바로 전쟁이 곧 일어날 조짐이다” 하였다. 다만 이미 없어진 수씨(雋氏)¹⁶의 비결을 논하여 그 허무한 설을 취한다면 그것은 상문중(臧文仲)이 제(蔡)를 보좌한 일¹⁷과 같아진다. 그런 까닭에 알 수 있는 것을 징험하여 실용성 있는 것을 대략 변증하려 한다.

먼저 그 성질을 논해보자. 《본초강목》과 《물리소지》에 “향유(香幽)를 거북의 눈에 바르면 물에 들어가도 수면에 떠 있을 뿐 침수하지 않는다. 쇠소리를 들으면 숨고, 모기한테 물리면 죽는다. 늙은 뽕나무와 함께 꼭 끓이면 잘 익는다. 대개 웅크려 있는 파충류로서 햇빛을 따라 움직이다가, 잠갈 때는 귀로 숨을 한다. 암컷만 있고 수컷은 없으니, 거북과 자라가 이런 동물이다” 하였다. 물리서에서는 “거북과 자라는 그림자로 잉태를 하고, 두꺼비는 소리로 잉태를 한다” 하였다.

14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혹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표현한 말이다.

15 고대에 거북점을 치던 사람 혹은 거북점을 치던 사람의 관직을 말한다.

16 《논어》 〈공야량(公冶長)〉에 공자가 “경문중이 큰 거북인 제(蔡)의 동학지를 보좌하되, 그 땅의 두공(斗公)에 산(山) 모양을 세기고 그 기둥에 수조(水藻) 두서너개 그려 넣어 화려하게 꾸몄다. 어찌 그를 지체롭다고 하겠는가(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 하고 나무리는 말이 나온다. 아무런 실상 없이 명목적으로 믿으며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이다.

거북을 기르는 방법은 이렇다. 《물리소지》에 “거북이 병들면 의당 지렁이와 뱀과 밥을 먹어야 한다” 하였다.

《고금비원》에 “거북에게 푸른 털이 자라나게 하는 법은 이렇다. 크기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검은 거북의 등딱지 위에 천연 생강즙을 몇 차례 바르면 푸른 털이 난다. 생강즙을 바를 때 그 위에 진흙을 써서 바르면 더 잘 난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기주(畿州)에 사는 거북은 작은 봄집에 푸른 털이 길게 자란다. 후 등딱지를 긁어낸 다음 부추를 찢어 덮어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푸른 털이 난다. 푸른 털이 난 작은 거북을 대나무 상자에 넣어두면 좀을 물리칠 수 있다” 하였다.

《고금비원》에 “거북을 길러 사람의 하얗게 선 수업을 염색하는 법이 있다. 커다란 검은 거북 한 마리를 기저터놓고 하루나 이틀을 굶긴다. 장차 물을 마시게 할 때 육골(肉骨)과 과자와 붕로 익힌 음식을 함께 먹인다. 이렇게 3개월이나 5개월간 먹인 뒤, 밤에 옷칠한 케박에 넣는다. 미리 대나무를 케박 입구에 놓아두어 공기가 통하게 한다. 바깥에 등잔 하나를 밝혀두고 케박 안을 달구면 거북이 절로 오줌을 찬다. 급하면 마유(麻油)를 태운 연기를 거북의 코에 쐬면 되는 데, 역시 즉시 오줌을 찬다. 먼저 오배자(五倍子)¹⁷ 가루에 식초를 넣고 잘 반죽해두었다가 거북의 오줌을 받은 작은 종지 하나에 오배자와 식초 반죽 반 종지를 섞어 용기에 넣어둔다. 이것을 모아 한 차례 끓인 다음 네모난 용기 항아리에 저장해둔다. 새로 만든 솜으로 살짝

씩어 바르면 하얗게 선 수업이 다시 검게 변한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얼굴이 검어진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거북의 등딱지는 대모(戴毛)¹⁸와 같다. 노란 등딱지는 있고 검은 얼룩 등딱지는 있는데, 귀고(龜膠)¹⁹로 쓴다. 귀고는 검은 것이 많다. 중탕한 것을 쓰면 흡수하는 자가 총명해진다” 하였다.

《물리소지》에 “거북의 오줌을 용기에 묻히르면 부드러워진다. 거북의 오줌으로 먹물 갈아 옥이나 돌이나 나무나 대 위에 글씨를 쓰면 먹이 표면으로부터 몇 톨 길이까지 뚫고 들어간다. 모두 시험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물리사에 “기르는 거북의 왼쪽 척추에 큰 뼈를 두르고 있으면 자 손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난다” 하였다.

도가사에 “신령한 거북의 앞쪽 왼쪽 어깨에는 관공치베가 있다.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면 길을 잃지 않고 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다.

책은 거북의 배 접질은 의학 사적을 보면 약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여기서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물리사에 “벼락 맞은 나무를 구해 거북 형상으로 깎아 목귀(木龜)를 만든다. 목귀를 공중에 매달아놓으면 거북이 모두 모여든다” 하였다.

《인수옥서영(因樹玉書影)》²⁰에 “황산(黃山)의 필공(畢公)이 오랫동안

17 한약 치료의 하나. 곰나뭇에 기생하는 벌레의 껍질로 만든다. 기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이나 지혈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18 현대 지방에 사는 바다거북의 등딱지. 약용으로도 사용하며, 색깔이 아름다워 장식품으로도 쓴다.

19 거북의 등딱지를 고아 만든 약재. 경화제로도 쓴다.

20 청나라의 식물학자 주한공(周漢公)이 지은 백과사전적 지술.

안 모래알갱이 같은 암절을 읽었다. 모래알갱이만 한 벌레는 모두 개의 형상을 닮았다. 운주(潤州)의 어떤 의원이 약을 제조하는데, 거북의 배 껍질을 많이 사용하였다. 만년에 온몸에 독충이 올라 고생을 하여 비하(飛霞)²¹에게 증상을 말하였다. 비하가 '이것은 기생충입니다. 지금 배 속 가득 모두가 거북입니다' 하고는 곧 붉은 환약 몇 알을 주었다. 이것을 먹고 거북을 배설하였는데, 크기가 콩만 하였고 큰 것은 한 뼘 남짓 하였다' 하였다.

《경험방(經驗方)》에 "입술에 난 종기에는 거북의 간을 붙이면 효험이 있다. 낮지 않는 자는 마른 간을 물에 적서 붙인다" 하였다.

● 대모 기르는 법을 또한 부록으로 번증한다.

《민소기(麟小記)》에 "대모는 모습이 거북과 흡사하다. 등딱지가 열세 조각인데, 흑백의 얼룩무늬가 서로 섞여 비늘처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온 등딱지가 차마 주름처럼 결이 아름답다. 이발은 툼니와 같다. 다리는 없고 네 개의 지느러미가 있다. 앞에 달린 두 개의 지느러미는 마치 노처럼 생겼고, 뒤에 달린 두 개의 지느러미는 지극히 짧다. 그 위에는 모두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다. 이 네 개의 지느러미로 물을 저어 다닌다. 바다 사람이 소금물에다 이놈을 기를 때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준다. 세상의 전설에 따르면 매년 갑자일과 경신일이 되면 먹이를 먹지 않아 그날을 대모가 재계하는 날이라고 한다" 하였다.

《영남잡지(嶺南雜志)》에 "대모의 등딱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

모의 몸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끓인 식초를 뿌리면 곧 조각조각 손은 대는 대로 떨어진다. 황색이 많고 검은색이 적은 대모는 풀기 현상을 일으킨다" 하였다.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에 "대모의 등딱지 한 조각을 차고 있으면 독이 있는 음식을 대할 경우 대번 질로 흔들린다고 한다" 하였다. 또 《강희자전(康熙字典)》과 《정자통》 등의 책에도 이런 내용이 보인다.

《물리소지》에 "실팔아(撒八兒)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대모의 유정(遺精)²²을 상어나 물고기가 먹고서 토해내면 이것이 오랜 세월 속에 단단하게 엉겨 만들어지는데, 가격이 금값이니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²³ 하였다. 옛사람의 거북이 혹 애매모호한 것이 이렇게 나 많다.

● 우리 조선의 동영 앞바다에서 어부가 큰 거북을 그물로 낚아서 올렸다. 크기가 집체만 하였다. 미리를 내뿜고 사람을 보는데 마치 호소하는 듯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떤 사람이 20금(鎊)을 주고 사가서 죽인 다음, 쇠로 만든 편자를 달구어 등딱지를 지졌다. 등딱지가 뜨디어 탈아올라 떨어졌는데, 락 두꺼워 대모보다 훌륭하였다. 그 사람의 집안은 오래지 않아 몰산당하였다. 사람들은 거북 때문이라고 하였다.

《탐라지(耽羅志)》에 "대모는 우도(牛島)와 대정현(大靜縣)의 개과

22 교미를 하지 않고 그냥 흘러내린 정액을 말한다.

23 원문은 '물유공용(不出功用)'인데, 《오주연문장전산고》〈학정산환아변증설(續讀撒八兒辨證說)〉을 참고해볼 때 '물유공용(必有功用)'의 원초 과정에서 잘못 옮긴 것으로 보아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도(德說圖)에서 난다' 하였다. 대모는 순우리말로 '악(若)'이라 한다. 거북과 대모는 유서(類書), 폐기(禮記), 자서(字書), 총서(叢書) 등에 보이므로 중복하여 변증할 필요는 없다. 거북은 순우리말로 '거북(黿龜)'이라 한다. 혹 남성(鹿母, 남생이)이라 하기도 한다. 도가서에 나오는 현무(玄武)는 곧 거북과 뱀의 모습을 합한 형상이므로 현귀(玄龜)나 무사(武蛇)라고 하기도 한다. 주자가 논한 내용에도 또한 그렇게 되어 있다. 본래 북방의 별자리인 허성(虛星)과 위성(危星)이 이와 비슷하다.

辨證說 五總龜

● 세상에 사람의 특징을 호칭하는 동물은 용, 봉황, 기린, 거북 외에
도 흑 약(鵲, 알수리), 응(鷹, 매), 응(熊, 곰), 비(熊, 큰곰), 호(鹿, 뿔), 표
(豹, 표범), 학(鶴), 난(鸛, 난새)이 있다. 흑 사람을 금지옥염(金枝玉葉)
이나 지란(芝蘭)과 같은 것에 비하기도 하는데, 대개 그 사람됨을 취
하여 말하는 것이다. 오총귀는 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여러 책을 널리 고찰하여 그 의미를 밝혀서 다시 여기에 변증하였다.

살펴보건대 《당서(唐書)》〈은천유전(殷綽猷傳)〉에 “은천유는 학학
다식한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씨족(氏族), 역수(藝數), 의학에 더욱 통
달하여 대시인 하지장(崔知象)¹이 일찍이 그를 오총귀라고 불렀다. 이

1 659~744, 자는 계진(季眞) 또는 유미(維靡), 호는 사명장객(四明狂客)이다. 절주(越州) 영흥(永興, 즉 지금의 진강성(浙江省) 회계(會稽) 사람이다. 태상박사(太常博士)를 거쳐 725년 예부시랑, 태자빈객(太子賓客), 비서감(秘書監)을 역임하였으며, 7년만에 경호로 낙향하여 문학과 술로 여생을 즐겼다. 당나라의 대시인으로, 중류와 낭만이 된지는 서

거북은 1000년 만에 다섯이 함께 모여,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다* 하였는데, 하지장이 은천유를 오총귀라 부른 것은 대개 이런 의미를 띤 것이다.

진계유(陳繼儒)가 말하기를 《설원(說苑)》에 ‘거북이 천년을 살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본래 안진경(顔真卿)이 지은 《은천유묘비(殷踐獻墓碑)》에 나오는 말이다. 거기에 ‘안원손(顔元孫), 위술(韋述), 하지장, 육상선(陸象先)과 은천유 이렇게 다섯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오총귀라고 부른다 하였다. 오총귀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띤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거북에 비유한 것이다.

또 극맥(扃擗)* 하는 책을 또한 오총귀라고 한다. 다섯 사람에게 물으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딴 것과 같은 발상이다. 사람에게 대해 오총귀라 하는 것과 책에 대해 오총귀라 하는 것이 모양 서로 뒤섞여 분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억지나마 이렇게 변증한다.

* 불 쪼고 이리과 두보외도 원전한 사이였다.

海粉母 辨證說

● 해분모란 해분(海粉)을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지금 한약방에 쌓아 놓고 파는 해분은 사람이 인공으로 제조한 것이니 진품이 아니다. 이른바 해분모라는 동물은 여러 서적에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또 서로 다르다. 지금 모든 것을 변증한다.

방이지의 《물리소지》에는 해분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해분모라는 동물은 해분을 토해내는 놈으로, 허포(荷鮑)¹처럼 푸르다. 물도 이곳으로 들어가고 배설물도 이곳으로 나온다. 오늘날 해분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해분모가 배설한 것이다. 해분모는 김은 물고기처럼 생겼고, 크기는 3~4촌쯤 된다. 거물에는 집에서 기른다. 봄이 되면 바닷가 개펄에 이놈을 심어놓은 다음 대나무를 개펄 속 여기저기에 꽂아 둔다. 그러면 해분모가 대나무를 타고 올라와 해분을 배출한다. 이것

1. 푸른색 비단주머니. 허락(荷囊)이라고도 한다. 녹색 비단을 가지고 연잎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이 진짜 해분이다.’

사즈제(鮫鯨)의 <오잠조>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해분은 바로 기복류 동물의 배 속에 든 위장 분비물이다. 큰 돌로 등을 눌러두면 입으로 가루를 토해내는데, 다 토해내고 나면 죽는다. 이 토해낸 것을 해분이라고 한다. 재계를 수행하는 승려가 늘 이것을 잘못 먹었다.”

이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재계(齋戒)를 수행하는 승려가 이것을 잘못 먹었다(持齋誤食)’라고 한 내용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다. 중국에서는 해분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절에서 승려가 재계를 올리는 날 소찬(素飧)으로 썼던 것인가?

인공 해분 제조법이 <약성(藥性)>에 실려 있으므로 이것도 함께 번증한다.

자해분(鮫海粉) 한 근을 끓여질 때까지 분에 끓은 다음 어린이의 소변에 세 차례 담갔다가 가루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때 노란 하늘타리를 함께 천백 번 머구 짓뎠어 떡을 만든다. 삼간으로 꿰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매달아 바람에 말린 다음 처방에 따라 쓴다.

辨證說 蟹乞救命

게가 목숨을 구걸한
전설에 대한
변증설

● 모든 동물은 아주 작은 것도 성정(性情)을 가지고 있어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은혜와 원수를 갚는 이치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다른 동물은 우선 인급할 겨를이 없고, 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무척 신령하고 기이한 일이 있다. 그래서 억지니마 변증한다.

사전에는 개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바깥은 배이고 속은 살이다. 따지가 있는 동물로서 열으로 걷는다. 여덟 개의 작은 발과 두 개의 큰 집게발이 있다. 일명 객사(郭索) 또는 무상공자(無相公子)라고 한다.”

오진염(吳諫楨)의 《광원잡지(廣源雜志)》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동양(東陽) 좌국림(左國林)에게 방 아무개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가 찾아와 게 열두 마리를 삶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그 전날 밤 좌국림의 벗 호여립(胡爾立)의 꿈에 열두 사람이 찾아와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우리는 본디 갈웃 입을 무사로서 가을 바다

의 고정에서 명성을 날리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애치롭게 울며불며 복수를 구걸하였다. 그리고 급히 십공당(十工堂)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였다. 또 각각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였는데, 제일 인쪽에 있던 한 사람은 호여립과 옛날에 잘 알고 지내던 자로서 좌국립과도 역시 교분이 있었다. 호여립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이튿날 좌국립을 찾아가 꿈꾼 내용을 말하니, 좌국립이 소스라치게 놀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갑옷 입은 무서란 게를 말하고, 십공이란 좌(左)를 좌자한 것으로,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네. 열두 명의 무사는 열두 마리의 새와 수가 일치하는군. 그중 한 사람은 나와도 잘 알고 지내던 자일세. 그대가 나에게 이렇게 일찍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후회마금일 뻔하였네." 좌국립은 이 일이 있고부터 새와 자라를 먹지 않으려 조심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지 말라고 권하였다. 이는 선한 사람에게 살생을 금하라고 경계할 때 아주 좋은 일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출가한 승려가 아니라면 고기를 먹지 않기로 역시 어려운 일이다.

辨證說海鏡水母

● “해경(海鏡)은 게로 배를 삼고, 수모(水母)는 새우로 눈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대부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는 동백이시진의 《본초강목》에 상세히 실려 있다.

【이시진은 “해경은 일명 경어라 부르기도 하고, 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고약반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해에서 생산된다. 두 개의 조개껍데기가 서로 합함으로써 모양을 이룬다. 조개껍데기는 마치 가을처럼 둥글고 가운데가 몹시 반짝거리며 딱고럽다. 햇빛에 비추어보면 운모와 같다. 속에는 조개의 태반 같은 살이 조금 있다. 조개 안에는 기생하는 생물이 있는데, 크기는 콩알만 하고 모양은 게를 닮았다” 하였다. 내가 《월절서(越絶書)》를 살펴보니 “혹은 불을 갖다 대면 게가 뛰어나온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곧장 죽어버린다. 혹은 살아 있는 해경을 가르면 배 속에 살아 있는 게가 있는데, 이물어물하다가 역시 죽어버린다” 하

1 조개의 원종으로, 배 속에서 속살이게가 기생한다.
2 해파리나 히드라 같은 부유생물을 가리킨다.

었다. 지금 우리 조선에도 대합이라 하는 조개가 있다. 크기는 몇촌 되지 않지만 길라보면 그 속에 혹 작은 게가 들어 있다. 크기는 콩만 하고 색깔은 홍백색이며 꿈지락꿈지락 힘이 없고 금방 죽어버린다.³ 먹으면 맛이 달고 비린내가 없다. 민간에서는 체증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본초강목》을 고찰해보니, 방합 아래의 주석에는 없고 해경 아래에 달려 있다. 동벽 이시진은 왜를 일명 해경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한서》〈지리지〉를 살펴보니 '결기정'에 대해 안사고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 해설하였다. "결(結)은 음이 결이니 조개의 한 종류다. 길이는 1촌 이고 너비는 2촌이며, 그 속에 작은 게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 왜가 결기정인 듯하니, 왜는 마땅히 작은 조개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해경의 별칭이 될 수 있겠는가?

수모 역시 바다에서 난다. 호들호들한 덩어리로 엉거 있고 눈은 전혀 없다. 늘 몇 마리의 새우가 너울거리는 배 아래에 가생하며 눈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새우가 가면 수모도 가고 새우가 멈추면 수모도 멈춘다. 하루는 파도가 크게 쳐서 새우가 이탈하자 수모는 마침내 해변 모래밭에 쓰러져 죽었다. 《본초강목》에 또 기거충(寄居蟲, 기생생물) 조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주석에 "기생생물은 소라 껍데기 사이에 있다. 그곳에 기생하는 바다 생물이 많다" 하였다. 이는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며, 《안자(晏子)》와 《열자(列子)》의 우언(寓言)에 나오는 초명(鰲)과 같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다.

초명은 어떤 생물인가?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동해에 어떤 바다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모기의 눈썹 위에 등지를 들고 사는데, 와서 새끼를 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도 모기는 그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신안영은 그 생물의 이름을 모릅니다. 다만 동해에 사는 어부는 그것을 초명이라 부른답니다" 하였고, 《열자》에 "강과 바다 지역에 사는 작은 생물 가운데 이름이 초명이란 놈이 있다. 때를 지어 날아다니며 모기의 눈썹에 등지를 들고 사는데도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 서식하여 왔다 갔다 하여도 모기는 모른다" 하였다.]

●가령 해경이 새 몸 안에 사는 게에게 끓주림과 포만을 시샘한다면 공명조(共命鳥)처럼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불교의 《잡보장경(雜寶藏經)》에 '설산(雪山)'⁴에 공명조라는 새가 있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다. 한쪽 머리의 새가 늘 맛난 과일을 먹어 몸을 편안하게 보존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 머리의 새가 문득 시샘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한다. '저놈은 늘 이렇게 저러 좋은 과일을 먹을까? 나는 먹어보지도 못한 것음.' 그리고는 곧장 독이 있는 과일을 먹어 곧 두 머리의 새가 모두 죽는다" 하였다. 이 부분의 주석에 "공명조는 또한 명명조(命命鳥)라 하기도 하고, 생생조(生生鳥)라 하기도 한다" 하였다.]

가령 수모가 새우에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는다고 싫어한다면

3 속선이개를 설명한 것이다. 속선이개는 속선이것파의 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먹지의 두께는 암컷이 13mm, 수컷이 8mm 정도다. 주로 조개나 껍살리 등의 해양 생물에 기생하는데, 굴속살이개, 대합속살이개, 심속살이개 따위가 있다. 다른 말로 숨이개라고도 한다.

4 히말라야산맥을 가리킨다. 사시사철 흰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설산이라 부른 것이다. '히말라야란 때로는 눈과 얼음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당장 낭패(狼狽)처럼 비틀대다 쓰러지는 우환을 겪을 것이다. 【《유알 집초》에 “낭(狼)이라는 이리와 패(狽)라는 이리는 두 종의 동물이다. 패는 앞다리가 유난히 짧아서 어딘가로 갈 때면 항상 두 마리의 낭 위에 앞다리를 얹어야 하니, 낭이 없으면 패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세 간에서는 일이 어긋나버리는 것을 낭패라고 한다” 하였다.】

그래서 비공(備公) 진제유가 혜경과 수모를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경하였다. “저놈들이 죽는 것은 새우가 밖에 있고 안에 있지 않은 새닭이다. 저놈들이 너울거리 품고 있는 것은 새우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생각하기를 ‘개를 품은 혜경과 새우를 눈으로 삼는 수모를 비롯한 사람은 또한 제 자신은 촛불의 밝음을 빌려 눈을 삼고, 우마의 진흙을 빌려 다리로 삼고, 물고기와 고기의 배부름을 빌려 배로 삼는 줄을 모르는 것이다. 혜경과 수모가 사람 사는 모양을 본다면 도리어 비웃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辨證說 刺姑

●《영고탐지(幸古唐志)》【동성파(洞城派) 학자 소암(蘇菴) 방공건(方拱乾)의 저서】을 살펴보니 “자고는 새우처럼 생긴 몸에 게처럼 두 개의 집게발을 가졌다. 크기는 한 마디쯤 된다. 썰어서 판 기름을 지금까지 종묘에 반드시 제수로 올리므로 제례일이 다가오면 역말을 통해 급히 궁궐에 바친다” 하였다. 이름은 우리 조선에서 ‘가아재(加牙才)’라고 부르는 동물이다.

《본초강목》에는 석해(石蟹) 또는 방해(旁蟹)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문유해》와 《역어유해》의 두 유해류(類解類) 서적과 《사상통해》 등의 서적에는 석해, 자고, 도충(倒蟲), 합십마(拾什馬) 등의 이름을 모두 썼는데, 거기에 일체 ‘가재(加才)’라고 혼을 덮었다. 그런데 각각의 이름에 오묘한 의미가 담겨 있다.

《객중한집(客中閑集)》에는 “옆으로 다닌다. 게의 종류다” 하였다. 《한준격물(漢準格物)》에는 “게는 바다 동물로, 다닐 때는 머리를 반드시 동쪽을 향한다. 석해(加才)는 바닷물 동물은 아니지만 다닐 때

는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뒤로 가니, 역시 개의 종류다. 바다 소라의 한 종류인데, 민물에 사는 것으로는 전라(田螺, 민물우렁이)와 수사(水蠃, 다슬기)라는 종류가 있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가재를 개의 종류에 포함해놓았으니, 개의 일종임이 분명하다. 산길짜기 재목의 자갈과 돌 아래에 덩시 많다. 잡아서 찌 먹거나 푹 구워 먹는다. 다만 나무하는 아이나 소치는 아이가 잘 아먹는 것이지 어른은 반가워하지 않으니, 습속이 그렇다. 청나라에서는 종교에 제향을 올릴 때 쓰는 음식이라고 하는 걸 보니 청나라의 조종(祖宗)이 만주 영고담 지방에 있을 때 잡아서 재수로 올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들어와 중원의 주인이 되어 갑자기 재해를 소유하여 천하로 제사를 받들더라도 여태까지 옛 조상이 즐겼던 맛은 잊을 수 없어 종교제례의 재수에 올린 것이다. 이는 옛날 지해(貳醜)¹와 같은 것인데, 방공진이 기록한 것이다.

혹자는 “이 물건은 곧 곰땀이 탈태하여 변화한 것이니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는 뱀이 변하여 닭이 되거나 자라가 되고, 두꺼비가 변하여 복어가 되고, 송충이가 변하여 물고기가 되고, 배뚜기가 변하여 새우가 되고, 쥐가 변하여 개가 되고, 멧똥이 변하여 메추리가 되고, 닭이 변하여 큰 구렁이가 되고, 다시마가 변하여 거머리가 되고, 도라지가 변하여 곰땀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모

든 사물은 상호 다른 사물로 변화하는 이치가 많으니, 원래 변하기 전의 동물을 따지곤다면 하필 자고만 그렇겠는가,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식사를 전제하여야 될 것이다. 옛날 사람 가운데는 대바구니를 찌서 방개를 먹는 사례도 있었다.

【송나라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토(鶴林玉露)》에 “옥들을 깔고는 돌맹이를 보배로 여기고, 대바구니를 찌서 방개를 먹는 경우가 있다. 식견 있는 이가 적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재를 먹는 것에는 대바구니를 찌서 방개를 먹는 잘못은 아예 없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가재를 잡아 산 높을 마구 찢은 다음 쪼임으로 찌서 습한 땅속에 묻어두면 변화하여 거머리가 된다” 하는데,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말인지는 알 수 없다.】

● 의학 관련 서적을 보면 가재를 약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다만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킨다.

【생각건대 가재의 성분과 맛은 개와 같다. 개의 독에 민감할 경우 차조기 잎을 달여 복용하면 된다. 옛날 송나라의 효종이 개를 꾀다하게 먹어 설사를 심하게 하였다. 당시 임방어(鰲防鰲)라는 이가 신우산(新鰲散)과 신우절(新鰲節)을 가져다 가늘게 찢어 데운 술에다 타서 복용하게 하니 신기한 효과가 있었다. 대개 냉하여 생긴 설사이기 때문이다. 가재의 독에 민감할 경우에도 이 처방을 참고하여 쓰는 것이 좋을 듯

1. 개미 원로 담근 짓. 상고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 종교에 종묘의 제사에 올렸다. 그 기록이 《주례》에 나온다. 뒤에 원나라의 경학자 송몽재(宋蒙叅)가 이것에 대해 고기짓이나 조개짓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이규경의 조부 이덕무가 중국 교주(交州) 계동(鷄洞)의 주장이 대부분 개미 알을 수집하여 짓을 담근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미 원로 담근 짓임을 반증하였다.

2. 남송 진주(진주) 이봉(鰲鰲)이란, 자는 경봉(景鰲)이다. 《학림옥토》의 저자로 유명한데, 이 책은 그가 복서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기술한 것이다. 괴대한 경치를 전격하고 인물을 평가하며 시문을 평론하는 데 종종 독보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다.]

상공 김육(金瑬)³의 <집곡필담(滌谷筆談)>에 “구렁이가 가재에게 물리면 죽는다. 까닭에 사람이 구렁이에게 물렸을 경우 가재를 받아 바르면 금방 낫는다” 하였다. 이것 역시 특이한 정보이다. 고래로 사물에 대해 연구하여 박학다식한 이들은 모든 사물들에 대해 달걀만한 일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한다.

게와 가재를 예로 들어 말해보자면, 배 속에 벼처럼 생긴 작고 흰 구슬이 들어 있다. 아주 동그란 두 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하나의 알갱이가 되고 나누면 두 개의 관이 된다. 모든 수중 생물은 알을 배 속에 품는 데 비해 게는 황후색의 작은 쭈뼌 같은 알을 자기 꼬리 안쪽에 소복소복 쌓아두고는 꼬리로 덮는다. 가재의 알은 기장 알갱이만 하고, 색은 황갈색이다. 역시 꼬리 안쪽에 다닥다닥 붙여놓고 꼬리로 덮는다. 이렇게 알을 품는 모습을 보면 게와 가재가 어종은 다르지만 종류는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배 속에 내장이 없는 대신 누린 물질이 있는 것도 게와 같고, 장을 담그는 것도 당게장 담그는 방법과 같이 하면 된다. 그러나 가재 장을 담그는 사람은 없다.

● 게가 집게발과 함께 보며로운 것은 반드시 악용으로 쓸 곳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예전에 기록해놓은 내용이 없으니 몹시 안타깝다. 지금 가재에 대해 말하는 자고설(細姑說)을 계기로 게에 대해서도 아

무리 기록하고자 한다.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僉說)>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갯가와 바다 연안에는 게가 많다. 내가 본 것은 10종이다. 여항(呂尙)의 <십이종번(十二種辨)>과 <해보(蟹譜)>, <본초강목>, <도경(圖經)>, <자의(字義)> 등의 서적과 상세히 대조해본 결과, 생김새가 서식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관찰 내용과 지식에 잘잘못이 있었다. 팽해(彭蟹) 종류는 악에 넣으면 맛이 좋다. 두 개의 큰 집게발과 여덟 개의 작은 발은 모든 게에게 다 있는 것이다. 유모(黷母) 종류는 ‘익센 가재는 범과 다룬다(蟹麋同產)’⁴라는 도은기(陶隱居)의 말을 근거로 본다면, 바다 가운데 있는 큰 게로서 맛이 붉고 등에는 빨갛게 가시가 난 놈이니, 곧 우리나라에서 암자(巖子)라고 부르는 게다. 발도저(撥柶子) 종류는 뒷발이 넓고 얇은 것이 배를 젓는 노처럼 생겨 물을 차고 헤엄쳐 다닌다.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꽃게(申蟹, 꽃게)라 부르는데, 그것은 등 양쪽에 뾰족한 꼬챙이처럼 생긴 뿔이 있기 때문이다. 갈박(蟹朴) 종류는 팽활(彭蟹, 방게)보다 크고 등딱지에 검은색의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다. 오정적(鮑正赤) 종류는 늘 큰 집게발로 햇빛을 가리고 작은 집게발로 먹이를 먹는다.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농해(龍蟹, 농게)라고 부르는 게인 듯한데, 등딱지가 타원형으로 조롱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 종의 암컷은 두 발이 모두 작다. 또 팽활(방게)이라는 종류가 있다. 팽활(彭蟹)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팽해(彭蟹)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구(沙狗) 종류는

3 1580~165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백후(伯厚), 호는 감곡(澗谷),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17세기 후반 궁남제도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4 의어가 불충분하여 <성호사설> 권4(해(蟹, 거))를 찾아 내용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행황과 흡사한 게다. 모래밭에 구멍을 파다가 사람을 보면 이리저리 방향을 질도 바꾸어 달아난다. 지금 조선에서 속칭 길해(鱈蟹, 鱈)라고 부르는 종이 있다. 이놈은 넓적하고 길쭉한 등에 털이 나 있으며 이리저리 방향을 잘 바꾸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 이놈이 사구인 듯하다. 의당(魏望) 종류는 행황과 비슷한 크기에 늘 사방을 힐끔힐끔 둘러보면서 두 집게발을 들고 여덟 개의 발로 일어서서 먼 곳을 바라본다. 지금 조선에서 속칭 황등(黃通)이라 부르는 게가 바로 이놈인데, 단웃날 밤이면 만드시 해초(海草) 위에 바글바글 둘러 모인다. 지역 토착민은 이를 두고 '게가 그네뛰기를 한다'고 하며 불을 밝혀 무수히 잡는다. 행황에 비해 조금 틀 뿐 다른 점은 없다. 노호(蠟壳) 종류는 방게와 농게처럼 생겼으나 먹을 수가 없다. 조선에서 속칭 적해(積蟹, 도독게)라고 부르는 것은 등에 알록달록한 작은 무늬가 있다. 쟁기(爭魁) 종류는 행황보다 크고 일반 게보다는 작다. 행황과 똑같이 생긴 종으로, 행황보다 조금 크고 털이 있으며 발고랑 가운데 구멍을 뚫고 다니는 게가 있다. 바로 제도명(無道明)이 게인 줄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이 이놈인데, 속명 바동해(巴通蟹, 발동게)란 놈으로 독이 있다. 또 속명 윤해(潤蟹, 뽕게)라는 종류가 있다. 행황과 흡사한 생김새이며, 넓적한 등에 털이 나 있고, 집게발은 뾰족하고 짧으며 희미한 붉은색을 띤다. 앞에 소개한 게의 종류는 여항의 저술 《십이종변(十二種辨)》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항이 기록한 용검(龍鱗)이니 망조(望潮)니 석군(石蜃)이니 봉강(蜂江)이니 하는 따위의 게는 어부에게 물어도 모두 모르는 게다.”

위의 내용은 이익이 게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부경(傅敬)의 《해보(蟹譜)》에는 “게는 송골매의 눈이 후(蟹)의 발이요, 새우의 뇌에 메미의 배를 하고 있다. 딱딱한 등딱지는 주먹과 비슷하고, 날카로운 집게발은 도끼를 쥔 것과 닮았다. 제은(蟹鱗)에서 나는 것은 감자색(紺紫色)이다. 강남(江南)에서 나는 것은 청백색이다” 하여, 게를 묘사한 것이 더 이상 있는 것 같아 뒷사람이 언급하기 어렵다.

● 내가 일찍이 고서에서 몇 종의 게를 더 발견하였고, 또 시골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에서 몇 종을 더 얻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희안의 《곤여외기》에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해양 동물이 있다. 겨우 1척쯤 되고 딱지가 있다. 발은 여섯 개이고, 발에는 가죽이 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반쪽 따지를 세우는데 이것이 선박에 해당하고, 다리 가죽을 킁는데 이것이 돛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람을 타고 다니므로 선어(船魚)라고 한다” 하였다. 이놈 역시 게의 종류이니 선해(船蟹)라 이름붙일 수 있겠다. 종류에 따라 큰 게는 1장(丈)이 넘는 것도 있다. 그놈이 집게발로 사람의 머리를 집으면 머리가 절단 나고 사람의 팔을 집으면 팔이 동강 난다. 등딱지를 땅에 떨어놓으면 일본 사람의 가죽 같아서 사람이 누울 수도 있다.

《본초장목》에 “후의 생김새는 마치 해문군(蟹文君)이 쓰던 관(冠) 또는 다리미처럼 생겼다. 폭은 1척 남짓이다. 껍데기는 투명하고 매

5 선초(船蟹)를 낚은 관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이복거(魏復居)〉에 ‘사중(海中) 중상사(中營使)는 무변(武邊)의 대관(大冠)을 쓰되, 보태서 황금당(黃金瑣)을 달고 메미(梅)를 붙여 무늬를 만들고 달미 꼬리(細尾)로 장식하여 이름을 조해문관(船蟹文冠)이라 한다’ 하였다.

끄러우며 청흑색을 띤다. 자라의 배에 송골매의 눈을 하고 있다. 눈은 등 위에 달렸고 입은 배 아래에 있다. 머리는 사마귀 모양이고 열두 개의 다리는 게와 마찬가지로 배의 양편에 달려 있다. 발의 길이는 5~6척이다. 꼬리는 1~2척인데, 종려나무 줄기처럼 세모 모양이다. 등 위에는 빨처럼 생긴 배가 있는데, 높이는 7~8촌이고 모양은 석산호를 닮았다. 바다를 지나갈 때면 늘 서로 등진 채 등을 보여주며 바람을 타고 헤엄치가기 때문에 속칭 후빔(後飜) 또는 후매(後脰)라고 부른다. 껍은 백흑색이고 배에는 서속 알갱이 같은 일이 있다. 이것으로 잠을 담글 수 있다. 꼬리에는 썰알 같은 구슬이 있다. 다닐 때는 암컷이 항상 수컷을 얻고 다닌다. 그러다 암컷을 잃어버리면 수컷은 품격도 잃고 있기 때문에 어부가 잡을 때는 반드시 쌍으로 잡는다. 암컷은 작고 수컷은 크다. 물속에 넣어두면 수컷이 암컷을 얻고⁶ 가라앉는다. 그래서 민중(閩中) 지방 사람은 혼례를 할 때 이놈을 쓴다. 모래밭에 엎드려 숨어 있다가 또한 썰떡 날아오른다. 딱지는 몹시 단단해 관(冠)을 만들 수도 있고 꺾어서 국자를 만들 수도 있다. 향 속에 넣으면 향기를 발산한다. 꼬리는 작은 등 굽개로 쓸 수 있고, 기름을 태우면 쥐를 모을 수 있다. 성질은 모기를 무서워하니 쏘이면 죽사한다. 또 들새로 비쳐오는 빛을 두려워하니 쏘이면 역시 죽는다. 그러나 한낮에 쏘이면 왕왕 탄이 없다. 남쪽 지방 사람은 그 고기를 가지고 젓길을 담근다. 작은 놈은 귀후(龜鱉)라고 부르는데, 먹으면 해롭다⁷ 하였다.

6 원문에는 '부(卵)'로 되어 있으나, (후어(후구계) 변종본)에는 '부(鱗)'로 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화한삼제도회》에 '무문해(武文蟹)와 도촌해(島村蟹)'가 있다. 원종(元宗, 신묘⁸)의 난리에 진무문(震武文)이 삼주(揚州) 병고해(兵庫海, 호고현 앞바다)에서 죽었다. 그런 까닭에 병고해와 파주(溟州) 명석포(明石浦, 아카시노우라) 일대의 귀후를 일본에서는 속칭 무문해라고 한다. 크기는 1척 가까이 된다. 집게발은 적색으로, 흰색 무늬가 있다. 탕독(唐獨, 고로주) 4년(1531), 세천고국(細川高國, 호소카와 다카쿠니)이 삼호(三好, 미요시 형제와 접주 및 양주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때 세천 가문의 가신인 도촌(島村, 시마부라) 아부게가 적명 두 사람을 안고 나가(江崎, 아카시카기)의 물속에 빠져죽었다. 그때부터 나가포(江崎浦)에 사는 작은 귀후를 일본에서 속칭 도촌해라고 불렀다. 크기는 1~2촌 정도다. 등껍고 배의 문양은 귀면(龜面) 같다⁸ 하였다.

살펴보니, 우리 조선의 바다에 꽃게(꽃게)라는 놈이 있다. 크기는 1척 정도 되고, 등딱지의 무늬가 귀면 같다. 등딱지의 양쪽 옆에 창처럼 생긴 뿔이 있다. 진무문이라고 부르는 게는 작아서 1촌도 채 못 되는 놈인데, 등딱지 위에 역시 눈썹과 눈과 코와 입을 슬프게 찡그린 듯한 귀면의 형상이 있고, 양쪽 옆에 송곳 같은 작은 뿔이 있다. 이 꽃게를 《화한삼제도회》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렇다. 《화한삼제도회》에 소개된 귀후는 다리가 좌우로 각각 네 개다. 큰 다리와 작은 다리가 서로 차이가 나며, 큰 다리가 네 개, 작은 다리가 네 개다. 두 개의 집게발은 매우 작다. 또 배에 귀면 무늬가 있다고 하였다. 이

7 무문해와 도촌해는 귀후(龜鱉)의 일본식 이름이다.

8 일본 고다이교(高麗館) 건장 대의 연호, 1331-1333.

에 비해 우리 조선의 꽃게와 진무문게는 등딱지 뒷면에 귀편이 있고 등과 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민간에서 진무문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옛 창군이 바다에서 전사하여 진무문게가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 조선에는 대합의 배 속에 사는 콩알만 한 작은 게가 있다. 등딱지와 집게발을 모두 갖추고 있고 색깔은 담홍색이다. 폼지라폼지라 활동을 하는데, 이것 역시 게의 일종이다. 대합의 배 속에 거생한다. 이놈은 《본초상목》에 실린 해경(海鏡)과 유사하다. “해경은 바닷가 모래섬에 있다. 해경의 배 속은 텅 비어 아무 내용물이 없고, 오직 녹두만한 작은 게가 살고 있는데 집게발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해경이 배가 고르면 게가 나와 먹이를 먹어서, 게가 배가 부르면 해경 역시 배가 부른다. 또 분을 갖다 대면 게가 모두 대장 밖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해경은 곧 죽는다” 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누군들 이것을 보고 귀이한 줄을 모르겠는가.

물리시나 캐실 등의 시적에는 대합과 칠조개가 변하여 게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들쥐가 변하여 게가 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게를 태우면 쥐가 모이는 것이니, 같은 동물끼리 서로 감응하는 것이다.

(유양잡초)에 “게의 복부 아랫부분에 난 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였고, 물리시에 “게는 바다 안개를 두려워한다. 바다 안개가 질 게 끼면 게의 집게발이 말라버린다. 게는 대장이 없다. 옷을 타면 죽

고, 무명이(無名異)⁹를 바르면 비린내가 줄어들고, 등분을 보면 부스러지고, 연분(鉛粉)을 바르면 부스러지지 않는다. 실이 있는 게의 노란 내장의 액을 잘에다 부으면 끓어오르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극악한 독이다. 바다 속에 사는 큰 게의 집게발과 등딱지를 끓여 아교를 만들면 풀전을 엄청 견고하게 붙일 수 있다” 하였다. 이런 내용은 물리시는 안 되는 것이다.

게의 껍데기와 노란 내장의 액을 태우면 쥐를 모을 수 있다. 관동(關東)의 흙주(歙州) 시중대(侍中臺)¹⁰ 아래에 시해(侍蟹)라는 이름의 게가 있었다. 생김새는 육지에서 나는 게보다 조금 작고 집게발과 다리 역시 작다. 등딱지 안에 붉은 장과 노란 액체가 사철 늘 있는데, 맛이 다른 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까닭에 연장에 선물로 보내므로 해동의 게 품등 가운데 제1등이 되는 귀한 몫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개울물 속에 사는 긴 다리를 가진 일종의 작은 게가 있다. 이름은 사족지게(四足地蟹)라고 한다. 이놈은 등딱지만 있고 정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또 밤게라고 하는 놈이 있다. 흑방게라고도 하는 놈인데, 등딱지가 뾰족한 것은 수컷이고 등딱지가 뾰족하면서도 둥글며 크기가 임지손가락만 한 것은 암컷이다. 이놈은 오직 암컷만 먹는다고 한다.

9 약제로 쓰는 생식의 일종. 도지기를 구울 때 안료로 쓰기도 한다.

10 강원도 동천군(洞川郡) 금강산 북쪽에 있는 명승으로, 산동관경의 하나다. 한병희가 강원도 관현사로 있을 때 이곳에서 한창 관치를 열어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우의정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시중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시중은 고려 때의 관직명으로, 조선으로 치면 우의정에 해당한다.

개에 대한 전문 서적으로는 당나라의 육구몽(陸龜蒙)¹¹이 저술한 《해지(蟹志)》, 부평이 저술한 《해보(蟹譜)》, 장나라의 가현(稼軒) 저인 콕(精人稿)¹²이 저술한 《속해보(續蟹譜)》 그리고 명나라의 유뎐 삼농(俞樾) 왕개(汪介)【자는 개민(介民)】가 지은 《해춘추(蟹春秋)》【1권】 등이 있다. 모두 고찰할 만한 책이다.

-
- 11 당나라 때 사람으로 송강포리(松江浦里)에서 강호산인(江湖散人)이라 자호하고 세속과 떨어져 유유자적하게 살았다. 자는 노방(魯望), 호는 보리(甫里)다. 은자의 권령으로, 김에 국책의 구기자 등을 심고 평생 시와 학문에만 정심하였다.
- 12 장구(長洲, 지금의 장쑤성 수원(吳縣) 사람이다. 자는 가현 또는 학가(學稼), 호는 석농(石農)이다. 평생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으며, 소신류의 서각에 제마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오중(吳中) 지방의 명사와도 두루 교류하였다. 《견호경(鑑湖集)》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대개 고금의 저명한 인물에 관련된 사적이나 길거리에서 전해지는 자못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특히 명나라의 문물과 야사에 관한 기록이 상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辨證說 河豚

하돈(복어)

변증설

● 하돈(복어)은 강과 바다에 사는 두 종이 있는데, 이름은 무척 많다. 돈(鮓): 【《사성통해》에 “음은 돈(豚)이다. 속칭 가돈(鮓鮓)이라 부른다. 본래 하돈(河豚)인데, 순우리말로는 복(復)이라고 한다. 또 몽가치(勿家治)라고도 한다. 이것은 강에 사는 복어다” 하였다.】 가(鮓): 【《사성통해》에 “음은 하(河)이고, 순우리말로는 복(復)이다” 하였다.】 《정자통》에 “일명 후이(鮓鮓)라고도 하고, 호이(鮓鮓)라고도 한다. 또 규이(鮓鮓)라고도 하고, 태(鮓)라고도 한다” 하였다. 【하돈은 이(鮓)이니, 받음이 ‘이(移)’로 하돈의 별명이다. 《박아(博雅)》에는 “후이(鮓鮓)는 복어다” 하였다.】 포(鮓): 【음은 포(鮓)다. 강에 사는 복어의 별명이다. 막(鮓), 식(鮓)으로 쓰기도 한다.】 기(鮓): 【음은 기(鮓)다. 바다에 사는 복어다. 또는 해(鮓)라고도 한다.】

● 《화한삼재도세》에 “바다 복어는 눈이 가늘고 좁다. 바다 복어와 강 복어 두 종 모두 맹독을 가지고 있어 종종 사람을 죽인다. 알은 독성이 더욱 강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였다.

《애원지황(愛苑指南)》에 논하기를 “복어는 독이 있어 알을 먹을 수 없다. 알의 크기는 겨우 쌀알 정도인데, 하룻밤을 불에 담가놓으면 탄화만 해진다. 살펴보면 복어의 알은 개나 돼지도 먹지 않는다. 술개가 간혹 복어를 채가더라도 역시 먹지 않고 버린다” 하였다.

복어는 독성이 있지만 전미도 있다. 그런 까닭에 옛날 사람은 서자유(西子乳)¹에 비겼다. 그러나 집독(集毒)²과 다름이 없어 입에 대면 죽으니, 그 맛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화환삼재도회》에 “복어는 큰 배 양쪽에 붉은 핏빛이 도는 살이 있다. 또 복부의 뒤편 옆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청백색의 큰 뼈가 있다. 불에 던지면 이리저리 움직이는 듯하다. 여기에 큰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인다” 하였다.

조부 이덕무가 저술한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복어는 본래 독이 없고 복어의 눈에 나비 모양의 번개가 있다. 간혹 입이나 꼬리에 붙어 있기도 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것이 사람을 죽인다. 또 그 알이 가장 맹독을 지니고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떼어내고 먹으면 매우 맛이 있다’ 하였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신원 생호관(生湖館) 이광규(李光葵)³ 공이 일찍이 관동 지방 안협현(安峽縣)의 현감이 되었다. 당시 황달을 앓아 양어를 구했는데, 주주를 하는 사람이 양어 한 마리를 바쳤다. 크기

1 서자는 중국 원나라의 미인 서시(西施)를 말한다. 원나라의 왕 구원이 서시를 오나라의 왕 부처에게 보내어 그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다. 복어가 맛이 있지만 배속에 독이 있는 것을 ‘서시의 핏’이라고 비유하였다.
2 집독이라는 새는 맹독이 있어 이 새도 짓발을 닭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한다.
3 1765~1817, 조선 후기의 문인학자. 자는 봉고(鳳果), 호는 생호관이다. 김서견과 안협 현감을 역임하였다.

가 세 적이 넘기에 너무 크다는 이유로 돌려주려고 보니 양어가 이미 죽었다. 강차 삶으려고 몇 덩이로 잘라 맑은 불에 담가 깨끗이 씻어 놓았다. 그런데 잘려진 대가리 양쪽 아가미가 벌름벌름하면서 마치 물을 다시는 듯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집안사람이 빙 둘러서서 보며 괴이하게 여겼다. 이음을 끌어내어 찬찬히 살펴보니 양쪽 아가미 살 안쪽 배 부분에 때는 아닌데 뼈처럼 보이는 콩알만 한 것이 뼈에 잇달아 있었다. 또 군살도 아닌데 꼬물꼬물 움직였다. 그 바람에 양쪽 아가미가 절로 덜덜떨떨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놈을 꺼내주며 먹지 말고 버리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물고기가 사람의 살을 먹으면 아가미 양쪽에 군살이 생겨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꿈틀거린다”라고 하지만, 이는 황당무계한 말이다. 뒤에 《화환삼재도회》를 읽어보니 “복어에 나비 모양의 뼈가 있다” 운운하는 부분이 있기에 비로소 양어 아가미에 붙었던 물건이 또한 이런 종류임을 알았다.

어떤 책에는 복어는 본디 두꺼비가 변해서 된 것이다 생김새가 서로 비슷하다고 전한다. 물리사에는 “복어는 오색실을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오색실로 낚아 잡는다” 하였다. 조부의 저서 《이목구심서》에는 “두꺼비가 변해서 복어가 된다” 하였다.

살펴보면, 든(鱓)이라는 복어는 머리와 눈과 배와 등이 두꺼비와 더없이 닮았다. 또 그물로 잡아 어물전에 들여와 가판대에 놓으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죽지 않는다. 성이 나면 배가 팽창하며 눈이 튀어나오고 이빨을 간다. 표독스러운 성미를 알 띤다. 《애원지황》에 어부가 복어 잡는 법에 대해 나오는데, “복어는 성질이 사나워 성

잡을 잘 낸다. 배양 물속에 얼드려 있으므로 반드시 그 위에 그물을 친다. 그리고 고의로 물건을 가지고 북북 건드리면 그놈들이 분노하여 위로 올라가려다가 그만 덜컥 걸리고 만다” 하였다.

북어탕을 끓일 때는 부뚜막 위의 그물음을 조심해야 한다. 【조선에서는 그물음을 축칭 ‘천매(天煤)’라고 한다】 잘못하여 그물음이 북탕에 들어가더라도 하면 사람을 죽인다. 무릇 북어를 다룰 때는 언제나 피를 제거하여 씻기라고는 하나도 없게 한다. 향유(香油)에 담가 튀겨낸 다음 북첩 따위를 만들어야 비로소 독이 없다고 한다. 나는 선조의 유언으로 북어를 먹지 말라고 경계를 받았으니 어찌 입에 대겠는가. 우리 선조 강계(江界) 공께서 유훈을 남겨 자손에게 북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 서적에서 북어의 독을 치료하는 의약을 고찰하여 소개한다. 《여원자황》에 논하기를 “무릇 사람이 북어의 독에 중독되면 괴화(槐花)⁴ 가루와 용어항을 물에 섞어 달여 마시게 한다. 그리하면 해독된다. 아주 더러운 물이 좋은 약재가 된다” 하였다. 구선(龜仙) 주천(朱楳)⁵의 《수역신방(水域神方)》에는 “동쪽 비랍벽의 흙을 물에 풀어 끓인 후 맑게 뜬 찌꺼기를 식혀서 먹거나, 갈뚝나무 3~5토막을 썰어 먹으면 북어의 독을 풀 수 있다” 하였다. 또 《무비지(武備志)》에서는 “오배자, 백반 등을 가루로 만들어 일대일 비율로 물에 탄다. 또 청대수(靑黛水)를 타거나 갈대 뿌리를 썰어 즙을 내어 복용한다” 하였다.

4. 회화나무의 꽃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5. 명나라 때의 노장 사상가. 또는 현주도인(玄洲道人)이며, 함허자(涵虛子), 구선(龜仙), 단구(丹丘) 선생 등으로도 불렸다. 양생법과 연단술에 관심이 많았고, 의학에 밝았다.

강에 사는 북어의 뼈와 그 기름을 섞어 화약 속에 넣으면 역풍이 불어도 불길이 뒤로 오지 않는다. 《물려소지》에 “역풍이 불 때 화약을 제조하는 법은 이러하다. 강에 사는 북어를 화약에 넣으면 역풍이 불어도 불길이 뒤로 오지 않는다” 하였다. 《신기화법인심략(神機火法引心略)》에 “역풍이 불 때 화약을 제조하는 법은 강에 사는 북어의 뼈나 강에 사는 북어의 기름을 넣는 것이다. 그러면 역풍이 불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하였다.

《여공포구론(雷公炮製論)》과 《인수옥서영(因樹玉書影)》에서는 “어떤 나무든 그 나무의 뿌리에 북어 가시를 꽂으면 금방 죽는다. 이때 개의 쓸개즙을 부어주면 다시 살아난다” 하였다.

앞에 소개한 내용은 세상의 온갖 사물을 연구하는 박물학자라면 미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 듣기론, 호서 지방 비인현(非人縣) 바닷가에 도두음포라는 포구가 있다. 굵이진 바닷가에 북어처럼 생긴 검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모양이 완전히 돼지 뼈 같다고 한다. 그 지방 사람은 그 물고기를 ‘갈평이(鰓廣伊)’라고 부르는데, 잡아서 튀겨보면 은몸이 기름덩이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힐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북어의 일종으로, 또 조금 다른 어종이다.

辨證說 蝮蛇相思蛇

염사와 상사사에 대한
변증설

물리서(物理書)에 다른 종의 동물끼리 꼬끼하여 특이한 동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실려 있다. <장자>의 주에 “유(類)라는 동물은 스스로 암컷이 되기도 하고 수컷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였으니, 장경(藏經)의 탄변(彈變)과 같다. <종속통(種俗通)>에서는 “말지기 호인(胡人) 창두(蒼頭)가 말과 교접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였고, <당서(唐書)>에서는 “진부(眞符) 2년 하북 지방에서 말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였으며, <한서(漢書)>에서는 “한나라 영제(靈帝) 때 경사(京師)에서 말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였고, <정방역전(京房易傳)>에서는 “위로 천자가 말하고 제후 간에 서로 공벌하자 곧 요사스러운 말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였다. <지봉유설(芝峯遺說)>에서는 “듣건대 지난해에 달족(達族 몽골족) 병사가 암탕나귀와 교접하였다고 하였다. 옛날 반호(班固)의 후여가 만족(蠻族)이 되고, 현 이리가 낳은 아들이 돌결(突

1 원문에는 ‘상망(上亡)’이라는 두 글자가 없으나, <한서(漢書)>와 <정방역전(京房易傳)>을 참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鰐)이 되고, 푸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뱀골이 된다” 하였다. 이상은 대개 다른 종의 동물끼리 교미하여 낳은 예다.

승암(升菴) 양신(襄愼)은 “갈창(葛昌)은 암원승이와 교미한다. 비아(飛鰲)의 용충(蝸蟲, 뱀뱀)은 교미하지 않는 대상이 없다. 흑 나무에 들어가면 말라 죽지만, 천둥소리를 듣고 나시 나온다”라고 하였다. 《외기(外紀)》에서는 “아프리카에는 온갖 짐승이 모여 산다. 종이 다른 동물끼리 교미하면 기이한 형상의 짐승을 낳는다. 창어(鱗魚, 뱀)는 모든 물고기와 교접할 수 있고, 보초(蝮蟲, 너새)는 모든 조류와 교접할 수 있다. 꿩과 닭이 교미하고, 공작과 뱀이 교미하고, 자라와 뱀이 교미하고, 뱀과 뱀이 교미하고, 지렁이와 메뚜기가 교미한다. 소와 말, 노새와 당나귀가 서로 바람이 나서 교접한다. 용의 성품이 가장 음란하니, 소와 교미하여 기린을 낳고 돼지와 교미하여 코끼리를 낳고 말과 교미하여 용마를 낳는다. 또 사람과도 교접하는데, 남너노소를 불분하고 교접한다. 사물 가운데 여자와 교접하여 여우의 정기(精氣)를 완성하는 것은 개와 산달(山獾, 담비), 지렁이【팽승(彭乘)의 《목객회서(墨客揮毫)》에 “지렁이는 사람과 교접한다. 《동사(東史)》에 백제 건천의 부모는 가온현(加恩縣)에 사는 농부였다. 그 어머니가 일찍이 붉은 옷을 입고 비단 띠를 두른 사람이 와서 교접하는 꿈을 꾸고 임신 하였다. 꿈속에서 물레 그 장소를 기억하였는데, 그 사람은 가와 돌 사이에서 나왔다. 꿈에서 깨 뒤 그곳을 두루 찾아보니, 그 집의 서남쪽에 돌무더기가 있고 그곳에 자갈이 섞여 있었다. 시험 삼아 기와 조각을 들어보니 큰 지렁이가 있는데 붉은색에 흰 띠를 두르고 있었다. 뒤에 견훤을 낳으니, 본래는 성이 이씨(李氏)였는데, 그 집의 서남쪽 기왓장 무더기 사이에서 지렁이의 상서로움을 입었다고 하여 견훤

甄氏)로 바꾸었다. 견(甄)이 서(西)와 토(土)와 와(瓦)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이다. 흰(眞)은 지렁이 새끼다”라고 하였다】로, 귀물오통(鬼物五通)이다.

【이시전은 “오늘날 민간에서 독각귀(獨脚鬼)라고 부르는 것은 형체를 숨기고 인가에 잠입하여 간음하니 오통(五通)이라 부른다” 하였다. 포송령(蒲松齡)의 《요계지어(聊齋志異)》에 “남방에 오룡이 있고 북방에 여우가 있다. 절강 지역의 오룡은 민가에 미색이 고운 부녀자가 있으면 곧 간음하니 해로움이 가장 흑심하다. 본래 형체는 밭이나 채지처럼 생겼지만 미남자로 변신한다” 하였다. 우리 조선에서는 망량(魍魎)을 독각귀라 칭하는데, 흑 여인을 간음하여 귀태(鬼胎)를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또 일종의 뱀이 있으니 중원에서는 염사(鹽蛇)가 어인과 간음한다” 하였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안남국(安南國)에 염사(鹽蛇, 비단뱀)가 있다. 길이는 10여 장(丈)이고 굵기는 7~8아름이다. 사슴이나 돼지를 삼킨다. 이것을 잡아먹으면 매우 기름져 진수성찬으로 여긴다” 하였으니 곧 염사(鹽蛇)다. 《오잡조》에서는 “영남 지역 사람은 염사(鹽蛇)를 잡아먹는 것을 훌륭한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본초강목》에서는 “염사(鹽蛇)는 보는 대로 쳐서 잡는다”라고 하였다. 《물리소지》에서는 “염사(鹽蛇)는 달을 따라다닌다. 상순에는 머리 근처에 있다가 중순에는 심장 근처에 있다가 하순에는 꼬리 근처에 있다. 약재로 쓴다”하였고, 또 “염사의 어금니는 길이가 6~7촌인데, 불길한 기운을 쫓아내기 때문에 1매(枚)에 소 몇 마리 값이 나간다” 하였다. 유순(劉勳)이 말하기를 “보안주(普安州)에 염사를 사육하는 집이 있다. 늘 나무지팡이

로 뒤집어보다가 쓸개를 꺼내고 풀어주면 염사가 달아나는데, 죽지는 않는다” 하였다. 《본초강목》에 이시진이 소공(蘇公)의 해설을 인용하여 “염사를 시험하는 방법은 चु빨 크기로 잘라내 맑은 물에 넣었을 때 물 위에 둥둥 떠서 선회하는 것은 진짜이고, 곧바로 가라앉는 것은 지담혈(脂膽血)이다. 다량을 넣으면 안 되는데, 가라앉아 흩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염(鹽)은 지서(地書)에 ‘왕뱀이다. 먹을 수 있다’ 하였다.】

《영남잡기(嶺南雜記)》에서는 “염사(蛇涎)는 가장 음란하다. 산속에서 부너자를 보면 곧 따라가 그 몸을 칭칭 감고 곁잡하며 허물 부너자의 입에 넣는다. 사람들이 몰려가 쫓아내면 매우 빨리 달아난다. 부너자를 부축하여 돌아와 웅황탕(雄黃湯)을 입에 흘려 넣고 해독제를 복용시킨 다음 뜨거운 물로 배를 문질러 뱀의 정기를 모두 빼내면 비로소 무탈하다. 치료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 작은 뱀을 출산한다. 또 염사가 사람을 따라오면 급히 부인의 속바지나 속적삼을 던지면 곧 범준다. 여인국에서는 뱀을 남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사람 장연(張演)의 《양사공기(梁四公記)》에서는 “부상의 서북쪽에 여인국이 있어 뱀을 남편으로 삼는다. 발륜산(赫隄山)의 서쪽에 여인국 백리 땅이다. 산에서 태황수(台皇水)가 솟아나는데, 여인이 이 물에 목욕하면 잉태한다. 온 나라에 남자가 없고 모두 뱀을 남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조선에는 염사(蛇涎)가 없다. 하지만 혹 상사사(相思蛇)라는 것이 있다. 이 뱀은 흔치 볼 수 있는 종은 아니니, 민간에서는 상사병으로 죽은 원귀가 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전한다. 살펴보건대 상국 상촌(象村) 【신훈(申勳)의 《이목소급(耳目所及)》에 “제상 박건(蛇精)의 처

김씨 부인이 그 집 노비로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죽어 구렁이가 된 자에게 유혹되었다. 김씨가 구렁이와 동침하니 박건이 이로 인해 미쳐 몇 년 뒤에 마침내 죽었다” 하였다.

【세상에서 옛날이야기가 전해오기를 “어떤 재상집에서 집을 지으려고 중을 시켜 지문(地畵)을 박게 하였다. 중이 재상집 부인의 미색을 보고 음욕이 발동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저도 모르게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아내 코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곧장 쓴살같이 부인의 속바지로 들어가 교합을 하여 밤낮 떨어지지 않았다. 온갖 방법으로 떼어내려 해도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니, 곧 이 일을 말한 다.】

동방에 예로부터 전설이 있어 상사사가 미녀를 보면 곧장 치마 속으로 들어가 반드시 하체에 달라붙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음란한 남자가 태어날 때 상사사가 자기의 정유를 기탁하였다가 욕정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이 뱀으로 변하여 기어이 여인에게 음행을 한다. 업원(業冤)이 모여 생긴 것이니 설령 떼어내려 하여 물이나 불을 사용해도 칼이나 병장기를 사용해도 해칠 수가 없고, 여인이 죽어야 비로소 떨어져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혹 뱀이 붙은 여인을 버리고 가서 바닷가 절벽 위에 내려놓고 승려나 무당으로 하여금 크게 주문을 외워 쫓아내면 뱀이 혹 몸에서 떨어져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효험이 없으면 그대로 바다로 밀어서 지취를 없앤다.

혹자가 말하기를 “관동(關東) 회양부(淮陽府)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의 뒤쪽 봉우리를 마두봉(馬頭峯)이라 한다. 그 아래에 상사사가 있어 여인을 보면 몸에 달라붙어 떼어낼 수가 없어 서로 유전된다”

라고 하였다. 또 “탑라 앞 바다에 상사수(相思樹)가 있다. 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불 뵈므로 나오면 상사수로 변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누가 보고 전하여 말한 것인가.

【근래 영남 사람 심인귀(沈寅龜)가 일찍이 해서(海西) 지방에서 듣기를 ‘평산(平山) 온정(溫井)에서 이 뱀이 붙은 어떤 여인이 와서 목욕을 하였는데, 뱀의 대가리는 여인의 턱 아래를 향하고 뱀의 꼬리는 여인의 사타구니 사이를 향하고 있다. 뱀은 자신의 음부로 여인의 음부에 달라붙어 때때로 ‘글글(嗚嗚)’ 소리를 내었다. 여인이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 하거나 혹은 목욕을 하려 하여 뱀을 향하여 연유를 말하면 잠시 떨어졌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붙었다’라고 하였다. 내가 육진(六鎰)을 유람할 때 경원(慶源) 지방의 남녀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음과 같았다. 일찍이 한 비렁뱅이 여인이 있었다. 여인에게 이 뱀이 붙자 집안에서 용납해주지 않아 떠돌아다니며 비렁뱅이 여인이 되었다고 한다. 뱀의 대가리가 여인의 어깨 위에 있었는데 크기는 수먹만 하였다. 그 여인은 미모가 곱고 이여삐 조금도 고생스러운 기색이 나 근심하는 뜻이 없었다. 경원 지방 사람들은 그 여인을 ‘구렁이 각시’라고 불렀다. 각시는 조선에서 여자를 일컫는 이름이다.】

독자가 말하기를 “이 뱀은 다른 사람에게는 구렁이로 보이지만, 이 뱀이 붙은 여인에게에는 미남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어린 여인이 이러한 괴변을 만나도 놀라 까무러치는 일 없이 아무렇지 않게 참고 지나가니, 즉시 목숨을 끊고 자결하지 않는 것은 미모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뱀이 사람을 간음하는 이야기가 있다. 《술이기(述異記)》에 “죽고가(畜糞家, 독충을 사육하는 집)의 사고(蛇蠍)가 처녀를 유혹하

면 반드시 음탕하게 만든다”라고 하니, 사람과 교합하는 뱀이 비단 상사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류가 아닌데도 교합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이는 무슨 이치인가. 《주역》에서 “깊은 기운끼리 서로 찾고 같은 소리끼리 서로 호응한다. 불은 건조한 곳으로 타들어가고, 물은 저습한 곳으로 흐른다. 이는 지나나 동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한 가르침은 곧 일반의 도를 말한 것이고, 특수한 경우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면 어찌 없겠는가.

辨證說 蛇血開翳

뱀의 피가 백태를 치료한다는
변증설

전에 보건대 어떤 사람이 백태로 뒤덮여 두 눈의 시력을 잃었는데 뱀의 줄개를 넣어도 효과가 없었다. 지금 들으니 청풍부(淸風府) 신당리(神堂里) 노탄(盧灘, 갈나무) 사람이 말하기를 “호남에 백치자(白痴子)가 어느 날 문득 의술의 묘리를 깨달아 뱀의 피로 백태를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그 실재를 적어 변증한다.

【노탄 사람은 서울 상동(尙洞) 상사(上舍) 최한기(崔漢綺)의 선신에서 묘지기를 하는 사람으로, 청풍 북두독(靑風北頭毒)에 머물고 있었다. 쉰 세 성을 지닌 유랑민이 상동의 최한기 집에 갔을 때 최한기가 이 의방(醫方)을 전하며 말하기를 “호남에 어떤 사람이 있어 태어난 뒤로 스무 살 무렵이 되도록 말 한마디 못하는 병어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 홀연히 말을 하게 되었으나 매우 드물었다. 의술에 능통하여 혹 묻는 이가 있으면 증상에 따라 약재를 처방하였는데, 그 효과가 귀신같이 짝이 저자처럼 복적였다. 한번은 백태가 낀 자가 찾아왔기에, ‘음목사(栗木蛇)를 잡아 목을 매달아놓고 매질을 하시오. 목부터 꼬리 끝까지 매질을 하되 계속 반복하여 하루 종일 쉬지 않으면 온몸의 혈기가 꼬리

끝으로 흘러내릴 것이요, 그러면 꼬리 위를 노끈으로 꿰뚫어 잘라 낸 다음 그늘에서 말리시오, 다 말리고 난 후 배를 잘라보면 핏줄이 점점이 엉겨 마른 것이 있을 것이요 그 피를 떼어내어 굳게 잡아 백태에 뿌리면 즉시 눈이 밝아질 것이니, 그 효과가 매우 영험하오"라고 알려 주었다. 너희는 유념하여 잊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최씨 성을 지닌 유 랑민이 명심하고 있다가 와서 전해주었다.

상사 최환기는 치밀하고 독실하여 범범한 속인이 아니니 정말로 믿 을 만하다. 그와 내가 서울과 지방에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한 번도 만 나지 못하였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개 뱀을 잡아 피를 취하는 것 은 오로지 뱀의 혈기가 과격하여 신속히 내달려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 든 끊어내고 뚫는 속성 때문이다. 아무리 단단하게 낀 백태라 한들 어 쩌 능히 그 에봉을 당해내겠는가? 상상하건대 울퉁시의 격동하는 성 질은 염사보다 몇 배나 더할 것이다. 그 때문에 효과가 빠른 것이다.

대체로 뱀과 관계된 것으로 예컨대 사각(蛇角)이 글독서(骨屬犀)가 된 것과 같은 것은 지극한 독약이지만 해독에도 뛰어나다. 독사의 뇌 가운데 돌이 있어 이를 흡독석(吸毒石)이라 하는데, 종기의 독을 잘 빨 아들인다. 남사(蠃蛇)는 맹독을 품고 있지만 꼬리는 도리어 해독을 한 다. 꼬리 든 뱀이 흙을 묻고 있다가 봄이 되어 돌이 된 것을 사함석(蛇呑 石) 또는 일명 사황(蛇黃)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약제로 사용된다.

《물리소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염사의 어금니는 길이가 6~7마디가 된다.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물리치므로 하나에 소 몇 마리 값이다." 물리서에서는 "뱀은 배가 몹시 부르면 허풍을 뱉는다. 뱀 허풍 을 일명 사퇴(蛇退)라고 한다" 하였고, 《본초》에서는 "다양한 약제로 사 용되며, 안과 치료에 중요한 약제가 된다. 뱀의 허물로 사황을 썩면 더

욱 향기롭다" 하였다. 방술서에서는 "뱀의 허풍을 용의(龍衣)라고 한다. 옷것에 넣으면 사람을 더욱 요염하게 하므로, 보는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어 매우 반갑게 대한다" 하였다.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유랑민이 독사의 꼬리를 뽑아내었는데, 마치 생선가시 같은 뼈가 있었다. 이것을 꺼내어 보관해두었다가 독한 종기 가 나면 독사의 뼈를 가지고 종기 위를 살짝 찌르면 즉시 나아 신통한 효과가 있었다. 뱀의 쓸개와 고기로 술을 담그고는 입만 배면 신기한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상은 그 대략을 기술한 것이다. 내 생각에는 수컷의 피가 암컷의 피보다 나은 듯하지만, 뱀의 암수는 또한 구별하기 어렵다. 살펴보건 대《화현삼재도회》에 "뱀의 암수를 알 수 없을 경우 살짝 때렸을 때 그 꼬리가 움직이는 것이 암놈이다" 하였다. 이 내용은《삼보장경(雜寶藏 經)》에 나온다.

일찍이 《위향잡초(委巷雜抄)》를 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작은 뱀 한 마리를 때려죽인 다음 피를 채취하여 등불 심지 몇 가닥에 먹인다. 이를 말려 등잔을 밝히면 그 뱀의 형상이 등불 위로 나타난다. 만약 두 마리의 뱀 형상이 뒤얽혀 나타나게 하고자 한다면 두 마리의 뱀 피를 등잔 심지에 먹인다. 또 한 곳에 불을 붙이려 한다면 각각 한 가닥의 심지에 한 마리의 뱀 피를 먹여 태운다면 두 뱀의 그림자가 자 연스레 서로 뒤얽힌다."

야적《본초》를 열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개 뱀의 피가 가진 성질 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평소 들은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아울러 적어둔다. 특히 수컷의 피를 취하는 것은 효력에 더욱 힘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뱀의 피 외에도 백태를 치료하는 신묘한 약이 있다. 《물리소식》(제모황(蟻螫黃))에서는 “여안(余安)이 어려서 거미를 걸렀다. 작은 놈을 큰 놈의 먹이로 주고, 한참 뒤에 주사(朱砂)를 큰 거미에게 먹였다. 수십 일이 지난 뒤 전신이 온통 붉어지고 배에 누런 기운이 있으면 백태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또 남에게 듣기를 늙은 뽕나무나 고사한 뽕나무 가운데 세월이 오래되어 날개가 돋은 두충(蠹蟲)이 있거든 이것으로 백태를 치료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고 하니, 또한 시험해볼 만한 것이다.】

辨證說 海狗

● 바다에 사는 많은 해양 동물은 육지에 사는 동물과 닮은 것이 많다. 이를테면 우어(牛魚), 해마(海馬), 해러(海鱺), 해환(海鱧), 해구(海狗), 해돈(海豚), 해묘(海貓), 해달(海獺) 등의 해양 동물이 여러 서적에 보인다. 그러나 중국 사람의 기록은 허황된 것이 많아 황당하여 믿을 수 없다. 오직 일본 사람과 멀리 서번(西番【스페인】) 사람의 기록이 실상을 상세히 구비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다. 나는 해구(물개) 한 단락에서 중국 사람의 기록이 일본 사람의 기록만 못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본초강목》은 명물학(名物學)과 금석학(金石學)의 고전이라 불리는 서적이다. 그러나 이마지도 고서의 왜곡된 내용에 진실이 가려져 오류가 빈이 넘는다. 비록 동역 이시진이 오류를 정정하였다고는 하나 고서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여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억지 추측을 한 결과 사실과 거짓이 뒤범벅된 책이 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북산(崑山) 방이지(方以智)가 황하기를 “당나라 이래로 천자가 천

하의 도감(圖鑑)을 수집하여 명의와 사관에게 편찬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의당 상세히 구비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만력 연간에 이빈 호(李爾湖)가 선진에게서 물려받은 기학을 바탕으로 15~16개의 항목을 고쳤다. 그 뒤에 또 무중순(繆中淳)이 정리를 하고 이사촌(李士村)이 갈라낸 것이 아주 큰 힘을 쓴 것이니, 사물의 이치를 비교하고 편법하기란 끝이 없는 작업이다" 하였다.

【방이지는 또 "쌀은 더없이 달지만 다만 '쓰다'고만 기록하였고, 산사 열매는 달고 신데 혹 기록해두지 않았다. 견우초는 썩으면 아주 맵고 설사가 나는데 다만 '쓰고 차다'라고만 기록해놓았고, 분상(粉霜, 수은 결정)은 두 번 불에 볶으면 독이 없다고 하였다. 모형(牡荊)은 귀신을 부른다 하고, 양하(襄荷)는 이름을 부른다 하였다. 이런 모든 기록이 정말로 그럴까? 임만 매년 연년(延年)의 날썩한 몸이 몹시 어어쁘다고 말하는 꼴이다" 하고 논하였다.】

방이지의 논지는 사실 맞는 이야기다.

해구는 《본초강목》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모습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올늘제(溫熱劑)'라고만 되어 있다. 【올늘은 해구의 별칭이다.】《청산동(淸山洞)》에는 "동해와 영고담 일대에서 난다. 토카민이 얼음을 발로 굴러 잡는다" 하였다.

《화한삼제도회》에는 "하이국(倭夷國)은 일본 동북 바다에 있다. 그곳의 지형은 남북으로 기다랗고, 북쪽으로는 속신(肅愼)과 이웃한다. 그곳의 토산물이 올늘제다."

【사슴 가죽, 곰 가죽, 호랑이 가죽, 오해서(熬海鼠, 해사), 곤포(昆布, 미역), 다시마 따위가 난다.】

●내가 예전에 북관의 육진(六鱗) 가운데 공주(孔州) 지방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렇다. 해구는 바닷물 이름은 '바다개'지만 개가 아니라 물고기다. 육지의 개처럼 생긴 동물이 아니다. 온몸이 둥글둥글한 것이 바다생선처럼 생겼다. 이른바 앞발, 뒷발이라는 것도 발이 아니라 지느러미인데, 몹시 짧다. 앞지느러미는 좁고 뒷지느러미는 넓어서 파도치는 바다 속에서 레임을 잘 친다. 다만 비늘이 없고 털이 자라며, 수컷은 길고 암컷은 누렇다. 【물개 가죽은 속칭 수우과(水牛皮)라고 하는데, 물에 젖지 않는다.】 정월과 2월에 물에서 물으로 나와 고기를 시작한다. 육지에 있을 때 사냥꾼이 맨손으로 쫓아가면 발이 없고 지느러미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한다. 그래서 큰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다. 그놈의 생식기를 올늘제라고 한다. 올늘제는 비단 신장염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요통도 고친다.

【큰 몽둥이는 속칭 나무방망이다. 요통에 올늘제를 가루로 내어 비읍에 타서 먹으면 신동한 효험이 있다. 물개의 피와 쓸개는 가슴 통증과 산후 복통에 잘 들으니 물에 타서 마시면 신기한 효험을 볼 수 있다. 한 차례 복용한 다음 피와 쓸개 조금을 떼어 일수(一水), 이수(二水), 칠수(七水)에 탄다.】

나는 이 말을 오히려 믿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화한삼제도회》를 살펴보니 물개의 모습이 예전에 들은 말과 딱 들어맞기에 비로소 공주 지방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화한삼제도회》에 "올늘제는 오주(奧州, 오슈) 승진(淸津, 마쓰마에) 앞바다에 있다.

【살피보건대, 하이국(倭夷國)은 일본 동북 바다 가운데 있다. 그곳의

지형은 남북으로 기다랗고, 북쪽으로는 숙신과 이웃한다. 산은 험난한 곳이 많다. 그곳 남쪽 바다의 포구가 송진이니, 곧 송진 지마수성(志摩守城, 시마노카미성)이 자리한 곳이다. 송진에서 육오주(陸奥州)의 진경(津經, 쓰가루)까지는 바닷길로 15리(里)이고, 송진에서 증우야(曾雨夜)까지는 바닷길로 380리다. 증우야라는 곳은 하이국의 북쪽 경계다. 증우야에서 가랑부지(加良不止)까지는 430리다. 가랑부지는 심 이론인데, 바로 숙신에 속한 지역이다. 일본에서 말하는 1리는 중국 단위로 환산하면 10리다. 그렇게 따지면 가랑부지는 곧 우리 조선의 북도 바다와 인접한 곳이다.】

큰 놈은 1~2척이나 된다. 온몸이 어류와 흡사한데 비늘 대신 털이 나 있다. 머리는 고양이와 흡사하고 입은 뾰족하다. 뒷바퀴는 없고 다만 뒷구멍만 조그맣게 뚫려 있다. 아랫은 위쪽은 한 줄이고 아래쪽은 두 줄이다. 꼬리는 비단잉어 꼬리처럼 갈라졌고, 흑색이다. 양쪽 앞구렁에 지느러미가 있고 발은 없다. 외부 생식기는 길이가 4~5촌 가량 되고, 굵기는 새끼손가락만 하다' 하였다. 이 기록이 우리 조선의 북관 사람이 들려준 말과 딱 맞아떨어지기에 《화한삼재도회》에 실린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걸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대저 해구는 우리 조선에서는 동북방 바다에서 난다.

【영남 지방은 영해 등 바다에 인접한 고을에서 나고, 관동 지방은 평해, 울진, 삼척 등 바다에 인접한 고을에서 난다. 북관 지방은 육진 지

역의 바다에 인접한 경원, 쌍흥, 온성, 경성 등의 고을 모래밭에서 난다. 삼가 조부 이덕무의 《기봉산서(嵒巒散書)》를 살펴보니 "올늘제는 해구(물개)다. 우리 조선에서는 영해, 평해 등지에서 잡히는데, 모두 수컷이다. 이것으로 양기를 보강하는 약재로 쓴다. 매년 무리를 지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남해현(南海縣)에 이르러 암컷을 만나 새끼를 낳고 돌아간다. 새끼가 암컷이면 그곳에 남겨두고, 수컷이 태어나 자라면 반드시 동쪽 경계의 바다로 옮겨가서 산다" 하였다.】

해구가 일본에서는 오주 송진 앞바다에서 난다. 하이국에서는 본토 바다에서 난다. 일본의 송진은 하이국과 접하고, 하이국은 숙신의 북방 지역 흑룡강과 접한다. 영고담은 흑룡강과 우리 조선의 북도 육진 등지와 접하여 하나의 바다로 모두 연결된다. 그래서 영고담에서도 역시 난다. 영고담은 곧 숙신족의 옛 영토다.

【올늘제는 가짜가 많다. 수달의 생식기나 개의 생식기로 위조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진짜 올늘제는 세밀하기가 대합조개의 머리 같고, 투명하기가 마치 노란 유리 조각에 붉은 점이 은은하게 박힌 것 같다. 길이는 겨우 3~4촌에 불과하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본초강목》을 살펴보니 "올늘제는 언덕아 새취해야 한다. 배꼽으로 이어지는 부근은 홍색과 자색을 띤다. 거죽 위에는 분디 황색의 살점이 있다. 터럭은 한 구멍에 세 가닥이 난다. 이것이 진짜다. 졸고 있는 개 옆에다가 가져다두면 개가 잠깐 놀라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쫓는다. 이것이 진짜다. 또 12월 바람이 부는 곳에 물그릇을 놓고 올늘제를 담가두면 언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다" 하였다. 민간에서 전하는 말로는 붉은 관 옆에 두고 여인으로 하여금 그 위를 넘어가게 하면 올늘제가 절로 발딱 일

1 《청장관전서(淸莊館全書)》와 《다산집(茶山集)》 등에 '가랑부지'로 나오는 것에 근거하여 원문의 '가랑제지(加良不止)'의 '제(才)'를 '부(不)'로 수정하였다.

어서는네,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 평범한 일반 개의 생식기로 가져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개는 생식기 가운데 뼈가 있어 바디바디 연결되어 있다. 뼈를 제거한 다음 말려서 만든다고 하지만, 색깔이 두 평하지 않고 붉은 반점이 없으니 어떻게 위조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또한 송눈은 해구가 막 교미하려고 할 때 잘라 채취하여 말려야 쓸 수 있는데, 즉 진품 송눈은 시경을 하기 전에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교미를 끝내고 난 뒤의 것을 잘라서 만들면 정기가 이미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재에 넣어도 영험한 효험이 없다고 한다.】

남희인의 《곤여외기》에 구어(狗魚)라는 동물이 기록돼 있는데, 그 모습은 설명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구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보아 생김새가 개와 닮아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니, 곧 해구일 것이다.

【《곤여외기》에 “해양 동물 가운데 비어(飛魚, 날치)가 있다. 1척가량 되는 길이에 능히 수면에 뜰 수 있다. 구어라는 동물이 있다. 비어의 그림자를 잘 관찰하다 비어가 날아가는 기척이 있으면 먼저 그 장소에 도착하여 입을 벌리고 비어를 기다린다. 항상 수십 리를 추적하다가 비어가 문득 배 위로 뛰어오르면 사람에게 잡힌다. 뱀사람이 쫓아오거나 혹은 흰 비단을 가지고 수면 위에서 나폴저리게 한 다음 날카로운 뿔뿔바늘을 붙여놓으면 구어가 이것을 비어로 착각하여 뱀다 뛰어올라 삼키다가 어무에게 잡힌다” 하였다.】

海參 辨證說

● 원나라 능준(凌準)의 《어왕일소(魚綱日疏)》에 이런 기록이 있다.

“부청(扶淸)은 사람의 머리와 비슷하다.

【부청은 사람의 머리와 비슷하다는 구절이 어떤 어류를 지칭하는지 고찰해본 결과, 지금 순우리말로 문어라고 부르는 놈을 가리키는 듯하다. 《정일통지(淸一統志)》에서 ‘장거(章巨)는 여덟 개의 다리에 둥근 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정명(正名)》에서 ‘거저(鰓鰒)다’라고 정의하며, 곽박(郭璞)의 《강부(江賦)》에서 ‘거저는 살아서 발을 호느적거린다’라고 소개한 것이 모두 문어다. 바닷가 사람은 이것을 장어(章魚, 낙지)라고 잘못 부르기도 한다. 문어의 종류를 소개하면 이렇다. 장어는 문어의 일종으로, 다리는 비슷한데 조금 작다. 망조(望潮, 꼴뚜기)라고 불리는 놈은 커다란 머리에 다닥다닥 붙은 발을 가지고 있고 눈은 옆구리에 있다. 또 석거(石距, 낙지)라는 놈도 있다.

우리 조선에서는 장거를 문어라 하고, 망조를 꼴뚜기(蝸魚, 꼴뚜기)이라 하며, 석거를 낙제(絡絲, 낙지)라 한다. 《동의보감》〈어부(魚部)〉에는 문어를 ‘팔초어(八梢魚)’로 기록해놓았고, 낙지를 ‘소팔초어(小八梢魚)’로

기록해놓았다. 《역어유해》에서는 문어를 ‘팔대어(八帶魚)’라고 기록하였다. 일본의 《화한삼제도회》에서는 ‘문어는 장어, 장거(章擧) 또는 해소자(海蛸子)라고 한다’ 하였다. 큰 놈은 기다란 발이 1~2척이나 되는 것도 많다. 만약 사람이나 완승이가 잘 모르고 대적할 경우 발의 발판으로 피부에 붙어 흡착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문어는 토란을 좋아하여 밭으로 기어들어가 땅을 파서 토란을 캐 먹는 놈이니 토란으로 유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서 갈 때 보면 중의 머리 같은 놈이 가장 잘 죽지 않는다. 오직 두 눈의 한가운데를 때려야 죽는다. 배가 고르면 제 발을 잘라 먹기 때문에 발이 다섯 개거나 여섯 개인 놈도 있다. 문어를 잡을 때 새끼로 항아리를 묶어 바닷물 속에 던져놓은 다음 오랫동안 두었다가 올려보면 문어가 절로 들어가 있다.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항아리 하나에 문어 한 마리씩 들어 있다. 우리 조선에서는 썩대 지팡이로 두 눈 복판을 때려서 잡는다고 한다.]

현라(玄羅)는 사람의 발과 비슷하다. 【이는 사람의 발을 담은 대함의 조갯살을 가리키는 뜻하다.】 척거(澈巨)는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 문설(文雪)은 어성의 음부와 비슷하다. 척거는 지금의 해삼을 가리키는 뜻하다. 【해삼의 별명은 ‘해남자(海男孑, 바다 남자)’다.】 문설은 지금의 홍합을 가리키는 뜻하다. 【홍합의 별명은 ‘동해부인(東海婦人)’이다. 《본초강목》에는 ‘갑(蟹)’이라고 하였다. 일명 담채(談菜)라고 하거나 해계(海蟹)라고 하기도 한다.】 척거와 문설은 생김새가 음란한 데, ‘해남자’나 ‘동해부인’이니 하는 이름을 전혀 얻은 것이 아니다.

《식물본초》, 《오잡초》, 《영과부지(寧波府志)》, 《화한삼제도회》, 《민소기》, 《창삼등》 등의 서적에 모두 해삼을 소개한 내용이 나온다.

【《식물본초》에서는 “해삼은 동해와 남해에서 난다. 생김새는 누에를 닮았고, 색깔은 검다. 온몸은 오물도물하다. 건강 보양식에 최고다. 지금 북방 사람이 당나귀의 생식기로 가짜 해삼을 만드는데, 생김새와 맛은 대략 흡사하지만, 형체가 역대처럼 살짝 편편한 것이 진짜다” 하였다. 《오잡초》에서는 “요동의 바닷가에 산다. 일명 ‘해남자’라 부르는데, 생김새가 남자의 생식기 모양이라서 그렇다. 성질은 따뜻하고 보양식에 좋다” 하였다. 《문선(文選)》의 주석에서는 “홍덩이처럼 생겨 토육(土肉)이라 부르고, 완전히 까맣다. 길이는 5촌이다. 배만 있고 눈과 입은 없다. 30개의 발이 있다” 하였다. 《영과부지》에서는 “모래흙을 내뿜기 때문에 사손(沙蠃)이라 부른다. 홍덩이처럼 생긴 일종의 동몽포, 마치 소의 내장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길이는 5~6촌가량 된다. 흐느적흐느적 꿈틀꿈틀 움직이다가 몸에 불건이 닿으면 움츠러들어 발을 만들 적아진다. 그러다가 천천히 다시 늘어나 뽕뽕해진다. 지역민은 송기 사금파리로 비린내 나는 끈적이는 액체를 끓여낸다” 하였다.

《화한삼제도회》에서는 “살펴보니, 아행성 동물이라 바다의 쥐라는 뜻으로 해서(海鼠)라고도 부르는 해삼은 중국 앞바다에는 없다. 요동이나 일본의 앞바다에서 발견된다. 또 오해서라는 놈이 있는데,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된 적이 없다. 그래서 해삼을 소개한 모든 책에서 오해서(말라버린 해삼)라고 한다” 하였다. 《문선》에 소개된 ‘토육’은 뒤에 《본초강목》 〈괴류수(怪類賦)〉 단락에 수록되었지만, 오직 《영과부지》에서 기록한 내용이 상세하다. “무릇 해삼은 벗질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졌다. 만약 벗질을 해삼의 몸에 갖다 대면 몸체가 풀려 진흙처럼 된다. 또

290 1 원문에는 문고(文龜)로 되어 있으나, 《성장편전서》에 의거해 문설(文雪)로 수정하였다.

두더지는 해삼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해삼을 모퉁이에 찍어 정원에 세워놓으면 두더지가 들어오지 못한다. 하이국에서 나는 물산 가운데 오해서라는 것이 있는데, 값이 싼싹하다” 하였다.

《민소기》에서는 “만중 지방에서 나는 해삼은 편색이다. 요동 앞바다에서 나는 해삼과는 맛이 다르다. 어떤 의원이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신장(膀胱)을 바다로 여긴다. 이 동물은 북쪽 해양의 전물 가운데서 산다. 색이 또 신장처럼 검어서 신장의 물을 보충해주는데, 대개 신장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다. 인삼은 사람과 닮아서 사람의 몸에 좋다. 해삼은 남자의 성기와 더욱 닮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정력을 보양하는 식품으로 오래 해삼을 들먹인다’ 하였다. 《정삼봉》에서는 “해삼은 바다의 쓸개라는 뜻에서 해담(海膽)이라고도 불린다. 등에 고슴도치처럼 뿔이 돋았으며, 꿈틀꿈틀 움직이며 다닌다. 남해에서 난다” 하였다.

앞에 소개한 내용은 모두 해삼을 설명한 것이다. 우리 조선에서는 동해, 서해, 남해, 북해에서 모두 난다. 그 가운데 북해에서 난 것이 제일이다. 해서 지방의 장연부(長淵府) 해안 장산곶 앞바다에서 해삼이 많이 난다. 이종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황해도 장산곶 바다에서 생산되는 검은 생물은 뼈가 없이 한 덩어리의 검은 육질을 가진 오이처럼 생겼으며, 온몸에 육질로 된 돌기가 있다. 중국 사람은 이놈을 가지고 비단을 검게 염색하는데, 따라서 중국 산둥성 동주(登州)와 내주(萊州) 지방 사람이 매년 배를 타고 이놈을 잡으러 와서 금지령을 어기고 몰래 채취해 간다.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북관의 육진 고을 가운데 회령부(會寧府)와 경원부(慶源府) 두 고을은 중국 사람과 무

역 시장을 열 때 해삼을 귀중한 보배로 쳐주기 때문에 관공서와 민간에서 모두 해삼을 가지고 요역을 한다. 중국 사람은 이놈으로 비단을 가공하기도 하고 정력 보양 식품으로도 쓴다고 운운하며 매년 온 무역 시장의 해삼을 싹쓸이해 간다. 이 때문에 어민에게 빈곤을 끼친다.】

● 내가 살펴보니 이렇다. 해삼은 곧 사삼(沙參)이다. 재 스스로 바다 속에 들어가 변하여 이 동물이 된 것으로, 더구나 매가 있다. 바닷가 어민은 익히 그때를 알고 있는데, ‘해삼신기(海參信期)’라고 한다.

【신기(信期)는 사두리다. 곧 설리(蘇里)를 신기라고 하는 것이다. 여 전에 듣기로, 관동 지방 바닷가 산벼랑에 사삼이 많이 자생하는데, 해삼신기 철이 되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 높은 파도가 산벼랑을 때릴 때 스스로 바다 속으로 뛰어내려 해삼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산벼랑에 붙어 있는 놈 가운데 반쯤은 이미 혹 해삼이 된 것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닷가 사람이 그것을 알고 미리 그 철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는 사명인(四明人) 하지정이 심었다고 하는 감(甘)【여기서는 일종의 눈우렁이】되는 또 다른 동물이다. 사물이 다른 사물로 변화하는 이치는 예측할 수가 없다.

【《물리소지》에 “감물이 가득 찬 웅덩이는 사명인이 감을 심는 밭이다. 지역민은 감을 갈아 가무를 내어 뽕뽕에다 소금물과 섞어서 밭에 다 뿌린다. 그렇게 하면 한질 한점이 모두 감이 된다. 이렇게 하여 매가 되면 곡식을 수확하듯이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 다음에 해구(海龜, 성게)와 복합(蝸蝓)을 함께 소개하여 헛갈리기

쉬운 바다 생물을 구분해두려 한다.

【해구는 일명 해위(海鰐)라고도 하는 성게다. 관동 지방 울진, 평해, 삼척 등지의 바다에는 일종의 특이한 생물이 산다. 생김새는 겉게 탄 밤송이와 닮았고, 껍질과 크기 역시 밤과 비슷하다. 해상에 떠다니는 놈을 어부가 주워서 갈라보면 그 속에 장(腸)이 들었는데, 황촉색을 띠는 것이 게장과 비슷하며, 맛도 아주 흡사하다. 바닷가 사람은 이것을 '귀(貴)'라고 부른다. 나는 이놈에게 바다의 밤송이라는 뜻에서 해구라고 역시 이름을 붙여주었다. 밤송이가 고슴도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화산삼계도회>에 "복합(원복)은 살 색깔이 흰 바탕에 약간 푸른빛을 띤 놈은 수컷이고, 약간 붉은빛을 띤 놈은 암컷이다. 암컷이 수컷보다 맛이 좋다" 하였다.】

辨證說 繼穀積穀蛤

계곡(적곡)조개
변증설

● 관동 지방 강릉부(江陵府)에는 경포대가 있고 경포대 아래 경포호가 있다. 경포호에서는 특이한 조개가 생산된다. 옛 이름은 적곡(積穀)조개이고 지금 명칭은 계곡(繼穀)조개다. 물 밑에 쌓여 있기 때문에 주인이 굶어 채취하여 식사 대신으로 먹으니, 이에 대한 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과 기타 지리지를 고찰해본 결과 이렇다. 강원도 강릉부에는 경포대가 있다. 하나의 작은 산자락이 동쪽을 향해 자리하고 그 위에 경포대가 있다. 경포대 앞에는 경포호가 있다. 둘레는 30리나 되지만 수심은 사람의 배꼽까지밖에 되지 않아 작은 배밖에 다닐 수 없다. 동쪽에 강문교(江門橋)라는 다리가 있고 강문교 너머로는 흰 모래 제방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다. 경포호의 물은 바다와 통하니, 모래 제방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옛날 어떤 부자가 살던 집터라고 한다. 한 동남승이 쌀을 얻으러 왔는데, 부자는 쌀 대신 똥을 주었다. 그러

자 부자가 살고 있던 땅은 꺼져 호수가 되었고 쌓아놓았던 곡식은 모두 작은 조개로 변하였다. 이 조개는 맛이 달고 향기로워 허기를 채우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은 쌓아놓았던 곡식이 변하여 생긴 조개라는 의미로 적곡조개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사시사철 언제나 채취하여 먹을 수 있다. 호수 밑바닥에는 아직도 깨진 기와 조각이나 벽돌 또는 사금파리 따위가 있다고 한다. 경포호 남쪽 해안에는 고(故) 관서(判書) 심언광(沈彦光)¹의 옛 집터가 있다. 경포호 남쪽 멀리 되는 지점에는 한송정(寒松亭)²이 있고, 그곳에는 돌샘과 돌절구 따위가 있다. 거기가 바로 사선(四仙)³이 유람하며 구경하던 곳이라고 한다.

한산 이씨(韓山李氏)의 후손 이원옥(李源玉)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포호는 맑고 맑아 물이 정강이까지도 차지 않기 때문에 시골 여인네도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경포호 바닥에 자생하는 작은 조개를 줍는데, 큰 것은 밤불만 하고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하다. 각정(殼面)과 껍데기는 뽀뽀하고 겹으며, 속살은 희다. 모래 바닥에 한 길 넘게 쌓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가

많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끌어내면 손을 뽀뽀할 겨를도 없이 몇 십이나 된다. 껍데기를 벌려 속살을 내어 먹으면 맛이 달고 비리지 않다. 조개 속에 있는 물은 마치 설탕물 같아서 마시면 달착지근하니 맛이 좋다. 조갯살 몇 사발을 쌀 몇 홉과 섞어서 죽을 끓이면 온 집안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곡식을 대신하여 끼니를 이룰 수 있는 조개라는 의미로 계곡조개라고 부른다. 흉년에는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사시사철 언제나 나니 한 사발 조갯살의 값이 1문(文)밖에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양식에 더없이 좋은 신기한 식재료다. 그러나 지천으로 깔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또 경포호의 잉어는 전국에서 제일로 치는데, 맛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예전에 몇 아들이 넘는 엄청나게 큰 잉어를 보았는데, 키가 비달이나 배를 채는 자로 재어도 5-6척은 되는 놈이었다. 눈은 화등잔만 한 것이 누렇게 양쪽 수염은 꽃뚝하고 반듯하였다. 어부의 그물에 잡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장차 용이 될 놈이라고 하며 도로 호수에 넣어주라고 권하여 마침내 풀어주고 돌아갔다.

북관 지방의 바닷가 여러 고을에서 나는 조개는 크기가 서울 어물점에 나오는 대합만 한데, 껍데기는 조금 크고 작은 무늬가 있다. 조갯살은 익히 두툼하고 크므로 구워서 반찬을 한다. 조개의 혀는 원연히 비선처럼 생겼으며, 색깔은 선홍색과 주홍색으로 아주 곱다. 달고 담백한 맛도 서울 어물점에 나오는 대합보다 좋고, 배가 불러 허기를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이 점이 흠이다.

무릇 강이나 바다 혹은 시내나 연못에 사는 조개는 그 종류가 모두 몇백 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 소개한 적곡조개만

1 1487-1540.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자는 사형(士衡), 호는 여촌(漁村)이다. 예조좌랑 심준(沈準)의 아들이며, 관설 심언경(沈彦慶)의 동생이다. 1513년 식년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집연에 보임되었다. 호당(湖堂)에 들어가 자기독서하면서 문명을 얻었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심경(沈景)을 비롯한 권간의 횡포를 탄핵하였다. 성리학 강리학이 부정부패한 권력자를 탄핵하는 데 서슴지 않았다. 시(詩), 서(書), 화(畫)에 능하였다. 시호는 문공(文恭)이다.
 2 지금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화서동 3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안에 있다.
 3 신라 시대의 양랑(襄郎), 음랑(鎡郎), 남석랑(南石郎), 단상랑(段相郎)을 가리킨다.

큼 신기하고 양이 많은 조개는 없다. 양식 대신 먹을 수 있다고 하니
부갯집에 쌓아두었던 곡식이 변하여 조개가 되었다는 말이 허황한
전설은 아닌 모양이다.

辨證說 五萬銅二千足

오만동
삼천족
변증설

● 바다 밑에 붙어서 사는 여러 생물 가운데 기괴한 형상을 가진 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오만동(五萬銅)이다. 혹은 오만동(五萬動)이라고도 한다. 《화환삼재도회》에 “작은 소라 새끼를 일명 상사자(相生子) 혹은 낭군자(郎君子)라고도 한다. 생김새는 영라(靈螺, 소라)와 닮았는데, 지극히 작고 희백색이다. 그 속에 공알만 한 작은 납작조개가 있는데, 푸르고 흰 색이다. 이놈의 이름은 옥개(玉蓋)다. 바다 사람이 소라 껍데기를 버리고 조개를 꺼내어 도자기 속에 넣고 식초에 담그면 씹 없이 빙빙 도는 것이 마치 서로 쫓아기는 듯하다” 하였다. 이것은 우리 조선에서 오만동(五萬動)이라 부르는 것이다. 1 민간에서는 정력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 북쪽 바다에 산다고 한다.

또 삼천족이라는 것이 있다. 생김새는 녹각제(蝸角捷)와 닮았다. 속칭 ‘청각(靑角)’이다. 사슴뿔처럼 생긴 가지가 여러 갈래로 나와 발

1 지금 민간에서 오만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데덕이나 작은 핑계와 닮은 것인데, 내용으로 보아 이와는 무관한 별도의 생물로 보인다.

을 이루기 때문에 생긴 것을 보고는 무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삼천죽이라고 부른다. 불고기인 듯 불고기가 아니고, 동물인 듯 동물도 아니다. 형상이 지극히 괴기스럽다. 이것을 먹으면 크게 정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한다. 남쪽 바다에서 난다.

앞에 소개한 두 종류의 생물은 잘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약에 들어가는 경우도 부침 드물기 때문에 의학 재료에 끼이지도 못하고, 약방에서도 늘 미련해두는 것이 아니다. 간혹 희귀한 약재를 취급하는 약국이 있으면 터러 거두어 간직한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이 둘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우선 이름과 생김새를 변증하여, 이것을 아는 학자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白鱘神說

鱘魚胎化神說說

鱘魚花鳥神說說

飛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鱘魚神說說

魚辨證說

魚 說文 水蟲也 象形 魚尾 與燕尾相似 凡魚之屬皆從魚 一作鱗蟲
【今鱗蟲 三百六十 龍爲之長】一作水族【僊苑集 飛禽 部須安鳥 水
族 便應著魚 又見他書】大戴禮·易本命 鳥魚皆生於陰而屬於陽 故
鳥魚皆卵生 魚遊於水 鳥遊於雲 食水者善走而寒 凡魚之類 其屬不
億 離水則死 物理書 魚不見水 魚無耳而聽 漢高格物 魚思生 魚目
不顯【物理書 鯨魚不眠 故人之無婦 耿耿不寢者 比於鯨魚】物理書
進行魚屬魚 逆水而上【物理小識 魚行隨陽 春夏浮而潮流 秋冬沒
而順流 且朝東暮西 而禮·月令正月 魚陟負水 亦隨陽氣而然也 揚子
雲‘太玄卦氣起中孚 宋之備賢 謂爲卦義全無當 中孚 豚魚解 諸儒云
豚頑魚冥 本無知之物 當至誠以感孚之 且取感格 鱷魚爲證 而章漢
通聞諸家 有載正月鯊鱸至 二月鯢至 三月鱖至 四月鱗至 八月黃鯪
至 九月蟹至 仲冬豚魚至 始知物至以其時 而仲冬豚魚至 卽中孚豚

1. ‘揚子雲’부터 ‘卽中孚豚魚之象也’까지는 章漢 撰, 《圖書編》卷8에 실린 《卦氣起中孚》에 보인다.

魚之象也】清李榕村光地周官筆記論物象最爲明哲【林麓積草¹ 故毛者依草食草 而毛如草之莖 山陵生木 故羽者棲木食木 而羽如木之葉 川澤積水 故鱗者居水而食水 鱗象水之紋 壙衍積石 故介者潛石而吸石 介類石之體 其性則從其所處之氣也 其體則肖其所生之形也 其論橫絕古今 大抵魚生於水明沙白之處 則鱗白且潔 生於水濁石黝之地 則鱗黑且齷 理固然矣 又海魚肉 堅厚味鹹 江魚肉 軟鬆味淡 川魚肉 尤軟味且腥 以水之深淺而然】魚性喜西北 春向陽 夏向陰 隨地氣升降 亦之浮沈 喜猿毛如人見錦繡 喜夜光【物理書 以猿毛懸網四角 魚爭聚自躍 羊尿胞納燈火繫網足 魚見其光而集 故一網可盡 以夜亮木 卽朽木根夜明者 代燈 取魚亦妙 喜燒燕肉 置水網罟 易獲 喜蠶脂裨飯】亦有所忌【本草綱目及物理諸書 鱸味辛害目 魚龍護目 故畏鐵 古今淬劍於池澤 魚皆浮泛 又忌橄欖渣蘭草黃柏實椒皮² 茱萸殺柿漆木瓜燒灰馬蔘織屎石灰巴豆川椒 皆可殺魚 詳見漁具辨證說 不垂】大抵魚喜新水【詳見漁具辨證說】魚有溫熱【雲間李豫亨推蓬寤語 凡物浮於水上者多涼³ 生於水中者多熱 生於水底者多溫 草木 如蘆實性涼 芡實性熱 藕在地⁴ 中性溫 魚蟲 如海螵河賊之屬性涼 赤鯉河魃之屬性熱 鯽魚鱖魚 竅在土中性溫 此因其所處而變其性也 本草綱目盡論之物性味 他有所考 而不暇多及 但收其緊切者】凡衆魚之鱗鱗 名狀亦略其辨證【物理諸書 鯉魚脊

上有三十六鱗 乃陰數也 龍則脊上⁵ 有八十一鱗 陽數也 鱗 魚背上鬣鬣 魚龍額旁小鬣也 鮪⁶ 魚尾 腴 魚腹下肥處 鰓 魚肚中腸 又曰乙腴 魚腹中腴 鱗 諸魚之白腴 鱖鱖 魚卵也 俗以湖西堤川縣義林池鮪魚 食之不腥 味又最佳爲言 然如湖南全州府參禮驪鮪魚蒸 更有名 又關西平壤府鮪魚蒸及畿州府鮪鱖 爲國中最云矣 關北慶興府赤池鮪魚 帶赤色 眼瞳亦紅 若鱖眼之帶血色 絕大者幾至數尺 而味又極佳 各以所見之稱也 物理書 鱖卽海青魚 雄懷白鱗如脂 乃其精也 每當攀尾時 雄遺白鱗如放矢 則雌隨而吞 成卵 同文譯語類解 魚秧 魚雛也 魚秧子 魚雛也 魚白兒 魚腴 俗名一依 魚間鰓 俗名魚兒 今尼 和漢三才圖會 諺鹽漬魚也 養 音想 乾魚也 鱓 不着鹽而乾魚 鱓以竹貫魚而乾也⁷ 物理書 魚膽 春夏近上 秋冬近下 和漢三才圖會 凡諸膽皆苦⁸ 性鱖卽黑鯉魚也 俗名可勿治 其膽味甘 物理小識 鱖膽最辣 通竅最捷 人所不知 本草綱目 鯉膽爲眼藥 而物理書 紙魚游水術 以鯉膽染紙 刻魚入水 游走 蓋鯉膽善動故然也 又老鯉瞳珠 名如意珠 術家帶服 鬼神敬畏 取以角斗壺并日 不然無靈云 物理書 魚珠 在眼 魚有瞳及目合 且胸懷中有連珠 埤雅 鹿戴玉而角斑 魚懷珠而鱗紫 袁遵禽蟲述云⁹ 鮪魚 其鱗與他魚不同 石灰水浸過 曬乾層層起之 以作女人花鈿 本草綱目 鮪魚¹⁰ 以四月至 狀如鮪 頭上有骨 合

1. 『林麓積草』부터 『其體則肖其所生之形也』까지는 李完地 撰, 《拾村集》卷5 《周官》에 보인다.

2. 『皮皮』로 되어 있는데, 文毅에 따라 『皮』 한 자를 삭제하였다.

4. 『凡物浮於水上者多涼』부터 『此因其所處而變其性也』까지는 李豫亨 撰, 《推蓬寤語》에 보인다.

5. 『脊』는 『背』로 되어 있었는데, 《推蓬寤語》에 근거하여 고쳤다.

6. 『上』은 『鱗』으로 되어 있었는데 《朱子語類》卷76을 참고하여 고쳤다.

7. 『鮪』부터 『魚而也』까지는 寺島良安 撰, 《和漢三才圖會》卷51 《魚魚之用》에 보인다.

8. 『鱖』부터 『以竹貫魚而乾也』까지는 《和漢三才圖會》卷51 《鮪魚之用》에 보인다.

9. 『凡諸膽皆苦』부터 『其膽味甘』까지는 《和漢三才圖會》卷50 《鱖》에 보인다.

10. 『袁遵禽蟲述云』부터 『以作女人花鈿』까지는 李時珍 撰, 《本草綱目》卷44 《鮪魚》에 보인다.

11. 『鮪魚』부터 『石首魚皆亦然』까지는 《本草綱目》卷44 《鮪魚》에 보인다.

之如鶴喙形 喙瓜生者 用勒煮骨紳帶上 一夜便熟 石首魚骨亦然 鰻
 正字通 音勒 頭上有骨 合之如鶴喙形 爾雅 鱗 一名當飯 又鱗 正字
 通 音來 鱗魚別名 一作鯿 同文譯語兩類解 鱗作刀魚 物理書 鱗魚
 伏網 借鱗也 鱗魚性癡 見人則樹其鬣 謂人懼己 其性又畏寒 和漢三
 才圖會 鱗鱓魚¹² 每向陽 朝向東 暮向西 甚滑 漁人難握 添紙握則不
 能脫去 按俗名躑治 我東兒女輩 取其頭骨 相合作鶴形 李東璧之所
 云勒魚 卽鱗之一種也 同文譯語兩類解 以鱗魚作肋魚 與勒魚音同
 則勒魚 鱗之一種也 又我東所謂雄石首魚 字書作鯿 而有大小二種
 大名雄石首魚 兒童取其頭骨 亦作鶴形 則勒魚似是我東雄石首魚之
 一類也 石首魚 按韋昭¹³ 石首成 鵞也 吳地志¹⁴ 亦云 石首魚 至秋化
 爲冠冕 我東石首魚 其腦有兩白石 與玉成兩瓣 故名石首魚 魚枕 一
 作魚枕 本草綱目 諸魚腦骨曰鮓¹⁵ 延壽書曰 解蠱毒 作醬盛飲食 遇
 蠱輒裂破也 魚枕蓋卽此 鱧 一名黑鯉 又名銅頭魚 銅鱓魚 或稱黑魚
 頭有七星點 夜則仰首北向而若拱 治產後百病 又爲術家祭神之用云
 俗傳作醢食桃樹下 則肉盡逆喉塞死 一爾漸滋大如指 故爲食忌 鮓
 卽鮓 生於泥中 按相感志 以燈心煮鮓 集簡方 陽事不起 泥鮓煮¹⁶ 食
 鮓 大者盈數尺 其皮甚黏滑而腥 李時珍曰 凡食鮓鮓¹⁷ 先割翅下懸
 之 則泥涎自流盡 不黏滑也 涎盡腥滅可口 我湖南扶安縣海中有水

鮓 肉如酥 最宜羹老云 邵陽魚 俗呼佳凡魚 本草 鱗鱓器¹⁸ 邵陽魚尾
 骨 候人尿處釘之 令人陰腫痛 拔去乃愈 海人被刺毒者 以魚龜竹及
 海獺皮解之 吳雲方嶺南雜記 蒲魚¹⁹ 卽鱗魚 尾極毒²⁰ 中之悶癢不已
 用葛布燒灰 同麻油調塗良 其魚狀若荷葉 大者七八尺 無足無鱗 背
 青腹白 口在腹下 昌黎詩云 蒲魚尾如蛇 口眼不相營者 是也 又名海
 鰻魚少陽魚 鱓魚 尾端有刺極毒 人取其尾 挿在木根株 則無不枯死
 花譜 刺西陽時樹陰 則其樹卽枯云 鱓 正字通 音憤²¹ 韻書作鱓魚 或
 曰鱓魴魚 食物本草有海鱓魚 有肉翅能飛 卽善躍魚 物理書及說郛
 鯊魚止鱓 鱓鱓不鱓 鱓²² 魚已狂 鱓魚 一名鱓 俗多雄魚 或稱斗卽侯
 里 在於水田泥湖中 善竄穴爲害農 詳見本草 其狀如鰻蠹魚 性至難
 死 捕則打于人左脚上卽死 其腹中有細蟲如就者甚多 或云食之殺人
 本草無此語 按雷公炮炙論 肉蓯蓉並鱓魚作末 以黃精酒圓服之 可
 力倍常十也 魚之互變者略及之 嶺南雜記 黃魚化爲鸚鵡²³ 泡魚大者
 如斗 化爲毫猪 鯊魚之虎頭者化爲虎 文多直班者化爲鹿 鱧化爲龍
 和漢三才圖會 老鱓變成鱓²⁴ 鮓亦變成鱓 鱓變者口圓 鮓變者口扁
 鱓化爲河鮓 薯蕷浸久水 則爲鱓魚 物理書 蛇入江海 變爲石鮓 俗
 名絡絲 松純入水 化爲小魚 採蘭雜志 蚊投水中 化小魚 遽不遠日
 稻爲魚 廣異記 蛇化鱓 初蛇盤爲一束 復反復自擲者數十次 若一麪

12 『鱓鱓魚』부터 『添紙握則不能脫去』까지는 《和漢三才圖會》卷50 《鱓鱓》에 보인다.
 13 『韋府春秋外傳』부터 『至秋化爲冠冕』까지는 謝肇淛 撰, 《五雜俎》卷9에 보인다.
 14 『志』는 《五雜俎》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 『諸魚腦骨曰鮓』부터 『遇蠱輒裂破也』까지는 《本草綱目》卷44 《魚鮓》에 보인다.
 16 『煮』는 『蒸』로 되어 있었는데, 《本草綱目》卷44 《鱓魚》를 참고하여 고쳤다.
 17 『凡食鮓鮓』부터 『不黏滑也』까지는 《本草綱目》卷44 《鱓魚》에 보인다.

18 『蒲魚』부터 『又名海鰻魚少陽魚』까지는 吳震方 撰, 《嶺南雜記》卷下에 보인다.
 19 『蒲魚』부터 『又名海鰻魚少陽魚』까지는 吳震方 撰, 《嶺南雜記》卷下에 보인다.
 20 『蒲魚』부터 『又名海鰻魚少陽魚』까지는 吳震方 撰, 《嶺南雜記》卷下에 보인다.
 21 『音憤』부터 『韻書鱓魚』까지는 張自烈 撰, 《正字通》〈魚部〉『鱓字條』에 보인다.
 22 『鮓』는 『鱓』으로 되어 있었는데, 《物理相感雜說》을 참고하여 고쳤다.
 23 『音憤』부터 『即善躍魚』까지는 張自烈 撰, 《正字通》〈魚部〉『鱓字條』에 보인다.
 24 『老鱓變成鱓』부터 『鮓變者口扁』까지는 《和漢三才圖會》卷58 《水鮓》에 보인다.

餅 少焉四足出矣 故繁未入水 腹下尙有蛇紋者 食之殺人 物理書 月
 虛而魚腦減 螺蚌畏雪落 蟹怕霧濛 霧濛而蟹蟹枯 益業記 穀雨前三
 日後三日 衆魚相²⁵聚 必磨琢于水中巖石 魚以首夏交合 牝牡相逐
 輒頰以草其尾 嶺南雜記 凡魚皆學生²⁶ 惟鯊魚胎生 魚在胞中 多者
 一二十枚 少者數枚 口吐而生 和漢三才圖會 鱸 胎生 產於口 說郛
 魚傷脊鱗露肌 磨于船版松脂而合 類彙字書 丙日嘉言出穴 物理書
 烏賊魚過小滿則小 吐黑自翻 使人不見 或植立水上 烏坐其上 則攫
 取而生 故名烏賊 居易錄 墨魚過則海無魚 卽烏賊也 本草綱目 背骨
 名海螵蛸 淡浦投井 蟲盡死 稗說 松魚 產北關海中 每歲五六月作群
 入江 至溪澗 逢石壁則升 磨身巖石及松樹 露骨則墜 身有松香故名
 又有瓜魚 其味如瓜故名 寒竹堂涉筆 智異山松影陰溪潭水化爲魚
 斑瀾如袈裟 名爲袈裟魚 類書 松江鱸 四鰓 馮時可²⁷ 鮫魚 狀似鱸而
 肉粗 三鰓曰鮫 四鰓曰茅鮫 樂清所謂鱉魚 是也 一曰茅班 按益業記
 鮫魚 卽民魚 鮫與民 音相近 鱉與民 音最近 俗呼民魚 有鱸爲黏物
 捕虛之料 他魚鱗無及此 和漢三才圖會鮫注 正字木詳²⁸ 此類鱸而頭
 圓 尾小鱗細 味亦似鮫 大者二三尺 作鱸云 則此是我之俗名民魚也
 倭以鮫注作石首魚黃花魚 則以鮫爲民魚 似或爲非 兩航雜錄 鮫似
 鯉 身圓口小 骨軟肉細 似鱸而大曰鮫鮫 我俗稱秀魚 與鮫音相近 鮫

正字通 音囚 黑鮫 一名鮫 字彙 一名黑鮫 世傳羅州錢浦 一名石橋
 其鱗或出 一目眇瞎者出 則國有大喪 成服之具 必爲預備云 湖南羅
 州府錢浦 鮫魚最名 而腹下肉如錢 大者堅而軟 如羊腩白肉 可以爲
 膾不腥 名鮫錢 味淡而美 他魚無比 同文譯語兩類解 作梭魚 中俗名
 比目魚 鮫稱家潛伊 其目相比於一邊 正字通 鮫 音戒 唐韻 比目魚
 鮫 字彙 音販 正字通 比目魚 鮫 正字通 音區²⁹ 比目魚 爾雅曰鱈 吳
 郡賦鮫 上林賦鮫 北戶錄曰鮫 南越志曰版魚曰左介 皆一物異名 鮫
 正字通 音牒 比目魚 爾雅 東方有比目魚 名曰鱈 爾雅釋地³⁰ 東方
 有比目之魚 不比不行 芝峯類說 俗以加佐魚爲鱈 然如廣魚舌魚皆
 鱈 按二魚皆比目故云 以我東爲鱈域者 或以鱈生於東故自故云 然
 李百藥皇德頌曰 龜書龜匣 河圖將游 東鑿西麟 云亭載佇 芝峯類說
 引漢書 會稽海外³¹ 有東鯁人 則爲二十餘國云 此則指倭奴而言 今
 以爲我國爲鯁岑 非也 俗以鱈域對鯁岑 同文譯語兩類解 以比目魚
 爲鏡子魚 異物志曰若葉魚 俗呼鞋底魚 龜海志曰婢履魚 風土記曰
 孛羅魚 香祖筆記引鄭康成尚書中候注云 比目魚 一名東鱈 見紺珠
 集 嘗見官簿以鱈爲三申魚善 其土方言也 鮫 俗稱鱈魚 與蛇鱗交故
 名 俗或稱參治 精騎錄 鮫魚爲衆魚所婦 鴉鳥爲衆鳥所婦 同文譯語
 兩類解 鮫魚作拔魚芒魚 和漢三才圖會 按河豚³² 大骨兩邊 有赤血
 肉 又腸胃後旁大骨 有如胡蝶形者 青白色 投水如動 此物有大毒殺
 人 又曰 播葡之漁人多畜魚於船 至攝湊者 將死魚擲出之 刺竹針於

25 '相'은 '於'로 되어 있었는데,李德懋撰,《南征館全書》卷55《備物類時節》에 근거하여 고쳤다.

26 '凡魚皆學生'부터 '口吐而生'까지는《嶺南雜記》卷下에 보인다.

27 '馮時可兩航雜錄'부터 '一曰茅班'까지와 '鮫魚'부터 '俗呼民魚'까지는《南征館全書》卷55《精騎錄錄魚名》에 보인다. 단, '馮時可兩航雜錄'의 '鮫'은《南征館全書》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28 '正字木詳'부터 '作鮫'까지는《和漢三才圖會》卷49《鱸》에 보인다.

29 '音區'부터 '皆一物異名'까지는《正字通》《魚部》'鮫字條'에 보인다.

30 '地'는 文義에 따라 보충하였다.

31 '會稽海外'부터 '善也'까지는李時光撰,《芝峯類說》卷2《外國》에 보인다.

32 '按河豚'부터 '此物有大毒殺人'까지는《和漢三才圖會》卷51《河豚》에 보인다.

膜 則活着漢者多矣 又按送鮓於遠鄉 則用古煤裹包之 乃終日失水 亦不死 既死者 亦不易餒 或投茶於罾中亦可 物理書及天工開物 凡丹麴³³ 卽今紅麴 世間魚肉 最腐餒朽敗物 而薄施塗抹 能固其質 于炎暑之中 經旬歷月 蛆蠅不敢近 色味不離和 蓋奇物也 試於魚肉爲宜 南懷仁³⁴坤輿外紀 諸厄利亞國有湖³⁵ 長百五十里 廣五十里 有三奇 一奇 魚味甚美 皆無鱗運 此非華東所嘗 亦一異事也 說文多引樂浪蕃國魚名 而不出其狀 記事頗疏略也 爲其故事辨證之 鱈 魚名 皮有文 出樂浪東離 神爵四年初 捕收輸考功³⁶ 鮮 魚名 出貉國 魴 魚名 出樂浪蕃國 鱧 魚名 出樂浪蕃國 鯪 魚名 出樂浪蕃國 鯪 魚名 出樂浪蕃國 有兩乳 鯪 魚名 出樂浪蕃國 我東柳冷齋得恭 於四部考略有所釋然 更不強解 以魚占雨晴 亦見農政授時群芳等書 略收緊要數條 魚躍離水面 謂之稱水 主水漲 高多低小 黑鯉脊翼 長接其尾 主旱 夏初食鯉 脊骨有曲 主水 車溝內 魚來逆上 得鮎主晴 得鯉主水 又鯉主水 鯪主晴 漁者網得死鯪 開口主水立至易過 口閉來遲 水旱不定 魚浮水面 主雨 更有鮮魚反目撥魚取魚呢字消日等法 故亦及之 和漢三才圖會 流柿漆 卽柿汁於川上 則鮮鯉大醉浮出 物理書 木瓜燒灰麥飯 及未相合投水中 魚食之 其目皆反仄 空同子曰 敬禮爲祖 撥魚則浮 欲取魚鱉 淮南子 調水之精 名曰鰓 以名呼之 而取魚鱉有獲 陳眉公巖樓幽事 捕魚蝦 亥日多獲 眉公珍珠船 見人垂釣布網 不令有獲 但志心懇禱 揚論嘒七遍 尼諦彌諦彌提羅諦 則終日

無獲 物理書 魚食巴椒而死矣 誰謂豚魚冥頑不知 五雜俎 唐天寶間³⁷ 當塗民以巨舫載魚 有大魚呼阿彌陀佛 俄而萬魚俱呼 其聲動地 我東萊廟末 有人買鯪 長可五六尺 絕大而活懸棟樑 隣人來見曰 如許巨鯪 阿誰釣賣也 鯪忽大聲曰 羅惡衰 莫不驚訝 而漁人有羅姓名 惡衰者 網捉賣之也 衆怪之曰 鯪既人言 且知網者名姓 靈異如此 必化龍者也 卽放母網 主人仍放于所捉之江云 凡魚之有異者 姑不盡辨 古人以養魚 稱種魚以爲魚農 魚子以爲魚苗 多入詩詞 然求其最古且文者 莫如范蠡賞魚經【其經 朱公³⁸ 齊威王聘朱公問之曰 聞公在湖爲漁父 在齊爲曉夷子皮 在西戎爲赤精子 在越爲范蠡 有諸³⁹ 曰 有之 曰 公足住千萬家累德金 何術乎 朱公曰 夫治生之法有五 水畜第一 水畜 魚也 以六畝爲池 池中有九洲 求懷子鯉魚長三尺者二十頭 杜鯪魚長三尺者四頭 以二月上庚日內池中 令水無聲 魚必生 至四月內一神守 六月內二神守 八月內三神守 神守者 蠶也 內蠶則魚不復飛去 在池中 周遍九洲無窮 自謂江湖也 至來年二月 得魚長一尺者一萬五千枚 三尺者五千枚 二尺者一萬枚 直五千 得錢一百二十五萬 至明年 一尺者十萬枚 二尺者五萬枚 三尺者五萬枚 長四尺者 四萬枚 留長二尺者二千枚作種 所餘皆貨 得錢五百十萬 候至明年 不可勝計也 王乃于後苑治池 一年得錢三十餘萬 池中九洲八谷 谷上立水二尺 谷中立水六尺 所以養鯪不相食 易長不費也 云 其爲文有章有理 簡而博 博而約 眞種魚之奇文也】 凡種魚 非徒

33 「凡丹麴」부터 「蓋奇物也」까지는 宋應星 撰,《天工開物》卷17《丹麴》에 보인다.

34 「仁」은 文義에 따라 보충하였다.

35 「諸厄利亞國有湖」부터 「皆無鱗運」까지는 南懷仁 撰,《坤輿外紀》(三奇)에 보인다.

36 「收輸考」로 되어 있었는데, 洪敏 撰,《說文解字》卷11下《網字條》에 근거하여 고쳤다.

37 「唐天寶間」부터 「其聲動地」까지는 《五雜俎》卷9에 보인다.

38 「朱公問陶」부터 「易長不費也」까지는 唐鑑之 撰,《博雅》卷46에 실린 范蠡의 《養魚經》에 보인다.

39 「諸」는 「之」로 되어 있었는데, 《博雅》에 근거하여 고쳤다.

殖貨 令人有濠梁之趣 使魚有江湖之樂 鑿池暫勞 泰養無費 五符中第一 九農外爲最 然復有害有魔 一日獮豸 二日偷竊 三日魍魎 去此三害 則利不勝言 比養蜂最優 故略辨養法【獮豸 水獺 捕魚而食 偷竊 偷兒 瞰其無人 投罌酒竊 魍魎 即獨脚鬼 置池掘魚 魚無遺種 此三害不可不察也 大抵養魚 先得水源之地 鑿地築堰 然後可以種魚 雖有引水處 土理疏墟 頃刻漏洩 則無以貯水 若得土性堅緻 可以瀦蓄 而更無流瀉則水滯易腐 魚必耗死 養魚者 先相其地 內水出水 任自爲之 可也 引水有法 五難組 遇深山無泉之處⁴⁰ 掘井一二丈不得水者 可烹蘆葦之 而密覆其上 火煙不得出 必尋泉脈隙處潛通 卽他山數里外泉 皆能引而致之 清聖祖機餘錄 尋泉入山及砂磧處 乏水者 掘穴容一石許 用瀰蓬艾 蒲塞其中 燒之火猛 而用留一小穴相通 四壁 而但見煙出處 勿論遠近 掘之得泉脈也 石山近石掘之 土山卽草木掘之 砂磧擇高處掘之 鑿井法詳見蘆火噴⁴¹ 泉辨證說參考 禱說溫泉 極向陽之地 有石如卵者 石臼搗末和土 掘無水處 填其下 水永不竭 漢陽時用此法 凡鑿池 水深易涸 宜用泰西水法水庫法 貯水不竭 金光明經 流水長者⁴² 自在先生子 見池涸魚枯 將二十大象 載皮囊 盛河水 瀉置池中 水遂彌滿 如得其運水無難 則何必蘊火尋泉耶 物理書 池之正北宜深 魚必聚 邵氏後錄⁴³ 宋崇寧間 西都大內 思苑中池水易涸 或云 置牛骨於池中 水不涸 置之果然 本草綱目 井泉陂

塘內 多生蟲蛙而爲害 烏骨投於其中 絕跡 池中渾濁 以瓶入糞 用若包⁴⁴ 札之 投水中則清 水中有五色者 其中有龍 不可犯斷 池之四匡 環植柳樹如列柵 待長柔叢枝 互相間架 則池邊無圯 屬隆山林經濟 五符之法⁴⁵ 一日養魚 二日養羊 三日養猪 四日養雞 五日養鵝 以六畝爲池 中有九洲 居家必用 可擴丈許 以磚石壘埭吃堰 作十洲 勿出水面 種魚與養魚經同 築塘 須擇良年月日時 下魚種 亦在生門放下 生門方 卽日家入門之生門方 如庚申壬子 卽坤方下種 其訣曰 庚申壬子在坤方 壬戌庚子是離鄉 甲寅丙辰巽宮位 癸卯辛未艮中藏 乙酉辛丑還坎位 己未丁亥兌上當 只論生門下種子 取法依排死路亡 塘取十畝穿心約百步⁴⁶ 四面皆同 內造必墩 則如八卦方位 立符⁴⁷ 牌中墩造八角樓亭 擇日起豎 此日是何宿 卽以此宿名 書後符立牌 九宮符牌 皆以石刻朱書 上置龍王供養 日月有祭 宜法修造 無不應驗 若有活水 如土乾則加之 滿則除之 九宮符式 如坤兌乾午離中坎子 巽震艮方位掃之 生門下種法 休子生艮傷震杜巽景午坤死中央驚兌 開乾九符 乃九宮立定八卦方位 謹依此式書鐫平 建于各築墩之上 以爲主宰 則魚晝夜生長不息 大塘之旁 築數小塘 大塘魚多聚 而置之小塘 得小寬 亦可便于取魚用之 凡有魚之所須⁴⁸ 泥土肥沃 藕藻繁盛 亦宜好 然必有人居築舍守之 仍多方設法 禁防癩害 如未得大

40 遇深山無泉之處부터 皆能引而致之까지는 《五難組》卷5에 보인다.

41 爐은 본래 원근에는 없는데 文義에 따라 지워 넣었다.

42 流水長者부터 冰澍彌滿까지는 祝樵撰, 《古今事文類聚》後集 卷34 (長者活魚)에 보인다.

43 邵氏後錄부터 置之果然까지는 《和漢三才圖會》卷57 (池沼)에 보인다.

44 包는 '官'으로 되어 있었는데 蘇軾撰, 《物類彙編志》(雜著)를 참고하여 고쳤다.

45 五符之法부터 取法依排死路亡까지는 洪萬選撰, 《山林經濟》卷2 (養魚)에 보인다.

46 塘取十畝穿心約百步부터 滿則除之까지는 許增撰, 《園情錄》卷15 (養魚)에 보인다.

47 符는 '符'로 되어 있었는데 《園情錄》에 근거하여 고쳤다.

48 凡有魚之所須부터 當巨魚略有數帶耳까지는 《山林經濟》卷2 (養魚)에 보인다.

池種魚 但取魚苗畜小塘 飼以青草 自可供饌 一法作羊圈於池槽岸上 每朝 掃其糞于塘內以飼魚 如是則不必入飼魚打草 然但魚略有微滯耳 熊三拔泰西水法水庫法注 凡池既蓋而閉之⁴⁹ 則畜金魚數頭 是食水蟲 或鯽魚 是食水垢 野塘注之山原之水 遂以畜諸魚 可也 魚之性 每與牛羊生相長注 魚與牛羊相長者 以鯽食羊豕之糞而肥 鯽食鯽之糞而肥 經濟曰 池水流去處⁵⁰ 淨以簾子 以防失魚 而簾當細密 則水溢流 疏闊則小魚漏去 用大板亂擊小孔 以代箔 最宜 和漢三才圖會 新掘池 雨水感夏春陽氣 則鮒鯽自生 鯽鯽亦皆如此 凡空池欲生鯽魚 春間納糞米 自化為鯽 物理小識及本草必讀 鯽頭春月腦中有蟲 此魚由糞米化生 故肚尚有米色 又見和漢三才圖會 鬻池有橫土豎土之異 眉公秘笈天祿識餘 土脈有橫有豎 豎土不可稻 以其不停水 橫土可鬻 此是理也 復有嘗土味稱土重之法 農書及堪輿志 鬻土一尺深 嘗其味 甜者爲上 不鹹不甜者爲次 鹹者爲下 稱各處土令極乾 將權稱量 重者爲上 輕者爲下 蓋貼土重土 宜魚故也 養魚法 魚池可用九畝或七畝⁵¹ 內立十洲三島 魚晝夜五方游 朝東方 其池東方 可掘丈許深 以磚石有疊埽吃崎 作十洲 勿出水面 日中南方 可掘至泉 再深取三處 如井之狀 名曰三島 使魚寒暄得所 日西遊西方 止深三二尺 多栽蒲柳之類 使魚馳聘於花影之中 黃昏遊北方 可深七八尺 多留藻 魚止於此 夜半居中 深四五尺 作明水 其魚朝星斗

49 「凡池既蓋而閉之」부터 「鯽食鯽之糞而肥」까지는 熊三拔 撰, 《泰西水法》卷3 〈七日注〉에 보인다.

50 「池水流去處」부터 「最宜」까지는 《山林經濟》卷2 〈養魚〉에 보인다.

51 「魚池可用九畝或七畝」부터 「不必立埽」까지는 《居家必用事類全集》丁集 〈養魚法〉에 보인다.

池中築一臺 方二丈許 立一塚如窠窠狀 中藏狗毛骨糞 與乾柴草相間 積於塚中 外立一走線於內 若或有暴風雨 速將走線點火 著塚中 柴草等 煙起龍來 使鯽煙籠之不得近⁵² 此乃養鯽法也 若鯽魚等 不必立塚 辟蠶有法【物理小識 池塘邊 多植木芙蓉 蠶不敢近來 其葉能爛蠶毛 故蠶畏之也 又見花鏡制蠶法 張富曰 掉堆尾於罽穴 卻不敢出 物理書 桂書蠶 蠶飲酒則死 其往來路置酒 則蠶飲死 池畔多掉堆羽毛 則蠶不敢來 物理書 蠶與狐食馬肉則死 經濟 池邊種芭蕉者 露草落水中 則魚吞而肥大 五行書 置鵝雌雄一雙於庭 時時管喉 則辟盜辟蛇 且辟蠶 池畔近處 畜之爲好 此是養魚之妙術也 種魚爲農者 不可不知也】取魚苗有術【范蠡⁵³ 以活鮒用竹刀破之 入水銀少許 同水泮油菜 碎之和拌 入魚腹內 再以菜裹之 懸空處四十九日 用河水取腹內元子一二粒 內於水中 以物蓋之 少時一粒即一魚 乃魚活水盆中游 只依元種 又見東坡集注 稗書 頃刻種魚法 取魚卵乾者 夏月有生魚子商 去雞蛋清黃 納之堅封 伏雞抱之 待雞雛下時 同出 蒸乾納水中 即化爲魚苗 物理小識 端午日⁵⁴ 取鯽魚子塗席上 陰乾六旬 取置水中 糞糞覆之 南海諸郡 八九月取魚子 著草 懸于籠煙上 至二月雷發時 以草浸池塘 旬日出 如科斗 謂之鮒蟻 二月上旬 庚糞翹者 蓋取易長也 此種魚苗之良方 故詳辨且證】又有留魚之方 醫魚魚忌之法 故並辨之【雜五行書 留魚術 置取途中人棄麩衣 四

52 「不得近」은 《居家必用事類全集》에는 보이지 않는다.

53 「范蠡種魚」부터 「只依元種」까지는 王十朋 撰, 《東坡集注》卷16 〈次韻范蠡山人歸彭城〉에 보인다.

54 「端午日」부터 「蓋取易長也」까지는 方以智 撰, 《物理小識》卷11 〈魚魚〉에 보인다.

盆覆埋池四角 魚自不遺去 醫治魚病 經濟 若魚遭毒翻白⁵⁵ 急疏去毒水 別引新水入池 多取芭蕉碎 置新水來處 使吸之則解 或以人新溺 (神隱日叢書) 澆池面亦解 凡魚池內鮎魚 則魚盡死 蓋鮎食魚也 池不宜瀉麻 魚盡泛 池旁芭蕉 滴池可解 見上 經濟 魚食楊花則病 物理書 魚食菽則病 魚食楸皮汁則死 魚忌蠟燭滓 葦草黃漿實 各油石灰巴豆川椒木瓜燒灰辣蓼 均殺魚 經濟 魚食雞鴨蛋黃 則中寒而不予 胡麻古餅 卽芝麻油滓 可以養魚 此亦種魚者當留心焉】又有種龜法【振華博物志 取龜挫 令如菴子大 搗赤苧汁和合 厚以苧苞 五六月中 作投池中 經旬爛盡成龜 天香樓偶得 先翻土作大坎⁵⁶ 宰母猪一腔置其中 將肉臠子千百枚 投入猪肉中 俟肉敗時 肉臠子蠕蠕動 卽成龜矣 按此二法 若成真龜 則養于別池取賣 與種魚相埒 肉臠子外 有木臠子 以木臠子如法種龜 亦生龜雖欺 肉臠子 詳考本草綱目及正字通類書字書 則可知也 肉臠子外 又有米田木臠 竝細考其名物 一試可也】種魚之外 又有金魚 已有辨證 而不及黃魚法 參考【群芳譜 一云⁵⁷ 金魚宜雙中養 不近土氣 則色紅鮮 金魚生子 多在穀雨後 如遇微雨 則隨雨下子 若雨大 則次日黎明方下 雨後 將種魚連草撈 入新清水缸內 視雄魚綠紅趕咬雌魚 卽其候也 咬罷 將魚撈入舊缸 取草映日 看其上 有子如粟米大 色如水晶者 卽是 將草撈於淺瓦盆內 止容三四指水 置微有樹陰處曬之 不見日不生 烈日亦不生 一二日便出⁵⁸ 大魚不撈久 則自吞啗 咬子時 草不宜多

恐礙動轉 金魚 最畏油噴 無用油鹽蒸餅 須過清明日⁵⁹ 以前忌喂 多月 將糞斜埋地內 夜以草蓋覆之 俾嚴寒時 常有一二指薄水 則魚過歲無疾 甌築水池三座⁶⁰ 甲乙丙爲號 甲池養大金魚十箇 以旋蒸無鹽料蒸餅 薄切竹簽掉晾乾 逐日少取餵飼 候魚跌子 預將濕草曬乾 撒入池中 魚跌子濕炸草上 候魚子跌盡 漚起濕草曬極乾 却撒入丙池內 魚出如針細 久漸長大 間有靴瑣者 如草魚狀者 日久仍爲金魚矣 緣春魚子色雜 秋魚子不變故也 候長如指大 却盡數漚 入乙池養 倣此 則無大魚吞啗小魚之患 此居家必用方也 熱河日記 飼魚變色法 養魚者能變魚以金色 或云 以關市汚渠之小紅蟲飼 凡魚百日皆然 初白如銀 次漸黃 久則金矣 熱河記 瀋陽途中 見車載盆 盆中貯紅蟲 浮動水面 黃如蝦卵云 供魚兒食料 其竊向可知矣 養金法 見姜希孟 養花小錄 其說 土地最佳處⁶¹ 可置金魚於草堂後窓之下 土氣自與水相合 其萍藻荇帶之類 自能茂盛 而魚得其水土自然之性 游漾於萍藻之間 浮沈出沒 甚可觀玩 池中置置一二箇上水石山 可種石菖蒲於石根 錢蒲於石上 又爲松竹蘭梅之類 多種於上 儼然是一蓬島 飼餵當用無油鹽蒸餅 擊窓櫺而餵之 久久聞其聲熟 如有客至叩之 其魚自由 又快一時之觀賞 花鏡 金魚近土⁶² 則色不紅鮮 必須缸畜 缸宜底尖口大者爲良 凡新缸未畜水時 以生芋擦之 則注水後便生苔而水活 子出後 卽用熟雞鴨子黃 捻細飼之 旬日後 隨取河渠⁶³ 穢水內

55 '若魚遭毒翻白'부터 '澆池面亦解'까지는 《山林經濟》卷2〈養魚〉에 보인다.

56 '先翻土作大坎'부터 '卽成龜矣'까지는 盧光謙 撰, 《天香樓偶得》(種龜)에 보인다.

57 '一云'부터 '則魚過歲無疾'까지는 王象晉 撰, 《群芳譜》(養魚譜) '金魚'에 보인다.

58 '出'은 《群芳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59 '清明日'은 《群芳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60 '甌築水池三座'부터 '則無大魚吞啗小魚之患'까지는 《居家必用事類全集》丁集〈養金魚法〉에 보인다.

61 '土地最佳處'부터 '又快一時之觀賞'까지는 《山林經濟》卷2〈養魚〉에 보인다.

62 '金魚近土'부터 '亦以糞解之'까지는 陳夢子 撰, 《秘傳花鏡》卷6〈金魚〉에 보인다.

63 '渠'는 《秘傳花鏡》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所生小紅蟲飼之 但紅蟲必須清水潔過 不可著多 至百餘日後 黑者變漸花白 次漸純白 若初變淡黃 次漸純紅矣 其中花色 任其所變 魚食盡盡 必泛死 以葦劑解之 誤食楊花即病 亦以葦解之 古今祕苑及花鏡 魚瘦而生白點者 名蟲 用楓樹皮投水中則愈 物理小識 金魚得白楊皮不生蟲 金魚得橄欖滓肥卓水死 古今祕苑 治金魚生蟲 用新磚入糞中 浸一日取出 令乾 投魚缸內 和漢三才圖會 按三七⁶⁴ 卽山漆 養金魚 如將死時 揉山漆葉 入汁於魚口卽活 故魚池旁植之 物理書 占驗 金魚浮水面必兩 缸底熱也 此兩徵 餘見諸書 姑略之 王考入燕記 祭天圓丘之東⁶⁵ 有金魚池 朱魚尺餘者 數百頭 雜如丹砂 人投餅池心 則潑刺爭食 蜿蜿可玩 從正陽門入 大抵養金魚 擊窓櫺而聚集向人者 乃食化也 譚彙昇化書 庚氏穴池⁶⁶ 構竹爲凭檻 登之者 其聲策策焉 辛氏穴池 構木爲凭檻 登之者 其聲堂堂焉 二氏俱牧魚于池中 每凭檻投餌 魚必踴躍而出 他日但聞策策堂堂之聲 不投餌 亦踴躍而出 則是庚氏之魚 可名策策 辛氏之魚 可名堂堂 食之化也 余未見金魚 而善喻其名狀 而如目擊者然 無乃子產校人之團團洋洋之對 是所謂君子可欺以其方者乎 【以魚之太上 亦占民情之嚮背 如顧亭林炎武日知錄 國猶水也⁶⁷ 民猶魚也 幽王之詩曰 魚在于沼 亦非極樂 潛雖伏矣 亦孔之昭 憂心慘慘 念國之爲墟 秦始皇八年 河魚大上 五行志以爲魚陰 類民之象也 逆流而上 言民不從君爲逆

行也 自人君有求多於物之心 於是魚亂於下 鳥亂於上 而人情之所嚮 必有起而收之者矣云 有心哉 亭林之言也 如靈臺靈沼 可知也 王在靈囿 麋鹿攸伏 麋鹿濯濯 白鳥嚶嚶 王在靈沼 於物魚躍 此詩不過起興闡陳之作 而細究其辭 黎民困於王化之中 雖在微物 莫不爲化育產魚之氣像 故孟子之對梁惠 以爲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有此不樂也 以一鳥一魚而知君德人心者 有如此也】 通閱亭林書 得此可感 故竝爲之一辨

64 「三七」부러 「故魚池旁植之」까지는 《和漢三才圖會》 권94末 (三七)에 보인다.

65 「祭天圓丘之東」부러 「從正陽門入」까지는 《南莊館全書》 권67 (入燕記下)에 보인다.

66 「庚氏穴池」부러 「食之化也」까지는 譚時撰, 《譚子化書》 권5 (庚辛)에 보인다.

67 「國猶水也」부러 「必有起而收之者矣」까지는 顧炎武撰, 《日知錄》 권1 (包无魚)에 보인다.

望魚胎化辨證說

耽羅物產魚類有望魚 胎生

按耽羅志 魚類有望魚 異於諸魚 胎化不卵出 未知此魚狀如何魚 而或以鯉魚 但取其音作望魚歟 注甚模糊 可歎 魚之胎生者 有鱒有鯊 是魚亦然也歟

金魚花魚辨證說

抱朴子 丹水【丹水 出陝西商縣竹山 東流至內鄉 與浙水合】有丹魚 先夏至十日夜伺之 皆浮水 赤光如火 網而取之 剖其血塗足 可步行水上 嘗見此以爲異 然非常有物 有誰見之耶 更不如見在之金魚花魚也

凡物隨人所向而變 故草芥之屬 自然變色 蟲鳥亦然 不可勝記 近世有金魚花魚 自燕來者 貴家多養之 有欲其孳長 納于池中 經霖澆溢 入于京都開川 有或捉漁者云

或言自宋以來 始有蓄者 亦非也 自漢時已有之 以相如【司馬相如】子虛賦 網玳瑁紫貝及魚鱗 同置五色文魚 認之 則自漢已然 第其色各異 而金魚爲總號 子取金魚 比諸石竹花者 其種變幻不一 其故也 其類有鯉鯽鰕鱉 而鰕鱉尤罕絕貴 不可易得

養法詳於廣群芳譜 養魚者取種 有春秋之別 春子色駁 秋子不然 初出黑 久變紅 或白者名銀魚 有紅白黑斑相間者 名珊瑚魚 而金管銀管者 三尾五尾 至於七尾者 游衍動盪 終乏天趣 更以人巧 飼以溝渠 紅子子【俗名紅蟲 燕市有賣】百日初白如銀 漸黃 久則金矣 又養於

臺不近土氣 則色紅鮮

隨人所尚¹ 與時變遷 中原人所尚 初則純紅純白 復以金盃金鞍金被及印白紅頭燕紅連鰓紅首尾紅鰓頂紅 若八卦 若骰色 繼以黑眼雪眼珠眼紫眼瑪瑙眼琥珀眼 四紅至十二紅二六紅 甚於十二白 與堆金砌玉落花流水隔斷紅塵蓮臺八瓣 種種不一 隨意命名 本無定額

花魚則俗白爲癩 然不覺神品都出於此魚 將來變幻 不可勝言 紅頭種類 乃爲庸版 而第眼黃紅凸 然若泥於此 則無全魚矣 紅²忌黃 白忌蠟 又不可不³羅 至於藍魚水晶魚 自是坡塘中物 知魚者所不道也 品魚之法 只此而已

且養金魚 可驗陰晴 魚浮水面必雨 蓋鉅底熱也 此是雨徵而浮【今自燕中 盛金魚於琉璃缸出來 暑月置座上 觀魚避暑】

我東則雖有略帶金色者 名以金鰓 而俗無所尚 故此等事 覆如也 亦何妨也 近者游燕來者 或染其俗 盛言之 而其實不辨金魚花魚之別 故證辨之如此 以却黃癩之來 鸚哥

飛魚辨證說

飛魚見於山海經及堯山堂外記坤輿外紀 未知何者 爲真飛魚也 字書 鱈魚 名文鱈 魚身鳥翼 名飛魚 群飛海上 有大風云 太西南懷仁坤輿外紀 西洋有飛魚 僅尺許 能貼水而飛 耽羅志 鸚鵡螺 出濟州府之牛島大靜縣之蓋¹波島等處 其在水巴能飛四五丈 如文瑤 故海人不易獲 或自死泛海 始得云 山海經 有飛魚佩之不長雷之文 堯山堂外記 甯封子有千載暫死食飛魚之句 而皆似影響之談 何異空談龜肉 按清尙書周禮疏球國志略·物產條 鱈 如白鳥 飛丈餘 入水 卽燕魚 皇明徐葆光有文鱈鱉是翎之句 文鱈似是我東所謂洪魚

1 「隨人所尚」부터 「知魚者所不道也」까지는 王象晉 撰,《群芳譜》〈鱈魚譜〉「養魚經」에 보인다.

2 「紅」은 《群芳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 「不」은 《群芳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 「蓋」는 「蓋」로 되어 있었는데 李元龜 撰,《耽羅志》〈嶺州〉「土産」에 근거하여 「蓋」란 자를 삭제하였다.

坐魚辨證說

嘗讀韓昌黎文公集·答柳州食蝦蟆詩 居然當鼎味 余初不下噉 近亦能稍稍 常懼染瘴夷 而君復何爲 甘食比羆豹【羆豹 本集注說 雖未詳何指 呂氏春秋有熊蹯豹胎爲珍味 則羆豹或據此歟】蓋二公亦食蝦蟆矣 後見燕都食單【燕都會客 必先書各種飲膳於紙帖 帖示衆賓 點其所欲者設之 名曰食單】有坐魚羹 以爲綺饗 坐魚 卽蝦蟆也 一名蠃 或稱田雞蛤魚 爾雅所謂在水曰蠃 俱列魚類 史·東方朔傳 長安水多蛙魚 得以家給人足 蛙卽蠃 古昔關中 已常食如魚 不獨南人也 陶隱居曰 一種黑色者 南人名蛤子 食之至美 蘇訟曰 今處處有之 似蝦蟆而背青綠色 尖嘴細腹 俗謂之青蛙 亦有背作黃路者 謂之金線蠃 陶氏所謂土鴨 卽爾雅之蠃 俗名石鴨 蛤子卽水雞 閩蜀浙東 以爲佳饌 李東璧曰 山雞水雞土鴨 形稱雖殊 功用則一也 四月食之最美 氣味甘 寒 無毒 補虛損 宜產婦【其骨生腹熱 多食則尿閉 膈下

酸痛 惟搗車前¹水 可解其毒也】我東人入燕 食坐魚甘之 東邊仍爲佐飯之常羞 人或怪之 是不見古書而然也【我東沈涵齋學士念祖朴直翁齊家拉嘴之】周禮之以蜃醢之爲豆實 比此何如 而謝鑿劑五雜俎 嶺南蠃卵蚰蛇 皆爲珍膳 燕齊人食蠃及蛤桂蠹蜜唧 生啖無忌 土蠃肉蛆種 喫如管 則食提何傷焉【桂蠹 陳藏器² 桂樹蟲 辛美可啖 漢書·陸賈傳 南越王尉陀獻桂蠹二器 大業拾遺錄 隋時始安獻桂蠹四瓶 以蜜漬之 紫色辛香有味 啖之去痰飲³ 此自漢隋以來 用充珍味 我東則宣廟朝 勅使獻之云 蜜唧 衛生家寶 惠州黎民 取鼠蟻初生未有毛者 以蜜養之 用獻親貴 挾而食之 聲猶唧唧 故謂蜜唧 蝗 皇明徐玄扈光啓⁴ <除蝗疏> 或言魚子所化 職獨斷以爲蝦 其身首其紋脈肉味 其子之形味 無非蝦者 太平御覽云 豐年蝗變爲蝦 知蝦之亦變爲蝗也 陳龍正曰 蝗 可爲野菜煮食 見于范仲淹疏 又曬乾可代蝦米土蠃 一名乳蟲 李時珍曰 按白蠃蠃⁵ 廣中韶陽屬邑鄉中 有乳田 以梗粉陶窖 蓋草壘糞 雨過氣蒸 皆化成蠃 名土蠃 和梗蒸食 味甘美 肉蛆 蒙古女眞諸部 淹咸諸獸肉 生蛆作脩食 味珍美 補虛云【鮮于叔明嗜臭蟲 劉俊嗜蚯蚓 若適於口 則卽他人之甯能魚也 我東之怪食蛤魚者 無異於北人之見蟹而驚者也 復有蛙與鴨無別之一證 淮南萬畢術 蝦蟆⁷ 鴨 是蝦蟆之後身 蝦蟆 卽鴨之前身也 今於鴨別欲

1. '坐魚'부터 '可解其毒也'까지는 李時珍 撰,《本草綱目》卷42 <蠃>에 보인다.

2. '而'은《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 '陳藏器云'부터 '用充珍味'까지는《本草綱目》卷41 <桂蠹>에 보인다.

4. '啖飲'은《本草綱目》에는 '啖飲之'로 되어 있다.

5. '徐玄扈光啓除蝗疏'부터 '知蝦之亦變爲蝗也'까지는 徐光啓 撰,《農政全書》卷44에 보인다.

6. '白蠃蠃'부터 '味甘美'까지는《本草綱目》卷41 <乳蟲>에 보인다.

7. '蝦蟆' 아래에 '之後身蝦蟆'이 더 보이는데, 규장각 고0160본에 근거하여 삭제하였다.

炙之色自見 而於蛙則欲蛙之心自生者 何也【掌禹錫⁸ 鵝 蝦蟆所化也 楊億談苑云 至道二年夏秋 汴人粥鵝者 車載積市 皆蛙所化 猶未全變者 列子所謂蛙聲爲鵝也 李時珍曰 鵝大如雞雌 頭細而無尾 毛有斑點 甚肥 雄者足高 雌者足卑 其性畏寒 其在田野 夜則群飛 晝則草伏 人能以聲呼之 畜令鬪搏 交州記 南海有黃魚 九月變爲鵝 以鹽炙食 甚肥美 蓋鵝始化成 終以卵生 故四時常有之 鵝解熱 療小兒疳 鵝乃蛙化 氣性相同 蛙與蝦蟆 皆解熱治疳 利水消腫 則鵝之消鼓脹 蓋亦同功云 愚嘗見鄉野人食蛙 俗名察麻古里 其狀如蝦蟆 背文淡褐作路 略似鵝背色 前高善躍 只取後脚 炙食小兒 味如軟雞 治疳 蛙之化鵝無疑 故鵝形如蛙 蛙狀如鵝 其變可互證也 燕人食蛙 何異於東人食鵝也 鵝性畏牛 見必墜伏 但聞人呼牛聲 亦伏而不起 在處有之 自秋始捕食 獵於雪中 程石麟鵝鵝譜 月令季春之月 田鼠化爲鴛 鴛 鵝也 方冬之時 鵝含土即蟄 其性從土 春來木旺 剋殺其土 而不能伸交 季月土復生 土木相以化火 因能建羽而飛 故鵝性屬火 是以性剛好鬪 夏則嚮北 冬則嚮南 避炎寒也】拘於見聞而然也 如羸蝦之屬 匪蟲也 鰻鱧之類 匪蛇耶 咬之如旨食而不穢者 習於慣熟 而爲恒餐 若至習熟嗜好之境 則雖至累極穢之物 不啻葛藟之悅口而已矣

鰻鱧辨證說

按鰻 卽鰻魚也《本草》鰻 一作鱣 我東土名드렁허리《本草》亦作鰻 字書 載之魚類 可食者也 功用甚多 故取而辨之

按《本草》鰻魚 一作鱣魚 則可以作鱣故名也 字書 以善配魚爲字 則魚無毒 可食則魚之善者也 性大溫 味甘無毒 主治濕痺 補虛損 療瀉骨 治婦人產後淋瀝 血氣不調 羸瘦 此魚 似鰻鱧魚而細長 亦似蛇而無鱗 有青黃二色 生水岸窟中 所在 皆有赤蛇類也 其血 主癰及瘡瘡 其頭骨 止痢治消渴 端午日取燒灰用 其皮 主婦人乳癭結痞 燒灰酒下二錢

復按鰻魚 俗名鱣魚 生於水田及汚澗沮洳中 善窟穴 田畔泔水爲害農 其狀如鰻鱧魚 此物至難死 捕卽打于人之左脚上卽死 其腹中有細蟲如蚊者甚多 其血 點翳膜眼生胬肉有效 其肉 付惡瘡漏腫生蟲者 蠱毒付肉而出 或云 此魚有毒不可食 故農人捕必棄之 或誤食 殺人云 或云 曾試煎膏 飲小兒泄痢脫氣者 大補卽差 試用產後病有效 食之則死云者 妄傳也

又按鰻有絕大者 我東關西《成川府志》桂汝杠者 有神勇橫甚 里人

欲害汝枉 陽設酒罇於江岸峭絕處 請汝枉共飲 乘酒酣 擲于岸下 墮入江底 乘相質其死 而已 汝枉手持鱧魚長丈餘者 得得而出 衆皆失色 時年十七也 《同文》、《譯語》兩類解 鱧字下以黃鱧訓 鱧蠶魚 俗名뺨암당어 又以鱧入於魚族類 則鱧非殺人之物 如河豚魚也 且《本草》出性味 稱無毒補虛云 則湖西人之謂有毒殺人者 何也 《本草》雷公駁《炮灸論》所載力倍常十之方 洪邁復採錄於《容齋隨筆》中 此是強筋健骨 自得氣力之神方也 故今又采收以爲一施之資 夫人生六極之中 弱居其一 而貧病相連 則安得生活 苟有力矣 則百事可做 故強自辨證焉 雷公主力丸曰 取肉從善 鱧鱧魚作末 以黃精酒調服之 可力倍常十云 以一人而兼十人之力 則其力比諸兼人者 果何如哉 黃精酒方 見《黃精辨證說》 取考 鱧魚則去皮骨取肉 淨乾或陽曬火烘 爲末用之 且氣力虛損 用鱧魚作膏飲之 則當得峻補矣 大抵鱧魚 貌似蛇 故人見惡食 呂作食之殺人云 而未試用者 更不知性味之有毒與否 仍相傳有毒殺人云 不敢入口 而我東湖西民 捕必棄之 然或有用於諸疾而效 則亦不可僞信有毒死人者也 宜廣詢知者 字書 鱧魚 似蛇 黃質黑文 蛇鱧 又鱧字注 生淺渚中 似鱧 【《同文》、《譯語》兩類解 以黃鱧訓鱧蠶魚 俗以鱧之大者稱鱧 《本草綱目》鱧 一名鱧 陽事不起 泥鱧煮食 然則鱧、鱧、鱧蠶三種 氣性不甚相遠 而助人氣力者 鱧爲最佳耳 字書 鱧鱧 無鱗甲 色青腹白 有雄無雌 以影漫鱧而生子 故鱧】

烏望鯛水魷魚辨證說

我東海濱 多有名不知之物 而若細究於往牒所記 則必有名可證之道 而近於好事者 故仍爲絕學可難名物之賤微也 適有烏望鯛 水魷魚之可辨者 故如是漫記之 自晒其難移之癖矣

按海濱浦湖 有一種似魚非魚者 頭大口扁目凸身烏無鱗 長三四寸 有鯨鬚 以鯨鬚航行浦泥 穴洞而居 或跳泳淺水中 一名烏望鯛 或稱水望鯛 或呼望鯛 浦人不食 相傳爲補腎之劑云 疑是蛤蚧之屬 而別爲一種者歟 海西海洲諸島及長湍諸島 出望同魚 大不過四五寸 頭大尾殺 腹稍豐 鱗細若無 色灰白 有腥氣 乾爲蕪貫串 爲蕪將者 鯨問知舊之蕪貫者 名以望同中 此或烏望鯛之一類 而可食者也 烏望鯛 則湖西、湖南、海南多有之云 水魷魚 則其狀如魷魚 大者逾尺餘 其體甚軟 生於海中浦濱 而湖南扶安縣海上多捕之 無他用 盛於竹篩盛蒸出 挾於箸僅得吸吮 而喫則如蘇如膏 最宜無齒 未久味淡而甘 余弟仲田僉 於扶安海浦來傳如是 亦京人不知也

鯨鯨辨證說

鯨鯨 竝爲海中大魚也 古人所記者 闕有臆說 不可偏信 事苑云¹ 鯨常以五月就岸 生數萬之子² 至八月引子還海 波浪成雷 噴水成雨 故聞聲曰鯨波 耳談 海舟泛琉球³ 夜見山起接雲 兩日竝出 山接雲者 鯨魚翅也 兩日 兩⁴目也【木玄海賦 巨鱗刺雲 洪鬣掉天 卽鯨也】以此見之 中原人記事 一何浮誇也 此不知鯨之爲何許物而言也 日本人善捕鯨 故其所記者甚該備 洵爲可徵者也 我東申青泉【稚翰】以製述官入日本 著海游錄 其言曰 余謂通事曰⁵ 得一大鯨 可致終身富厚云 果然否 曰 矣止終身 可以傳世 公侯貴家 以鯨膾鯨脰爲第一名品【和漢三才圖會 魚醢⁶ 南蠻漬法 醋酒等分 一沸 入燒鹽少許盛瓠

以鮮魚肉謀入其中 經一晝夜味極美 復次⁷加入亦佳 雖極暑 五七日不餒 以代膳⁸良方 鯨膾鯨脰 必用此方也】取之者不惜重價 燈燭皆用鯨膏 而鯨肉一拳之大 得膏一盂 販膏之利 立致萬金 設骨髻鬚 皆造器物 其利亦重 所以海浦居民 有曰捕鯨將者 設網罟器械云 和漢圖會 鯨⁹大約十六丈 有六種 其狀 色蒼黑無鱗 眼纒近于口吻下 鼻上骨高起 頂上有吹潮穴【物理小識 段柯古¹⁰ 海水經 魚腦穴卽淡 范石湖集 戴海¹¹中大魚 腦有竅 吸海水傾出之則淡 鯨頂吹潮穴 亦淡海水者否】長十六丈者爲大鯨 尾上圓肥處名尾脛【其味極美】陰莖大者一丈 其雌 陰戶及乳房亦兼備 大小腹長五十丈 有鱗鬚【俗以鯨之鱗鬚爲鯨鬚者 亦誤也 卽鯨鰓內鱗也 俗名米五乙音】其骨作簪 然蠶孔雜雜 如蠶石孔【或作書版 或作筆筒諸物】其糞治痘瘡 紫黑下陷 燒之薰煙 有效【海舶若觸尾鬚則必覆 冬自北行南 春自南去北 凡鯨十三尋十六丈許者 全體取油得二百斛 大抵鯨之渾體 可食可取油 其齒骨鱗鬚可爲器 日本海中之寶 性嗜魴 魴卽倭書農魚字 乃中原及我東鯉 俗稱茂魚 魴 似馬鮫而小¹² 僅三四寸 可膾可炙 可羹 取脂爲油 一網如山 或餒爲糞田 倭人以鯨與魴爲海中巨寶也】有魚虎者¹³ 其齒鱗如劍鋒 數十每在鯨口旁 衝觸頸 久而鯨困迷開

1 '事苑云'부터 '故聞聲曰鯨波'까지는 寺島良安 撰,《和漢三才圖會》卷20(鯨)에 보인다.
2 '生數萬之子'로 되어 있는데,《和漢三才圖會》에 근거하여 '數'를 삭제하였다.
3 '海舟泛琉球'부터 '兩目也'까지는 趙吉士 撰,《寄圃叢所寄》卷5(鯨)에 보인다.
4 '兩'은《寄圃叢所寄》에는 보이지 않는다.
5 '余謂通事曰'부터 '設網罟器械'까지는 附注를 제외하고 申繼翰 撰,《海遊錄》卷下(附聞見雜錄)에 보인다.

6 '次'는 '醢'로 되어 있었는데,《和漢三才圖會》에 근거하여 고쳤다.
7 '魚膾'부터 '以代膳良方'까지는《和漢三才圖會》卷51(魚醢)에 보인다.
8 '實'으로 되어 있었는데《和漢三才圖會》에 근거하여 '膾'로 고쳤다.
9 '鯨'부터 '有鱗鬚'까지는 附注를 제외하고《和漢三才圖會》卷51(鯨)에 보인다.
10 '段柯古所云'부터 '吸海水傾出之則淡'까지는 方以智 撰,《物理小識》卷7(海井)에 보인다.
11 '鯨'는 '海鯨'로 되어 있었는데,《物理小識》에 근거하여 '海' 한 자를 삭제하였다.
12 '似馬鮫而小'는 '似馬而較小'로 되어 있었는데,《清莊館全書》(解鯨遺志)를 참조하여 바로잡았다.

口時魚虎入口中嚼切其舌根鯨乃斃【和漢三才圖會魚虎¹³西南海中有之其大者¹⁴六七尺有刺鬣利如劍腹下有翅身亦黑色有齒食諸魚世相傳曰鯨食鱸及小魚不食大魚有約束故魚虎每在鯨口旁守之若食大魚則乍入口嚼斷鯨之舌根故鯨畏之諸魚皆然惟鱸鯨能制魚虎鯨胎生口吐之魚按東北海中有魚俗名長蘇被長僅寸餘蔽海而游遇鯢鯢四面圍繞穿肉而食鯨乃死魚虎之外是亦殺鯨之魚李生源玉言嘗寓關東通川郡海族中長蘇被者狀似可支而黑色幾百數蔽海成群而游見鯢鯢則四面圍繞嚼之鯨必死則實食之云則與魚名長蘇被又不同矣】鯨死則必泛海上【我東則沿海郡邑海濱或有斃鯨漂泊而得油甚多爲利不些然官專其利反爲民弊故衆民或推斃鯨入海俾泊于他境而一鯨油價幾至千兩乃是海上重貨也高麗史元宗十四年癸酉十二月癸酉元達魯花赤以中書省牒往東界及慶尚道求置權脂卽鯨魚油也俗云閉年鯨多自斃物書鯢鯢死而星暈或曰自死之鯢必無一目又云以鯢眼瞳爲盃按裴氏廣州記鯢鯢目卽明月珠故死不見有目睛云】捕鯨法倭人與洋夷以此爲業【聞倭之捕鯨者乘大舶載堅纜索如大棹者幾百丈縛與虛機上索之一端懸大鉤鉤上有逆鉤貫豬爲餌投海水則鯨吞之而走隨其走解纜索而去畢竟鯨爲大鉤所噎而死以衆力轉纜機則鯢隨機引浮泛而至泊於海浦口又日本制鯨鉢日森近歲我東東北西南海中有荒唐船春夏常至逗留不去人多疑之問情時海沿人問其情跡答以捕鯨來留云捕鯨者取油而我國多蜈蚣之害自無故常在海

上以望遠千里鏡照海中以候鯢鯢游食處如見所在則不遠千百里必往投釣捕取其鉤甚巨以豬羊爲餌投之鯢必吞下入腹鉤腸鹿盧機轉上鉤紐大如拇指長不知幾萬把極勤不斷其釣鉤成條如穀穗有開闔機板貫餌投鯢食處鯢吸之順流而入喉矣伺其人喉引其釣紐則釣之鉤條各張四撐如張雨傘鉤引腸胃鯢負痛直走洋船因勢隨去鯢斃則轉鹿盧收釣紐則鯢泛水隨來云又聞西關人言則異樣船泊利原海南松田其類十九人頭著如紅帽以氈造之其色或紅或青衣西洋緞周衣亂斫松木被捉於利原官其語音如胡而濁訥亦有知中國書者問何恒浮沿海不去則答以捕鯨爲業其舟中多積鯢骨燒骨爲柴食甘藷餅爲朝夕餐云其恒浮海上而捕鯢云者似非謠說鯢魚則我東所無故人多不識其狀今略采諸書以記之【許慎¹⁵鯢食人魚一生百卵及成形則有爲蛇爲龜爲蛟王圻三才圖會鯢四足似鼉長二丈長尾而利齒虎及龍渡水鯢以尾擊之皆中斷食人既飽則浮在水上若昏醉之狀字書鯢龍吻虎爪鬣目鱗鱗尾長數尺潛水吞人卽浮夢溪筆談鯢魚¹⁶形如鼉但喙長等其身牙如鉅齒有黃蒼白三色尾有三鉤遇鹿豕卽以尾戟之以食生卵甚多或爲魚或爲龜鼉其爲鯢者不過一二設鉤於犬豕之身夜而流之鯢食之則斃物理小識鯢畏黃蠟取珠者以蠟裹體而采云說郛海南有魚如鯢斷其首乾之極去其齒而更生亦鯢魚之類也洪武正韻鯢似鯢大水潛谷吞人卽浮別出鯢字注以海中魚名鯢卽鯢也】愚以爲捕鯢之機巧不如釣鯢之巨人鉤繼之巧計難敵昌黎之祭文聞者爲之一笑

13 「有魚虎者」부터 「鯢乃斃」까지는 《和漢三才圖會》 권51 〈鯢〉에 보인다.

14 「魚虎」부터 「惟鯢能制魚虎」까지는 《和漢三才圖會》 권51 〈魚虎〉에 보인다.

15 「鯢」는 《和漢三才圖會》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6 「許慎說文」부터 「若昏醉之狀」까지는 《和漢三才圖會》 권51 〈鯢〉에 보인다.

17 「鯢魚」부터 「鯢食之則斃」까지는 沈括撰, 《夢溪筆談》 권21 〈異事〉에 보인다.

鯢人魚漆燈辨證說

鯢《正字通》音倪 鯢屬 鯢者爲鯢【《和漢三才圖會》鯢鯢 鯢戶，乳房皆備】《本草》鯢在山溪中 一名王鮪 聲如小兒啼 故鯢膏燃燭不滅 秦始皇冢中用之云 按《盛京通志》鯢鯢《爾雅》作王鮪 鯢魚 一名鮪魚 或謂之神魚者 樂浪蔚瀾死海中所化也【《和漢三才圖會》鮪亦鮪屬 鮪之類也《本義》鮪，鮪以爲一物者 失精矣 鮪 青碧色 鼻長與身等 鮪 頭略大 鼻雖長 不甚大 口在頰下 兩頰頰如兜蓋 背腹有鬣無鱗 蒼黑色 肚白尾有岐 上大中圓下小 其大者一丈餘 小者六七尺 肉肥 淡赤色 背上有黑血肉兩條 可去之 乘暖浮見 鱣 胎生 產於口者 鮪與鮪似是我東鱣魚 卽鮪魚 按字書 鮪 似鮪而青黑 頭小而尖 似鐵兜蓋 口在頰下 甲乃摩畫 鯢魚似鮪¹ 四脚 前似獼猴 後似狗 聲如小兒啼 一曰鯢鯢鯢《五雜俎》今嶺南有鯢魚 四足 嘗緣木上】許慎《說文》鮪 出樂浪潘國 有兩乳 南懷仁《坤輿外紀》人魚之似人

1 '鮪'부터 '乘暖浮見'까지는 寺島良安撰,《和漢三才圖會》卷51〈鮪〉에 보인다.

2 鯢魚似鮪은 鯢魚似鮪으로 되어 있는데,《康熙字典》〈魚部〉'鯢字條'를 참고하여 '鮪'자를 삭제하였다.

者 今俗呼爲人魚 西南海中有之 胎化 能挾雞飼乳云 疑是《說文》之鮪也 湯若望《職方外紀》海中有海女³ 上體如女 下體爲魚形 其骨爲念珠 魚骨中上品 各國貴重之【《坤輿外紀》亦載此】類書, 字書 又有鮪人 則亦人魚類也 秦始皇山 人魚油燃燈之說 或用鯢脂與海人之油也歟 鯢本鯢鯢之名 而《本草》以王鮪當之 而鮪非人魚也 或因其聲如小兒啼 而名之曰鯢 訛傳爲人魚也歟 鯢鯢之脂亦可燃 呼以蠶履脂 則祖龍冢中燈 無乃鯢鯢之油 而誤作王鮪之鯢者乎 古墓中然漆 千年長明者 種種見于古牒 鮮有可據 而宋岳珂《程史》有紀可考 余嘗試然漆 則光暗不明 其或點于地中 千秋晃朗者否 大抵古帝王貴人家中必燃燭 而後世發掘 猶有不滅者有之 匪獨秦始皇冢燈而已也【《程史》余居負山⁴ 在潞城之中 慶元元年 大雨隕其巖 古冢出焉 數甃流下 字曰 晉永寧元年五月造 又有匠者姓名曰張某 下有文如押字 列瓦罍二十餘 壁有一燈 尙燭 取之卽滅 有油如膏 見風凝結 予考《晉書》永寧蓋惠帝年號 距今九百餘載 押字之制 世以爲起於唐 摩挲五朵雲 而不知晉已有之 余固疑其似而非⁵ 又不可強識 凡物皆腐 而燈燭尙明 巖山人魚之說 固容有之】

3 '海中有海女'부터 '各國貴重之'까지는 艾儒略撰,《職方外紀》卷5〈海族〉에 보인다.

4 '余居負山'부터 '固容有之'까지는 岳珂撰,《程史》卷1〈晉宮村〉에 보인다.

5 '非'는《程史》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鱸魚辨證說【附帶魚】

青魚 鱸族中至繁者也 皇明末忽產於遼東等海 名以新魚 我東則退計百許年前甚盛 大者幾如小鰻矣 中間絕罕 正廟戊午 己未間 復出稍賤 而細如小鯉【石首魚也】此魚先見於北路¹ 循關東之東邊 仲冬始產於嶺南蔚山 長蓄之海 漸南漸細 而魚商遠輸京師 必趁南至之前 薰於煙窓以免殺 名以煙貫目【貫目 即乾青魚之俗名也】貴售焉 蓋沿海所產處 皆有其期 然母論東西南北 四時常有 初夏至海州而止 海郡漁戶以夏秋漸稀 未得進貢 故或改其名 販於當處 而大抵海州之產 溢于國中 自己未以後 二十尾輒作一級 換銅錢二三文 自純廟庚寅 辛卯之間 一級直四五十文 漸至翔貴 自憲廟乙未以後又漸賤 然終不如己未以後 魚鮮之盛衰 亦不可知也 謬曰 窮士貧民 若無青魚 則何以解素 果是名言也 此魚但稱青魚 而以鱸當之 非也 卽鱸魚也 王圻《三才圖會》鯉 如鯉而小 青色 俗呼青魚《倭圖會》引鱸 鱸 鯉 皆訓青魚《清三通》海青魚 出寧海 其至海水有聲 去則水激

如箭 卽今青魚也 按宋琬²《舟中無事 忽憶故鄉海錯之美 因疏其狀 戲爲排體 青魚長不盈尺 青脊亦顯 立春後有之 肉香而鬆 隨筋而脫 骨磷磷如鱗毛 軟不刺口 雌者腹有子 長闊竟體 嚼之有聲 雄者白 最佳【按青魚卵 類如黍粒 故嚼之有聲 雄者白 卽白胖 俗呼魚白兒 我東俗名一乃 聞漁人言 則雄者於水中放下白胖 點滴如矢 則雌隨其後吞下 懷孕成卵 產卵海藻蔓葉上如珠 化生鱸 而其未化時 海人取海藻乾之 卵亦隨乾 貨于市上 爲鱸物 亦可餐 青魚嚙下有物 細如白絲 相糾結成小塊 似是此魚 腹蟲如蛇者 宜去之勿食可也】初入市 價頗昂 既而傾筮 不滿十錢 海上人用以代飯 謂之青魚粥 詩曰 枕上春鶯向曉鳴 故國風物最關情 青魚白勝西施乳 堪笑河豚浪得名 此非我東青魚者乎 關中產此甚盛 與海州相埒者 可異也 又有帶魚詩 銀花爛熳委筠筐 錦帶吳鉤撻攘場 千載專諸留俠骨 至今比舊尙飛霜【疏 帶魚 無鱗鬣 形如束帶 長六尺餘 色瑩白如銀 煇煇有光彩 若刀劍之初淬者然 故謂之銀刃 首尾一骨 膾上下數寸尤美 膠西人饋之以糟 走千里不壞 此魚 我東亦有之矣】其所謂帶魚者 乃我之俗名葛治者 以字書考之 則卽《譯語類解》裙帶魚也 此魚狹區 而可長四五尺 瑩白如劍 故名劍魚 中原之帶魚 非此魚邪 其味甚旨美 春末夏初 湖西南沿海郡市上充初 或醃或烹 或鹽漬炙食尤美 故謬 味旨價賤 葛治佐飯【佐飯者 東俗名鹽醃鮮也】誰知其膾上下數寸尤美者乎 予屏營絕峽 幾忘魚肉者 已有年矣 故臨文如賞五侯鯖 漫記之

342 1 此魚先見於北路'부터 '貫魚'까지는 李震 撰 《星湖雜說》卷8 (生財)에 보인다.

2 宋琬安雅堂集'부터 '湖之青魚粥'까지는 間注를 제외하고 李德懋 撰 《青丘館全書》卷7 <青魚>에 보인다.

鱧魚辨證說

朝鮮東北海水族中 有小魚如鱧者 曰麩魚 或稱鯨魚 餘卽我東土字 其音與麩字音 初聲相近 故借用焉 一網盈船 海氓未卽乾脂則腐 故爲賁田物 生者作湯 油膩不能食 乾者亦爲日用恒饌 然不若北魚之 遍溢一國也 世以此魚亦無正字者 誤也 按《閩書》鱧 似馬鮫而小 有鱧 大者僅三四寸《和漢三才圖會》鱧 俗云鱧 取脂爲燈油 凡鯨與鱧 本朝海中寶也 其利用不可計 而鯨食鱧云 予嘗聞海漁言 則鯨於鯨 游處 張口以吸鱧隊 自以爲海溝之疾流 群入鯨腹 鯨既充腹 咬牙突 頤 噴水成浪 湧水留鱧 如人漚酒樣云 今考《倭圖會》鯨食鱧之文 與此脗合 且我俗以鱧呼作麩魚 倭亦稱麩魚 後閱李祕書【種德】《漂 海錄》則倭曰供麩魚三四箇以爲饌云 故躬造甲問 則答以此魚與我 鯨魚同 而大如鱧魚 然則產於倭者甚大【數年前 漂倭泊關東蔚珍縣 其船滿載麩魚 如我乾石魚者 其狀似青魚而非云 此卽乾麩魚也】仍 書此以告同志之博物者

北魚辨證說

我東東北海中有一魚 狀狹而長尺餘 巨口細鱗 色淡紅黑 腦有橢圓 骨如南瓜子 腹有卵 顆細而黏 又有如羊脂豬胰者 名曰膏脂美 其名 曰北魚 俗其稱則明太 春漁曰春太 冬捉曰冬太 以至月登諸市曰凍 明太 困醴曰明卵 生者肉鬆味淡 乾爲羹 遍于一域 一尾數文 直同四 方 爲日用常饌 而閭巷細民 以此爲饋脩享神 儒家饋奠 亦充蠶豆 物 賤用貴者也 但食之而不識其名 可乎 格物論有達法哈魚者 可實爲 此魚 達法哈魚¹ 八月自海入江 積數至衆 或有覆魚背而渡者 寧古塔 黑龍江土人 取魚炙脂 積以爲糧云 此非我之北魚乎 又聞北海人言 則自仲秋北魚大至 一掬盈舶 積而成山云 尤可驗格物論之達法哈魚 也 如或產於中國之四海 則古人已製字爲某魚 而至於此魚 不少概 見 則斯可疑也 若但出於我之東北溟 則許叔重說文解字·魚部 有鮓 出樂浪東瓊 鮓出貉國 鈔鮓鮓鮓鮓接 竝稱出樂浪蕃國 魚名不明 其 狀的指爲何魚 是可歎也 然則此魚實無正字可名 復閱日本良安尚順

1 「達法哈魚」부터 「積以爲糧」까지는 《皇朝通志》卷126 《魚類》에 보인다.

和漢三才圖會 則以爲阿羅魚俗用鱧字¹ 未詳 按形色略類鱧而大 其口類鱸 三月北海采之 乾者細末 入產後金瘡之藥 能有止血涼血之功云 此豈非北魚耶 鱧 僂之俗字 卽我所謂大口魚 中原所稱吳魚也 鱧 乃僂之所製北魚正字 比諸達法哈魚阿羅魚北魚明太 猶足爲此魚之一幸也歟【北魚功用 則海邊人取其內腸 爲油可燃 其皮煎膠黏物也 其首煎飲消滯 其全體濃煎成膏 可以補虛及產後腹痛 乾者空心頓喫 可止血痢 其蒸餽之氣 薰頭風有效 僂尙稱產後金瘡藥云者 不誣也】

蟹魚辨證說

蟹有大小 卽蟹類 考諸書 則以蟹又指爲虹 而乃俗語也 蟹魚《本草綱目》李東璧² 蟹狀 如惠文冠及熨斗之狀 廣尺餘 其甲瑩滑 青黑色 蟹背骨眼 眼在背上 口在腹下 頸如蛻蝦 十二足 似蟹 在腹兩旁 足³ 長五六尺 尾長一二尺 有三稜如纜葉 背上有骨如角 高七八寸 如石珊瑚狀 每遇海 相負示背 乘風而遊 俗呼蟹帆 亦曰蟹簾 其血碧色 腹有子如黍粟米 可爲醃醬 尾有珠如粟 其行也能常負雌 失其雌則雄卽不動 漁人取之 必得其雙 雄小雌大 置之水中 雌負雄沈 故閩人婚禮用之 其藏伏沙上 亦自飛躍 皮殼甚堅 可爲冠 亦屈爲杓 入香中能發香氣 尾⁴ 可爲小如意 股燒之可集鼠 其性畏蚊 蟹之卽死 又畏陽光 射之亦死 而日中暴之 往往無恙也 南人以其肉作酢醬 小者名鬼蟹 食之害人 按良安《和圖會》好事者附會勇士戰死者名⁴ 以爲鬼蟹

1 『阿羅魚俗用鱧字』부디 『能有止血涼血之功』까지는 寺島良安 撰,《和漢三才圖會》卷 49 《阿羅魚》에 보인다.

1 『李東璧曰』부디 『食之害人』까지는 李時珍 撰,《本草綱目》卷45 《蟹魚》에 보인다.

2 『足』은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 『尾』는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4 『好事者附會勇士戰死者名』부디 『圖而腹文如鬼面』까지와 『筆談所謂閩中人怪其形』

其靈所化 元弘之亂 秦武文死于攝州兵庫海 故兵庫及攝州明石浦之鬼蟹 俗呼曰武文蟹 其大近尺 而蟹赤色有白紋 享祿四年 細川高國與三好戰于瀨陽 細川家臣島村何某挾敵二人 沒死尼崎水中 故尼崎浦之小鬼蟹 俗呼曰島村蟹 其大一二寸 圓而腹文如鬼面云 我王考《雜抄》曰 予按視背文如鬼面 《筆談》所謂關中人怪其形狀 懸門上辟瘴之蟹者 卽此鬼蟹也 《和圖會》鬼蟹 脚左右各四 而大小相間 大脚四 小脚四 二蟹甚小 李瀛《星湖僿說》蟹類 有撥棹子者⁵ 後足闊薄如棹 蕩水浮行 俗名串蟹 以匡有兩角如串也 予按似是鬼蟹者 其背亦有鬼面也 我東以鬼蟹之小者 亦名秦武文 其大若姆指 頭背匡上 有眉目口鼻似糖面 兩旁有角如針 海中大串蟹 背殼亦有人面者可名鬼蟹 與《本草綱目》蟹魚相較 則名實不副 而與《和圖會》大小鬼蟹相較 則絕相類焉 可怪也 柳冷齋【得菘】嘗詠《鬼蟹歌》贈我王考曰 日本壯士秦武文 關死攝州滄海濱 海中多產鬼面蟹 土人云是秦將軍 秦將軍擁劍大怒面如生 悲啼冷晒縱橫紋 當時一斗臨陣酒 至今雙頰微醺醺 青莊道人得之喜 對客揮塵誇異聞 東隣柳子見之歎 拔劍起舞凌青雲 君不見雲峯之戰射殺兒拔都 佟公一箭收奇勳 又不聞南州義士夜刺小西飛 平壤城外迷賊氛 晉州城上轟石樓 旋風吹碎石榴裙 樓下千年論介【義妓名】碑 世上男兒徒紛紛 嗚呼男女有志去請總 安用注蟲疏魚竊西種 可見古賢詠物之工 秦武文之戰死化鬼蟹 如樂浪尉之沈沒爲神魚也 詩草木蟲魚疏 仲明 樂浪尉雨海死 化爲鱗魚 登萊人名 鱗魚爲尉魚

《盛京通志》鱗魚註《爾雅》作王鮪 按鱗魚 一名尉魚 或謂之神魚者 樂浪尉溺死海中所化者也

以蟹爲虹者 楊慎《丹鉛總錄》東鄰晴⁶ 西鄰雨 則《詩》所謂朝隤于西 崇朝其雨也 又見王象晉《群芳譜》引《農桑要覽》中語也

狀'부터 '卽此鬼蟹也'까지는 寺島良安撰,《和漢三才圖會》卷46(鬼類)에 보인다.

348 5. '撥棹子者'부터 '以匡有兩角如串也'까지는 李瀛撰,《星湖僿說》卷4(蟹)에 보인다.

6. '東鄰晴'부터 '崇朝其雨也'까지는 楊慎撰,《丹鉛總錄》卷19(詠語有文程)에 보인다.

鯉節酒盜辨證說

日本雜曰島夷 與他蠻甚異 好尚中國文字 經史子集之外 奇文僻書 莫不購置 仍爲版刻 無書不存 且有國書 名曰以呂波片假者 迥異外夷【於中國, 我東書旁 刻其片假字如句讀】豈番字, 洋書, 梵書比也 必取華字 僞旁而爲字 以爲通俗文 如我諺書 復有土字 如中原, 東國之土俗書 其字 卽八梢魚也 鱈字 卽大口魚也 鱈字 卽鱸【俗訓農魚】也 鱈字 卽銀口魚也 鱈 卽道味魚也 鮎字 卽古乃魚也 鮎字 卽鱧魚也 鱈字 卽魴魚也 字 卽烏賊魚也 鱈字 卽北魚也 鯉字 卽高刀魚之別字 按《和漢三才圖會》堅魚¹ 俗以堅魚二字爲鯉 乃鱈之大者 非是也 此魚脯極硬 可削用 故呼曰堅魚 和名【和 倭古稱大和國】加豆魚² 按鮎之屬也 鯉 頭大齊尖 無鱗 蒼黑色 有光膩 腹白如雲母 泥 背有硬鱗到尾端 兩片似銀齒 尾有岐 其肉深紅 味甘溫 背上兩邊肉中 有黑血肉一條 釣之不用餌 以牛角或鯨牙 一鱗釣數百云 其所

1 「堅魚」부터 「一鱗釣數百」까지는 寺島良安撰《和漢三才圖會》卷51《堅魚》에 보인다.

2 「魚」는《和漢三才圖會》에는 「鮎」로 되어 있다.

說魚狀 極妙且精 鯉節³ 卽鯉肉乾脯者也 漁人造之 鮮魚去頭尾 出腸爲兩片 去中骨 復割兩片肉 作三條以煮熟 取出曝乾 則堅硬而色赤如松節 故名鯉節 本邦日用之佳肴 調和五味之備 一日不可欠者也云 酒盜 卽麴屬爲醱爲肴 則酒益勸 故名云 鯉字 卽倭書 故字書不收 我東土名高登魚《譯語類解》稱古道魚 鯉節 東俗呼乾古道魚 其狀如牛角 馬島曾貢獻禮曹物 單有鯉節 則倭以此物可得充貨也 作屑同海帶【俗名甘藷】爲羹 可補產婦 或入膏飲中【我東俗名雜魚肉作膏者】我人或不知鯉節之爲何物 故漫記以辨 然倭名鯉節者 豈不雅於我東呼作乾古道魚乎

3 「鯉節」부터 「故名」까지는《和漢三才圖會》卷51《堅魚》에 보인다.

嘉支強治海馬鯢鱓辨證說

海中水族有牛、馬、羊、豚、狗、獼、虎、貓、蝮、鼠諸獸畜而成其狀近似彷彿則名焉故究其實則多不副也大抵比諸陸產則奇形怪狀者甚多我東海中亦有奇怪之物《文獻備考》海中有獸¹牛形赤眸無角群臥海岸見人獨行害之遇人多行走入水中名可之【張漢相²探視蔚珍縣海中鬱陵島後別單有嘉支魚穴居巖窟無鱗有尾魚身四足而後足甚短陸不能善走水行如飛聲如嬰兒脂可燃燈按北關六鎮慶源慶興海中有一獸其狀如牛似馬有尾鬣毛短黑褐色不染水名強治或稱海馬慶源慶興兩海津社海漁民放丸捕取其皮極厚頭大如牛而頭尾之內甚軟脆牛皮煎味甚腥置取油亦多可作鞍韃鞋紙此物乃鬱島所產嘉支而北海人則呼之以強治又稱海馬者也稱以可之嘉支者傳寫有異也】按《說文》鯢皮有文出樂浪東廳縣神爵四年初捕收輪考功《楚辭·大招》鯢鱓短狐注鯢鱓短狐類補注狀

如翠牛今俗呼爲水牛其皮有文可制履節較云此豈非東北海中嘉支者乎樂浪東廳【按史東廳漢樂浪郡領縣三十五中一縣也今關東江陵府也】非今江陵府等地耶東北海相連則東海之嘉支即北溟之強治而古之所謂鯢鱓也水牛則別有其種出安南形如野猪色蒼黑人家畜養作耕或屠食以日氣熱故晝則盡入水日沒後方出其角甚大即今黑角倭人買取以來流及我東皮亦出來今稱水牛皮者是也然以嘉支海狗等皮混稱水牛皮海馬則又有一種小如鯢而頭似馬故名焉入於藥料者也【海馬見《拾遺方》一名水馬陶弘景³是魚鯢之類也狀如馬形故名陳藏器曰海馬出南海形⁴如馬長五六寸蝦類也《南州異物志》云大小如守宮其色黃褐婦人難產割裂而出者手持此蟲即如羊之易產也冠宗爽曰其首如馬其身如蝦其背偃偃有竹節紋長三寸⁵蘇頌曰收取曬乾以雌雄爲對《醫濟總錄》海馬雌者黃色雄者青色李時珍曰海馬雌雄成對其性溫暖有交感之義故難產及陽虛房中術多用之如蛤蚧即君子之功也蓋履水莊壯陽道我東海中亦多有之】

1 『海中有獸』부터 『名可之』까지는 《增補文獻備考》 권31 《新羅》에 보인다.
2 『張漢相』부터 『脂可燃燈』까지는 李漢 撰, 《星洲傳記》 권3 《鬱陵島》에 보인다.

3 『陶弘景』부터 『壯陽道』까지는 李時珍 撰, 《本草綱目》 권44 《海馬》에 보인다.
4 『形』은 『鱓』으로 되어 있는데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고쳤다.
5 『長三寸』은 《本草綱目》에는 『長二三寸』으로 되어 있다.

龍辨證說

龍者 鱗蟲之長 四靈之首 其名狀詳於諸書 今何必辨證 但取異說罕聞稀見者 使初學取考焉【龍有八十一鱗 在脊上 卽九九陽數也 鯉有鱗有三十六 卽六六陰數也 或以鯉化 或以蛇化。有金木土水火五種 以五色辨之 其中火龍最毒 一角者應龍 或稱虯龍 又有似鷹者 卽蛟蜃也 漢高格物 龍無耳 物理書 龍聽以角 或作以鼻聽 故龍耳者 取龍不耳聽也 博物志 龍不見石 故穿石而行 無礙也 龍珠在頰 龍頰下 鱗盡逆 龍狀有九似¹ 角似鹿 頭似驪 眼似鬼 項似蛇 腹似蜃 鱗似魚 爪似鷹 掌似虎² 耳似牛 一說 頭似牛 嘴似驢 眼似蝦 角似鹿 耳似象 鱗似魚 鬣似人 股似蛇 足似鳳 龍有雌雄之異 乘異記 劉涓子³ 一日有夫婦造⁴門曰 龍有雌雄 其狀不同 雄者 角浪凹峭 目深鼻豁 鬣

1 '龍狀有九似'는 '龍狀有九似龍'로 되어 있었는데, 文義에 따라 '龍'을 삭제하였다.

2 '掌似虎'는 《遂州辨證說》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3 '劉涓子嘗龍'부터 '化爲雙龍飛去'까지는 張君房 撰, 《乘異記》(論龍雄龍)에 보인다.

4 '造'는 '門'로 되어 있었는데, 《乘異記》에 근거하여 고쳤다.

尖鱗密 上壯下殺 朱火燁燁 雌者 角微浪⁵平 目肆鼻直 鬣圓鱗薄 尾壯於腹 涓子曰 何以知之 其人曰 吾乃龍也 化爲雙龍飛去 莫氏八林 龍象六十年骨全後換骨 茅亭客話 龍有五苦 生時眠時嬉時怒時 蛻骨時 珍珠船 四分律文 諸龍 初生時睡時噴時行欲時 不能變形 物理小鏡 龍交時 化爲二小蛇 本出釋典 類書 龍交時 交於上下風 五雜俎 龍性最淫⁶ 與牛交則生麟 與豕交則生象 與馬交則生龍馬 嶺南人有善致雨者 幕少女於空中 驅龍使起 龍見卽回翔欲合 其人復以法禁 使不得近 少焉 雨已霑足矣 槐西雜識 有龍淫性好交 故或風雨晦冥時 與人物交 人毋論男女老少必來交 但不傷人云 類書 龍卵生 恩抱 雄鳴上風 雌鳴下風 五雜俎 龍生九子⁷ 蒲牢因牛崖吻嘲風羅毗 賈區狂狃狻猊霸下 北夢瑣言 龍生二卵 一名吉了 居易錄 古云 龍蛇卵有黑點 蛇圓龍長 經火不燥 試之良然 詳在龍卵虎胎辨證說 五雜俎 鳳喜食龍腦⁸ 故龍畏之 蜈蚣長一尺者能飛 龍畏之 作雷擊之 或龍欲其珠也 類書 龍性畏蠟 愛竹及空青 嗜燒燕肉 又畏鐵標葉及五色線 愛玉 龍食此躍而肥 新齊諧 龍爪 理如通犀 臭似龍涎 香出百步之外 蚊蚋不敢近 龍角 陰雨日 水牛角端 鑽取 取蛟龍牙一枚帶身而變臨局 自然機變橫出 雷珠 本草綱目 李時珍曰 雷珍 乃神龍所含遺下者 夜光滿室 見雷珠辨證說下 龍涎 李時珍本草綱目曰 龍涎 出西南洋云 是香聞 群龍所吐涎沫 能收腦壽 數十年不散 焚之翠煙浮出云云 詳在龍涎辨證說中 紫桐花 卽龍精 詳在吉子脂辨證下 尺木

5 '浪'은 '浪浪'으로 되어 있었는데, 《乘異記》에 근거하여 '浪' 한 자를 삭제하였다.

6 '龍性最淫'부터 '雨已霑足矣'까지는 蕭華 撰, 《五雜俎》卷9에 보인다.

7 '龍生九子'부터 '霸下'까지는 《五雜俎》卷9에 보인다.

8 '鳳喜食龍腦'부터 '或龍欲其珠也'까지는 《五雜俎》卷9에 보인다.

即如意珠 詳在尺木辨證下 龍火 王符言 龍又能變火 陸佃云 龍火見濕則熄 得水則熾 以人火逐之即息 李時珍曰 龍性畏丙草 祈雨用燕鎖水患用鐵 澗蘊用蘭草 禦龍 物理小識 江海上桃花浪黑雲起⁹ 則爲龍起 焚龍殼等語 吳物却之 或麗青髻 尖浪起 灘犬血 劉蔚叔曰 海舵師知龍起 但雷金鼓 洪務徑洋記 亦言鉦鼓弓矢 叫譟却龍事 魚龍畏鐵者 鐵味能辛 辛害目 故魚龍護目而畏鐵者也 以鐵柱貫釜塞水源 遂成平陸 死牛皮鞞鼓 海舶用之 見龍起播之 則龍不進 澤中龍在處投鐵 雨立降 取蜈蚣燕蛙膏血 蘭草投潭中 必大風雨 溢潭而後已 又投虎骨 龍起多竊硫黃雞毛 龍不近 香祖筆記 客有談龍者¹⁰ 龍之蛻以首 見晁氏著策 嘗得全首 置榻下 高可二尺許 或¹¹得之地中 或得之石中 或有得全鱗者 龍身 遼史 遼主射龍獲之 角尾長 脚短 身長五尺 舌長二尺五寸 書影 張某居曰 燕市有龍身 方鱗鉤爪 長六尺許 頭角悉具 筠廊偶筆 順治二年 寓長安 見大內所藏龍盤貯一篋中 一角五爪 鱗甲如鐵 丈餘 儼然所翁圖畫也 耳談 武昌縣因江漲¹² 漂一物如魚鱗於田間 大如席 或曰龍鱗 亦爲異聞也 此皆的然有據者 五雜組云 俗有立夏分龍之說¹³ 蓋龍於是時 始分界而行雨 各有區域 不能相驗 故有咫尺之間而雨頓殊晴者 龍之爲也 群芳譜 諺四月十四二十日 爲小分龍 雨晴分 懶龍主旱 雨晴分 健龍主水 東南風分 黑龍主旱 正南風分 赤龍主大旱 西北風分 白龍主大水 東北風分

9 江海上桃花浪黑雲起'부터 '遂成平陸'까지는 方以智撰,《物理小識》卷11〈龍龍〉에 보인다.

10 '客有談龍者'부터 '或得之石中'까지는 王士禛撰,《香齋筆記》卷4에 보인다.

11 '或'은 《香齋筆記》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2 '武昌縣因江漲'부터 '或曰龍鱗'까지는 趙吉士撰,《寄園寄所寄》卷5〈異〉에 보인다.

13 '俗有立夏分龍之說'부터 '龍之爲也'까지는 《五雜組》卷9에 보인다.

青龍主小水 西南風分 黃龍主¹⁴大熱 又見四時占候 五月二十日爲大分龍 占同小分龍 楚俗以二十九三十日爲分龍節 雨則多水 閩俗以夏至後爲龍分 許眞君 龍神行風日 正月初三初八十一 二十五三十日 龍神會日 二月初三初九十三二十日 龍神朝上帝日 三月初三初七二十七日 龍神朝星辰日 四月初八初十二十七日 龍神會太白日 八月初五初八十五二十七 龍神大會日 五雜組 五月十三日 是龍生日】

世以龍之所居爲水府爲龍宮爲水晶宮 然竝不可信 而有魏裔介龍宮取木記 而魏氏乃淳謹學者 豈能作此孟浪荒說 爲後人指譏也哉 又有五雜組所記 竊合證據 則似有其事 言之不謬矣【魏裔介¹⁵ 龍雖以海爲窟宅 而所寢處之宮室 以人間之爲之 每至夏小滿後 雨水連綿 正其鳩工庀材時也 天津之古北口 北海之濱 與永平遵化諸邊口接壤 中有濼河 元人運粮 以達上都應昌者也 謂龍宮運木之通渠 每三年一伐木口外 其伐木者水族人 貌形如老叟 布衣露體 幽谷之中 丁丁不絕 倏忽之間 雷轟電掣 風雨晦冥 袖豁湧溢 木皆轟起 直抵關隘 守關者稔識其流也 開關而放之入水中 木魚貫而進 由濼河東南行達于海 無一仆而浮者 河上居人 皆耳而目之 又有移人之樓以去者 午夜望之 燈火熒熒 至曉則滅 海濱乏¹⁶薪 每三年一次龍宮焚 震方習

14 '龍'은 '上下'로 되어 있었는데, 문장의 흐름상 원초 과정에서 '龍' 자를 두 개의 관자로 잘못 인식한 듯하다.

15 魏裔介龍宮取木記曰'부터 '龍火自燒也'까지는 李德懋撰,《南莊館全書》卷58〈龍宮取木〉에 보인다.

16 '乏'은 '乏'으로 되어 있었는데 《南莊館全書》(龍集記)를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習颺起 候之海壖 木之積者補者種者燬者 皆半詰斃而焦朽 瀉溪海岸 人拾以給饗供數月 說者曰 龍火自燒也 五雜俎 蘇州東入海五六日程¹⁷ 有小島 闊百餘里 四面海水皆濁 濁比水清 無風而浪高五丈 常見水上紅光如日 舟人不敢近 云此龍王宮也】

按一書 龍口吻常有火焰燦燦云 五雜俎 西北塞外人跡不到之處¹⁸ 不時聞數千人斫樹拔木之聲 及明遠視 山木一空 云海龍王造宮也 清 尤桐外國竹枝詞注 艾山有仙艾 仲春開花 雨後花落水面 群魚吞之多化爲龍 離蜀餘聞 滇之大理多龍【其龍果是神龍歟游龍歟】

龍亦有病 自當以其神變醫之 而成精人而治【釋說曰 龍井在彰德府湯陰縣西真人社 相傳 晉孫登嘗居此社時 亢陽 農夫禱於龍洞得雨 得將祭謝之 登曰 此病龍雨 安能蘇禾稼乎 如不信聽 喚之 水果程穰 龍時背生大疽 聞登語 變爲一翁 求治曰 疾痊當有報 不數日果大雨 見大石中裂開一井 其水湛然 蓋龍穿此井以報也 續事始曰¹⁹ 黃帝時 有馬師皇者 善醫馬 此馬醫之始也 列傳云 嘗有龍下向之²⁰ 垂耳張口 師皇曰 此龍有病 我能醫之 乃鍼其背 以甘草湯飲之 愈云 然否 萬曆戊戌之夏²¹ 句容有二龍交構 一因而墜地 夭矯田間 人走數百里 競往觀 越三日 風雷挾之而升】

17 '蘇州東入海五六日程'부터 '云此龍王宮也'까지는 《五雜俎》卷4에 보인다.

18 '西北塞外人跡不到之處'부터 '云海龍王造宮也'까지는 《五雜俎》卷4에 보인다.

19 '續事始曰'부터 '以甘草湯飲之愈'까지는 寺島良安 撰, 《和漢三才圖會》卷7 《馬醫》에 보인다.

20 '之'는 '人'으로 되어 있었는데 《和漢三才圖會》에 근거하여 고쳤다.

21 '萬曆戊戌之夏'부터 '風雷挾之而升'까지는 《五雜俎》卷9에 보인다.

或與乳與蚌²²相關相戰 或墮地辟毒 或自晉井出 或藏人爪甲 變化不測【述異志²³ 東海水獸名乳 (倭集韻 音乳 獸名 似犬 食人) 能食龍腦 康熙二十五年夏 平陽縣 乳從海中逐龍至空中 圍三日 三蛟二龍合圍 一乳殺一龍二蛟 乳亦隨擊 俱墮山谷 其中一物 長一二丈 形類馬 有鱗鬣 火光猶焰起丈餘 蓋乳也 鈕瑋 履 吐火獸 上虞顧族聚居²⁴ 西華村²⁵ 去海不遠 康熙二十九年八月 顧氏子遙見晴空 有青色龍 飛逐怪獸 其獸遍體純赤 狀如巨狗 青龍撲舞而前 此獸吐火迎龍 龍噴雪火拒之 盤旋久之 俱入於海 我宣祖三十八年乙巳 京畿竹山府有白龍 自江而出 至一村家²⁶ 忽風雷交作 登空而去 村家大小人物竝拔 飄落數里外 或不知其所之 皇明毅宗十六年癸未六月十三日夜 霹靂起 牽先殿 廟門金鋪皆爲龍爪所灑化 廟前石上有龍臥痕 康熙癸酉六月²⁷ 仁和²⁸ 阜亭山中 驟雨大風 有龍與乳鬪 龍吐水壺 乳吐火 在黑雲中 一一可辨 乳如獅子 所過之村俱焦毀 竹窓小記²⁹ 小獸名曰乳 形類兎 兩耳長尖 獅作威時 牽乳視之 獅畏伏不敢動 乳作兩者其體 肉卽腐爛 乳又畏蛇鴻 誘引吮高鳴 乳卽畏伏云 乳乃乳之麟 獸 乳卽我東所謂強鐵也 強鐵 俗傳未化龍之惡物 與旱魃同云 全身

22 '蚌'은 '蚌'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장의 흐름을 보아 '蚌'으로 고쳤다.

23 '述異志'부터 '蓋乳也'까지는 《青丘館全書》卷57 《乳》에 보인다.

24 '上虞顧族聚居'부터 '俱入於海'까지는 鈕瑋 撰, 《履齋集》卷4 《吐火獸》에 보인다.

25 '西華村'은 '一棋家'로 되어 있었는데 《青丘館雜辨說》를 참고하여 고쳤다.

26 '至一村家'는 '一棋家'로 되어 있었는데 《青丘館雜辨說》를 참고하여 고쳤다.

27 '康熙癸酉六月'부터 '乳卽我東所謂強鐵也'까지는 《青丘館全書》卷57 《乳》에 보인다.

28 '和'는 《青丘館全書》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29 '乳'는 《青丘館全書》에 '蟲'으로 되어 있다.

火塊形如駒 飛空而行 居易錄 嘉靖二年³⁰ 蘇州太湖中 龍與蚌³¹鬪 自雲中直下 其爪可數十丈 蚌於水面旋轉如風 仰噴其涎 亦數十丈 三四日乃已 後漁人得死蚌殼 可貯粟四五石云 皇明武宗正德十三年 五月 蘇州常熟縣 一白龍二黑龍乘雲下 口吐火焰 雷電風雨 倦去傍 近民舍三百餘戶 船數十 飄入半空 墜地粉碎 其威及於我東 京外地 大震 太廟屋瓦飄落 關內牆垣塌倒 與蘇州同日被災 我中廟十三年 戊寅五月望日也 我肅宗三年丁巳五月 關西咸陽縣 神龍以墳井中 出 靈藏文下 禾穀受損 陝西通志 成化間³² 邵陽民王興 手指甲內 見紅紋如線紆曲 每雷雨輒動小苦 興數欲自剔去之 後夢一男子形容 甚異 謂³³興曰 余乃龍也 謹托君 托三月後當去 幸勿訝 至期雷雨大 作 自廟出 其手有龜裂甲飛去 李時珍本草綱目 翰林院叢記³⁴ 李定 言 石藏用 近世良醫也 有人³⁵承簷溜浣手 覺物入人爪甲內 初若絲 髮 數日如線 伸縮不能 始悟其為龍伏藏也 乃扣藏用求治 藏用曰 方 書無此 以意治之耳 未幾龍遂指 庶免震死³⁶ 其人如其言 後因雷火 燒身 急針挑之 果見一物躍出 亦不為災 醫說亦載此事云 此是乘龍 所為也 北夢瑣語 乘龍苦於行雨 而多竄匿³⁷ 為雷神捕之 或在古木

及簷楹之³⁸內 王興爪甲所藏及李瀕湖所云 一人浣手簷溜而入於爪 內者 乃是乘龍所為也 蛟蜃 卽蛟螭 滾馬蠶蟲也 蛟蜃或有御雷火之 功 而能免霹靂之災歟 五雜俎 吳淞湖旁有巨潭³⁹ 中產老蚌 其大如 船 一日 張口灘畔 有浣衣婦以爲沈船也 藏之 蚌閉口而沒 婦爲驚仆 嘗有龍來取其珠 蚌與鬪三晝夜 風濤大作 龍爪蚌於雲中 高數丈 復 墜 竟無如之何 景泰七年冬 河水盡合 蚌自湖西南而出 冰皆摧破 堆 壘兩⁴⁰岸 如積雪然 以後遂不知所之】

大抵天地間變化神物 惟有龍焉 卽火之精也【方中履古今釋疑引夢 筆錄⁴¹ 易稱乾爲龍 龍 火之精也 五行之精 惟龍神變 故有火龍土龍 金龍水龍木龍 坎卦在子宮 所謂天一生水 以陰先陽 還知坎中一畫 眞陽 爲天地之根 火之宗也 陽在陰中 卽龍宮之在海藏 龍神之潛九 淵 所謂陽在下而勿用 卽大易寂然不動之宗也 火故龍之爲神也 按 龍春分而登天 秋分而下降 物理書 龍蜿蜒行 今行見龍升于海濱或 深潭 雲霧擁圍 雷電震耀 雨下如注 風起走石 倏登空中 其首藏於黑 雲中不可見 但見其尾宛委而垂 亦近辨其狀 俗傳孕婦指之則墮 無 翼而能飛者 乃是神變也 其他古今荒唐之說 見于諸書 故略之】

龍之類甚多 故亦辨之【類書 其狀似蛇 而四足細頸 頸有白髮 卵生

30 '嘉靖二年'부터 '可貯粟四五石'까지는 王士禛 撰, 《居易錄》卷23에 보인다.

31 '蚌'은 《周易說》에는 '蚌'으로 되어 있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32 '成化間'부터 '其手有龜裂甲飛去'까지는 《陝西通志》卷100 (拾遺三)에 보인다.

33 '謂'은 '小稱'으로 되어 있었는데, 《陝西通志》에 근거하여 고쳤다.

34 '翰林院叢記'부터 '醫說亦載此事'까지는 李時珍 撰, 《本草綱目》卷41 《鏡類》에 보인 다.

35 '人'은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6 '死'는 《本草綱目》에 '厄'으로 되어 있다.

37 '匿'은 '爾'로 되어 있었는데, 彭大翼 撰, 《山堂雜考》卷6 (龍出)을 참고하여 고쳤다.

38 '之'는 '之'로 되어 있었는데, 《山堂雜考》卷6 (龍出)을 참고하여 '之' 한 자를 삭제하 였다.

39 '吳淞湖旁有巨潭'부터 '以後遂不知所之'까지는 《五雜俎》卷9에 보인다.

40 '兩'은 '雨'로 되어 있었는데, 말초 과정의 오프로 보아 바로잡았다.

41 '夢筆錄'부터 '卽大易寂然不動之宗也'까지는 方中履 撰, 《古今雜錄》卷13 (四行五 行)에 보인다.

居湖海深處 獨角龍也 以眉而生 故名蛟 能興雲布霧 本草⁴² 蟹 蛟之屬 其狀亦似蛇 而有角 如龍狀 紅鬚 腰以下鱗盡逆 食燕子 能吐氣 成樓臺城郭之狀 將雨即見 名蜃樓 亦曰海市 其脂作蠟 香凡百步 燻中亦有樓臺之狀 謂之蜃樓脂 禮·月令雉入大水爲蜃注 大始曰蜃 今註蛟屬 兩說相左 以陸佃說考據 正月蛇與地交生卵 遇雷即入土數丈爲蛇形 經二三百 乃能騰升 不入土 但爲雉 雖不言雉化爲蜃 而此必蜃蛟也 物理小識 雉與蛇交⁴³ 入土爲蛟蜃 其說可據也 閩人謂蛟苟者 卽未成蛟在地中者 望地氣而知之 掘而食之 猶雷州人掘雷子而食之也 雷子 卽蛟筍類 頭似烏喙 得火土之氣而生也 月令伐蛟 蛟無所用 蠶毒爲患 故伐而殺之 物理小識引龍城錄⁴⁴ 取黃蘗木 以熱酒沃之 在松江以刀圭投此藥 魚吸卽死 吳江有蛟怪 宣伯以此投潭 明日老蛟死云 授之闍皇王天師 涉海者亦需之 嘗見一書 蛟卽深山中經千百年大鱗所化 其狀如牛 其作怪 山崩水漲 民多受害 故周禮有登蛟伐蜃之文 蓋爲此也 其脂 東方朔曰 蛟髓以傅面 令人好顏色 又女子坐草中用之 產易 見眉公秘笈中】

復有沈存中所記彭蠡小龍 其事甚怪矣【沈存中 彭蠡小龍⁴⁵ 頭異至多 人人能道中一事最著 熙寧中 王師南征 有軍仗數十船 泛江而南 自離夙州 卽有一小蛇登船 船師識之曰 此彭蠡小龍也 當是來護軍仗耳 主典者以潔器薦之 蛇伏其中 船乘便風 日棹數百里 未嘗有波

濤之恐 不日至洞庭 蛇乃附一商人船回南康 世傳其封域止於洞庭 未嘗識洞庭而南也 有可以狀聞 詔封神爲順濟王 遣禮官林希子中致詔 至祠下焚香畢 空中忽有一蛇墜祝帽上 祝曰 龍君至矣 其重 一臂不能勝 徐下至几案間 首如龜 不類蛇首也 子中致詔 意曰 使人至此 齋三日然後致祭 王受天子命 不可不齋戒 既⁴⁶受命 徑入銀香奩中 蟄三日不動 祭之日 既酌酒 蛇自奩中引首吸之 俄出 循案行 色如濕胭脂 爛然有光 穿一剪綵花過 其尾尚赤 其前已變爲黃矣 正如雞黃色 又過一花 復變爲綠 如嫩草之色 少頃 行上屋 乘紙幡脚以行 輕若鴻毛 倏忽入帳中 遂不見 明日還 蛇在船後送之 踰彭蠡而回 此龍營遊舟楫間 與常蛇無辨 但蛇行必蜿蜒 而此乃直行 江人常以此辨之 按以此爲龍 則龍在天潛淵者 豈得如是耶】我東言 訓龍曰彌鱗 故東國四聲通解及訓蒙字會等書 於龍字下 竝以謬書訓作彌鱗 卽自古相傳之方言也【西域佛說 龍曰那伽 龍猛曰那伽易樹那 蛟曰宮毗羅 與我方言皆有音無義者也】

金草家【百鍊 北清嗣孫 官至郡守 一號五黠子】

性奇僻靈異 言多奇中 似妄誕 而其實亦不然 於龍多有異說【其說論我東龍之性情文武 詳見龍能文章辨證說 又有談龍之類 而出其名字 字書無見 亦甚怪誕 姑記之 如西陽搜神之談怪說異焉 松龍之類 性甚仁慈 主旱曆 或代神龍行雨 自謂其眉曰日鵠曰松眉云 其說甚怪 鱗亦龍類 其先祖昇平 誤眉鵠目 誤眉上連一字 而眉毛覆下云 雙

42 本草부터 大始曰蜃까지는 《康熙字典》(虫部) 蜃字條에 보인다.

43 雉與蛇交부터 得火土之氣而生也까지는 《物理小識》卷11 《蛟筍》에 보인다.

44 龍城錄부터 涉海者亦需之까지는 《物理小識》卷5 《黃蘗湯殺物神藥》에 보인다.

45 彭蠡小龍부터 江人常以此辨之까지는 沈括撰 《夢溪筆談》卷20 《神奇》에 보인다.

46 既는 《夢溪筆談》에 載되어 있다.

北方龍 性強暴 群龍相聞 自後襲之 故名震 凡萬物以目見之 出食慾 而獨虎以耳聽之 然後出食慾 故人之爲將者 耳猶虎耳 則其嗜殺 林將軍慶業 襲眉虎耳鬚 一字眉 卽龍眉也 旣亦龍類 性甚強暴 又曰 鳩山鳥⁴⁷之長者 自謂鳩目昇平眉⁴⁸ 鳩鳳之類 諸葛亮邵康節生時 鳩來鳴 鳴音桓 在於扶桑樹下日出處 其鳥甚忠義質直 關羽生時 鳩來鳴 鳩鳴古鷺鷥化鳥 卽我俗名鼎小鳥⁴⁹之小鳥也 草萊之言每多類此 嘗與金喙齋先生用謙安順產鼎福友善 則其爲人亦可知 而不可忽也】

古者有豢擾者 有酢醢者 吾未知其爲何也【左氏傳昭二⁵⁰十九年 龍見絳郊⁵¹ 魏獻子問祭墨 對曰 古者畜龍 故有豢龍氏御龍氏 獻子曰 是二氏 聞而不知其故 曰 昔有鬲叔安 有裔子曰董父 實甚好龍 求其嗜欲 以飲食之 龍多歸之 乃擾帝龍 以服事帝舜 舜賜之姓董 氏曰豢龍 故帝舜氏世有畜龍 及有夏孔甲擾于帝 帝⁵²賜之乘龍 河漢各二 各有雌雄 孔甲不能食 而求擾豢龍氏 有陶唐氏既衰 其後有劉累 學擾龍于豢龍氏 以事孔甲 能飲食之 夏后嘉之 賜氏曰御龍 以更豕韋後 龍一雌死 潛醢以食夏后 后享 旣以使求之 懼而遷于魯縣 范氏其

後也 此果其實歟 其後晉世張華者出 食一魚酢曰 此醢肉也 人怪問之 乃曰 龍酢遇醢則文章 試之果然 此人得積薪之 白魚而醢之 初非醢龍者也】

47 '山鳥'는 '鳩'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실을 뜻하는 '鳥'와 같은 글자다. 문리로 보아 달초 과장의 오류가 분명하므로 '山鳥'로 바로잡았다.

48 '白謂鳩目昇平眉'는 '白謂鳩目 ■鳳之類 白謂昇平 ■目'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리로 보아 달초 과장에서 생긴 연문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았다.

49 '鳥'는 '鳩'로 되어 있었는데, 文鏡에 따라 고쳤다.

50 '二'는 《春秋左傳注疏》卷16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51 '龍見絳郊'부터 '范氏其後也'까지는 《春秋左傳注疏》卷16에 보인다.

52 '帝'는 《春秋左傳注疏》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龍生九子辨證說

謝肇淛五雜俎 龍性最淫¹ 與牛交則生鱗 與豕交則生象 與馬交則生龍馬 胡侍承珍珠船 龍生九子² 蒲牢好鳴【鐘劍之獸】囚牛好音【樂器之獸】蚩吻好吞【殿脊之獸】嘲風好險【殿角之獸】睚眦好殺【刀頭之獸】展翬好文【碑旁之獸】狴犴好訟【獄囚之獸】狻猊好坐【佛座之獸】霸下好負【碑座之獸】弘治間³ 泰陵令中官 問龍生九子名目於李少師東陽 李不能悉 詢於吏部劉員外績 乃得其說於古冊面上所錄 然亦不知所從出 因據以復 余憶十一二時 曾見其說於對類總龜中 五雜俎 博物志⁴ 九種之外 又有憲草好囚 饕餮好水 螭蜺好屋【一作靈】好風雨 螭虎好文采 金猊好煙 椒圖好開口 切鯨好立險 鱉魚好火 金吾不睡 亦皆龍之種類也 楊慎丹鉛總錄 龍生九子⁵ 不成

1 『龍性最淫』부터 『與馬交則生龍馬』까지는 謝肇淛撰, 《五雜俎》卷9에 보인다.

2 『龍生九子』부터 『碑座之獸』까지는 寺高良文撰, 《和漢三才圖會》卷45 《龍》에 보인다.

3 『弘治間』부터 『曾見其說於對類總龜中』까지와 『囚牛好音樂』부터 『今殿脊獸頭』까지는 胡侍撰, 《真珠船》卷4 《龍九子》에 보인다.

4 『博物志』부터 『亦皆龍之種類也』까지는 《五雜俎》卷9에 보인다.

5 『龍生九子』부터 『見殺而難記』까지는 楊慎撰, 《升菴集》卷67 《椒圖》에 보인다.

麗 各有所好 椒圖其形似螭 性好閉 故立於門上 詞曲 門迎駟馬車 戶列八椒圖 圖之名 見菽園雜記 愚聞王士禛居易錄 龍生二卵 一名吉了 見北夢瑣語 珍珠船圖化錄⁶ 囚牛好音樂 今胡琴頭上所刻 睚眦好殺 今刀柄上龍吞口 嘲風好險 今殿角走獸 蒲牢好鳴 今鐘上獸鈕 狻猊好坐 今佛座獅子 霸下好負重 今碑座獸 狴犴好訟 今獄門上獸 吞口 展翬好文 今碑兩旁龍 蚩吻好吞 今殿脊獸頭 此說甚詳 故不嫌贅附 若然則龍雖多子 何其不肖之甚耶 說文 鱗魚 一生百卵 及成形 則有為蛇為龜為蛟 不類本形 畢竟與龍之不肖⁷子同焉 亦云異矣

6 『珍珠船圖化錄』은 『珍珠圖船化錄』로 되어 있었는데 文義에 따라 고쳤다.

7 『肖』는 『肖』로 되어 있었는데 文義에 따라 고쳤다.

論龍文武辨證說

禽獸之能韻語詩詞者 古人或有記載 而如論語疏 公冶長辨雀語云 雀繞舍呼曰¹ 公冶長 南山虎馱羊 汝得其肉 我食其腸 又云 啾啾嘖嘖 白蓮水邊 有車覆粟 車脚淪泥 犢牛折角 收之不盡 相呼共啄 人驗之果然 大梁山貨店 養鸚鵡甚慧 東關口有料哥 亦能言 兩店攜二鳥相較 鸚鵡歌一詩 料哥隨和 音清越不相下 料哥再挑與言 不答一字 人問其故 曰 彼音劣我而點勝我²開口 便爲所竊矣 某司有愛子病篤 購以娛之 賈人籠之以獻 鸚鵡爲悲愁自歌云 我本山貨店中鳥 不識臺司衙內尊 最是傷心懷舊主 難將巧語博新恩 妖鼠詩 成化二年 長樂士人陳豐獨坐山齋 梁上二鼠相語 忽墮爲二老翁 長可五六寸 對坐劇飲 譬如小兒 既而有女子歌舞勸酬 其歌詞云 天地小如喉 紅輪自吞吐 多少世間人 都被紅輪誤 又歌 去去去 此間不足留儂處 儂住三十三天天外天 玉皇爲儂養兒女 歡既闌 適合爲一大鼠 向土人

1 '雀繞舍呼曰'부터 '相呼共啄'까지는 謝肇淛撰 《五雜俎》卷6에 보인다.

2 '我'는 '它'로 되어 있었는데 《龍馬辨證說》의 내용에 의거하여 고쳤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도 '我'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作拱揖狀而去 此等鳥獸 雖微物 猶有靈慧之性 能知文字 作詩詞韻語 而況四靈也哉 金五獅子百鍊 北渚祀孫 而性奇僻 多有靈異之事 嘗語永平花洛洲及金剛山九龍淵龍 皆武猛 又善地理 漢江龍及江都龍閭弱 花洛洲有三龍 一龍斑 一龍黑 一龍青 楊州北江龍 武猛 忠州諫川龍 多貪心 東海海金剛之下有龍 其龍尚文翰 新羅時 其龍之子來學書法於金生 金生筆多在是觀處 洛東江龍 善文章 其文甚敦厚開朗 大同江龍 亦善文章 其文華麗云 五龍此言甚荒誕 而此翁善譚遠古 事多脗合 性亢直 正色責人 適中其病 故人多畏憚 不敢近焉 則其所言者 或非謬妄也歟 清魏奇介淳謹學問人 作龍宮取木記【記見本集及我王考所著崑葉記中】 謝肇淛五雜俎中亦載海龍王造宮之說 其言甚誕 而真有是事 的然有據 則不必左袒其有無虛實者也

龍卵虎胎辨證說

予非好奇之士 而若見事之奇怪神異者 則必書而藏之 故不知者或疑我爲好奇 然其實拾古人好奇之遺 將爲日後問奇者購應之資而已矣 五雜俎有龍生九子之說 而九子之外 更有二卵之文【類書 龍卵生思抱】 物理小識有虎不再交¹之語 而嘗見六鑿之孕 則古²書所傳者 不可盡信 孔氏東塘 衍聖公夫子之裔孫也 曾有龍卵詩 其生卵之說 不誣也 不佞則當作虎胎說 其新胎之見昭然 則此豈非一辨者乎【清王士禛居易錄 孔尚任東塘³有龍卵聯句云 燕市得一卵 其堅如石⁴ 圓尺有三寸 鵝子形 色類漬象牙 俯體黧點有文 蟠結如蛟蟠狀 古云 龍蛇卵有黧點 蛇圖龍長 龍卵經火不暇 試之良然云 蔣筥瑣探 姑蘇劉昌 皇明成化五年六月五日⁵ 河決 杏花盞水及堤 明日 三司以牲醴致奠

1 '虎不再交'는 '虎再交'로 되어 있었는데, 《物理小識》의 원문에 의거하여 '不'를 넣어 바르게 하였다.

2 원문에는 이 앞에 '則古' 두 자가 더 있었으나, 衍文으로 판단하여 빼어 보았다.

3 '孔尚任東塘'부터 '試之良然'까지는 王士禛 撰, 《居易錄》卷32에 보인다.

4 '石'은 《居易錄》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5 '皇明成化五年六月五日'부터 '中惟水而已'까지는 劉昌 撰, 《蔣筥瑣探》(龍卵)에 보

既歸 有一卵浮於河 大如人首 下銳上圓 質青白 微具五色 又多黧黑點 漁人得之 守河者以十匹布易焉 因馳以告 始觀之甚恐 以手撼之中汨汨作水聲 又甚重 氣暖而澤潤 不知何祥 或曰龍卵 余聞龍胎 未聞卵生 或曰蛇亦卵生 此固其類也 越三日 予遇和尙憲于州橋西 見圖其狀于壁 且書其上曰 玄珠占法 江湖見龍卵 主大水 又聞前一日 卵送開封府 皆懼 不敢收 守與判相却之間 墜于地 卵破 中惟水而已 愚按北夢瑣語 海上人言 龍必二卵 一爲吉弔云 而弔 居易錄作了 南懷仁坤輿外紀 白露國有一鳥⁶ 名厄馬 最大 長頸高足 無異色麗⁷ 不飛能走 足若牛蹄 若奔走 馬不能及 卵可作盃器 今番舶所市龍卵 卽此物云 然則孔氏之所得 劉昌之所見 無乃厄馬之卵 而誤稱龍卵者乎 至如虎 乃人間常有之獸 無人不見 而雖未睹其生 舉比則過于一世 然其孕則百中一見難矣 余少日陪先若居安朔縣衙 獵人獲巨虎以納 解其腹 懷大雛 其大如鼠璞 體尚未成 而其頭已有大勢 迦羅鳥之大殼中 令人自不覺怕然矣 自託人所難見者 取而腊之 以待博物者之有遠焉 歲久已佚矣 按呂氏春秋⁸ 伊說曰 肉之美者 猩猩之臂 豺作象箸 必爲玉栝 玉栝必盛龍躡豹胎 然則豹胎可爲珍羞 而虎胎亦然否】今采衆說 據而證之

인다.

6 '白露國有一鳥'부터 '卽此物'까지는 南懷仁 撰, 《坤輿外紀》(樹青鳥卵)에 보인다.

7 《坤輿外紀》에는 '無異色麗'가 아니라 '麗美麗'로 되어 있다.

8 '呂氏春秋'부터 '玉栝必盛龍躡豹胎'까지는 王栝 撰, 《野客叢書》卷30 (八珍)에 보인다.

尺木辨證說

異物出 兩眼光如銅盤 物理小識 龍初起 先有桃花浪 已上諸人所記
光發波間如叢炬也 有物如蓮花之狀也 先有桃花浪也云云者 乃是尺
木也 龍之變化不測 專出於此 則俗所謂如意珠者 豈非善名者耶

世傳龍有如意珠 故能昇天飛空 無此則不得變化云【道書云 丁眼之
氣 出自老鯉之瞳 照升于天 以化寶珠¹ 名曰如意珠 方宓山師曰 如
意寶珠 卽魚眼睛也】然則鱗蟲之長爲龍 而龍亦魚類 其眼睛爲如意
珠 而別稱尺木者 何也 其說似屬無稽 亦有所由來矣 按西陽雜俎曰
龍頭上有一物 如博山形 名尺木 龍無尺木 不能升天 孫策曰 龍欲騰
翥 先階尺木 尺木之說 自漢已有之也 是或今俗所謂如意珠者歟 或
眼睛之精光所結者歟 類書 新縣趙公萬禱雨于天井山之龍井 會有龍
見 振左藏良臣²作記云 俄有光發波間如叢炬 復紅焰飛動 下見³龍首
甚大 大復現小 小復現大 復現全體 鱗甲煢煢有光 久不沒 陰風颯然
見者魄喪神動 王嘉吳云 見龍初出水 先有物如蓮花之狀 而後水湧

1 '珠'는 '目'으로 되어 있었는데, 《魚獸鱗蟲類狀如意寶珠說》 등을 참고하여볼 때 전사 과정의 오류로 판단하여 바로잡았다.

2 '良臣'은 '良'으로 되어 있었는데, 《朱子語類》에 소개된 기문의 원문을 보고 '臣' 한 자를 첨가하였다.

3 '下見'은 '見'으로 되어 있었는데, 《朱子語類》에 소개된 기문의 원문을 보고 '下' 한 자를 첨가하였다.

珠淚辨證說

魯至剛俊靈機要有珠淚傳神詩曰 珠淚傳神隱顯中 天生靈物有奇功
縱教志士應難法 世人傳道仙筆蹤 至剛自注曰 珠淚乃海外諸山澤之
中老人蚌也 其味最長 人斃取食之 今閩南多有種 成者貨於市 池內
大蚌 採取日華永久者 卽含胎結珠者 米成如珠者 立便取之 與金盞
染之相和 但遇人間傳神作畫 用此盞相和之 日中畫則夜間無影 甚
奇異 昔有人作牧羊圖 日中衆羊在欄外食草 夜視之在欄內宿 俗以
爲仙筆 殊不知畫有時候 作此以顯聲名 此珠淚最難得 略書數句以
示人 世間之物 不可不知也 予爲之疏以明之 按本草綱目 蚌與蛤¹
同類而異形 長者通曰蚌 圓者通曰蛤 故蚌從丰 蛤以合 皆象形也 後
世混稱蚌者 非也 陶弘景曰 雀入大水爲蜃 蜃卽蚌也 陸農師佃² 蚌
蛤無陰陽牝牡 須雀化成 故能生珠 專一於陰精也【月令 九月雀入
大水爲蛤 十月雉入大水爲蜃】李東璧曰 凡蚌聞雷則極瘦 其孕珠如

懷孕 故謂之珠胎 仲秋無月 則蚌無胎 左思賦 蚌蛤珠胎 與月盈虧
是矣

古今靈苑有種珠神方 朱陳臺文昌雜錄有種珠方於養蚌 水缸喂蠶 夜
置月中 蚌蛤采玩月華而成 物理小識 蚌蛤 聞雷則瘵 見月則吐 西施
舌蛤剉江瑤柱 以胡粉塗脣 安月下則肥 我東海中 亦多蚌蛤孕珠者
鮫蛤卽九孔蛤 石決明 大蛤 淡菜 卽俗名紅蛤 大蛤或孕小丸如豈而
軟 破之成水 人以爲蛤卵 又蛤殼中有小蟹 大如菽 色紅白 蠢動無力
前漢書·地理志結埼亭注 師古曰 鮫³音結 蚌也 長一寸 廣二分 有一
小蟹在其腹中 李東璧曰 海鏡⁴ 一名鏡魚 一名瓊 一名膏藥蟹 生
南海 兩片相合成形 殼圓如鏡 中甚瑩滑 映日光如雲母 內有小肉如
蚌胎 腹有寄居蟲 大如豆 狀如蟹 越絕書作紅蟹子 如豆 蟹足皆具
海鏡飢則出食 入則鏡亦龜矣 郭璞賦云 瓊腹蟹 水母目蝦卽此 或迫
之以火 則蟹子走出 離腹立斃 或生劑之 有蟹子活在腹中 遠巡亦斃
本草綱目寄居蟲注 寄居蟲在螺殼間 海族多被其寄云 愚以爲蛤之孕
珠 亦病矣 懷蟹 亦病也 珠胎 或緣此孕蟹而成否 至剛所云珠淚 卽
蚌淚也 未成如珠時 軟而如水 故稱珠淚歟 因蚌淚而或稱方諸水 陳
藏器曰 方諸 大蚌也 熱摩令熟 向月取之 得水二三合 亦如朝露 周
禮 明諸取水於月 陳撰爲玄酒 是也 淮南子 方諸見月 則津而水 往
者或以方諸爲石 或以爲大蚌 或以爲五石煉成 晉李石續博物志 說
文曰 方諸 諸珠也 方石也 一說 方諸 九孔螺殼也 一說 方諸 本大蛤
殼 可以爲簪者 唐麟德中 封禪用明水 李敬輿八九月取蛤蚌一尺三

1 『蚌與蛤』부터 『蜃爲蚌也』까지는 李時珍, 《本草綱目》卷46 (蚌)에 보인다.

2 『陸農師佃』부터 『是矣』까지는 《本草綱目》卷46 (眞珠)에 보인다.

3 『鮫』은 『鮫』로 되어 있었는데, 문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蟹』로 바로잡았다.

4 『海鏡』부터 『水母目蝦卽此』까지는 《本草綱目》卷46 (海月)에 보인다.

寸者 依法試之 至半夜得水五升 然則方諸之爲大蚌殼 豈非可證者歟 第以方諸水 認作蚌淚則謬矣 和漢三才圖會 日本官家集諸蛤殼 凡六百五十種云 珠淚之蛤 雖云老人蚌 未詳爲何種也 楞嚴經 踏太幻部求太陰精 欲和幻藥 是諸師等 手執方諸 承月中水 周禮注 鏡酒之方諸 前公詩 方諸承水調幻藥 灑落生相變寒暑

珠淚 卽蚌淚也 以珠淚爲畫⁵ 畫⁶見夜隱 可爲證實者 有張騫海外異物記 江南徐知謬嘗得畫牛一軸 畫則噙草欄外 夜則歸臥欄中 知謬獻後主極 持真閣下 太宗張後苑 示群臣 俱無知者 僧錄贊寧曰 南倭海水咸澀 則灑磧微露 倭人拾方諸 蚌膽中有餘淚數滴 得之和色著物 則晝隱夜顯 沃焦山時成風捲飄擊急 有石落海岸 得之滴水 磨色染物 晝顯夜晦 諸學士皆以爲無稽 寧曰 見張騫海外異物記 後杜鎬檢三館書目 果見于六朝舊本中載之【又按一本 與此小異 亦出海外記 太宗朝 李王獻畫羊 晝則噙草欄外 夜則歸臥欄中 莫曉其理 僧贊寧曰 此幻藥所畫 南倭國有蚌 和色著物 晝見夜隱 沃焦山石 磨色染物 晝隱夜見 二說互有異同者 卽記者之傳訛而然也】珠淚若出於倭 則以倭之好新尚奇 尙未有聞耶 此如宋康譽之⁷昨夢錄曰 高麗之東 出猛火油 盛夏日力烘石極熱而出液 他物遇之則爲火 惟真琉璃器可貯之 又見本草綱目【本草綱目 入水涓滴 烈炎遽發 餘力入水 魚蟹皆死 餘冬昨夢錄】我東何嘗有猛火油乎 古人偏信道聽塗說而記載 故訛誤耳目 每多如是矣

5. '畫'은 '畫'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리로 볼 때 원초 과정의 오류로 판단하여 바로잡았다.
6. '晝'는 '畫'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리로 볼 때 원초 과정의 오류로 판단하여 바로잡았다.
7. '宋康譽之昨夢錄'부터 '惟真琉璃器可貯之'까지는 方以智撰, 《物理小識》卷2 〈貯火油真滅火法〉에 보인다.

龜辨證說

龜者 介蟲之長 四靈之一 名蔡 自洛龜呈書之後 遂從有名焉 經史有徵

龜卜創自伏羲¹ 則自古有之 周官立龜人之職 洪範敘稽疑之辨 太史著龜策之傳 理不可廢 自官失其守 世莫有精其術者 洪範所載日雨日霽日蒙日驛日克 而食墨不食墨之法 未聞焉 太史分四時而定吉凶 以橫正安節觀其身 以昫開俛太觀其首足 而雨蒙之說 不及焉 後此龜人 又不過定五鄉動靜 首足昫直而已 陶九成說郛載亡名氏龜書一篇 然名存實無者也 李華卜論 龜不傷物² 呼吸元和 於介蟲爲長而壽 古之聖者 刳而驗之 觀其爻置 以定吉凶 殘其生 斲其壽 卽勦殘尋靈 介而邀其神 豈合其序乎 假枯殼而決疑 豈合其吉凶乎 其說以廢龜卜爲當然者也 說苑 龜千歲能與人語 客中閑集 龜千年經人語 萬畢石朱方傳 曰 有神龜在江南嘉林 龜千歲小如錢 游於蓮葉之上 與人

1. '龜卜創自伏羲'부터 '首足昫直而已'까지는 唐顧之撰, 《博編》卷46에 실린 儲泳의 《龜卜之法》에 보인다.
2. '龜不傷物'부터 '豈合其吉凶乎'까지는 《博編》卷64에 실린 李華의 《卜論》에 보인다.

言 龜壽三千六百歲 抱朴子 靈龜五色³如玉 背陰面陽 上隆象天 下平法地 轉運應四時 蛇頭龍頸 左睛象日 右睛象月 知吉凶存亡之變 又曰 龜千歲能與人言 藝文類聚 褚先生⁴ 名寶者⁵ 財物歸 家必大富 一曰北斗龜 二曰南辰龜 三曰五星龜 四曰八風龜 五曰二十八宿龜 六曰月龜 七曰玉龜 八曰九州龜 本草⁶ 山龜之大者 人立背上 可負而作 李安溪光地曰 五五圓者⁷ 古龜卜之數也 起於五行 洪範所謂兩臂蒙蹠克者 是也 重之爲二十五 又重之爲一百二十五 今其法雖不傳 然洪範周禮注疏 尚可考也 龜毛兔角 見楞嚴經 然述異記亦云 商紂之時 大龜生毛 兔生角 乃甲兵將興之象

若但論已亡之舊契 而取其虛無之說 則與臧文仲之居蔡同焉 故徵其可知而實用者 略辨焉 先論其性

本草綱目及物理小識 龜以香油抹眼 則入水不沈 開鐵箴則伏 蚊嘍則死 以老桑煮之則易爛 凡蟲介之伏 隨日光而影加 龜息以耳 有雌無雄 龜鬣是也 物理書 龜龜影抱 蝦蟆聲抱⁸ 養龜法 物理小識 龜病宜用蚯蚓蛇及飯喂之 古今祕苑 使龜生綠毛法 以尋常烏龜⁹ 不論大小 用生薑自然汁 塗背上數次 則生出綠毛 塗薑汁 再用汚泥塗 易生

3. '靈龜五色'부터 '龜千歲能與人言'까지는 祝穆撰,《古今事文類聚》後集 卷35《龜》에 보인다.

4. '褚先生曰'부터 '八曰九州龜'까지는 歐陽棻撰,《藝文類聚》卷96《龜》에 보인다.

5. '名寶者'는《藝文類聚》에 보이지 않는다.

6. '本草'부터 '可負而作'까지는《古今事文類聚》後集 卷35《龜》에 보인다.

7. '五五圓者'부터 '尚可考也'까지는 李光地撰,《柏村集》卷28《儀禮示圖象第二篇子》에 보인다.

8. '龜龜影抱 蝦蟆聲抱'는 '龜龜影抱龜 蝦蟆食龜'으로 되어 있었는데, 趙吉士가 지은《高麗宮所寄》卷7《禽獸》나《五洲衍文長箋散編》《無雄辨字無雌蟾伏背露說》을 피조하여볼 때 달조 과정의 오류로 판단하여 비로잡았다.

9. '以尋常烏龜'부터 '易生'까지는《古今祕苑》一集 卷2《養龜生綠毛》에 보인다.

物理小識 蕪州龜小而長綠毛 或剔甲搗韭以封之 再封剔 綠毛自生 綠毛小龜 置之筠箱 辟蠹 古今祕苑 養龜榮鬣法 取大烏龜一箇 餵一二日 將飲與肉骨菓子煙火食飼之 三五月後 夜間以漆盞盛之 用竹先置盞口 令通氣 外放燈一盞 盞內熱 龜自清尿 急則只麻油煙薰鼻 亦卻尿 先用五倍子末妙醋和膠 若龜尿得一小鍾 入五倍醋半鍾 入甕器 收一滾角罐收貯 以新筆略蘸搽 白鬣週黑 多用面黑 物理小識 龜甲同玳瑁 有黃甲 無黑斑 用¹⁰龜膠 龜膠多黑 用重湯 收者通明 物理小識 以龜尿磨髮能軟 以龜尿磨墨 書玉石竹木上 透入數分 蓋可試者也 物理書 龜左邊脊大骨帶之 子孫有智慧 道書 神龜前左肩 臆骨 人穿而行 則不迷入山 敗龜板 醫經多入藥料 不須復 物理書 取霹靂木作龜形 懸木龜於空中 龜皆來集 因樹屋書影 黃山畢公¹¹ 久之得沙淋疾 沙皆作犬形 潤州某公補劑中 多用龜板 晚患龜腦 乃謁飛霞 飛霞曰 此瘕也 今滿腹皆龜 乃與赤丸數粒 服之下龜 如殺犬者升餘 經驗方 腎腫 龜肝付之效 無生者 乾肝水調付之 養珠瑁法 亦附辨之

閩小紀 玳瑁形似龜龜 背甲¹²十三片 黑白斑文相錯 鱗次以成 一背其邊裙闊闊 嚙如鋸齒 無足而有四盤 前兩盤長 狀如指 後兩盤極短 其上皆有鱗甲 以四盤擢水而行 海人糞以腫水 飼以小鱗 俗傳每至甲子庚申日輒不食 謂之玳瑁齋日 嶺南雜誌 取用其甲 必倒懸其

10. '用'은 '用'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맥으로 볼 때 달조 과정의 오류로 판단하여 비로잡았다.

11. '黃山畢公較觀納瑁'부터 '下龜如殺人者升餘'까지는 閩苑工撰,《因樹屋書影》卷1에 보인다.

12. '背甲'은 '背甲背甲'으로 되어 있었는데 范成大撰,《桂海虞志》를 참고하여 '背甲'을 삭제하였다.

身用說鰓滋之 逐片應手而落 黃多黑少者品貴 物類相感志 佩生玳瑁一片 遇食有毒 輒自動 又見康熙字典及正字通等書 物理小識 撒八兒¹³ 爲玳瑁之遺精 蛟魚食之吐出 年深結成 其價如金云 而必有功用¹⁴ 不出功用 古人記事 或多模糊如是也 我東統營海 漁夫網太龜 其大如一屋 見人出頭 如想垂淚 有人以升金買去殺之 烙鐵片子製甲 甲隨烙而捲 甚厚勝於玳瑁 其人不久闔家盡沒 人謂龜祟云 耽羅志 玳瑁出牛島及大靜縣蓋波島 玳瑁 我東方言稱若龜與玳瑁 見類書裨記字書叢書 則不必重辨矣 龜我東方言稱居福或稱南星 道書 玄武即龜蛇合形之象 而名玄武也 武蛇也 朱子所論亦然 本北方宿虛危二星似之也

五總龜辨證說

世之標號人者 以四靈爲目之外 或以鸚以鷹以熊以罽以虎以豹以鶴以鷲 或比金玉 或比芝蘭 蓋取其人而言也 至於五總龜 或有未知其義 又未知其爲何人 故博考群書以曉之 更爲之辨證焉 按唐書·殷踐猷傳 踐猷博學 尤通氏族曆數醫方 賀知章嘗號爲五總龜 謂龜千年五聚 尚無不知 蓋取此義也 陳繼儒云 說苑 龜千歲能與人言 本出顏真卿所撰殷踐猷墓碑云 顏元孫草述賀知章陸象先與踐猷凡五人相聚故云 五總龜 取其無所不知也 此卽以人比龜也 又有創撰書 亦以五總龜名焉 其取義與五人之間無不知同焉 人之五總龜 書之五總龜 每相混淆 難可分別 故強辨如是云矣

13 『撒八兒』은 『撒入兒』로 되어 있었는데, 《五洲衍文長箋叢編》(龜頂撒八兒辨證說)을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14 『必有功用』은 『不出功用』으로 되어 있었는데 《五洲衍文長箋叢編》(龜頂撒八兒辨證說)을 참고하여본 때 달초 과정의 오류로 보아 바로잡았다.

海粉母辨證說

海粉母者 出海粉之物也 今藥肆所貯海粉 特自人所製 則非眞品也 其所謂海粉母者 各出諸書 其說又異 今竝辨之 方素北 海粉 小識云 海粉母者¹ 吐海粉者也 綠如荷包 飲從此入 漚從此出 今之海粉 卽所漚也 如黑魚形 大三四寸 冬養之家 春種之海邊田內 插竹枝田中 其母上竹枝吐出 此眞海粉也 謝肇淛五雜俎 海粉² 乃蠶繭之屬腹中腸胃也 以巨石壓其背 則從口中吐粉 吐盡而斃 名曰海粉 持齋者常誤食云 其持齋誤食 未可詳知 中原則以海粉爲可食之物 而齋日以爲素饌也歟 假海粉製法 見於藥性 故亦爲辨之 紫海粉一斤 火假通紅 置便淨二三次 爲末 黃瓜蔓同爛搗千百杵 作餅子 麻繩穿貫 懸當風吹乾聽用

1 『海粉母者』부터 『其母上竹枝吐出』까지는 方以智撰, 《物理小識》卷11(海粉母)에 보인다.

2 『海粉』부터 『持齋者常誤食』까지는 謝肇淛撰, 《五雜俎》卷9에 보인다.

蟹乞救命辨證說

凡物甚微 亦有性情 好生惡死 恩讎報復之理 與人無異 他物姑未暇及 至於蟹事甚靈異 故強爲辨證 蟹 字書 外骨內肉 介蟲 旁行 八跪 二放 一名郭索無腸公子 吳陳琰臈園雜誌 銅城左園林¹ 有友方某過訪 烹蟹十二觶之 前一夕 左友胡與立夢十二人 向胡求救曰 我本甲冑士 馳名秋水鄉 哀鳴來乞命 急救十工堂 且各道姓名 內一人則胡舊相識 亦與左交者也 胡驚寤 次日過左言及 左驚曰 甲冑者 蟹也 十工者 左也 十二者 數相合也 中一人 亦我知識也 子不早告我 悔何及矣 左由是戒蟹及鱸蟹 向人勸戒之 善人戒殺 爲十分方便事 然脫非僧道 則不肉食亦難矣

1 『銅城左園林』부터 『向人勸戒之』까지는 吳陳琰撰, 《臈園雜誌》卷下(烹蟹現夢)에 보인다.

海鏡水母辨證說

海鏡以蟹爲腹 水母以蝦爲目 人多不曉爲何語 此詳載李東璧時珍之本草綱目中【李時珍曰 海鏡¹一名鏡魚 一名瓊 一名膏藥蟹 生南海 兩片²相合成形 殼圓如鏡 中甚瑩滑 映日光如雲母 內有少肉如蚌胎 腹有寄居蟲 大如蠶³ 狀如蟹 愚按越絕書作紅蟹子 如豆 蟹足皆具 海鏡飢則出食 人則鏡亦飽矣 郭璞賦云 瓊腹蟹 水母目蝦即此 愚按越絕書 或迫之以火 則蟹子走出 離腹⁴立斃 或生剖之 有蟹子活在腹中 逡巡亦斃 今我東有名大蛤 大不盈數寸 剖之 腹內或有小蟹 大如菽 色紅白 蠢動無力少頃 則食之 味甘無腥 俗云 可已滯症云 考諸本草蚌蛤注無焉 海鏡下有之 東璧以瓊爲海鏡之一名 然按前漢地理志鮑崎亭注 師古曰 結 音結 蚌也 長一寸 廣二分 有一小蟹在其腹中 然則瓊之 似是結 而瓊當爲小蛤名 何以爲海鏡之別稱歟 水母

者 亦出海中 迂渾凝然而絕無眼 常以數蝦寄蹲腹下 代爲眼 蝦行而行 蝦止而止 一日波盪 蝦離而水母 竟墮死泥沙 本草綱目又有寄居⁵蟲注 寄居蟲在螺殼間 海族多被其寄 是世間所有之物 非如墨子列子之寓言蝶蝶者也 墨子春秋 東海有蟲 巢於蚊睫 再乳再飛 而蚊不覺 臣嬰不知其名 東海漁者名之曰焦冥 列子曰 江海之間生塵蠱 其名曰焦螟 群飛而巢於蚊之睫 非相關也 樓宿去來 蚊不覺也】假如使海鏡之於蟹 拓其飢飽 則反致共命之死【佛書雜寶藏經云⁶ 雪山中有共命鳥 一身二頭 一頭常食美果 欲使身得安穩 一頭便生嫉妬之心 而作是言 彼常云 何食好美果 我不曾得 即取毒果食之 便二頭俱死 注亦曰命命鳥 又曰生生鳥】使水母之於目蝦 燻其遲疾 則立見狼狽之患【西陽雜俎 狼狽⁷ 是兩物 狽前足絕短 每行駕兩狼 失狼則不能動 故世言事能者謂狼狽】是故陳眉公繼儒評海鏡水母曰 彼其所以爲蟹者 以所假在外不在內故也 彼其所以爲蹲者 以所假在物不在己故也 愚亦以爲人之笑海鏡之蟹腹 水母之蝦行者 亦不知自家借明瑩濁以爲眼 借步牛馬以爲脚 借飽魚肉以爲腹 如令海鏡水母見此 則反爲其所笑者矣

1 海鏡'부터 '水母目蝦即此'까지는《本草綱目》卷46《海月》에 보인다.

2 '片'은《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 '蠶'는 '定'으로 되어 있었는데《本草綱目》에 근거하여 고쳤다.

4 '腹'은 '腹'으로 되어 있었는데,《殊源辨證說》을 참고하여 '腹' 한 자를 삭제하였다.

5 '居'는《殊源辨證說》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6 '雜寶藏經云'부터 '便二頭俱死'까지는 寺島良安 撰,《和漢三才圖會》卷44《命命鳥》에 보인다.

7 '狼狽'부터 '故世言事能者謂狼狽'까지는 李時 撰,《太平廣記》卷442《狼狽》에 보인다.

刺姑辨證說

按寧古塔志【楸城方拱乾蘇麻著】刺姑¹身如蝦 兩螯如蟹 大可盈寸 搗之成膏 至今宗廟必需之 屆期驛馳而進御矣 此是我東所稱加牙才 本草所記石蟹旁蟹 同文譯語兩類解四聲通解等書 俱稱石蟹刺古 倒蟲哈什馬 粒訓加才 而其命名各有妙義 客中閑集 仄行蟹屬 漢高格物 蟹 海族 行必東首 石蟹雖非海族 行必先東而反倒 則亦蟹之類 似海螺之屬 更有田螺水蠃者也 本草綱目繫於蟹類 明是蟹之一種也 山中溪澗砂石下甚多 捕而煮食或炙啜 只爲樵童牧豎所拾食 長者不屑之 習俗然也 清國爲宗廟所享 則清之祖宗在靈古塔滿洲時 捕以爲饌 故今雖入主中國 奄有四海 以天下承奉祀事 而猶不忘歌粟之積 充於豆實 如古之蚺醢之類 而方氏有記也 或曰 此物卽螭蟻所化 何堪食耶云爾 則如蛇化爲雉爲蟹 螻蛄爲蚌 松蚌爲魚 蝗蝻爲蝦 鼠化爲蟹 蝦蟆化爲鴉 雞化爲蟒 雉化爲蛇 海帶化爲水蛭 桔梗化爲瘡 凡物多有互化之理 思其本源 則何必刺姑也 然則廢食而後已 古

人有煮賣食螭蟻之類矣【宋羅大經鶴林玉露 市瑣寶燕石 煮賣食螭蟻 識者少也】然今人食石蟹 必無食螭蟻之誤矣【或言取石蟹生者 爛搗 裹以舊葉 埋濕地中 則化爲水蛭 信然否未可知也】按醫方 則石蟹亦多藥用 而但多食生泄【想其性味 則與蟹同焉 蟹毒用紫蘇葉 煎服 昔宋孝宗食蟹過多患痢 有嚴訪藥者 取新穢散新穢節細研 熱酒調服 神效 蓋爲冷痢也 石蟹毒亦參用此方 似好也】金相公【增】潘谷筆譚 螭被石蟹咬則死² 故人被蛇咬 碎石蟹塗之卽差 此是異聞也 古今格物博識者 凡物靡遺毫末 莫不細紀 至於蟹與石蟹 腹中有小白珠如骨 正圓二瓣 合成一顆 離作兩瓣 凡魚族之卵 懷在腹內 而蟹卵則黃黑如細粟粒 蔕聚於蟹之尾內 以尾掩之 石蟹則卵如黍顆大 色黃褐 蔕附於尾內掩之 見其孕卵 則可知其異種同類也 腹中無腸有黃 又與蟹同 淹於醬醃 則宜與蟹醃同 而人無爲之者 蟹與蟹珠者 必有藥用處 而古無所記 甚可恨也 今因刺姑之說 兼以去蟹焉 李氏星湖僊說 浦海多蟹³ 余所見者有十種 與呂元十二種及蟹譜本草圖經字義等書校勘 或物形隨地有別 或察識有得失也 螭蟹者 入菓味佳 二蟹八脆 處處皆有 螭蟹者 陶隱居⁴ 恐是海中大蟹 色赤 匡有角刺 卽俗名巖子者也 撥棹子者 後足闊薄如棹 蕩水浮行 俗名串蟹 以匡有兩角如串也 竭朴者 大於蟹螯 殼黑斑有文章 蟹正赤 常以大蟹障日 小蟹取食 恐是俗名龍蟹也 以其匡橋似籠也 蝨者兩螯俱小耳 蟹蟬者 亦名彭越 今俗名彭蟹也 沙狗者 似彭蟬 壤沙爲穴 見

1. 刺姑부터 '屆期驛馳而進御矣'까지는 方拱乾撰,《寧古塔志》(楸城)에 보인다.

2. '螭被石蟹咬則死'부터 '碎石蟹塗之卽差'까지는 金相撰,《潘谷筆譚》에 보인다.

3. '浦海多蟹'부터 '皆不盡'까지는 李震撰,《星湖僊說》卷4〈蟹〉에 보인다.

4. '陶隱居蟹類圖說之說'라는 陶隱居蟹類圖說之說'로 되어 있었는데,《星湖僊說》에 근거하여 고쳤다.

人則屈折易道 今有俗稱葛蟹者 匡扁而長 有毛而屈折易道 難獲 恐是此物也 荷蟹者 大如蟹 常東西顧 擊兩蟹 以足起蟹 今有俗名黃通者 正是此物 而端午之夜 必懸掛海草上 土人觀之戲秋千 明火取之無數 但比蟹稍差大耳 盧虎者 似蟹 蟹正赤⁹ 不可食 今有俗名賊蟹者 匡有小斑文 蟹蟻者 大於蟬 小於常蟹 同彭越而差大有毛 耕穴田畝中 卽蔡道明誤食幾死者此也 俗名馬通蟹 有毒 又有俗名栗蟹者 如蟹 匡扁有毛 蟹足尖短微赤 不見於呂亢十二種內 彼所謂蘇劍望潮石翻蜂江之類 訪之漁戶 皆不識¹⁰ 此李氏記蟹者也 傅林蟹 蟹¹¹ 輪眼蟹足 蝦腦蟹腹 其介類拳丁 其蟹類執絨 生于濟州者 色紺紫 產于江南者 其色青白 其狀蟹如畫 後人難及 余嘗從古書得若干種 又從野客傳說得數種 南懷仁坤輿外紀 有介屬之魚¹² 僅尺許有殼 六足足有皮 故他徒 則蟹半殼當舟 張足皮當帆 乘風而行 名曰船魚云 此亦蟹屬 可名船蟹 有蟹大踰丈許 其蟹藉人首 人首立斷 籍人狀 人狀立斷 其殼置地如矮屋 可容人臥 本草綱目 蟹狀¹³ 如惠文冠及熨斗之形 廣尺餘 其甲變滑 青黑色 蟹背骨眼 眼在背上 口在腹下 頭如¹⁴ 蚌蛤 十二足 似蟹 在腹兩旁 足¹⁵ 長五六尺 尾長一二尺 有三稜如棧莖 背上有骨如角 高七八寸 如石珊瑚狀 每過海 相負示背

9 '赤'은 '紅'으로 되어 있었는데 《樂謙傳說》에 근거하여 고쳤다.

10 '識'은 《崑崙傳說》에 '食'으로 되어 있다.

11 '蟹'부터 '其色青白'까지는 康綱之撰, 《神編》卷77에 실린 楊慎의 《丹鉛錄語文》에 보인다.

12 '介屬之魚'부터 '可容人臥'까지는 南懷仁撰, 《坤輿外紀》(海鏡)에 보인다.

13 '蟹'는 《坤輿外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4 '蟹狀'부터 '食之害人'까지는 李時珍撰, 《本草綱目》卷45 《蟹魚》에 보인다.

15 '如'는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6 '足'은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乘風而遊 俗呼蟹帆 亦曰蟹牌 其血碧色 腹有子如黍粟米 可爲醴醬 尾有珠如粟 其行也雌常負雄 失其雄則雌卽不動 漁人取之 必得其雙 雄小雌大 置之水中 雌浮雄沈 故閩人婚禮用之 其藏伏沙上 亦自飛躍 皮殼甚堅 可爲冠 亦屈爲杓 入香中能發香氣 尾可爲小如意 脂燒之可集鼠 其性畏蚊 蟹之卽死 又畏隙光 射之亦死 而日中暴之 往往無恙也 南人以其肉作酢蟹 小者名鬼蟹 食之害人 和漢三才圖會 武文蟹島村蟹 元弘之亂¹³ 秦武文死于攝州兵庫海 故兵庫及攝州明石浦¹⁴之鬼蟹 俗呼曰武文蟹 其大近尺 而蟹赤色有白紋 享祿四年 細川高國與三好戰于攝陽 細川家臣島村何某挾敵二人 沒死尼崎水中 尼崎浦之小鬼蟹 俗呼曰島村蟹 其大一二寸 圓而腹文如鬼面云 按我東海蟹有串蟹 大可盈尺 匡紋如鬼面 匡之兩背 有角如戟 小蟹名秦武文者 小不盈分 匡上亦有鬼面 眉目口鼻有若慈寧狀 兩旁有小角如針 而串蟹與圖會圖相較 則圖會之鬼蟹脚 左右各四 而大小相間 大脚四小脚四 二蟹甚小 且腹文如鬼面云 而我之串蟹秦武文則匡背有鬼面 腹背相連 俗呼秦武文 乃古將戰沒海中 化爲秦武文蟹云 我東大蛤中 有小蟹如蟹 匡蟹具備 色淡紅 蠕蠕活動 此亦蟹之一種 寄居蛤腹 有似本草所載海鏡 海濱有之 其腹空洞無藏 惟藏蟹子 小如黃豆 而蟹足具¹⁵ 海鏡飢則蟹出捨食 蟹飽海鏡亦飽 或迫之火 蟹出離腹 而海鏡立斃云 今人何見此而不知怪焉 物理書及稗說 始謂變成蟹 又野鼠化爲蟹 故焚蟹聚鼠 物類相感也 西陽雜俎 蟹腹

13 '元弘之亂'부터 '圓而腹文如鬼面'까지는 寺島良安撰, 《和漢三才圖會》卷46 《鬼蟹》에 보인다.

14 '浦'는 《和漢三才圖會》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 '而蟹足具'는 '而蟹其足'으로 되어 있었는데 《海鏡水母新證》을 참고하여 고쳤다.

下有毛 殺人 物理書 蟹怕霧 霧塌而蟹蟹枯 蟹無腸 得漆則殺 得無名異則殺腥氣 見燈火則沙 得鉛粉則不沙 生蟹黃灌蜜則沸 極毒殺人 海中大蟹 殼與瓦煎膠 則粘物甚固 此不可不知者也 燒蟹甲蟹蓋 聚鼠 關東欽州侍中臺下 有蟹名侍蟹 形比陸產稍小 距蟹足亦小 而匣中蟹蟹黃液 則四時常存 味更絕美於他蟹 故每饌京 貴爲海東蟹品之第一云 今溪水間有一種長腳小蟹 名四足支揭 但有殼無漿 故不食 又有名栗蟹 或呼螃蟹 匡尖者雄 尖圓 小如拇指頭 惟食雌者云 唐陸龜蒙有蟹志 傳脈蟹譜 清褚稼軒人獲有續蟹譜 皇明遺民三儂賈人汪介【字介民】有蟹春秋【一卷】可考者也

河豚辨證說

河豚有江海二種 而其名稱甚多 曰鮪【四聲通解 音豚 俗呼鮪鮪 本作河豚 方言 復 又曰勿家治 卽江豚也】曰鮪【四聲通解 音河 方言 復也】正字通 一名鮪鮪 亦曰鮪鮪 又名鮪魚 又曰鮪【河豚 音移 河豚別名 博雅¹ 鮪鮪 鮪也】曰鮪【音鮪 江鮪別名 別作鮪】曰鮪【音忌 海豚也】又作鮪 和漢三才圖會 海豚 眼細狹 二豚俱有大毒 種種殺人 而其卵尤毒 食之立死

藝苑雜錄 論河豚有毒 子不可食 其大糞一粟 浸之經宿如彈丸 按其卵雖狗彘不食 鷄或掠去 亦不食而棄

河豚有毒有珍味 故古人比之西子乳 然無異鴆毒 備於口腹之累 竟至委命 其味可不哀哉 和漢圖會 河豚² 大骨兩邊有赤血肉 又腹胃後旁大骨 有如蝴蝶形者 青白色 投水如動 此物有大毒殺人云 我壬考

1 『博雅』는 『博別名魚經』로 되어 있었는데, 文義에 따라 『別名魚』를 삭제하였다.

2 『河豚』부터 『此物有大毒殺人』까지는 寺島良安 撰, 《和漢三才圖會》 권51 《河豚》에 보인다.

耳目口心書 或曰³河豚本無毒 而有蠱眉眼如蠶 或附於口及尾間 不易覺 能殺人 又卵最毒 去此二者而食甚味

按先君筆畫館公會爲關東安峽縣 時有疽患求鱈魚 庖人納一鯉 其大過三尺餘 以甚鉅將還給 而鯉已斃矣 將烹之 截作數段 沈水洗淨 其斷頭 兩頰自動如輪水音然 家人環視怪之 撈出審視 則其兩頰內肉骨邊 有似骨非骨之物如大豈者 自鯉內骨連接 又非贅肉 蠕蠕蠢動 而兩鯉因此自動 莫知其故 出給使棄勿食 或言魚之食人肌者 贅生鯉內 蠢動如生云 然此無稽之說也 後考和漢圖會 則河豚之有蝴蝶形云云者 始覺鯉鯉所附物 亦此類也

或傳河豚本蠶絲所化 故其狀亦相類 物理書 河豚愛五色糝 人因而取之 我王考耳目口心書 蠶絲化爲豚

按鮪 其頭眼腹背 極肖蠶絲 且網取入肆 置除板上 已經時日不死 腹悉膨脹 凸睛切齒 其性之毒可知 藝苑雜錄 論漁者取河豚法 河豚盛氣善怒 每伏水底 必殺網于上 故以物就而觸之 彼將奮怒而上 遂爲所獲

作湯時 忌廚竈上塵煤【俗名天煤】如誤入則殺人 凡治此物 去其血 無一點血氣 沈香油中煎出 作蒸籠之屬 始無毒云 如予者有先祖遺戒 何敢近口耶 我高祖考江界公遺戒子孫勿食

按醫治河豚毒 藝苑雜錄 論凡人中河豚毒 以水調炒槐花末及龍腦 皆可解 大穢水爲良劑 羅仙壽域神方 用東壁土湯泡澄清冷飲 嚼橄欖三五枚解之 武備志 五倍子白礬等分爲末 水調服 又青黛水調下

又生薑煑湯汁服

江豚骨與油 入火藥中 逆風不回

物理小識 逆風火藥 江豚入火藥 逆風不回 神機火法引心略 逆風火藥 入江豚骨江豚油 風逆愈勁云

鮪刺神木根即死 灌以狗膽復活

雷公炮灸論及因⁴樹屋書影 以爲一切木根中 挿鮪魚刺則即死 灌以狗膽則復活云

此博學格物之士所宜知也 嘗聞湖西之庇仁縣海濱 有都豆音浦 曲海中有黑魚如豚者 成隊浮游 宛如豕群 土名畿廣伊 獵取煎之 渾身是油 可以燃燈云 此與海豚又異者也

3 '或曰'부터 '去此二者而食甚味'까지는 李德懋 撰,《南莊館全書》卷51 《耳目口心書 四》에 보인다.

4 '因'은 文義에 따라 보충하였다.

蝮蛇相思蛇辨證說

物理書 凡異物相交者生異物《莊子》注 言類自爲牝牡 猶藏經之半
婁也《風俗通》養馬胡首頭 交馬以生子《唐書》乾符二年 河北馬生
人《漢書》靈帝時京師馬生人《京房易傳》天子諸侯相伐 厥妖馬生
人《芝峯類說》開元年建兵與牝驢交合 昔盤瓠之齋爲蠻 白狼之產
爲突厥 蒼鹿之生爲蒙古 蓋異物相交而生者 楊升菴云 葛祥與雌猿
交 飛蛾蠅蟲無不交 或入木而枯 然聞雷而後乃出《外紀》利木亞國
百獸所聚 異類輒產奇形異狀之獸矣 鯢魚爲衆魚所淫 鴉鳥爲群鳥
所淫 雉與雞交 孔雀與蛇交 龜鼈與蛇交 蛇與雉交 蚯蚓與蟲蟲交 牛
馬騾驢互相風琴 獸性最淫 與牛交生麟 與豕交生象 與馬交生龍 而
又與人交 不擇老少男女也 物之與女相交 狐狌之成精者 犬與山獺
蚯蚓【彭乘《墨客揮犀》蚯蚓與人斯交 東史 百濟甄萱父母在加恩縣
農家 其母嘗夢 有紫衣錦帶人 來合有娠 夢中竊識其處 自瓦石間出

1 「風俗通」부터 「狐妖馬生人」까지와 「開元年建兵與牝驢交合」부터 「蒼鹿之生爲蒙古」까
지는 李時珍 撰, 《芝峯類說》 권1 《災祥》에 보인다.

來 覺後遍索其處 其家西方有磊磧 瓦礫相雜 試揭瓦片 有大紅色紫
帶白 後生黃 本李姓 而幼瑞在其家西土瓦礫間 故改姓甄 卽西土瓦
之成字也 蓋 蚯蚓之子也】 鬼物五通【李時珍曰 今俗所稱獨脚鬼 能
隱形入人家淫亂 呼爲五通 蒲松齡《聊齋志異》南有五通 北有狐 江
浙五通 民家有美婦輒淫之 爲害尤烈 本形如黑如豕 變作美男子 我
東則趨趨 稱獨脚鬼 或淫女人 成鬼胎者 種種有聞】 又有蛇焉 中原
則蝮蛇淫女【《大明一統志》安南國有蝮蛇 長十餘丈 大七八圍 吞鹿
豕 而食之甚肥腴 以爲珍饈 卽蝮蛇也《五雜俎》嶺南人食蝮蛇爲美
《本草綱目》蝮蛇膽隨擊而獲《物理小識》蝮蛇 隨月博 上旬近頭 中
旬近心 下旬近尾 入藥《物理小識》蝮蛇牙 長六七寸 辟不詳 一枚
直牛數頭 劉悔曰 昔安州有養蝮戶 常以木柙鑿視之 取膽而釋 蛇去
蛇不死《本草綱目》李時珍引蘇恭解曰 蝮膽試法² 剔取粟許 著淨水
中 浮游水上 回旋行走者爲眞 其徑沈者 猪³膽血也 勿多著 亦沈散
也 蝮 字書 大蛇 可食【《嶺南雜記》蝮蛇最淫⁴ 山中見婦女 卽追逐
之 蟠繞其身 與之交媾 以舌入婦女口中 人家逐之 其去甚疾 婦女扶
歸 以雄黃姜湯灌之 服驅毒之藥 以熱水揉腹 盡出蛇精 始無患 不治
月久 產小蛇矣 又蝮蛇逐人 急投以婦人褲衣襦 則便止也 女國則
以蛇爲夫【唐張說《梁四公記》扶桑西北有女國 以蛇爲夫 勃律山之
西女⁵國百里 山出台胞之水 女浴之有孕 舉國無男 竝以蛇爲夫也】
我東則無蝮蛇 而或有相思蛇之稱 此蛇非常有之種 俗傳以色冤結成

2 「試法」부터 「亦沈散也」까지는 李時珍 撰, 《本草綱目》 권45 《蝮蛇》에 보인다.

3 猪는 「豕」로 되어 있는데, 《本草綱目》에 근거하여 고쳤다.

4 「蝮蛇最淫」부터 「產小蛇矣」까지는 吳震方 撰, 《嶺南雜記》 권下에 보인다.

5 女는 「女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충하였다.

云 按申相國象村【欽】《耳目所及》朴宰相權之妻金氏被惑於其奴之髒者 死而爲蟒 金氏與同寢席 權因此得狂 數年遂死【世傳古談有一宰家方營室 使僧釘鸚吻 僧窺視宰家婦人之美色 淫欲陡起 精神昏蕩 不覺自墜于地 旋自鼻孔出一蛇蟒 直走如矢 向婦人入褲下相合 晝夜不離 百計欲離 竟不得離云者 卽此事也】東方自古傳說有相思蛇 如見美女 則直入褲中 必合下體 永不離身 蓋淫男生時 寄情所惑未遂而死 則化爲此蛇 必淫其女 以業冤所鍾 雖欲離之 水火刀兵 莫能傷焉 女死始離而無影 故或昇附蛇之女 置海上懸崖 使僧 巫大作經呪以禳之 蛇或離身化去 而若無驗 則仍椎之海中 以爲滅跡 或言關東淮陽府金剛山楡岾寺後峯 名馬頭峯 其下有相思蛇 見女子則附體不可脫 互相流傳云 又曰 耽羅海中有相思樹 此樹如茂而苗長出水 則相思蛇變多出云 是誰見而傳道之也【近者 嶺人沈實龜嘗從海西 聞平山溫井 有浴女附此蛇者來浴 蛇以頭向女顧下 以尾向女兩時間 以陰合女私處 時作唧唧聲 女欲大便小遺及沐浴 向蛇告由 則暫離 事已還附云 余遊六龜時 從慶源男女所傳 則曾有一勾女子附相思蛇 家不容焉 輾轉流勾云 蛇頭在女左肩上如拳大 其女美容嬌灼可愛 少無辛苦之色 愁歎之意 慶人呼之以蟒閨氏云 閨氏者 東俗女子之稱】或曰 此蛇於他人以蛇蟠見 於附女以美男見 故年少女子遭此驚怪 無嚇死之變 而忍過如常 不卽捨生自處者 美在其中云 此外蛇之淫人者 《述異記》畜蠱家蛇蠱 蠱妻女必淫之 蛇之交人者 非徒相思也 然則非其類而相交者甚多 是何理也 《易》之同氣相求 同聲相應 火就燥 水流濕 各從其類之訓 卽道其常 不及其變者也 苟論其變 則何所不有哉

蛇血開翳辨證說

前見有人以翳膜外障 兩目失明 納蛇膽無效 今聞清風府神堂里蘆灘人言 湖南有白癡子 忽覺醫理 以蛇血開翳云 故錄其實 以爲辨證【蘆灘人傳京城尙衛崔上舍漢綺祖山守家人 住青嵐復斗巖 崔姓氓 適往尙衛崔上舍家 上舍爲傳此方曰 湖南有人 一自落地 至于弱冠 癡瘖無語 一日忽有語而甚罕 能通醫術 人若有問 對症投劑 其效如神 其門如市 有以翳膜來叩者 教以捕菜目蛇 係項懸以答 答之自項下至尾上 微上微下 竟日不息 則一身血氣 流下尾端 而其尾上 以繩繫紮 割取陰乾 乾後剝見 則血縷點點聚乾 括取其血 細末入翳膜 則卽爲開明 其效甚驗云 爾等留意不忘 崔氓心識來傳矣 崔上舍簡精篤實 非斯世俗人也 切宜信之可也 京鄉落落 未得一聞 可恨可鬱 蓋丁蛇取血 專爲血性怒而疾動迅走 其所觸激 括鑽乃已之義 翳膜雖盤根錯節 豈能當其鋒銳哉 想其動性 比納膽尤得幾倍 故其效捷矣 凡係於蛇者 如蛇角爲骨蕪屨 極毒而善解毒 毒蛇腦中有石 名曰吸毒石 善吸癰疽毒 藍蛇有大毒 尾却解毒 蝮蛇含土 春化爲石 名蛇含石 或名蛇黃 多入藥用《物理小識》蚌蛇 牙長六七寸 辟不祥 一枚直

牛數頭 物理書 蛇甚飽則蛇 蛇脫一名蛇退《本草》多入藥餌 爲眼科要藥 裹瘡愈香 術書 蛇退呼作蘭衣 納衣鎮 令人益媚 見者無不喜悅 傾歡款接 且我鄉俚拾毒蛇尾 有鮚如芒 探出留藏 如值毒瘡 以此微割其上 則卽消神效 其擲其肉其酒 動稱神奇有效 此略記其大概也 愚意則其血雄者 似勝其雌 蛇之雌雄 亦難辨矣 按《和漢三才圖會》蛇雌雄無識 可略打其尾動搖者雄 此說出於《雜寶藏經》 嘗見《委巷雜抄》小蛇子一條 打死取血 用燈心數條染之 候乾將點燈火 其蛇自見燈上 如二條蛇相絞 則用二條蛇血染燈心 又作一處點火 每用將一莖 含燒其一條 蛇影自然相絞云 大抵蛇血 未聞《本草》不知其性味主治 然余素聞見如是 故竝及之 而以爲取雄血者 欲得動勢之尤有力耳 蛇血之外 又有開瞽之神藥《物理小識·蝦蟇黃》余岸小養蜘蛛¹ 以小者飼大者 久之以朱砂飼大蜘蛛 數十日 滿身皆赤 其腹有黃 可以去翳開瞽 愚又聞人之所傳 老桑及枯桑中 有蠶年久生翅者 可治翳膜瞽盲如神 亦可試者也】

1. 「余岸小養蜘蛛」부터 「可以去翳開瞽」까지는 方以智 撰,《物理小識》卷5《蝦蟇黃》에 보인다.

海狗辨證說

凡海中所生之物 類多陸產之獸畜 有牛魚海馬海驢海豬海狗海豚海貓海獺 見於諸書 然中原人所記者 每多虛文 誕妄不可盡信 惟日本人與遠西番所錄 詳備其實 了無差爽 予於海狗一款 始覺華人所言 不如倭人記載也 本草綱目一書 號稱名物金石之典 然亦爲古書所掩 此謬居半 雖有東羅之証誤 猶襲舊謬者 未見真蹟 而以意揣度 不免譁味臆恬成書者也 故方宓山以智有言曰 自唐以來¹ 天子力收天下圖書 令名醫史官編之 宜²乎詳備 然萬曆中李瀛湖 本其父言聞之學 輒改正其十五六 而後此又有繆仲淳之簡李士村之據 甚矣 物理差別之難窮也【宓山又論粳米全甘 而只言其苦 山查甘酸 而或未之載 牽牛嚼之 辛烈泄氣 而止言其苦寒 粉霜再經火假 而謂之無毒 牡荊之見鬼 蘘荷之呼名 其果然乎 動稱延年輕身 殆贊稱之耳】 宓山之論 果然矣 海狗 本草雖見 不詳其形 但稱醜醜【醜醜者 海狗

1. 「自唐以來」부터 「物理差別之難窮也」까지와 「粳米全甘」부터 「醜醜稱之耳」까지는 方以智 撰,《物理小識》(總論)에 보인다.
2. 「宜」는《物理小識》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之別稱也】清三通以爲出東海及寧古塔 土人跳水取之 和漢三才圖會 蝦夷 在日本東北海中 其地南北長 北隣肅慎 其土產臘納臍【鹿皮雉皮獾虎皮熬海鼠者 卽海鼈也 昆布 卽海藻 如海帶之類也】嘗聞北關六鎮孔州人所傳 則海狗雖狗名 卽魚之類 非如陸狗也 渾身圓如魚鱗 其所謂前後足 非足乃鰭也 甚短 前鰭狹 後鰭廣 故善游海澗 但無鱗而生毛 連黑雄黃【其皮 俗稱水牛皮 不濡水】正二月白水出陸始交 其在陸時 蠻人徒手逐之 以簞代足 故不能疾走 以大槌【俗稱木杖】搏擊擒之 腎名臘納臍 臘納臍之功用 非但治腎痿 更治腰痛【腰痛取臍臍作末 和米飲服下 神效 其血與膽 治胸痛產後胸腹痛 和水服 有奇效 一次所服 血與膽取少許 和一二七水】予猶未信焉 聞和漢圖會則其狀稍有重合者 始許孔州人之不謬也 圖會云 臘納臍³ 莫州松前【按蝦夷⁴ 在日本東北海中 其地南北長 北隣肅慎 山多險阻 其南海浦 名松前 卽松前志摩守城居也 自松前至陸奥州 津輕 海上十五里 自松前至曾宇夜 三百八十里 曾宇夜者 其北界也 自曾宇夜至加良才止 四十三里 加良才止 島名 卽肅慎之所屬也 倭所稱一里 準中華十里也 其加良才止島 卽我北道海相接處】海中有之 大者二三尺 全體類魚有毛 頭似貓而口尖 無耳朵只有小孔 其齒上一行 下二行 其尾岐 如金魚尾而黑色 兩脅有鱗無足 外腎 長四五寸 大如小指云 與我東北人所傳適相合 復信圖會所載亦不謬也 大抵海狗我東則產於東北海上【嶺南則產於寧海等沿海邑 關東則產於平海蔚珍三陟等沿海邑 北關則產於六鎮沿海慶源廣興穩城鏡城

等海澗 謹按我王考豈樞散書 臘納臍 海狗也 我東寧海平海等處有之 皆杜也 是以爲賜藥 每年作隊 沿海南下 至于南海縣 迎其牝 羣尾而去 生牝則留其地 生牡而長 則必移居東界海矣】日本則產於奧州松前 蝦夷則產於本土海中 日本松前接蝦夷 蝦夷接肅慎地方黑龍江 寧古塔接黑龍江及我北路六鎮等地 一海相連 故寧古塔亦產焉 寧古塔 卽肅慎氏舊城也【臘納臍 多贗作 或以獾腎狗腎偽造 其真者 細如筋頭 透明 如黃琉璃片 紫點隱隱 長僅三四寸 欲辨真贗 按本草 臘納臍⁵ 連而取之 其臍紅紫色 其皮上自有肉黃色 毛三莖其一穴者 爲真 取置睡犬傍 其犬忽驚跳若狂者爲真 又於臘月 當風處置 霑水 浸之 不凍者爲真 俗言 臥置赤小豆中 使女跨越其上 則臍臍自起挺立者爲真云 以常狗莖偽造云 而常狗莖中有骨 節節相連 去骨取乾 則其色不透明 又無紫點矣 何以贗造欺 人也臘臍 臍雖真品 若於方欲羣尾時 獲得割乾可用 取其未泄精也 若交後獲收 則精已泄矣 故雖入藥料 無靈效云】南懷仁坤輿外紀 有狗魚不出其狀 然既稱狗魚 則其形似狗故名 無乃海狗也歟【坤輿外紀 海族有飛魚⁶ 僅尺許 能貼水面飛 有狗魚 善窺飛魚之影 伺有所聞 先至其所 開口待啖 恒追數十里 飛魚輒上舟 爲人得之 舟人以雉⁷羽或白練飄揚水面 善利釣 狗魚認爲飛魚 躍走吞之 爲舟人所獲】

3. 臘納臍'부터 '大如小指'까지는 閔注를 제외하고 寺島良安 撰, 《和漢三才圖會》卷34 《臘納臍》에 보인다.

4. '蝦夷'부터 '四十三里'까지는 《和漢三才圖會》卷64 《蝦夷高》에 보인다.

5. 臘納臍'부터 '不凍者爲真'까지는 李時珍 撰, 《本草綱目》卷51 《臘納臍》에 보인다.

6. '飛魚'부터 '爲舟人所獲'까지는 南懷仁 撰, 《坤輿外紀》《海族》에 보인다.

7. '雉'는 《坤輿外紀》에 '雉'로 되어 있다.

海蔘辨證說

元凌準餘龍日疏¹ 蛭蛸 似人首【按蛭蛸似人首者 似指今俗方言文魚也 按清一統志章巨² 八足首圓 正名曰蛭蛸 郭璞江賦蛭蛸生而垂翅 是也 海濱人詬曰章魚 一種 足似之而小 曰望潮 魁首聳足 目在腰股 曰石蛭 我東則以章巨名文魚 以望潮名骨龍 以石蛭名絡締 東醫寶鑑·魚部 以文魚作八梢魚 絡締作小八梢魚 薛壽類解作八帶魚 和漢三才圖會 章魚³ 章學海蛸子 大者多有一二丈者長足 若人及猿 誤對之 則足疔吮吸著皮膚 無不立殺也 章魚性嗜芋 入田圃掘食 宜以芋誘之 立行如浮屠 最難死 惟打兩眼中間則死 飢則食已足故 五足六足者亦有之 凡取章魚 以繩絆壺投水中 則久而章魚自入也 無大小 盡一籠 章魚一頭 我東以蓬杖打兩眼間捕之云】玄羅 似人足

1 『餘龍日疏』부터 『似今紅蛤』까지는 閔壯孫 著이라고 李德懋 撰, 《清莊館全書》 卷56 <海物百人一覽>에 보인다.

2 『章巨』부터 『曰石蛭』까지는 《大清一統志》 卷230 <章巨>에 보인다.

3 『章魚』부터 『五足六足者亦有之』까지는 寺島良安 撰, 《和漢三才圖會》 卷51 <章魚>에 보인다.

【似是大蛤肉舌 狀如人足者】 戚軍 似男陽 文囅 似女陰云 戚軍者 似今海蔘【一號海男子】 文囅 似今紅蛤【一號東海婦人 本草作蚶 一名淡菜 一作海蚌】 二物其狀不典 其曰海男子東海夫人者 名不虛得也 食物本草五雜組寧波府志和漢三才圖會閩小紀清三通等書 各有所記 俱是海蔘也【食物本草⁴ 海蔘 生東南海中 其形如蠶 色黑 身多竅 功擅補益 今北人有以驢馬之陰莖履爲 狀味雖略同 形帶微扁者 是也 五雜組 遼東海濱有之 一名海男子 其狀如男子勢 其性溫補 文選注云 土肉 正黑 長五寸 有腹無口目 有三十足 寧波府志 沙嘴塊然一物 如牛爲腸臟形 長可五六寸許 胖軟蠕動 觸之則縮小如桃栗 徐復據賬 土人以沙盆揉去其涎腥 和漢三才圖會 按海鼠 中原海中無之 見遼東日本 熬海鼠 未見生者 故所載諸書 皆熬海鼠也 文選之土肉 入本草綱目·怪類獸之下 惟寧波志所言詳矣 凡海鼠 性忌稻 蓋 如犯之則體解如泥 又圖鼠畏海鼠 以串海鼠柱椽于花園 鼠不入 蝦夷物產 亦熬海鼠充貨物 閩小紀 閩中海蔘⁵ 白色 與遼海所出異味 一醫語余云 人以腎爲海 此種生北海鹹水中 色又黑 以滋腎水 其類也 人蔘像人 海蔘尤象男子勢 故可以補腎稱蔘云 清三通 海膽 青生 刺如蛸 蛸蛸能運行 出南海云 此似指海蔘也 我東則東西南北海竝出焉 以北海所產爲第一 海西之長洲府沿海長山串海中 多生海蔘 李重煥擇里志 長山串海產黑蟲 蟲無骨 只一塊黑肉如瓜 而全身有肉刺者 中原人用以染黑緞 登萊人逐年乘船來捕 冒禁潛采而去 以其利重故也 北關六鎮邑會寧慶源兩府 與彼人開市時 以海蔘爲重貨

4 『食物本草』부터 『功擅補益』까지는 『五雜組』부터 『其性溫補』까지는 『寧波府志』부터 『惟寧波志所言詳矣』까지는 《和漢三才圖會》 卷51 <海鼠>에 보인다.

5 『閩中海蔘』부터 『海蔘尤象男子勢』까지는 周亮工 撰, 《閩小紀》 <海蔘>에 보인다.

故公私俱用此交易 而彼人取此爲糊錦蝦及補腎劑云 年年通市海蔘盡爲輸去 故爲海民痼弊】按海蔘 卽沙蔘 自投海中 化爲此物 復有其候 故海民習知其期 號爲海蔘信期【信期方言 卽薛里乃信期之稱 嘗聞關東海沿山崖 多生沙蔘 當其信期 每夜風高浪拍之時 自振自投于海 化爲海蔘 其在山崖者 或有已半化爲海蔘 故海人知之 而又能預候其期云】此更異於四明人種蚶者 物化之理 有不可測也【物理小識 江盈科⁶ 四明蚶田 土人磨蚶末 調糞桶藤成水灘田 一點爲一蚶 期至收之 如收穀云】附海菰鮫蛤 以辨海錯之異焉【海菰 一名海蠟 關東蔚珍平海三陟等海中 有一種異物 其狀如焦黑栗刺 殼大亦如之 浮在海上 漁人拾取剖之 其中有醬 黃黑如蟹 其味亦近焉 海人名之曰貴云 余強名曰海菰 蓋菰與蠟相似故也 和漢三才圖會 鮫蛤肉色白 微青者爲雄 微赤者爲雌 雌味優於雄云】

繼穀積穀蛤辨證說

關東江陵府有鏡浦臺 下有湖名鏡浦 異蛤產其中 古名積穀 今稱繼穀 積於水底 故人民撈採以代食 不可無辨

按東國山水錄及地志 江原道江陵府鏡浦臺 一小麓東向而峙 臺在其上 前有湖水 周圍三十里 水深不過人腹 可行小船 東有江門橋 橋外白沙堤重重互遮 湖水通海 而堤外碧海連天 謠傳此湖舊爲富民所居 有丐僧乞米 民以糞與之 所居忽爲陷湖 其所積穀 悉化爲細小蛤 味甘香 可以療飢 土人謂之積穀蛤 四時採之 湖底尙有瓦礫器皿之屬 云 湖南岸有故刊書沈彥光古居 湖南數里許有寒松亭 有石鼎白之屬 卽四仙遊賞處也 韓山後人李汝伯源玉嘗傳鏡浦清淺 水不沒脛 故村女亦入其中 俯首手拾湖底所生小蛤 大者如栗 小者如指 頂殼圓而黑 內則白 充仞沙底 其龐不億 頃刻撈出 手不暇給 以至數石 控殼取肉 味甘不腥 蛤水如泔 飲則堪美 蛤肉數椀 和米數合煮粥 一室治飽 故名曰繼穀蛤 可以救荒 四時常存 一碗蛤肉 直一文 可謂養生之奇物也 以其至賤 人不甚貴焉 又鏡浦鯉魚 爲一國之最者 以其味之謂也 嘗觀絕大者過數抱 長發布帛尺五六尺者 目如燈而黃 有兩鬚

404 6 江盈科曰 卽此 '知收穀' 卽此는 方以智撰《物理小識》卷11《蚶田》에 보인다.

硬直 爲漁網所驅而出 人以爲將化龍者 推而適入 竟放生而去 北關沿海邑海蛤 大如京肆所出大蛤 而外殼稍大 無細紋 蛤肉亦豐大 及煮爲膳 蛤舌宛如機樞 鮮紅若朱紅色可愛 味亦甘美醇淡 過於京肆大蛤 又可療飢充腹 然多食便泄 是可欠也 凡江海川澤 蚌蛤之種 不知其幾百種 然未有如此蛤之爲奇且多也 可以繼種 則長者碩穀所¹化云者 非訛傳歟

五萬銅三千足辨證說

海中諸錯中 有奇形怪狀者 有五萬銅 一作五萬動 按和漢三才圖會 小螺²子 一名相思子郎君子 狀類榮螺而極小 灰白色 有小擊如豆而匾 碧白色 名玉蓋 海人去殼取擊 入瓷器浸醋 卽盤旋不已 似相逐之貌 此是我東所謂五萬動 俗謂補腎之物 生北海中云 有三千足者 其狀如鹿角菜 俗呼青角 多岐條成足 不可名象 故號三千足 似魚非魚 似蟲非蟲 形極怪奇 食之 大補腎氣 生於南海 此二種 乃是罕見之物 且入藥甚稀 故藥料不列 而藥鋪不常貯蓄 或有僻材局 間或收藏云 余焉未見 故爲辨其名狀 以俟知者

1. '所'는 '所'로 되어 있었는데, 文義에 따라 '所' 한 자를 삭제하였다.

2. '小螺子'부터 '似相逐之貌'까지는 寺島良安 撰, 《和漢三才圖會》卷47 《郎君子》에 보인다.



ISBN 979-11-88805-20-4